

40th Anniversary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사

“척추건강을 선도한 여정”



대한척추외과학회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사

*40th Anniversary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발 간 사



김 태 군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친애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척추외과학회는 1984년 4월 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지 어언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선배들과 현재도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평의원, 자문위원, 학회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립 당시 회원 20명에 불과하던 학회는 이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걸맞게 학문적인 면에서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대한척추외과학회지 발간과 2007년에 시작된 *Asian Spine Journal*의 영문판 발간은 학회의 국제적인 평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SCI(E)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주최로 진행된 국제학회는 성공적으로 이뤄져, 학회의 글로벌한 명성을 증명했습니다.

그간 4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학회는 외국에 나가 배우던 시절에서 이제는 외국인 의학자들이 우리를 찾아와 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외국에서 우리 학문 업적을 발표하고 유수의 학회지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여 학회의 국제적인 평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독자적으



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운과 활동의 시점인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와 세계화를 향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곧 대한척추외과학회 40주년은 학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 유수의 학회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사 발간은 큰 의미를 가지며, 이 모든 성과에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40년간의 역사를 정리하느라 고생하신 이재철 위원장, 김호중 총무, 양재혁 편집 간사, 조재환 미래발전준비위 간사를 비롯하여 고종현, 권지원, 박재진, 박형렬, 안중현, 장삼열 선생님께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사』를 훌륭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先輩들이 겪어온 역사를 토대로 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한 한 해는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를 기대하며, 모든 회원들에게 더 큰 성취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김 태 균



축 사



이 명 철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과 학회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여, 역대 회장님들과 현 회장인 김태균 회장님,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40년간 학회의 노력과 헌신은 대한척추외과학회를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모범적인 분과 학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학회의 발전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토대가 되었으며, 학회지와 *Asian Spine Journal*의 성공적인 발간 및 *Asian Spine Journal*의 E-SCI 기탁은 국내 척추외과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1,000명이 넘는 회원을 자랑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중요한 학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회의 발전과 성장은 단순히 회원 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척추외과학 분야의 학문적, 임상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이며,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학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척추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물론, 국민들에게 척추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윤리를 확립하는 데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학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또 다른 4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대한정형외과학회는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앞으로의 성공과 발전을 기대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이 명 철



축 사



김 완 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4년 창립 이후 40년간 척추질환의 연구 및 치료 발전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왔습니다. 지난 40년간 의료계 안팎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회원수 1,000명이 넘었으며, 명실상부한 국제 학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회장님과 임원님들, 자문위원, 평의원 그리고 선배 척추외과 회원님들, 그리고 향후 학회를 이끌어 가실 후배 회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학회와 학문적 리더십으로 학회의 국제화를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회원과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인력대책 발표 등으로 의료현장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임 회장님들의 리더십과 회원님들의 적절한 대응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보았기에, 이번 사태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귀 학회는 꾸준한 학술 행사를 춘계, 추계로 연 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는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 1월에는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계속해오고 계십니다. Off-line 주최 국제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 학회로서 위상 정립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젊은 척추외과 의사 양성을 위한 국내, 국제 fellowship을 신설 지원하고, 또한 지방지회와 연구학회를 연계한 학회 개최를 통하여 국내 학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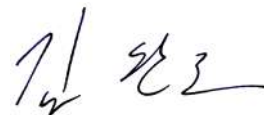


년에 대한척추외과학회지를 창간하여 현재 학술연구재단의 등재지로 매년 4회씩 발간하고, 학술활동의 국제화를 위해 2007년에 영문학회지인 *Asian Spine Journal*을 창간하였으며, 2013년 Pubmed, Scopus에 등재되어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sian Spine Journal*의 SCI(E)등재를 위한 노력, 대국민 홍보를 위한 유튜브 활동과 새롭게 시작한 Webinars 정착을 위하여 힘차게 활동 중입니다.

1,000명 이상의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들의 왕성한 임상 및 학술 활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고 발전을 거듭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회원들의 권익과 침묵향상을 위해 40년간 진심으로 노력해 오신 대한척추외과학회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김 완 호



축 사



Masaya Nakamura
President, Japanese Society
for Spin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Dear Esteemed Members of the Korean Spinal Surgery Society,

It is with profound respect and a deep sense of camaraderie that I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pinal Surgery Society. As President of the Japanese Society for Spin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I am honored to celebrate this remarkable milestone alongside you.

For over three decades, our societies have nurtured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that stands as a testament to our shared commitment to advancing the field of spinal surgery. Since the inception of our academic exchange agreement in 1995, we have embarked on a journey of mutual learning and growth, marked by significant milestones and enduring partnerships.

Our biennial joint academic conferences, initiated in 2000, have served as pivotal platforms for sharing knowledge and fostering professional relationships. These gatherings, from Seoul to Tokyo, Busan to Osaka, Jeju, Fukuoka, and looking ahead to Seoul once more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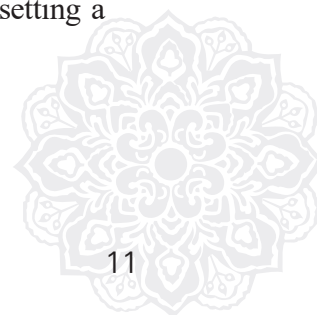


2024, have underscored our dedication to the exchange of groundbreaking research and clinical expertise.

Through regular sharing of academic resources, such as journal publications, newsletters, and online platforms, we have successfully facilitated a continuous dialogue between our communities. The invitation of past presidents and experts to deliver lectures has enriched our societies with invaluable insights, while our young researcher exchange program has paved the way for the next generation of spinal surgeons.

Our joint research and educational programs have addressed some of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in spine surgery, from the treatment of spinal disorders to the development of minimally invasive techniques. The initiation of joint research projects in 2005 and subsequent educational workshops have not only enhanced our understanding of spinal conditions but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treatment methodologies.

The positive outcomes of our collaboration are manifold. Together, we have contributed to the academic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our members, advanced the treatment of spinal conditions, and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for our patients. Our efforts have significantly impacted the progress of spinal surgery in Asia, setting a benchmark for excellence.





As we look to the future, our history of collaboration serves as a solid foundation for even more ambitious endeavors. We are committed to expanding our academic exchanges, furthering joint research, and continuing our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spine surgery techniques and training of specialists. Our role as leaders in the advancement of spinal surgery in Asia is a responsibility we proudly share.

In closing, I wish to reaffirm our unwavering support and enthusiasm for the continued partnership between our societies. Together, we will strive for new heights of excellence in the treatment of spinal disorders, ultimately leading to a brighter future for our patients and the field of spinal surgery at large.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is significant anniversary. May our friendship and collaboration continue to flourish in the years to 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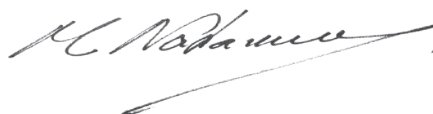
With utmost respect and best wishes,

April, 2024

Masaya Nakamura

President, Japanese Society for Spin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Professor & Chair,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ei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축 사



Wu, Wen-Tien, MD, PhD.
The President
of the Taiwan Spine Society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esteemed colleagues, and friends,

As the President of the Taiwan Spine Society, I, Wen-Tien Wu, am honored to extend our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auspicious occasion of your 40th anniversary. This milestone is a reflection of the years passed and a testament to the enduring bonds and shared achievements that have characterized our journey together.

Our collaborative voyage began in 1997, a pivotal year that marked the initiation of an academic exchange that has since blossomed into a rich and lasting partnership. Our early interactions, rooted in mutual respect and a shared dedication to excellence, laid the groundwork for a formal agreement in 2004. This agreement pledged to jointly forge new paths in the advancement of spine surgery.

Throughout these years, our societies have embarked on numerous endeavors together. Our joint academic conferences have emerged as crucial forums for disseminating research findings, fostering intellectual dialogue, and exploring innovative solutions to the dynamic challenges of spinal care. These bi-national events epitomize the 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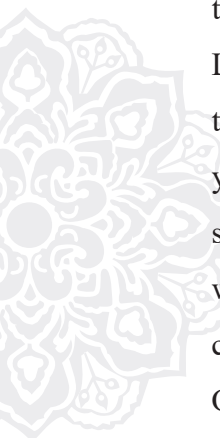


sence of collaboration and cross-cultural enrichment.

Moreover, our joint research initiatives have stood as pillars of progress, navigating the complexities of spinal disorders to uncover novel diagnostics and refine treatment modalities. The knowledge we have collectively generated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global spine surgery landscape.

A cornerstone of our partnership has been the emphasis on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spine surgeons. Our exchange programs have offered young professionals extraordinary opportunities to expand their expertise, broaden their worldviews, and establish international connections. These emerging talents are the custodians of future innovations that will undoubtedly advance patient care.

Our collaboration has transcended academic and research spheres, extending into public awareness initiatives about spinal health and bolstering the representation of Asian spine surgery on the global stage. The fruits of our partnership have elevated the standard of spinal care in our respective nations 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field at large.



Looking ahead, the potential for further achievements is limitless. We are committed to broadening our research collaboration and fostering breakthroughs that reach beyond geographical boundaries. We aim to enhance our mentorship of emerging spine surgery talents, ensuring a legacy of excellence for future generations. Furthermore, we pledge to advocate tirelessly for patient access to superior care, leveraging our collective expertise.

On this significant anniversary, I reaffirm the Taiwan Spine Society's dedication to our exceptional partnership. May our bond continue to thrive, guiding the evolution



of spinal health for years to come.

Thank you.

April, 2024

Wu, Wen-Tien, MD, PhD.

Board member, Taiwan Orthopaedic Association

Board member, Taiwan Spine Society

Chief, Department of Orthopaedics, Hualien Tzu Chi Hospital, Buddhist Tzu Chi

Medical Foundation, Taiwan

Professor, School of Medicine, Tzu Chi University, Taiwan

Wu, Wen-Tien

축 사



Dr. Mun Keong Kwan
The President
of the Asia Pacific Spine Society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Asia Pacific Spine Society (APSS) for the 40th Anniversary Special Memoir of the Korean Spine Surgery Society (KSSS)

With profound camaraderie, I extend my most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the Asia Pacific Spine Society (APSS), to the Korean Spine Surgery Society (KSSS) on this momentous occasion of your 40th anniversary. This milestone commemorates a remarkable journey marked by unwavering dedication, a collaborative spirit, and a relentless pursuit of excellence in advancing the field of spine surgery.

The KSSS's founding in 1984 stands as a pivotal moment - not just for spine surgery in Korea, but for the entire Asia Pacific region. It embodies a shared vision, resonating deeply with the mission of APSS. Since then, our societies have fostered an invaluable partnership in elevating the standard of spine surgery in this region.

The KSSS's partnership with the APSS has been the catalyst for shared progress. Prof Myung-Sang Moon [2nd Chairman of the Spine Section of Western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 (WPOA), 1990-1993] played an instrumental role a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in



the formation of the Spine Section of the Western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 (WPOA). The name of the Spine Section of the WPOA was later renamed as the Spine Section of the Asia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 (APOA) in 2000. Prof Emeritus Jae-Yoon Chung (President of APSS, 2011-2013), a true visionary leader,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collaboration. During his tenure and leadership as Chairman of the Spine Section of the APOA, he paved the way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Spine Section of the APOA to the Asia Pacific Spine Society (APSS) in 2012. This evolution illustrated the KSSS members' significant contribution in shaping the APSS's history, reflecting our shared vision of a united force propelling better spine car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collaboration between APSS and KSSS has yielded a rich harvest of accomplishments in:

- **International conferences:** Over the years, Korea has been a great host to many APSS conferences, including the 6th Western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 (WPOA) - Spine Sectional Meeting in Seoul, Korea in 1991, which returned to Jeju, Korea in 2008. The recent 12th Combined Meeting of APSS & APPOS held in Incheon, Korea, in 2019 w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s in facilitating knowledge exchange, showcasing Korean expertise, and driving innovations in spine surgery on a global scale.
- **Hands-on teaching during live operative courses:** The APSS Live Operative Courses bring together some of the most renowned faculty members



from KSSS, including Prof Emeritus Jae-Yoon Chung, Prof Myung-Sang Moon, Prof Se-II Suk, Prof Ki-Tack Kim, Prof Kyu-Jung Cho, and Prof Seung-Woo Suh. Focused on a hands-on approach, the course provided an excellent interactive platform to inspire spine surgeons to learn surgical techniques including the tips and tricks in the operating theatre.

- **Mentorship initiatives through fellowship programmes:** The future of spine surgery in the region is being ensured through mentorship initiatives carried out via APSS fellowship programmes. Renowned faculties and fellowship centres like Prof Emeritus Jae-Yoon Chung (Chonnam University Hospital), Prof Kee-Yong Ha, Prof Young-Hoon Kim (Seoul St. Mary's Hospital), Prof Ki-Tak Kim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Prof Chong-Suh Lee (Samsung Medical Centre), and Prof Seung-Woo Suh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have been generously accepting many APSS fellows, who have had amazing experiences.
- **APSS-ASJ Best Paper Awards:** Introduced at the APSS Annual Meeting 2018, the awards have been a great initiative in recognising and encouraging outstanding research by talented APSS individuals in Basic Science and Clinical Research. Award recipients not only receive a prestigious award with a cash prize but also have their winning abstracts published in the prestigious *Asian Spine Journal* (AS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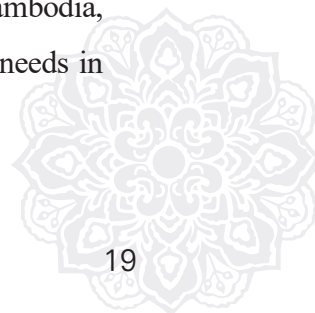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paramount to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spine surgery. As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APSS, one of the core focuses of my tenure



is strengthening collaborations wi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societies, and KSSS remains a key partner in this vision. The APSS envisions a future where our collaboration flourishes even further, encompassing new avenues:

- **Enriching educational programmes:** KSSS will be welcomed to host regular APSS Basic Spine Courses and participate in our annual APSS Operative Courses and APSS Cadaveric Courses.
- **Fostering and mentoring the next generation:** The APSS Fellowship Programmes offer a valuable platform for advanced training. We would like to invite all esteemed spine institutions in Korea to join this initiative, offering short-term or long-term attachments for fellows and nurturing future leaders in spine surgery in this region.
- **Joint research projects:** The APSS has two focus research groups, i.e. the Scoliosis Focus Group and the Anterior Column Reconstruction Focus Group. These two focus groups have been organising educational events, multicentre research and publishing new findings on their respective subjects. KSSS participation will certainly further enhance the research output and education activities in these two groups.
- **Community Outreach Programmes:** The APSS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public health initiatives. Joint programmes, like the successful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AIS) screening programme in Sri Lanka and Cambodia, can serve as a model for future collaborations that address critical needs in the region.





Finally, on this momentous occasion, the APSS celebrates the KSSS's legacy of excellence and collaboration and reiterates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this enduring partnership. We, at APSS, look forward to many more years of fruitful collaboration in advancing the science, art and practice of spine surgery in this region.

Congratulations once again to the Korean Spine Surgery Society (KSSS)!

Sincerely,

April, 2024

Prof Dato' Dr. Mun Keong Kwan

President

Asia Pacific Spine Society (APSS)



축 사



Howard S. An, MD

**Dear Members of the Korean Spine Surgery Society,
and my esteemed colleagues,**

It is with immense pride and joy that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pine Surgery Society (KSSS). As a Korean American spine surgeon deeply connected to Korean spine surgeon, this milestone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for me.

Forty years ago, a group of visionary surgeons laid the foundation for this esteemed organization, driven by a shared passion for advancing the field of spine surgery in Korea. Today, we stand witness to the remarkable journey of the KSSS, celebrating its numerous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to the well-being of countless patients. Throughout my career, I have had the distinct privilege of collaborating with the KSSS and witnessing its unwavering commitment to excellence. My journey began in 1994 when I launched the International Post-doctoral Research Spine Fellowship Program, providing Korean surgeons with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train alongside my team at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Over the years, I have had the honor of mentoring over 20 talented fellows from Korea, including:

- 
- J. Y. Ahn, M.D: 1994 (Korea)
 - Sang-Wook Lee, M.D: 1996-1997 (Korea)
 - J. W. You, M.D: 1996-1997 (Korea)
 - Y. D. Koh, M.D: 1996 (Korea)
 - S. Y. Lee, M.D: 1996-1997 (Korea)
 - Chang-Hoon Jeon, M.D. 1997-1998 (Korea)
 - Han Kwon, M.D: 1997-1998 (Korea)
 - Kyung W. Song, M.D: 1999 (Korea)
 - Joong W. Ha, M.D: 1999-2000 (Korea)
 - C. Y Lee, M.D: 1999-2000 (Korea)
 - W. J. Kim, M.D: 2000-2001 (Korea)
 - S. T. Jeong, M.D: 2000-2001 (Korea)
 - Seok-Woo Kim, M.D: 2001-2002 (Korea)
 - K. W. Kim, M.D: 2001-2003 (Korea)
 - Tai Hyoung Cho M.D: 2002-2004 (Korea)
 - K. H. Yang, M.D. 2004-5 (Korea)
 - Yang S. Lee, M.D. 2004-5 (Korea)
 - San Bum Koh, M.D. 2004 (Korea)
 - K. Song, M.D 2006 (Korea)
 - Jae Taek Hong, M.D. 2007-8 (Korea)
 - Young Joon Kwon, M.D. 2007 (Korea)
 - Sang Woo Kim, M.D. 2007-8 (Korea)
 - Hun-Kyu Shin, M.D. 2008-2009 (Korea)
 - Jisoon Hu, M.D. 2011-2012 (Korea)
 - Si Young Park, M.D. 2012-2014 (Korea)
 - In Soo Oh, MD. 2016~2017 (Korea)
- 



These experiences have been incredibly rewarding, allowing me to witness firsthand the dedication and talent of Korean spine surgeons. Together, we have pushed the boundaries of knowledge and innovation, shaping the future of spine surgery for the benefit of patients worldwide.

As we celebrate this momentous occasion, I am filled with immense gratitude for the strong bonds forged between the KSSS and the Korean American spine surgery community.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tise has undoubtedly enriched both sides, accelerating progress and improving patient care.

Looking ahead, I am confident that the KSSS will continue to be a driving force in the field, leading the way in research, education, and clinical excellence. With its unwavering commitment to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the KSSS is poised to reach even greater heights in the years to come.

On this joyous occasion, I once again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KSSS and its members. May your journey continue to be marked by success, innovation, and a relentless pursuit of excellence.

Sincerely,

April, 2024

Howard S. An, MD

Orthopedic Surgery, RUSH Medical College



축 사



Dan Riew, MD

Distinguished guests, esteemed colleagues, and dear friends of the Korean Spine Surgery Society (KSSS)

It is with immense pride and heartfelt congratulations that I join you in celebrating this momentous occasion - the 40th anniversary of the KSSS. This anniversary marks not just the passage of time, but the incredible journey of dedicatio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that has positioned the KSSS as a leader in the field of spine surgery.

As a Korean-American surgeon who has had the privilege of collaborating with countless talented Korean spine specialists throughout my career, I feel a deep personal connection to your organization and its achievements. I remember vividly my very first interactions with the KSSS, the eagerness and passion of its members fueling my own desire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pine surgery in Korea.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mention young and promising surgeons, who joined my practice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and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as visiting international scholars. Their dedication, inquisitiveness, and thirst for knowledge m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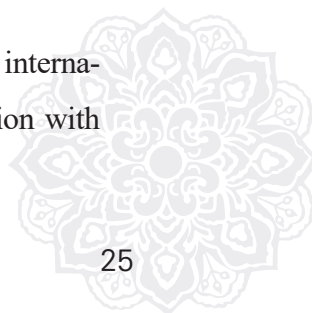


them invaluable members of our team. Watching them flourish and eventually return to Korea to serve as key members of the KSSS fills me with immense pride. Their journey embodies the spirit of collaboration and growth that has defined the KSSS's remarkable trajectory.

Over the past four decades, the KSSS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shaping the landscape of spine surgery in Korea. From fostering research and education to promo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setting high standards for patient care, your contributions have truly made a difference. I have witnessed firsthand the positive impact of your endeavor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cross the globe.

Here are some specific highlights that come to mind:

- **Pioneering advancements in research:** The KSSS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spinal research,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our understanding of various spinal pathologies, especially in my field of cervical spine surgery, and developing innovative treatment options. Your commitment to advancing knowledge serves as an inspiration to spine surgeons worldwide.
-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Through educational initiatives and fellowship programs, the KSSS has nurtured talented young surgeons who are shaping the future of the field. The dedication to mentorship and succession planning ensures the continued growth and excellence of the Korean spine surgery community.
- **Building bridges of collaboration:** The KSSS has actively fostered international partnerships, facilitating knowledge exchange and collaboration with





spine surgeons from across the globe. This dedication to collaborative growth has enriched the field and benefitted patients internationally.

As we celebrate this important milestone, I am confident that the KSSS will continue to be a driving force in the field of spine surgery. With your unwavering commitment to innovation, collaboration, and excellence, you are poised to reach even greater heights in the years to come.

On this joyous occasion, I once again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KSSS and its members. May your journey continue to be marked by success, innovation, and a relentless pursuit of excellence!

Sincerely,

April, 2024

Dan Riew, MD

Professor of Orthopedic Surg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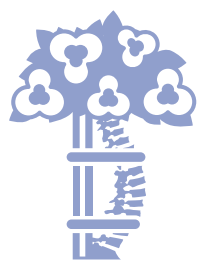
Department of Neurological Surgery, Weill Cornell Medical Center

Professor of Orthopedic Surgery,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olumbia University

Co-Director, Columbia University Spine Fellowship





차 례 Contents

발간사	김태균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4
축사	이명철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6
축사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8
축사	Masaya Nakamura President, Japanese Society for Spin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10
축사	Wu, Wen-Tien, MD, PhD. The President of the Taiwan Spine Society	13
축사	Dr. Mun Keong Kwan The President of the Asia Pacific Spine Society	16
축사	Howard S. An, MD	21
축사	Dan Riew, MD	24

제1장 역대 회장 회고록 31

제2장 학회의 역사

제1절	척추질환 치료술의 도입과 척추 기기술	103
제2절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창립	105
제3절	내실을 다진 대한척추외과학회	108
제4절	학회의 활발한 학문 교류	112
제5절	2014년 창립 30주년 기념비적인 해	116
제6절	국제학회로 비상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119
제7절	국제화 시대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 비전	123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125

제4장 지난 10년 학회의 성과

제1절	학회의 국제화	217
제2절	국민과의 소통	223
제3절	회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	229





제5장 학술활동

- 제1절 학술행사 235
- 제2절 학회지 발간 242
- 제3절 연수교육 250
- 제4절 학술상 및 학회 후원 펠로우십 277

제6장 연구학회 활동

- 제1절 대한경추연구학회 293
- 제2절 대한요추연구학회 311
- 제3절 대한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330
- 제4절 대한척추변형연구학회 351
- 제5절 대한척수신경연구학회 363
- 제6절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 374
- 제7절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386
- 제8절 대한척추통증연구학회 397

제7장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

- 제1절 대한척추외과학회 40주년: 과거를 기리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419
- 제2절 미래 비전 및 발전 방향 선언 421
- 제3절 미래 비전 선언 4대 전략 424
- 제4절 전략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 430
- 제5절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신념 434

제8장 회칙 및 규정

- 제1절 회칙 및 규정 437
- 제2절 역대 임원 명단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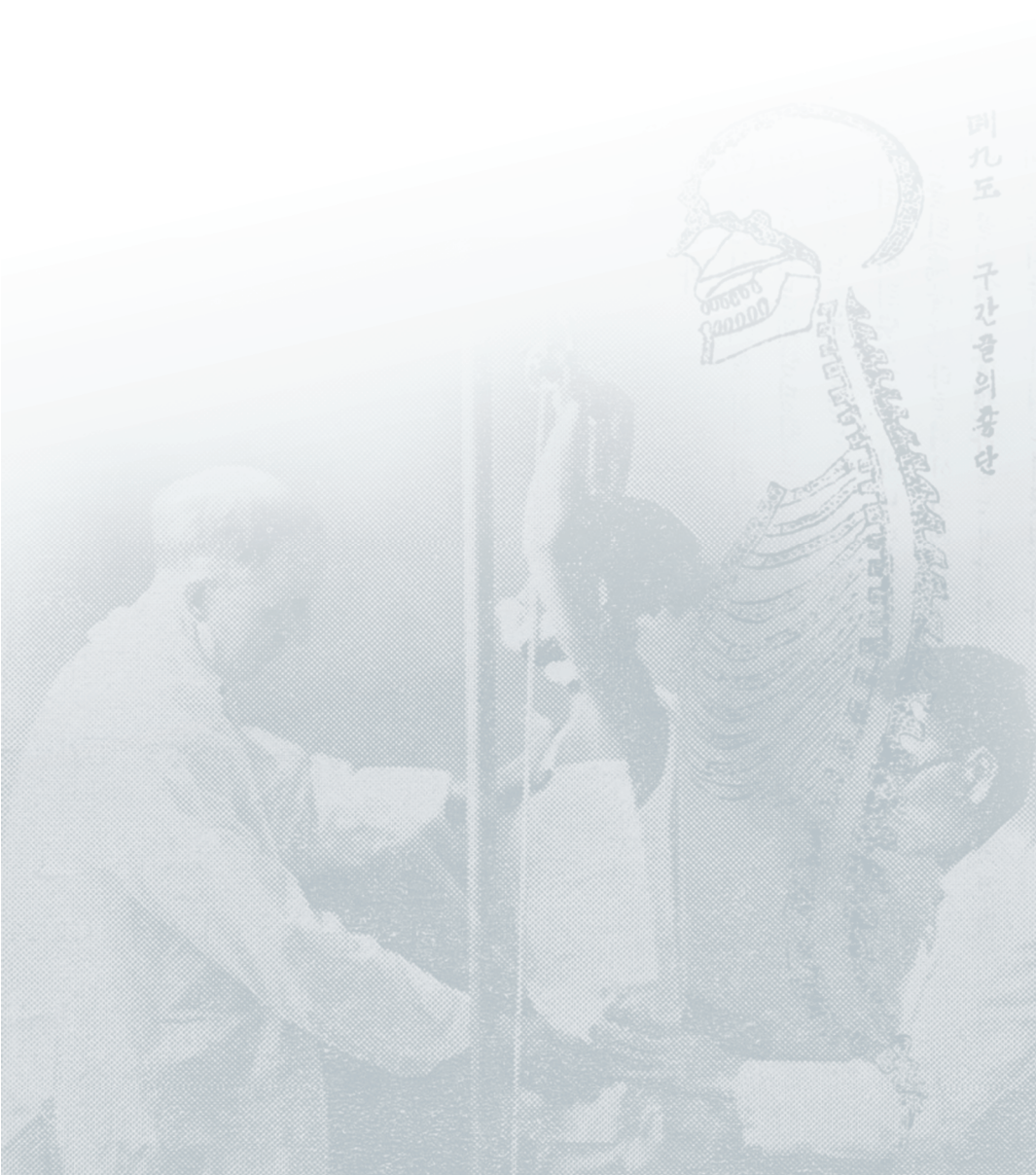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사를 발간하며 462

제1장

대한척추외과학회
역대 회장 회고록

메르도 구간골의 용단

글과목을와잇만글(龍骨)이라이름구한글이판된와(眞椎)가회(假椎)의두가
지로흔니라
(一)진퇴는은트二十四개내서로항호여벗지아나총요각각은동을흔느기
덕복와허라와잇가슴의부위를흔느아물다서구별은예우히느기
정퇴(頸椎)라흔고아매五개를
요퇴(腰椎)라흔고아온의十二개를
흉퇴(胸椎)라흔느니라





제 5 대 석 세 일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회고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1989~90년에 5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척추외과학의 발전 및 국제화를 위해 국제학회 참여,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 그리고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척추외과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 군의관과 스칸디나비아 의료진의 도움으로 척추외과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척추 결핵 환자 치료는 우리나라 척추수술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척추변형 치료법의 발전은 세계 의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제가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개발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치료 기법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며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성장과 발전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수많은 회원들의 헌신과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학술 교류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학회는 1,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학술 단체로 발돋움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회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40년을 바라보며,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모

든 회원들은 연구, 교육, 진료 분야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학회의 단합된 힘으로 무한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회의 미래는 이러한 개인들의 노력과 학문적 기여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세계 의학계에 우리나라 척추외과학의 우수성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 4월

제5대 회장 석 세 일





제 6 대 박 병 문

慶祝과 感謝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인 40세를 불혹(不惑)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회가 훌륭한 학회로 성장한 것을 마음속 깊이 기뻐합니다.

1984년,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일부 회원들이 모여 척추외과학의 발전을 목표로 대한척추외과학회를 창립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서광운 교수가 추대된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주임교수로서 학회의 창립에 적극 참여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후 30대 이종서 회장을 포함하여 여러 회장님들이 이끌어 온 학회는 지난 10년 동안 회원 수 600명에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학회는 눈부신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1994년부터 발간된 『대한척추외과학회지』와 영문 학술지 *Asian Spine Journal*은 연 4회 발간되며, 척추외과학의 우수한 논문들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학술지들은 국제적인 인덱스와 SCI 가입을 목표로 더 큰 발전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 2회 개최되는 춘·추계 학술대회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우수 논문을 발표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미 척추외과학회, SICOT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우리 회원들의 업적은 빛나며, 학회의 위상과 권위를 세계적으로 높

이고 있습니다.

1993년 SICOT 세계대회(SICOT 93 Seoul)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들의 일심 단결과 열정이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제 정년퇴직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과 감사패 수여는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제 정년 은퇴 축하 기념호로 간행된 대한척추외과학회지 제7권 3호(2000)는 제 학문적 여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우리는 자만하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이루어놓은 토대 위에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수가의 열악함과 연구비 부족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0대 회장인 김태균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대한척추외과학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며, 회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제6대 회장 박 병 문

박병문



제 7 대 문 명 상

대한척추외과학회 40주년사 발간을 위한 나의 회고

회고담 요청 메일을 받고 오래 전 진료 전선에서 퇴역한 사람을 기억해주셔서 놀랍고, 감사하였습니다. 예전에 “척추 질환 치료의 과거, 현재, 미래-우리나라에서의 치료 변천, 그리고 AO-Spine Korea 2021” 격려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2023년도 40주년 회고담을 쓰게 되니 더욱 기쁩니다.

우리나라 척추외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회원들의 수고와 내 고정용 기기의 도입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치료 대상 질환은 주로 척추결핵이었습니다. 서울대 한문식 교수가 인도 Tbc club 학회에 참가하여 발표하였으며, 연세대 전 주정빈 교수의 “척추결핵의 전방근 치수술”이 CORR지에 게재되고, 국립의료원의 안병훈 박사의 “경추 Pott 마비치료의 결과”가 *Acta Orthopedic Scandinavia*지에 게재되는 업적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 수기에 대한 것은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한 후궁판 성형술은 장한 교수가 시작하여, 그 뒤를 이어 염진섭 교수가 이어가고 있고, 석세일 교수의 특발성 요추 측방증에 대한 척추경형 나사와 금속지주를 이용한 역회전 교정술이 있고, 서울대 한문식 교수 업적은 척추결핵 합병증 치료(후만 변형)와 연세대 주정빈 교수의 전방 근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기기들의 시도는 1979년말부터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필자가 1979년 첫 시도, 그 결과 1993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WPOA 제3차 학술대회에서 처음 척추결핵 치료에서 후방기기 고정법을 소개하였고, 후에 세계적으로 이 수술법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표준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방기기 사용은 초기에는 반대의 의견이 있어 상용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척추결핵 치료에서 처음에는 후방 단순 유합, 그 이후 K-강선을 이용한 극돌기간 고정, 이어 K-강선 고정+골시멘트 고정, 다시 이어 Harrington 기기 이용 고정 → Harri-luque 고정 → Pedicle screw 이용 등 여러 단계를 거쳤고, 척추경 나사와 정으로 튼튼한 내고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이동호 교수의 후종 인대골화증의 전반골이전술은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또 필자는 네발 동물과 직립의 생활 동물의 추체 모양 차이를 보고한 바 있고, 소아시 발생한 심한 척추결핵성 구배에서 사지 동물처럼 구배 정점 상하의 추체들이 폭보다 높이가 높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고, 척추분절의 강직시 추체는 4각형(squaring)으로 되어 있고, 가동 추체에서만은 inwaisting이 생긴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회고록을 치료법 발전사를 기술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이후 대한척추신기술학회가 설립되었고, 많은 회원들이 세계정형외과 및 외상학회와 아세아태평양 정형외과학 대회의 국내 개최와 주관을 이끌었고, 국내외 많은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발표와 활발한 토의를 해왔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최소침습 수기의 이용이 정형외과계 척추외과 의사들이 신경외과 의사들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형외과의는 치료용 수술 기기의 사용법에도 익숙해야 하고, 수술 수기도 익혀야 함으로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수술 술기도 잘 가르쳐야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 회원 모두 분발합시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경쟁력있는 학회로 발전하는 데 힘을 모읍시다. 그간 학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회장님들, 간사님들 여러분의 수고가 오늘의 든든한 학회를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해 단합합시다.

2024년 4월

제7대 회장 문 명 상

M. S. Moon



제 8 대 윤 승 호

대한척추외과학회 발전을 위한 헌신과 기념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축하하며, 이를 준비하는 학회 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956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창립 이후, 1960년대부터 여러 은사들이 척추결핵 환자 치료와 척추수술 분야에서 기여하신 바가 매우 큼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척추외과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석세일 교수의 SRS 활동, 김남현 교수의 WPOA 활동, 왕진만 교수의 WPOA Spine Section 참여는 우리나라 척추외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1958년 의대 졸업 후 전주예수병원에서의 인턴 생활을 시작으로, 군의관 활동,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대전 충남의료원 및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조교수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1984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당시부터 14대까지 평의원으로 활동하며, 1991년에는 8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왕진만 교수와 함께 학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적십자병원 정형외과 부장 M. Hasue 선생과 프랑스의 J. Steib 선생을 초청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1970년대 초 대전 지역의 정형외과 전문의 부족 상황에서, 저는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에 힘썼고, 특히 추간판 탈출증

수술은 석세일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척추외과학에 대한 제 연구와 전문성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충남대학교 정형외과교실은 저와 손승원 선생이 시작하여, 많은 전문의를 배출하는 교육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제자 이준규 교수의 노력은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역임에 이르기까지 척추외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1,000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척추외과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학회는 국민의료보험의 어려움, 연구비 부족 등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는 여전히 밝으며,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열정이 더 큰 성취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4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4월

제8대 회장 윤 승 호

윤승호



제 9 대 김 기 용

영겁이 찰나처럼 지나가는 우주에서, 그리고 짧게 잡아도 이미 30만 년이나 계속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40년이란 세월은 보잘것없이 짧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길게 살아봐야 채 백 년이 될까말까한 한 사람의 인생에서 40년이라 하면 그리 만만히 볼 만한 물리량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제가 평생 살아온 나날의 근 반이나 되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한 해가 달리 세상이 무섭게 변화하는 초고속 발전의 시기에는 꽤나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모임은 더 할 것입니다. 집단의 단위 시간은 각자의 그것들이 합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의 정열과 노력이 녹아 든다면 그 반응의 속도는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1984년 4월 6일 제가 근무하고 있던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겨우 20여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모여 가졌던 창립총회로 시작된 우리 학회는 이제 1,000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된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회원들이 발표하는 논문들은 국내외 우수한 저널들을 석권하고 있고, 그들의 발표와 강의를 듣고, 진료와 수술을 배우고, 함께 연구하기 위해 수많은 해외 척추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모두가 잘 알겠지만 우리 학회의 태동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국가 경제가 운택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과 설비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열정은 대단하

였으나 안타깝게도 학문과 기술의 수준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척추외과 분야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의료 선진국의 지식과 수술을 배우기 급급하였습니다.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저의 모습을 잠시 회상해 봅니다

당시만 해도 척추 환자의 상당수가 결핵성 감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제 때에 병원을 찾지 못해 척추 주변에 커다란 농양을 형성하여 하반신 마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급작스런 봉변을 피한다 하더라도 척추뼈 몇 개를 가라앉혀 심한 후만 변형을 남기고, 그것이 진행하면 다시 척수를 눌러 결국 하반신 마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고약한 병은 멀쩡한 젊은이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그들에게 남은 긴 인생을 아주 망쳐놓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이미 견고하게 굳어진 후만 변형을 교정하는 것은 지 금처럼 내고정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당시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몇 년간을 고민하던 저는 Perry, Nickel 등이 소개한 halo-pelvic traction을 떠올렸습니다. 즉, 수술 전 traction으로 가능한 한 후만 변형을 교정하고 그 상태를 전방 절골술과 후방 유합술을 통해 유지하는 술식이었습니다. 길고 힘든 치료 방법이었으나 치료하는 의료진도 수술받은 환자들도 모두 만족하고 행복해 했던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40년 전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젊은 척추외과 의사의 모습을 저는 우리 학회와 함께한 40년 동안 매일같이 모든 회원들에게서 발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자극받고 함께 분발하며 또한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발전은 단지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학회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회원들이 똑같이 헌신하고 기여하고 분투하였기에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현재 모습은 우리 회원 모두의 얼굴이며 자부심입니다. 자랑스런 학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4월

제9대 회장 김 기 용





제 10 대 김 남 현

창립부터 세계적 리더로의 여정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축하하며, 그 역사적인 여정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984년, 안병훈 선생, 문명상 명예교수, 본인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회를 창립한 이후, 학회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창립 당시 어린아이와 같던 학회가 이제는 세계적인 학술단체로 성장한 것은, 회원들의 헌신과 역대 회장 및 임원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회의 발전은 정회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의 큰 조직으로 성장한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연 2회 개최되는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는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회가 이끄는 8개의 산하 연구학회는 각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회원들의 열정적인 연구 활동은 학회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1994년 학회장으로 취임한 저는, 왕진만 간사, 평의원들과 함께 대한척추외과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07년 영문 학술지 *Asian Spine Journal* 창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학술지는 국제적인 수준의 잡지를 목표로 하며, 모든 회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술적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회의 국제적 활동은 Scoliosis Research Society, North American Spine Society, European Spine Society, ISSLS 등 여러 국제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국제 학술 교류는 학회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1989년부터 시작된 ISSLS와의 협력은 우리 회원들이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학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일본과 프랑스의 저명한 척추외과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학회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회원들에게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창립 이래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학술단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제41차 ISSLS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모든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 큰 성취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2024년 4월

제10대 회장 김 남 현





제 11 대 김 홍 태

세계로 나아가는 척추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역사적인 발전과 성장을 돌이켜보며, 제가 걸어온 척추외과 의사로서의 긴 여정에 대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1969년 정형외과 전문의로 시작해,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정형외과를 설립하고 뉴욕 마운틴 시나이 병원 및 롱비치메모리얼 병원에서의 연수 경험은 제 진료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6년 롱비치메모리얼 병원에서의 연수를 통해 요추 진료와 척추수술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Leon Wiltse 선생과 같은 세계적인 척추외과 의사들과의 교류는 제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Arthur White의 Back School 연수는 요추환자 치료와 재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1986년 척추유합수술의 내고정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시도한 경험은 제 의료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개발한 첫 내고정 장치인 Dual Lock System (DLS)의 개발과 적용은 국내 척추외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학술활동 면에서도 1988년 ISSLS 학술대회 첫 참석을 시작으로, NASS 및 다양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며 척추외과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94년 제11대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으로 선임되며, 지

방 병원 출신 회원으로서는 최초로 학회장이 되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척추외과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에 제가 일조할 수 있었음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환자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바치지 못한 것, 가족과 이웃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도 남습니다.

이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새로운 40년을 맞이하여, 후배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며 척추외과학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제 경험과 교훈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제11대 회장 김 홍 태





제 15 대 정 영 기

학회의 힘찬 도약을 기대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4년 척추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창립된 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드디어 정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큰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Harrington 기기술이 시행되었고 그 후 Dwyer(1969), Zielke(1975), Luque(1976), CD(1984) 등의 기기와 다양한 신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석세일 교수가 개발한 흉추척추경나사 기기술은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지식을 나누어주는 입장이 되어 많은 외국인 척추전문 의사들이 국내에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학회지의 희망을 가지고 영문학회지인 *Asian Spine Journal* 1호가 발간된 후 학회 집행부, 편집인, 회원들의 노력으로 PubMed, PubMed Central, Synapse, Scopus 등에 등재되었으나, SCI 등재를 위해서는 논문인용지수(impact factor)에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학회 40년사가 발간될 즈음에는 우리의 희망이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30년사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학회가 정형외과의 전문분야인 척추를 연구하는 분과 학회이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학문활동을 포함하여 어느 학회보다 충실하고 앞서 나간다고 자부합니다.

희망은 여러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힘을 합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제15대 회장 정 영 기





제 16 대 조재림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30년사가 세상에 나온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40년사를 발간한다 하니 다시 한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학회가 창립된 1984년은 제가 미국 미네소타주 Twin Cities Scoliosis Center에서 척추변형에 대한 연수교육을 받던 중이었고 당시 세계 각국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의사들로부터 한국에도 척추외과학회가 있느냐는 질문을 수 없이 받던 중으로 학회 창립 소식은 저로 하여금 큰 자긍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 당시 Dr. John Moe로부터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귀국 후 저는 학회에 가입하여 학회와 인연을 맺었고 학회를 위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대한척추외과학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학회가 창립된 후 4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창립 당시의 정회원수가 20명에 불과했던 학회는 2024년에는 1,025명을 넘어섰으며 초창기에는 전무하던 위원회와 연구회도 현재는 9개의 위원회와 8개의 연구학회가 있음을 볼 때 학회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발전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학회창립 후 40년 동안의 의학 발전은 척추에 대한 우리들

의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한 척추 내고정기기의 발달과 미세수술기구의 발달 및 수술수기의 발달 등은 세계를 향한 우리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지금은 세계적인 수술이 가능케 되었으며 그 결과 이제는 국제학회에서도 몇몇이 대우받는 학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회의 초청으로 우리 학회를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값진 경험을 들려준 수많은 척추 수술의 세계적 석학들 또한 우리 학회의 발전에 일조하였음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을 초청하여 그분들의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학회에 대해서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더군다나 학회에 초청된 세계적 석학들이 우리 회원들의 발표논문의 우수함에 놀라고 회원들의 수술수기에 대해 감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학회가 국제학회에서도 몇몇이 대우받는 학회가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초창기 회장님들의 연로해지시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주위의 젊은 회원들이 보여주는 학문적 깊이와 수술수기의 원숙함에 감탄하면서 학회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과의 즐거운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학회에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제16대 회장 조재림

조재림



제 17 대 박 승 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학회가 되기를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10년 전 발간된 30년사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차례의 10년이 흘러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학회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모든 발전은 학회 회원들 각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의 경험에서도 학회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학회의 간사와 제17대 회장(2000.6.1~2001.5.31)으로서 역임하며,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학회 발전을 위해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들과 선배 자문위원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입니다. 1997년의 세계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회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큰 성취였습니다. 학회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간 학술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휴면 회원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했던 조치였으나, 이후 학회지 등재를 위한 세 불리기를 위해 다시 회원들을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학회는 지난 40년 동안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척추수술 기술의 발달, 미세수술 기구의 발전 등은 세계를 향한 우리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학회는 국제 학술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의

료 현실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결정 당국과 기관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개원의와 전문병원 봉직의들이 학회 활동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초 분야의 연구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학회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학회 창립 40년을 기념하며,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우리 학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모든 회원들과 선배 자문위원, 평의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학회의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더 큰 발전을 이룰 학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2024년 4월

제17대 회장 박 승 립

박 승 립



제 18 대 김 영 태

회원 모두가 만들어낸 척추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3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10년 전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학회를 이끌었던 2001.06~2002.05년에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학회는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2001년 7월, 학회는 평의원 회의를 통해 위원회와 연구회의 확장에 따라 위원장의 중복 재임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회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2001년 가을 학회에서는 미국의 Saint Louis 대학의 Lenke 교수를 초청해서 수락을 받았으나, 9.11 사태로 인해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다고 해서 결국 고심끝에 그의 방문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는 학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대신에 Clawford 박사의 참여로 학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학회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 10월, 중견 교수들의 건의문이 학회에 도착했고, 이는 학회 내부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김모 회원의 사직과 관련된 우리들 병원장이 본 학회를 상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학회에 대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학회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소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소송은 2002년 말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본 학회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회의 법적, 윤리적 입장을 공고히 하며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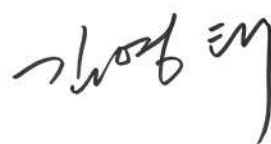
2002년 2월,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가 주최한 Intradiscal Therapy 국제회의에 대한 협조 및 참여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학회는 이에 대하여 개인적 참석을 권장하도록 결정을 내렸고, 이는 학문적 교류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 회장은 부회장으로 학회에 참여하고 논문 발표도 하면서 본 학회 회원들의 참여를 고무하였습니다. 이 학회는 본 척추외과 학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탐구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회는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학회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회원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학회가 더욱 발전하여 척추 외과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아낌없는 격려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4년 4월

제18대 회장 김 영 태





제 19 대 박병철

학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역사와 그간의 발전을 되돌아보며, 특히 제가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겪었던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어려운 도전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한 민사소송 사건은 학회에 큰 시련이었습니다.

전임 김영태 회장으로부터 학회 업무를 인수받을 때, 서울에 위치한 병원이 대한척추외과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소송이 어떻게 병원과 학회 간에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 소송이 학회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깨닫고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소송의 내용은, 해당 병원이 학회 회원 중 한 명을 오랫동안 섭외했으나,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이 회원에게 압력을 가하여 결국 그 회원이 병원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학회가 배상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소송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송은 길고 복잡한 법적 과정을 거쳤으며, 여러 중재 노력 끝에 결국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학회 내부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학회는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회원을 학회에서 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학회에 있어서 매우 아픈 결정이었으며, 이 사건은 학회가 회원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회원들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학회는 회원과 학회 간의 상호 책임과 역할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더 흘러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1,000명이 넘는 회원 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모든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학회의 성장과 발전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돕는 역할과 더불어, 회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학회에 교훈을 남겼으며, 이를 통해 학회는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회는 회원들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건강한 길을 모색할 것이며, 회원 모두의 노력이 새겨진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제19대 회장 박 병 철

朴 柄 哲



제 20 대 이 준 규

학회 MISS를 품다

-PASMISS 설립 비화 및 발전 과정-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학회 발전 40주년을 발간하기 위한 원고 청탁을 받고 반가운 마음으로 수락하며 극히 보수적이던 학회에서 MISS(최소침습)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게 된 계기를 더듬어 기억해보려 합니다.

새천년 즉 2000년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척추외과 분야에서 MISS라는 새로운 수기에 대한 요구는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신경외과 등 국내 의료계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도 점차 확산이 되어 가는 추세였으나 국가마다 초창기 MISS 분야를 기존의 보수적인 척추학회의 한 분야로 자리 잡는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한척추외과학회에서는 당시 소위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W 병원 및 대부분의 신경외과 개원가에서 무분별하게 폭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MISS에 부정적인 사고가 심하여 감히 학회 차원에서 MISS에 대하여 공개적인 거론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9년도 서울 남산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희대 김기택 교수로부터 유명철 교수님이 일본 정형외과학회에 참석하셨는데 일본 정형외과 척추 의사인 Dezawa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정형외과 척추 의사들이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국가 간의 지식 및 정보 공유

를 통해 MISS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MISS 학회 설립을 추진하려 하는데 일본 척추학회 내 분위기로 일본 정형외과 척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한국 정형외과 척추 의사들이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원하며 만약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위기로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한국의 신경외과 척추 의사들과 접촉하여 학회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의사 타진이 있으니 당시 학회 평의원인 제가 이와 같은 사실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 아시아 지역 MISS 학회 설립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회 중 열린 평의원회에 평의원인 정재윤 교수와 제가 이 내용을 보고하니 학회가 직접 참여하여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준규 교수가 개인적으로 신경외과 척추 의사를 배제한 정형외과 척추 의사로만 구성된 3개국 MISS 학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학회 평의원회에서 개진된 조건으로 한국, 일본, 대만이 주체가 되는 MISS 학회 설립을 위해 충남대 안재성 교수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측 척추 의사 대표인 Dezawa 교수, Natsuyama 선생 등 일본 측 정형외과 척추 의사들을 만나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이 주체가 되는 ASMISS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al Syrgery)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상의하고 일본 측 학회 내 입장을 고려 초대 회장은 충남대 이준규 교수, 초대 총무는 일본의 Natsuyama 선생이 맡기로 하고 대만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2001년 제 1회 ASMISS 학회를 한국 및 일본 측 입장을 고려, 제3국인 인도네시아 Bali에서 8월 초에 개최하되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부담 및 일정 등 세부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 측이 부담하며 한국 측에서는 많은 한국 정형외과 척추 의사들의 참여와 동원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2001년 8월 초 한국의 이준규 교수(충남대)가 초대 회장을 맡아 인도네시아 Bali에서 제 1회 ASMISS가 개최되었으며 당시 한국 측 Board Member는 학회 임원을 배제한 이준규(충남대), 정재윤(전남대), 심대무(원광대), 안재성(충남대), 유재원(조선대), 박원욱(부산대), 강철형(계명대), 박희전(연세대 원주), 이환모(연세대), 이종서(삼성의료원), 김기택(경희대),



채인정(고려대), 김응하(순천향대) 교수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2년 8월 초 일본 측에서 Dezawa 교수가 제2대 회장을 맡아 일본 내 사정으로 태국 푸켓에서 제2회 ASMISS 학회가 개최, 2003년 대만 측에서 Huwang 교수가 제3대 회장을 맡아 대만 타이베이에서 제3회 ASMISS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최소침습 수술에 대한 국내 매스컴, 사회적 관심 및 회원들의 최소침습 수술의 관심도가 증가하던 중 2004년 전남대 정재운 교수가 제4대 회장을 맡아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제4회 ASMISS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당시 정재운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 학회에서의 재정적인 지원 및 MISS가 본 학회로부터 확고한 위치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5년 일본의 Natsuyama 선생이 제5대 회장으로 Tokyo에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참여를 위하여 ASMISS 명칭을 PASMISS (Pacific-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y)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학회의 전폭적인 지원 및 정형외과 척추 의사들의 성공적인 노력으로 PASMISS 학회에 자극을 받은 많은 신경외과 척추 의사들의 PASMISS에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최초 설립 주체의 지위 문제 및 후발 참여에 대한 지분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초기에 한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PASMISS 초기 활동 Board Member가 이후 본 학회 평의원, 회장 등을 하면서 PASMISS와 학회의 발전에 조화를 이루는 원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초창기 기존의 보수적인 학회 분위기와 요추, 경추 등 변형 위주의 척추수술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기존의 학회 임원들을 설득하여 향후 미래 척추수술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MISS(최소침습 수술)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초창기 학회에 외국과 교류하는 국제 학회 구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원동력으로 현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최소침습 수술 분야는 물론 척추수술 분야 전반에서 리더 국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PASMISS 학술대회는 초기 설립 3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이 있을 시엔 초기 창립 3개국 사이 사이에 학회를 개최할 수가 있어 현재까지

설립 이후 23년 동안 23회의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이준규 교수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창립학회 이후 2004년 정재운 교수의 제주도 라마다호텔, 2007년 박희전 교수의 경주 현대호텔, 2011년 김기택 교수의 부산 롯데호텔, 2015년 안재성 교수의 대전 DCC, 2020년 김석우 교수의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성공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본 학회에서는 학회 산하에 MISS연구회를 설치하고 초기 PASMISS (ASMISS) Board member와 학회 MISS연구회 위원과는 중복되는 경우를 피하였으나 점진적으로 학회 MISS연구회와 PASMISS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서로 MISS를 보완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발전적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 학회 MISS연구회 위원장을 김영태 교수가 맡아 2004년 10월 평소 내시경 척추수술을 왕성하게 시행하고 있던 전주고려병원(원장 박근호)에서 제1회 MISS연구회 Workshop 및 Live Surgery를 시행한 이후 매년 활발한 학술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MISS가 대한척추외과학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이 있기를 응원하며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제20대 회장 이 준 규





제 21 대 정재운

학회의 더 큰 성장을 기원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30년간의 성장과 발전을 되돌아보는 것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04~2005년에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때의 결실이 지금의 학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는 학술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춘·추계 학술대회, 경추 및 미세수술연구회, 척추외과 연수강좌, 미세수술 카데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개최된 춘계학회는 국제적인 학회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발전을 위해, 평의원회, 제도, 학술 및 편집위원회의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척추외과 인정의 제도 설립을 위한 준비와 연구위원회의 확대 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의 국내외적인 보급을 위해 대한척추외과 학회지를 내실화하고, 영문 잡지인 *Asian Spine Journal* 을 창간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잡지들은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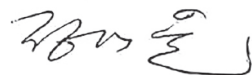
국제적인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태지역 및 일본 척추외과학회장을 공식 초청하고, 여러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학회의 국제적인 입지를 확립했습니다.

현재, 대한척추외과학회는 1,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학회의 모든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시아지역 학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의학적 차원의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 보건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학회의 미래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학회의 더 큰 성장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제21대 회장 정 재 윤





제 22 대 박희전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학회지 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와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중요한 분과 학회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회장 재임 시절인 2005년, 대한척추외과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한 영문학회지 발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의 목표는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학회지는 우리 학회와 대한민국 척추외과학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지키고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학회지는 단순히 학문적 자료집을 넘어 척추외과학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그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학회는 지난 40년간 눈부신 발전과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더 나은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더 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 척추외과학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하나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학회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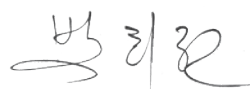
문적인 지식과 술기를 공유하며 척추외과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학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향후에도 이를 통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회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연구, 교육과 더불어 학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학회는 회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회원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명실 공히 회원을 위한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회원들이 하나 되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국제적인 학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척추외과학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는 회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합니다.

2024년 4월

제22대 회장 박희전





제 23 대 안 면 환

학회로부터 회고록 의뢰를 받고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2006년 5월 26일 춘계학회에 박희전 회장님으로부터 학회기를 전달받고 취임하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당시 우리 학회는 1984년 4월 6일 발기한 이래 여러 선배님들과 훌륭한 여러 회원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국제적 수준의 학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 영문학회지 발간을 준비하고, 처음으로 전국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동 실태조사

이에 영문학회지 출간 시도가 있었고, 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학회장으로 선임된 후에 *Asian Spine Journal*의 발간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한글 학회지와 병행하면서, 2007년 7월에 1호가 발간되었고, 최근 IF가 2.65로 보고되고 있다, SCI 등재를 위해 그간 많이 수고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정영기 자문위원님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의 뜻이 모여 발의되었고, 잡지 이름도 *Asian Spine Journal*로 정하였다.

그리고, '만성요통이 환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한척추외과학회 주관으로 다기관 연구를 추진했다. 요통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학회가 의료 관련 학회 중에서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 회원들에게 다기관 협동 연구를 경험하게 하여 향후 학회 내 여러 분야의 다기관연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싶었다. 2006년 9월 법적 검토 후에 안센 코리아의 공식적 용역계약 형태로 수행했다. 이후에 다른 학회에서도 유사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태 조사는 5개 연구자 군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각 군에는 4~5명의 대학 및 병원의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군에서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조사 protocol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약 400명의 우리 회원들이 담당하는 환자들로 하였으며, 각 연구자 군에서 개발한 protocol에 따른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그 분석 결과를 학회지에 게재하였다.

제1군 책임연구자는 동아의대 이규열 교수로 ‘추간판탈출증의 수술 후 통증’을, 제2군 책임자는 서울의대 장봉순 교수로 ‘퇴행성 요추부 병변의 유합술 후 통증’을, 제3군 책임자는 성균관의대 이종서 교수로 ‘Back pain and functional disability in degenerative flat back’을, 제4군 책임자는 연세의대 문성환 교수로 ‘만성 요통 환자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제5군 책임자는 가톨릭의대 김기원 교수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환자의 통증 조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우리 학회가 국내 처음으로 만성요통의 치료 지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큰 바위얼굴을 만나 척추외과 의사가 되다

돌이켜 보면,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훌륭한 분을 만나는, 사람 복을 타고 난 것 같다. 1980년 백송 김익동 교수님 밑에서 정형외과 수련을 시작하면서 매년 연초마다 ‘올해는 척추 분야를 시작해보자’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수련 중에 대한정형외과학회 초청강사로 오셨다가 모교인 경북의대 병원을 방문하신 Casey K. Lee(이규청) 교수님을 모시고 회식하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는 행운이 있었다. 대구경북지역 정형외과 월례집담회에서 대구 파타마병원 김홍태 원장님의 설록 흡즈와 같이 요추부 병변의 통증의 원인을 소위 pin-point diagnosis해서 치료하신 결과 보고에 어린 나이에 큰 감동을 받았다. 수련 중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Spine* 잡지 초기 복사본을 사서 모아, 훗날 교수가 되어 잡지를 찾기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덕을 보기도 했다. 1984년 신생 영남의대에 임용된 후, 척추 분야를 담당하면서,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몇 달간 새벽 기차로 가서 서울의대 석세일 교수님의 수술을 참관하고, 시간이 나면 대구에

서 김홍태 원장님의 수술을 참관하면서 하나씩 배워 나갔다.

1987년에 Univeris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에서 존경하던 Casey K. Lee 교수 지도하에 약 3개월간 단기 연수하였다. 이 교수님께서 매주일 하루를 의공학자들과 협동으로 사체 척추골을 이용한 생역학적 기초 실험을 하고, 인공추간판을 개발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다. 또한 여러 곳의 신경외과, 마취 통증, 재활의학과 및 정신과 등의 의사들과 다학제간 임상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생체역학 및 생체재료학자들과 함께 기초 연구 및 의료공학적인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2000년 11월 영남의료원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및 방사선과와 함께 협진하는 척추센터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러한 고부가 가치 의료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1980년대 정형외과 거의 대부분 수술용 기기들은 수입되어 사용되었고, 당시 근로자들 급여 수준이 월 백여만 원에 불과했는데, 척추경 나사못 4개와 봉 2개가 약 200백만 원의 고가로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너무 아깝고 비쌌다. 1988년 귀국 후에 공동 연구할 의료공학자를 찾던 중에 포항공대 염영일 교수님을 소개 받아 영남대 인주철 교수님을 모시고 1990년 초에 포항산업기술평구소 과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외고정구 Extor I을 연구 개발하여 상업화하였다. 이어서 과학재단 목적기초과제로 염영일 교수의 인공고관절 연구 개발 과정에 연구원으로 참가하여 다양한 생역학적 실험, 유한요소 해석 및 인체측정학적 연구에 참여하는 행운을 가졌다. 포탄을 만들던 방위산업체 협진정밀(주)이 참여업체로 제작을 담당하였다. 이 협진정밀은 후에 BK meditek(주) 의료기기 전문 생산업체로 바뀌었고, 현재도 체외고정구와 척추내고정 장치의 후속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초기 의료공학 산업, 국산화가 시작되던 초기 모습의 하나다. 1990년 초반기 척추 관련 기기의 연구 개발로 연결되지 못해 아쉬웠다.

- IMF 국가적 재난 속에 척추 내고정 장치들을 연구개발하게 되다

IMF 사태가 벌어졌던 1997년도는 우리나라 현대사 중 가장 어려웠던 한 순간이었다. 의료기기 거의 대부분이 고가로 수입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술 기구의 공급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그

러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늘어나는 국가적 의료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미래 의료공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기 국내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기술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1997년에 ‘척추경 나사못 시스템의 개발’ 과제로 참가하여, 1998년에서 2002년 9월 말까지 ‘경추 및 흉요추의 전후방 내고정 시스템의 개발(HMP-98-G-2-046-A)’ 과제를 영남대학교에서 주관책임자로 참여하였다. 제1세부는 순천향의대(신병준)에서 임상적 연구, 제2세부는 영남의대에서 형태해부 및 생체적합성 연구, 제3세부는 영남대공대(정일섭)에서 역학적 해석 및 설계, 제4세부는 인제대학(이성재)에서 생체역학적 실험분석 및 제작(형상기억합금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였다. 참여업체 BK meditek에서 연구비를 일부 분담하고, 모든 기기 및 수술 보조기구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Dyna Fixator System 및 경추부 Peg plate system을 성공적으로 상업화 할 수가 있었다. 나는 2017년 영남대학 정년퇴임까지 흉요추 및 경추부 수술의 대부분을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분 수술하는 행운을 가졌다.

2005년도에 영남대 공대 김석영 교수와 함께 바이오세라믹 관련 골대체물의 개발에 참여하여 현재 제품이 국내 생산되어 국내외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 질병 치료하기보다 환자의 삶을 같이 사는 의사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학회 되길

나는 훌륭한 스승님들과 선배님 그리고 척추외과 및 의료공학 동료들을 만나 오늘의 행운을 가졌다. 회장 임기 내내 간사로 수고하신 이환모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제 후배님들에게 몇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외국의 지식과 기기를 받아쓰는 소비자이기보다는, 기초 연구를 통해 탐구하는 창의적 의과학자가 되고,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질병을 가진 환자의 삶을 도우는 선한 이웃이 되며,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학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4월

제23대 회장 안 면 환

안 면 환



제 24 대 하 기 용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척추외과학회로 성장

우선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회원이 1,000명을 넘어 명실상부한 학회로 성장하였고,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세계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면 역대 회장으로서 무척 자랑스롭습니다.

1994년 5월 27일 제1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Locking Screw-plate Fixation of Cervical Spine-comparative Study”라는 주제로 처음 발표를 하고, 교수로 재직한지 3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척추외과학회 회원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열정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정형외과 의사이시던 부친을 기리는 하재구학술상을 제정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척추외과학회의 지속적인 학문 발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기에는 해외 척추외과학회와 활발히 교류하였습니다. 2008년도 KASS (Korean-American Spine Society)에서는 상호 학문적 교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8년 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 정형외과학회에 초청받아 당시 일본척추외과학회 Shinichi KiKuchi 회장과 ‘한일 척추외과 교류 협정식’을 체결한 것이 기억에 남으며, 우리 척추외과학회의 위상이 대외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 위원회 임원들의 구성 및 규정을 개편하는 등 학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회장님들의 노력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Travelling Fellowship 등 국제적인 학회로 더욱 성장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회장이었던 2007년 *Asian Spine Journal*이 창간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10년 PubMed와 2011년 SCOPUS에 등재되었으나, SCIE로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국제적인 학회에 걸맞은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SCIE 등재를 위한 여러 회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根固枝榮(근고지영)이란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는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학회 회장 및 임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척추외과 회원님들의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척추외과학회가 세계적으로 더욱 발전하여 왔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 회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제24대 회장 하 기 용





제 25 대 이 춘 기

모두를 품는 학회가 되기를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간사와 회장, 그리고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은 개인적으로 무척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척추외과학회는 저에게 있어 항상 마음속 고향 같은 존재이며, 이 학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척추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잃었을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다시금 앞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변화와 혁신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학회의 정관 중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만을 정회원으로 한정하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척추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경외과, 재활의학 등 다양한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회는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는 척추외과학의 전반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학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킹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학문적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척추외과학 분야에서 다시금 우리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회의 내부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회원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회 내의 여러 위원회와 연구회가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회는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앞으로도 학문적 우수성과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제25대 회장 이 춘 기





제 26 대 유재원

회고록

어언 40여 성상!

얼마 전 학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를 한 것 같았는데 벌써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출범한 지 4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회 회원님들, 임원진, 그리고 자문위원님들의 각자 임무 완수로 학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실감합니다.

제가 대한척추외과학회 26대 회장직을 맡아 일한 지 벌써 15년이나 지나면서 학회는 엄청 발전하여 이제는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회원 수도 명실공히 회원번호 1,000번을 넘어섬을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축하할 만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3년 5월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참석하면서 100여 명의 외국연자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학술적인 역량을 더욱 배가시키고 또한 서로의 국제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는 모습은 정말 흐뭇하였습니다. 또한 학회총회에서 회원증서를 수여할 때 회원번호 1000번과 1001번에 대해 시상할 때는 마음이 매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학회의 모든 회원들이 노심초사하여 이루어낸 결과라 생각하여 더욱 값지고 자랑스런 일이라 자부합니다. 또한 국제 학술지 *Asian Spine Journal*이 아직 SCI에 등재가 안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금명간에 등재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더욱 학회가 자랑스롭습니다.

이러한 여러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 집행부를 위시하여 임원진들은 이를 찾아내어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제 학회는 세계 속에 대한척추외과학회 위상을 세우는 데 모두들 역량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하여 우리 학회도 인재 등용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여건상 수도권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직시하고 전국 규모의 학회로서 위상을 고려하여 지역적인 안배로 모두가 참여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대 회장 유 재 원



제 27 대 신 병 준

제가 척추외과학회와 인연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7년에 석세일 교수님의 2대 fellow로 척추외과를 전공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부전공을 하려면 당연히 1-2년 또는 그 이상의 fellow 과정을 거치지만 당시만 해도 의사들조차 fellow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할 정도로 fellow 제도 자체가 생소하던 때였습니다. 1년간의 fellow 생활을 마치고 1988년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척추외과학회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36년간을 척추외과 의사로, 교수로 그리고 척추외과학회 회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척추외과학회 회원으로서 총무, 학술위원장, 회장 등을 거치며 학회에 봉사할 수 있었던 영광을 누린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대한척추외과학회 30년사”에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27대 회장으로서의 회고록(116~117쪽)과 척추외과학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386~390쪽)에 대해 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사적으로 기억하는, 그러나 척추외과학회의 발전과 일맥 연결될 수도 있는 회고담을 몇 가지 적고자 합니다.

Spine X-ray conference 모임

요즘은 척추외과학회 산하의 각종 연구회 모임이 활성화되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고민되는 case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척추외과학회 본학회 외에는 딱히 어려운 case

에 대해 의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갈증을 풀기 위해 서로가 경험한 특이 case를 같이 보며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여 1998년 5월 8일 서울순천향대학병원에서 Spine X-ray conference의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록하는 것은 Spine X-ray conference라고 하고 있지만 당시에 특별히 모임의 이름을 만든 것도 아니고 따로 운영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닌, 드러나지 않는 모임으로 운영되었지만 참가자 서로에게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제공하는 참으로 유익한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모임의 멤버들은 라종득, 박희전, 장한, 이춘기, 신병준, 이춘성, 심대무, 장호근, 이종서, 김응하, 이환모, 김기택, 전창훈, 김진혁, 김동준(연장자 순) 등 모두 15명이었는데 모임에 올 때 각자의 fellow들을 동반하기도 하여 현재 학회의 중추를 이루는 분들 중에도 이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14일 경희의대에서 마지막 모임을 가질 때까지 총 41회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지금 생각해 봐도 매우 유익한 모임이었습니다.

척추 forum

척추수술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모두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두 과의 척추 관련 학문적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특정 전문병원의 과잉광고 및 무분별한 치료방법 도입으로 야기된 척추외과계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두 과의 뜻 있는 척추 담당의들이 모여 척추포럼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척추포럼의 창립 취지는 1.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척추와 관련된 학술적 교류 2. 척추 관련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정론 확립 3. 입증되지 않은 척추질환 치료법의 과잉홍보에 대한 주의 환기를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6월 5일 아산중앙병원에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각과 4명씩 8명으로 시작하여, 점차 당시 우수 대학병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 담당의들의 상당수가 이 포럼에 참가하여 두 과의 척추질환에 대한 학술적 교류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모임 이후, 이전까지는 알게 모르게 터부시되던 정형외과(대한척추외과학회)와

신경외과(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의 학문적 교류가 원활해져서 현재는 AOSpine, ISSAS-AP, 척추종양학회 등 많은 학술단체들이 양 과를 아우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천향 척추 심포지엄

3년간의 부천병원 근무 후 2004년 초에 다시 서울병원으로 돌아오며 척추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1주년이 될 때 뭔가 기념할 만한 행사를 주최하자는 생각에 척추 심포지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단발성 행사로 끝낼 생각이었으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참석자 수와, 참석자들의 좋은 feedback에 고무되어 매년 개최하다 보니 COVID 사태가 시작되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18회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순천향 척추 심포지엄의 목표는 매년 특정 주제, 즉 큰 화두를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세부 연제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룬 화두들을 분류해 보면 특정 질환군이 7번, 수술 술기 관련이 3번, 합병증이 2번 다루어졌고 최신기술, controversy, future of spine, patient care에 대해 한 번씩 다루었으며 인문학적 접근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과 척추치료의 역사에 대하여 각 각 한번씩 다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제1회 순천향 척추심포지엄 기념사진



2023년 제18회 순천향 척추심포지움 기념사진

도 순천향 척추팀의 이재철, 최성우, 장해동 교수들께서 이 전통을 더욱 더 훌륭하게 이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척추외과학회의 정식 역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록은 남겨야겠다고 생각되는 세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척추외과학회의 큰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야사에 불과하지만 시대를 같이한 1950~1960년대생 회원들에게는 마음속에서 자그마한 울림과 향수가 배어 나올 수 있는 모임들이라고 생각되어 그 기록을 남깁니다.

2024년 4월

제27대 회장 신 병 준



제 29 대 이 환 모

학회의 또다른 도약을 기대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이 뜻 깊은 해에, 학회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지난 세월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척추외과학은 전 세계적으로 학문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척추외과는 학문, 진료, 연구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헌신적으로 학회를 이끌어온 수많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05년부터 3년간 학회의 간사로 활동하며 박희전, 안면환, 하기용 회장님을 보필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학회 운영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며 학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2~2013년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과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회장직은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했지만, 다행히 선배, 동료 회원들이 잘 다져놓은 토대 위에서 학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학회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학회 내에 홍보위원회를 신설하여 대국민 홍보에 집중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학회의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척추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해 척추신경외과학회와 협력했으며, 척추 관련 건

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 비록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학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회는 불惑(不惑)의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학회의 40주년은 학회가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학회는 더 큰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는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미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척추외과학 분야의 중심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합니다. 학회의 40년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모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제29대 회장 이 환 모





제 30 대 이 종 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1984년 창립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40년간 끊임없이 발전, 성장하여 왔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제30대 척추외과학회 회장으로서 2014년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기념행사를 주관한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학회 회원들이 꿈꾸는 10년후 우리 학회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하여 “Vision 2024”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0주년이 된 지금, 과연 그때 우리가 이루기를 바랐던 바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앞으로의 10년간 우리 학회의 vision은 **신뢰받는 선도학회**를 지향하자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학문적 리더십 발휘와 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회의 국제화**’, ‘**국민과의 소통**’, ‘**회원의 창조적 역량강화**’라는 3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또 다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시하였던 10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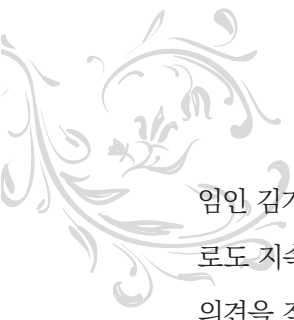
1. 대한척추외과학회 학술대회의 개방
2. 국제적인 출간물 발간
3. 세계 유명척추외과학회 유치 및 교류
4. 건강한 S-line 만들기 캠페인
5. 홍보위원회 기능강화

6. 척추질환 검진사업 시행
7. 미래기획위원회 설립
8. 보험위원회 기능 강화
9. 의료정책수립에 적극 참여
10. 연구재단설립 및 발전기금 모집

이중 대부분의 중점과제들이 후임 회장단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학회의 국제화**를 위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를 대외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여 2020년 제37차 춘계학술대회부터는 외국인 fellow를 적극 참가시키고 Asia 각국의 회장단을 초빙하여 국제학술대회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이후부터 매년 춘계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여 점차 외국인 참가자의 수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처음에는 어색하던 영어발표 및 영어진행도 이제는 매우 자연스럽게 국제학회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국제학회들을 유치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도 ISASS AP에는 해외각국의 저명한 연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많은 해외 fellow들이 각 병원에서 연수 중이며, endoscopic spine surgery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며 선도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이를 배우기 위하여 내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학회가 지향하였던 “신뢰받는 선도학회”라는 vision을 훌륭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맡고 있던 학회 영문판 학술지인 *Asian Spine Journal*을 SCI에 등재시키지 못한 채 후임에게 과업을 넘기고 그만둔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후임 편집위원장의 노고로 SCI 등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건강한 S-line 만들기”라는 슬로건하에 일반국민이나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척추질환 건강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병원에서 relay 건강강좌를 열었으며 전국 척추질환 환자의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각 병원의 사회사업실의 협조를 얻어 불우환자를 위한 수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연구재단 및 발전기금 모집을 제 후



임인, 김기택 회장 때부터 시작하였으나 몇 년간 지속되다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열정이 있는 젊은 brain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의 미래를 기획할 미래기획위원회를 바로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취임 당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과제 중 하나는 우리 학회의 중요한 한 축인 개원의 회원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개원의들도 적극적으로 학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였습니다. 개원의들이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개원의들이 평의회 회의에 평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평의원제**를 신설하여 이분들이 개원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원의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26일 **제1차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개원의 연수강좌에는 23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하여 개원의 회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개원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개원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원의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개원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척추통증연구회**를 대한척추외과학회 산하 연구회로 신설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의료수가, 과잉삭감 문제 등과 같이 우리 회원들이 손 써보지 못하고 끌려만 가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였고, 의료수가의 조정이나 의료비 삭감 등의 문제는 되도록 신경외과와 한 목 소리를 내기 위하여 **보험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조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10년 동안 이상과 같은 10대 중점과제를 대부분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중 국제학회의 개최, 직능평의원제, 개원의 연수강좌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몇 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학회 40주년을 맞아 다시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척추외과학회는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역할 또한 학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향후 젊은 회원들이 부담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발전해가는 대한척추외과학회에 박수를 보내고 옆에서 격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제30대 회장 이종서





제 31대 김 기 택

먼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척추외과학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간 학회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공헌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1990년도에 대한척추외과학회에 입회하여 학회 속에서 학문과 사회생활을 터득하며 성장하여 2014년도에는 우리 학회의 제31대 회장으로 1년간 봉사했습니다. 그 후 우리 학회의 후원하에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형외과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척추학회에서 어린 성장 과정을 선후배, 자문위원님들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척추학회의 최대의 수혜자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40년이란 성상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척추 학문을 다루는 최고 지성의 집단이 모인 학회로서 또한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대표적인 유관학회로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척추관련 학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대표적인 학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냥 얻어진게 아니고 초창기 어려운 시기에 46학회를 이끌어오신 선배님들의 고충과 꾸준히 새로운 신기술과 학문을 적용하여 훌륭한 논문을 발표한 동료 회원님들의 노고, 그리고 매년 학회 발전을 위해 고민해오신 회장님을 비롯한 평의원, 자문위원, 각종 위원회가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면 그분들의 공헌을 말로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인이 회장을 재임한 시기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종서 전임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발전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었고, 제 기억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실적으로는 S라인 만들기 사업으로 각 학교, 외국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학회 홍보 심포지엄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였고, 학회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영어 발표 토론 세션을 만들어 최초로 학회 회원들에게 소개가 되어 지금은 영어가 학회 공식언어가 되는 국제학회의 초석을 만들고 프로그램과 초록집이 완전 영어로 발간되어 외국인들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 학회의 위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 본인이 취임할 때와 이임할 때 준비했던 취임사와 이임사를 싣는거로 회고록을 마칠까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 척추외과학회의 미래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제31대 회장 김 기 택





제 32 대 이 규 열

학회 출범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32대 회장이 되었던 2015년도에는 지회와 분과 학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참여 인원과 개최 회수도 증가하여서 본 학회 외에 서울과 타 지역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장 격려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종서, 김기택 전 회장님들이 시작한 활동적인 학회사업 안들을 물려받아서 지회와 분과 학회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요통의 보존적 치료와 효과에 대한 분석을 틈을 짜서 일 년 간 연구시켜 그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만들어 언론사와 각 학회에 통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방대학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학회가 한참 도약했던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척추에 관여되는 여러 학회들이 많지만 40년 전 전국 최초로 결성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주춧돌이 되었던 초창기 선배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세계적인 학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집행부의 노력에도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 학회의 활동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척추 전문의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척추치료의 임상적, 학문적 지침에 중심지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애쓰시는 현 집행부의 노력에도 감

사드리며 큰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대학척추외과학회 40주년을 축하하며 역대 회장님들과 현 자문위원, 평의원, 각
분과 위원님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현재의 학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024년 4월

제32대 회장 이 규 열

이 규 열



제 33 대 김 환 정

더 튼튼하게 성장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40년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학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 우리 학회의 학문과 진료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세계적으로 척추관련 학회로서는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학회로 국제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여러 학술단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훌륭한 학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자랑스롭습니다.

그동안 척추 관련 분야를 개척해 온 선배님들의 고충과 훌륭한 논문으로 화답했던 동료 회원님들 그리고 매년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평의원, 자문위원, 각종 위원회와 8개 전문 연구학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했으며 그동안의 노고와 희생에 존경을 표합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우리 학회의 사회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하да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각 분야가 복잡하고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학회도 더 전문적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적인 집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40년간 쌓아온 척추외과학회의 토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튼튼한 학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을 축하드리며,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멋진 대한척추외과학회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제33대 회장 김 환 정





제 34 대 전 창 훈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40주년을 맞이하며

2024년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40년 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원로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창립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오늘날, 국제적인 명성과 입지를 지닌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이제까지 일구어온 전통과 교훈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제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신병준 선생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의 권유로 전임의를 위한 교육위원회를 신설 하였습니다. 이에 전임의들로 하여금 척추외과의 기본 지식과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동물실험이 가능한 연수강좌를 개설하였고, 더불어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관리하는 척추외과 전임의 등록 및 인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회의 임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 학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문호를 넓히고, 전보다 많은 회원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해 한해 새롭게 거듭나고 발전하는 학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제34대 회장 전 창 훈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C H J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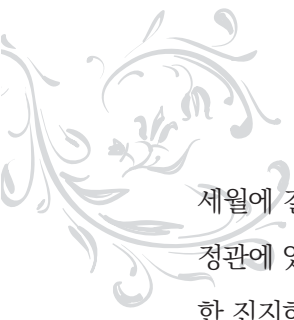
제 35 대 김 동 준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을 맞으며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창립된 지 어언 40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교실의 고 왕진만 교수님께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간사로 계시면서 학회지 창간 작업을 하실 때, 옆에서 거들어 드리던 것이 벌써 30년 전의 일이고, 신병준 당시 간사님의 지휘하에 김진혁 교수와 함께 학회 20년사 발간 작업을 하던 때가 20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지난 40년간 정말 놀라우리만큼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회가 이리도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우리 학회 회원들의 능력과 열의가 가장 큰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회의 운영 구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를 창립하신 스승님과 선배님들께서는 우리 학회의 운영 구조를 평의원제로 정하셨습니다. 회장 1인이 짧은 임기 동안 서둘러 치적을 쌓는 체제가 아니라 마치 신라의 화백제도처럼 10여 명 전후의 평의원이 중지를 모으고 합의를 이루며 긴 호흡으로 학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해 나감으로써,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 학회가 이렇게 여러 학회들의 귀감이 될 만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스승님과 선배님 그리고 동료, 후배 회원들이 긴



세월에 걸쳐 이룬 자랑스러운 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학회 정관에 있는 것처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척추외과학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진지하고 진정한 학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짧은 인사로 회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멋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제35대 회장 김 동 준





제 36 대 김 학 선

2019년 5월 25일 강릉 앞바다는 봄바람은 부드럽고, 햇빛도 따뜻하고 척추외과학회는 열띤 토론과 발표를 하고 있었으며, 이날 학회 마지막에 제가 취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① 척추외과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② 척추학회를 국제대회로 격을 올리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척추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학술대회를 춘계는 지방, 추계는 서울에서 시행하여 왔으나, 국제 학회는 외국 참가자 편의를 고려하여 장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모 학회인 정형외과학회가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므로 서로 겹치지 않기 위하여 척추학회를 봄에 서울, 겨울에 지방에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6차 추계학술대회를 임시로 서울에서 2019년 11월 15일 시행하고, 2020년 37차 학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하기로 계획하고, 아시아 각 나라 척추외과학회장 등이 참석하기를 약속받는 등 활기차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유행성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2020년 1월 20일에는 국내에서 최초 환자가 발생하고, 2020년 4월에는 뉴욕시에서만 사망자가 하루 630명을 넘는 아주 심한 감염병 공황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척추외과학회 최초로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여러 곳에 초청장 및 안내장을 보냈으나, 아주 공포스러운 감염병 공황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하는 수 없이 2020

년 8월 2일로 미루어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가까스로 최초의 국제 학술대회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on line and off line 대회를 그 동안은 한 번도 치룬 적이 없기 때문에 학술대회 전날인 2020년 8월 1일까지도 준비가 다 안 되어 이날은 이재협 총무를 비롯한 전 관계자가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밤새우면서 준비하였고, 2020년 8월 2일 새벽 5시에 완성하여 가까스로 학술대회를 마친 것이 지금 생각해도 아슬아슬한 기억입니다.

2024년 4월

제36대 회장 김 학 선

HakSunKim



2019년 5월 25일 강릉 라카이샌드 파인리조트 취임사



제 37 대 조 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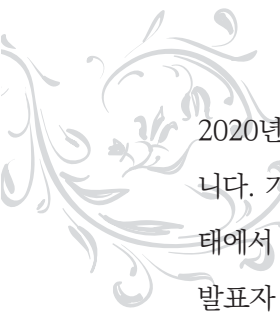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4년 이후 40년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후배 및 동료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학회에 첫발을 내디딘 때는 서울대병원에서 석세일 교수님 밑에서 척추 전임의를 하던 1995년 5월 춘계 학술대회였습니다. 기라성 같던 선배님들을 가까이에서 뵈면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기쁨에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미국 연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박승립 당시 학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학술위원회 위원에 참여하고, 골다공증연구회 창립 총무를 맡아서 동분서주하던 기억도 있습니다.

2011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가 되면서 학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4년 동안 이춘성 회장님, 이환모 회장님, 이종서 회장님, 김기택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평의원 임기제 전환, 부총무직 신설, 지회의 제도화, 개원의 연수강좌 도입 등, 학회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학회의 비전을 제정하였습니다. 3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이종서 회장님이 제창하신 미래비전 선언문에는 학술대회의 국제화, 세계적인 출판물 발간, 대국민 봉사 사업 일환으로 척추 S라인 캠페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학회를 운영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수시로 바뀌면서 학회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학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2020년 추계 학술대회는 좌장과 발표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하는 온라인 학술대회로 치렀고, 2021년 춘계 국제학술대회는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회로 개최하여 수십 명의 해외 연자와 발표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국내 연자는 대면 참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세 가지 중점 사업을 계획하였고 무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학회의 국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100% 영어 진행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국제 학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둘째,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보험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고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원들의 불이익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학회의 대국민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무료 척추수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치료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회원 병원의 추천을 받아서 일정의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척추외과의 길로 들어서서 제 경력의 대부분을 대한척추외과학회와 함께 쌓고 길러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랜 기간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준 선후배 동료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곧 평의원에서 물러나고 후배들에게 학회의 임원 자리를 넘기면서 앞으로는 한 명의 회원으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창립 40년을 넘어 앞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제37대 회장 조 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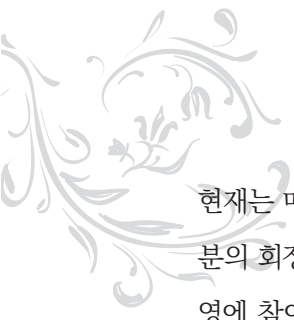
제 38 대 장 봉 순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 더욱 큰 변화로 새로워질 때

이제 어엿한 장년의 나이인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COVID-19가 한창이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이제 직임을 내려놓은 지 2년이 됩니다.

직임 기간 동안 저는 좀 더 내실 있고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회 내 중요 모임인 9개의 위원회와 8개의 연구학회를 활성화하고, 회원의 저변이 되는 6개 지회에 대한 지원을 다하며, 3년째 지속되는 COVID 상황 속에서도 대면 모임의 활성화와 제 3회 국제학회를 주최하고, 척추수술비 지원 사업 등 대국민 봉사, 척추 유튜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전공의, 전임의, 정형외과 의사회에 대한 교육을 쉬지 않고 수행하였고, 43여 명의 신규 회원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1984년 20여 분의 발기인 모임으로 시작된 우리 학회가 이제는 회원이 1,000명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고, 나날이 발전된 진료, 교육, 연구 역량으로 대한민국의 척추분야를 책임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신 1세대 회원 분들이 한두 분씩 떠나가 심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현재는 매년 40~50명의 신규 회원이 있고, 매년 평의원 1~2명을 선출하며 대개 그 중에서 1분의 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회원 수에 맞추어 보다 많은 회원이 학회 활동과 운영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2024년 4월

제38대 회장 장 봉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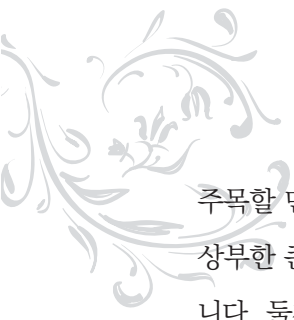


제 39 대 최 용 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매우 기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40년간 대한척추외과학회의 학문과 수술에 있어 눈부신 발전은 그동안 척추외과를 이끌어온 존경하는 자문위원, 평의원, 그리고 선후배 동료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2년부터 회장을 역임한 기간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방역대책본부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우리 학회의 제 위원회와 연구학회, 산하 지회 활동이 온라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오프라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탄력적인 대응을 하며 각 학회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제40차 대한척추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인 KSSS 2023을 서울의 중심부인 롯데호텔 컨벤션으로 옮기고, 본 학회의 Satellite 심포지엄으로 척추기초 심포지엄을 융합하여 대한민국 척추 기초의 위상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척추외과학회 회장단 주관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척추 협력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세계적 팬데믹 기간 처음 추진된 오프라인 국제학술대회에서 해외 19개국 107명을 포함한 등록자 503명의 척추외과 의사 참여와 척추 분야의 더욱 효과적인 질병 치료에 대한 연구 열정, 그리고 학회의 국제화에 성공적인 도약을 향한 선후배 회원들의 학회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학회 정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고 안정적인 학회의 자산으로 명실상부한 큰 학회로 성장하여 학회의 자산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재정위원회를 신설하였던 점입니다. 둘째, 호주 멜버린의 Spineweek 2023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 세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K-척추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 및 대만과 Travelling Fellowship 양해각서 체결은 젊은 척추 의사의 주도적인 국제 교류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척추브 동영상 업로드(조회 수: 12만 4천 회)로 대국민 척추질환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건강정보 전달자로서 역할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정당한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처음으로 척추신경외과학회와 보험위원회 합동 심포지엄을 통해 척추 보험 현황 및 문제 분석과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현실적인 한계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4월 학회 발전세미나에서 학회 미래를 위한 아젠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제 위원회와 연구 학회에서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학회로 전진하리라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성경 말씀같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40년 역사속에서 성취된 과거, 척추외과학의 선배들이 남긴 창의적 도전 정신, 즉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0년사로, 우리 학회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여 그 위에 더 큰 뜻을 세우고 발전된 학회로 성장하리라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을 축하하며, 그 시간을 함께해 온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4월

제39대 회장 최 용 수

최 용 수

제2장

대한척추외과학회 학회의 역사

제1절

척추질환 치료술의 도입과 척추 기기술

제2절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창립

제3절

내실을 다진 대한척추외과학회

제4절

학회의 활발한 학문 교류

제5절

2014년 창립 30주년 기념비적인 해

제6절

국제학회로 비상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제7절

국제화 시대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 비전

메르도 구간골의 용단

글과목과잇만(腰骨)이라이름구별한바편위와(眞椎)가회(假椎)의두가지로호너라
(一)진퇴는은은二十四척내서로항호여벗지아나호요각각은동을호는거니
더복와허라와잇가슴의부위를호는아를다서구별호예우히느리돌
정퇴(頸椎)라호고아매五척를
요퇴(腰椎)라호고아은의十二척를
흉퇴(胸椎)라호는너라

제2장 제1절

척추질환 치료술의 도입과 척추 기기술

외국에서 유합술로 치료에 성공했다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강력한 항생제와 항결핵제를 널리 사용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연세의대 정형 외과학교실을 창설한 문병기 교수가 당시 빈번하던 척추결핵 환자에 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고, 1956년 고 안병훈 회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이 국립의료원을 개원하면서 스칸디나비아 의사들과 함께 현대적인 척추수술을 시작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와 정치적·경제적 불안으로 공중위생과 개인의 영양 상태가 열악하여 폐결핵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에 따라 척추결핵 빈도도 높아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주된 척추수술은 결핵의 배농과 전방 유합술이었다. 1957년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주정빈, 한문식, 석세일 회원이 척추결핵에 전방 유합술을 도입하여 치료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전방 유합술은 아직도 척추결핵뿐 아니라 척추 감염 치료의 지침이 되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각 대학병원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한 척추수술로는 추간판 탈출증에서의 추궁절제와 추간판 제거술이나 척추골절과 같은 외상에서 관혈적 정복 후 후방유합술 등이 있다. 1962년 미국에서는 해링톤(Paul Harrington)에 의한 후방 기기술이 JBS에 발표되어 내고정물에 의한 측만 교정과 유합의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척추수술의 혁신이 일어났다. 척추의 변형과 성인의 동통성 만곡에서 적응이 되던 Harrington 기기술은 수기와 기기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골절과 감염 등 모든 분야에 활발하게 활용되어 척추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질환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후 Harrington 내고정은 Luque의 추궁하 강선 고정술이 발표되기 전까지 20년간 척추수술의 주된 수술 방법으로 군림하였다. 1970년대에 루끼(Eduardo Luque)는 후방에서의 강봉에 추

궁하 강선을 엮어 강한 교정력으로 변형을 교정하고, 내고정 금속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수술 후 보조기나 석고 고정을 피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발표하였다. 이 방법은 아직도 다양하게 사용되며, Harrington 기기에 추궁하 강선을 연결하는 Harri-Luque라는 술식이 되기도 하였다.

해링톤의 후방 고정술이 발표된 즈음 1960년대에 드와이어(Allen Dwyer)에 의해 전방에서 추체를 가로지르는 나사와 이에 부착되는 강선을 이용한 고정술이 발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전방 고정술의 시초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국립의료원 조덕연 회원이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치료한 추간판 탈출증 100례 결과를 발표하였다.

1970년대 들어 질케(Klaus Zielke)가 semi-rigid 강봉을 이용하면서 전방 내고정술에 의한 척추수술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 척추측만증의 수술적 치료는 1959년 연세대학교 김광희 교수가 처음 시작하였다. 이는 Turnbuckle cast로 교정하고 Harrington rod를 이용하여 후방유합술을 시행하는 방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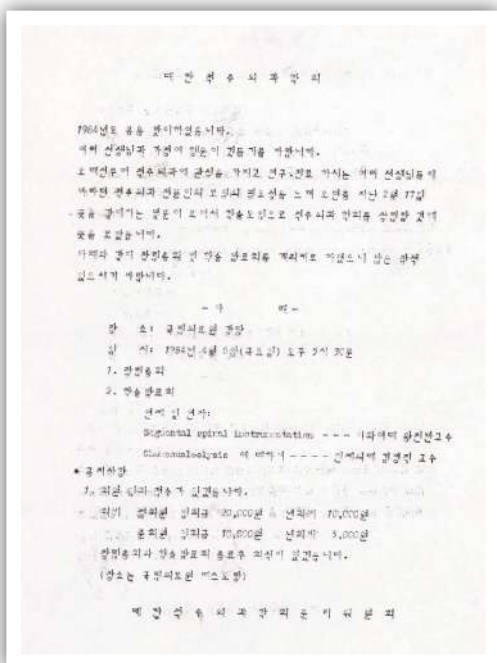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트렐(Yves Cotrel)과 드보세(Jean Dubousset)에 의해 척추수술에서 갈고리(hook)와 횡고정 장치(cross-link)를 이용한 치료로 보다 안정적인 고정과 유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고가인 내고정물 때문에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용되었고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보편화되었다.

현재 척추수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척추경 나사는 1980년대에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요추에만 국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 초부터 석세일 교수가 측만증 치료 시 흉추의 척추경 나사 사용을 선도적으로 시도하여 측만증 치료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를 세계 유수의 학회 및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 술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럽 및 북미의 의사들이 거꾸로 이 술식을 배우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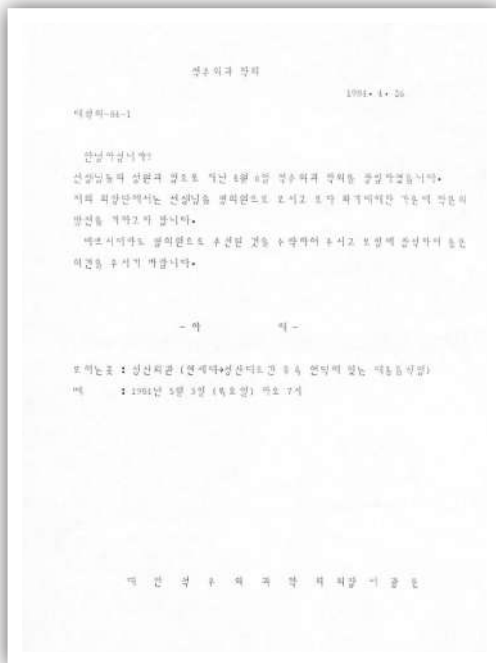
제2장 제2절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창립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안병훈, 문명상, 김남현 회원이 1984년 1월 10일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창립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1984년 2월 17일 서광윤, 김광희, 김형순, 석세일, 윤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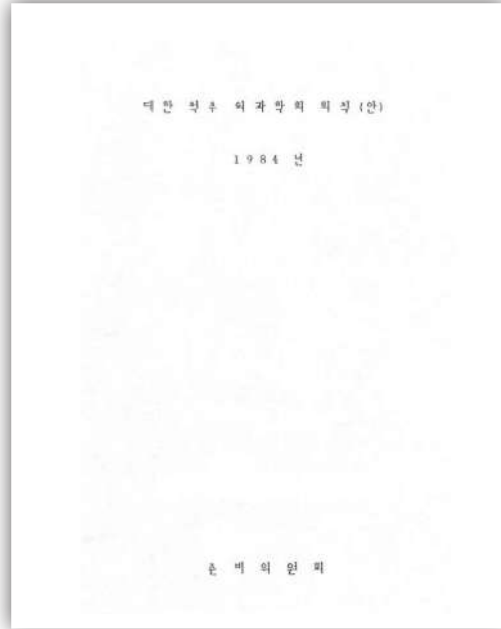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총회 공문(1984)



창립 후 평의원회 모임 안내 첫 공문(1984)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칙 표지(1984)



최초 연제 요청 공문(1985)

박병문, 김기용, 김남현, 문명상, 김인, 김기수, 유충일, 변영수, 왕진만, 안병훈, 이영구 회원 등의 발기인 총회를 거쳐 창립총회는 정형외과 전문의 20여 명이 1984년 4월 6일 오후 5시 30분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가졌다.

초대 회장은 인제의대 서광윤, 감사는 김홍태, 왕진만 회원이었다. 창립총회와 함께 열린 제1회 학술대회에서 김병직 회원은 ‘Chemonucleolysis에 대하여’를, 왕진만 회원은 ‘Segmental Spinal Instrumentation’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학회의 집행기관인 평의원회의 초대 평의원으로는 주정빈, 김광희, 석세일, 김형순, 박병문, 김기용, 문명상, 윤승호, 이영구 회원이, 김남현 회원은 감사로 선임되었다. 1984년 5월 3일 제1차 평의원회에서 봄, 가을 2차례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초창기 학술대회는 모두 서울에서 개최했으나 1995년부터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에서, 추계학술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1984년 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처음 초청한 석학은 일본 고베국립병원 정형외과의 가타오카 오사무 과장으로, ‘Pathogenesis of Atlantoaxial Dislocation’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1987년에는 정재윤 회원이 고안한 학회를 상징하는 엠블램을 채택하여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지 사용하였다. 1990년 6월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여 9명이던 평의원 수를 12명으로 증원하고, 회원자격을 외과 전문의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4년 척추외과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는 국내 최초로, 『대한척추외과학회』지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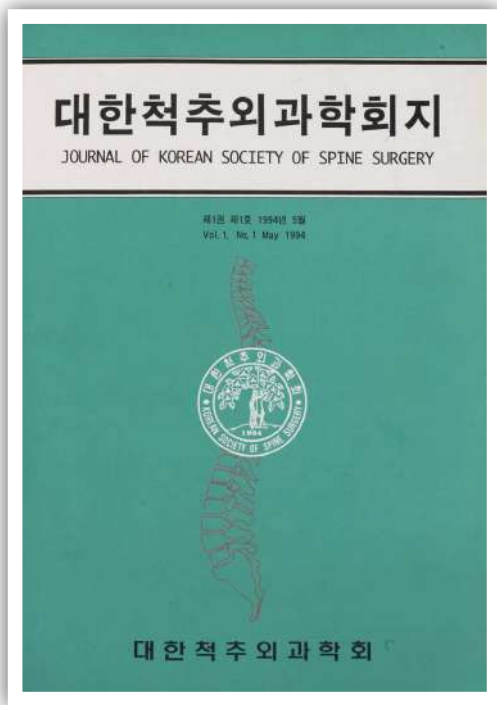
제2장 제3절

내실을 다진 대한척추외과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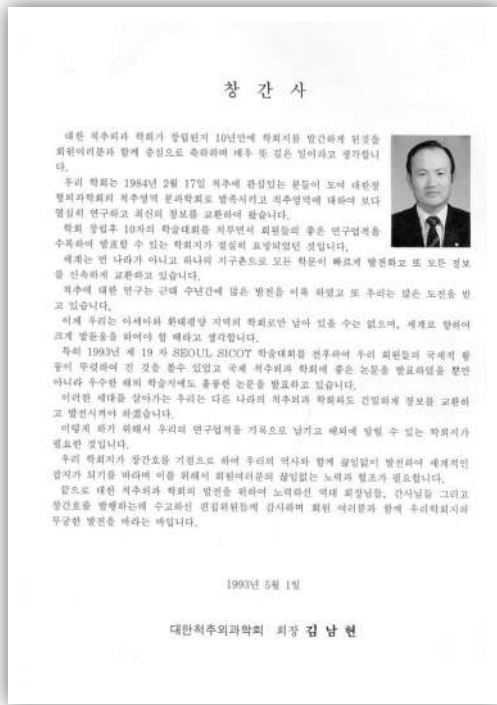
대한척추외과학회는 1995년 평생회원 제도를 도입하고, 평생회비를 20만 원으로 정했다. 1995년 제30차 평의원회에서는 의학적 유용성 문제로 논란이 있는 카이로프랙틱이 과학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카이로프랙틱 워크숍에 회원들의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 해 제33차 평의원회에서는 레이저디스크 수술에 대해 논의하여 이 술식이 의학적 유용성이 없으며 상업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1996년부터는 문명상 회원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미국 Lippincott Williams & Wilkins사의 『Spine』지를 학회의 공식 제휴 학회지로 인증하였으며, 대한척추외과학회지 게재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첫 번째 수상 논문은 이춘기 회원의 ‘흉추 및 요추의 운동 측정 기기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정상인에서의 흉추 및 요추의 운동 특성 분석’이었다. 또 석세일 회원은 학회의 우수한 구연 논문을 시상하기 위해 사비를 내어 향산학술상을 제정하였는데, 최초 수상 논문은 1997년 이춘성 회원이 발표한 ‘Clinical Study of Lumbar Degenerative Kyphosis’이었다.

1997년 국제최소침습 수술학회인 ISMISS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inimal Intervention in Spinal Surgery)의 정체성이 척추외과학회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ISMISS와는 관련을 맺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안으로 회원들의 학문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해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소침습 수술(MISS)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척추외과학회와 회원들은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6년 우리나라 정형외과학계 최초의 국제학술대회인 제5차 서태평양 정형외과학회(WPOA: Western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에서 문병기, 주정빈, 문명상 회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1993년 WPOA Spine Section은 문명상 회원이, 국제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SICOT: Societe



대한척추외과학회지 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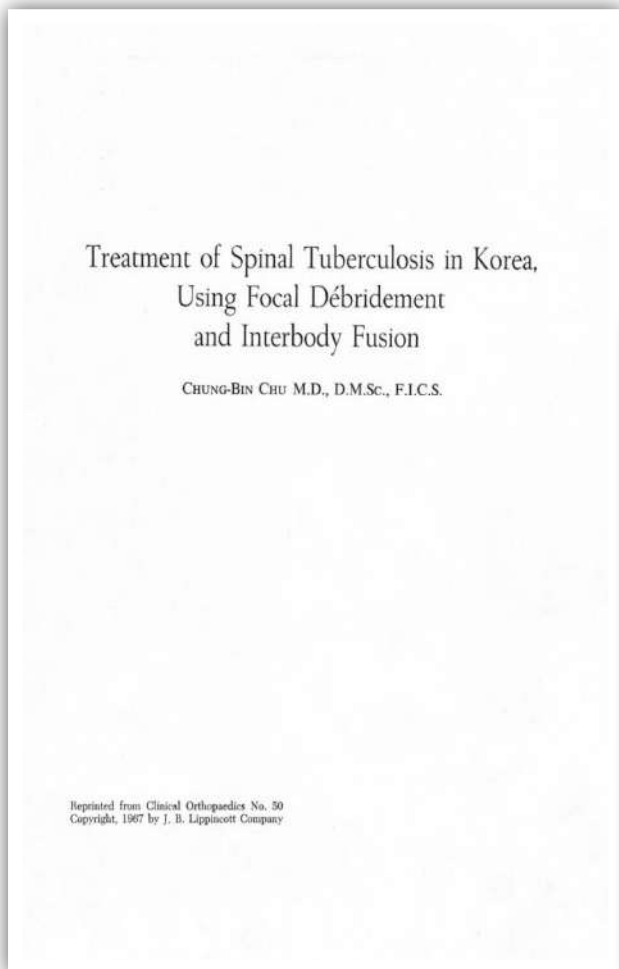


대한척추외과학회지 창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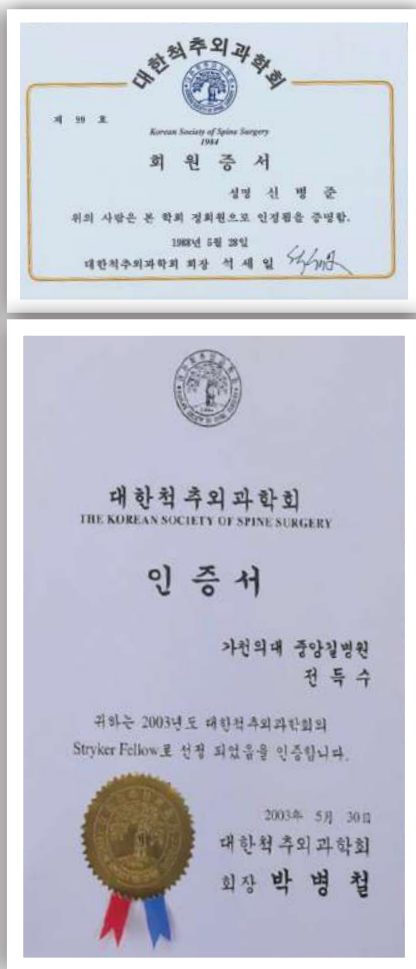
Internationale de Chirurgie Orthopaedique at de Traumatologie)는 문병기, 주정빈, 안병훈, 석세일 회원이, 제10차 GICD (Groupe international Cotrel Dubousset) 회의는 석세일 회원이 중심이 되어 개최하였고 석세일, 김남현, 신병준 회원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회원들의 국제학회 활동으로 한국 척추외과학이 다른 의학 분야보다 외국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1990년대 석세일 회원의 '흉추에서의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은 척추변형 교정의 새로운 획을 그어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으며, 2000년대의 직접 척추 회전술은 측만증 교정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편 왕진만, 조재림 회원이 1995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척추 후방절골술은 김기택 회원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보편화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증례를 『Spine』지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활발한 국제 학술활동 결과, 매년 석세일 회원에게는 SRS (Scoliosis Research Society)에서, 이춘기 회원에게는 APOA (Asian Pacific Orthopaedic Surgery)에서 3~5명씩 외국 연수생이 방문하고 있다. 정재윤 회원은 1999년부터 연 1회 이틀간 International Learning Center for Spine Surgery를 운영하며 매년 30~40명의 외국인 의사들을 교육하고 있다.



주정빈 회원이 최초로 국내 환자를 연구하여
발표한 해외 논문 표지



회원증서와 인증서

외환 위기가 일어난 이듬해 1998년은 척추외과학회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1998년부터 Sofamor-Danek과 Stryker사가 후원하는 Spine Fellowship 제도를 재정하고 학회에 제도위원회(초대 회장 왕진만)를 만들어 40세 이하의 회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9년 김동준, 김기원, 안재성, 조규정 회원이 첫 번째 Spine Fellowship으로 선정되어 국제학회에 참석하고 외국 병원을 참관하였다.

1999년 제1차 회칙을 개정하여 5월 3일 안병훈, 주정빈, 문명상, 윤승호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원회와 자문위원의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학술대회에 찬반 토론(Pros & Cons Debate)이 도입되었다. 또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추간판 내장증의 수술’(연자: 강철형, 김동준, 신병준, 이춘성)과 ‘결핵성 척추후만증에서의 절골술’(연자: 김기택, 김원중, 이춘기, 이환모)이 많은 호평을 받았다.

2000년은 척추외과학회지가 국제 정기간행물 정식 인가를 받아 학회의 공식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학회가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원으로 승인받고 대한의학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2000년은 의약분업 사태에 휘말려 의료계로서는 상당히 힘든 한 해로 정기 학술대회는 규모와 내용을 축소하여 개최하였고 정기 연수강좌는 취소되었다.

제2장 제4절

학회의 활발한 학문 교류

2005년 학회는 각 위원회에 연령층을 확대하여 신입, 원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 위원회 위원장은 임기에 따라 매년 한 명씩 교체되도록 했으며, 학회 업무를 원활하게 인계하기 위해 차기 간사를 후보 간사로 임명하였다. 척추외과학회 인정의(또는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을 논의하였는데, 이는 추후 제도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또 학회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으며, 당시 편집위원장이던 정영기 회원의 주도로 영문판 학회지 발행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문학회지(*Asian Spine Journal*) 발행을 목표로 편집위원장 산하에 국문판과 영문판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두었다. 또 척수신경연구회와 기초연구회를 증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법원 감정 심사 건이 급증하여 학술위원회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학회 차원에서 심사에 대응,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신병준 회원은 대한정형외과학회 50년사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학회사 부분을 정리한 글을 실어 주목을 받았다.

2006년에는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차 중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추계학술대회 해외 연자로 Casey Lee 박사(미국)를, Medtronic 회사 초청으로 Jean Dubousset 박사(프랑스)가 방문하였다. 논란이 된 CAOS (Computer Assisted Orthopaedic Surgery, 정형외과컴퓨터수술) 참여 문제는 CAOS 조직위원회에 척추분야 의사가 조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척추분야의 CAOS 참여의 길을 열었다. 지자체에서 발부하는 척수손상 환자의 장애인단평가의 경우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만 취급하도록(뇌신경장애로 규정) 되어 있었는데, 척추신경장애로 고치고 보건복지부에 정형외과 의사도 평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정형외과 의사의 장애인단 평가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학회지 편집위원장에게 국문과 영문 모두를 맡겨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한국 안센연구 용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상정한 온라인 심사 홈페이지에서 주제어 관련 논문 검색 작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의 대한의학회의 가입 건에 대해서는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여 척추 관련 학회의 난립에 반대하였다. 정회원 신청시 자격 기준과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사항으로 학회의 학술대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정회원 신청 및 자격유지 기준을 강화하였다. 평의원 정원을 15명으로 증원하고 평의원 절차 강화 및 자문위원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학회 공식 후원의 산하연구회 연수강좌는 2년에 한 번 시행하기로 하고, 기타 문제(학술대회 개최횟수, 산하 연구회의 소규모 워크숍 등)는 위원회의 입장을 검토하여 학술위원회와 평의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에는 국내 학회지 외 영문학회지에서도 기초 1편, 임상 1편의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기로 정하고, 영문학회지가 국문학회지와 같이 정형외과학회 전문의 시험 자격요건에 포함되도록 학회에 신청하였다.

2008년에는 1월 APSAS (Asia Pacific Spine Arthroplasty Society) 학술대회와 6월 APOA (Asia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 척추 및 소아 학술대회에 후원금을 지원하였다. 일본 척추외과학회와 상호교류를 결정하여 해외 의료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에도 앞장섰으며, 분야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추 경추 미세 변형 분과 연구회의 중복 임원을 금하도록 하였다.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Satomi 박사(Congress 회장), Howard An 박사(시카고 러시대학교)를 초청 연자로 하였고, 해외 학회와의 교류 및 영문판 학회지의 심사자 인준 및 심사료, 게재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9년 추계학술대회에는 Brian Kwon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을 연자로 초청하였으며, 이때부터 포스터 전시 연제에 대한 학술상을 신설하였다. 안면환 회원이 한국안센의 학술 용역사업을 제안하여 승인하였으며, 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동아제약의 Travelling Fellowship 제안을 승인하였고, 동아오츠카의 임상 연구 제안을 승인하였다.

2010년에는 *Asian Spine Journal*의 발간 건수를 연 4편으로 증편하였고, Pubmed에 등재되어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으며, 국문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었다. 또 2010년부터 자유 연제 중심의 춘계학술대회와 연구회 및 연수강좌로 구성된 추계학술대회로 그 성격을 달리해 개최하였다.

2011년에는 의료검증위원회를 임시 창설하여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된 신경성형술과 혈소판 농축 혈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평의원 제도 개선안을 제정해 평의원 임기는 4년, 1회



Asian Spine Journal Vol.16 No.6 (Dec. 2023)

연임으로, 회장 임기는 평의원 임기에 포함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 연임 불가이며, 정관 16조 자문위원은 현 정관의 나이 제한을 삭제하였다.

5월 춘계학술대회에는 Tim Yoon (KASS: Korean American Spine Society 회장), Wen Yu-an(중국척추외과학회 부회장)을 초청하였고, 학회에서 수여 중인 학회 국문학회지, 영문학회지 우수논문상과 별도로 국제학회지(SCI급) 우수논문상을 제정하였고 영문 홈페이지, 학술행사 등록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8월에는 부산에서 제11차 아시아·태평양 미세 최소시술 척추외과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 400여 명의 참가자들이 'Future of the MISS'라는 주제로 다양한 토픽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2012년 5월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Manabu Ito(홋카이도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Norio Kawahara(가나자와의학대학교), 미국의 Behrooz Akbarnia(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초청하였다.

2012~2013년에는 여러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평의원 중 박병철, 이준규 의원이 사임하고 이규열, 전창훈, 김환정 회원이 새로 위촉되었으며, 직능평의원 제도를 신설하였다. 간사제도를 개선하여 간사를 총무로 개정하고 임기를 2년으로 했으며, 부총무제도를 신설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초대 부총무로 이동호 회원을 임명하였다. 학회 30년사를 발간하기 위한 홍보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김학선 회원을 임명하였다.

2013년 7월 각 연구회 위원을 30명으로 증원하여 일반회원의 학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경외과와 공동으로 세부전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보험 관련 워크숍을 신경외과와 합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젊은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1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5명에게 시상하였으며, 범아시아권에서 *Asian Spine Journal*에 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출간을 연 6회로 확대 개정하였다.

또 척추외과학회 회원이 KASS 회원 병원에서 단기 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2013년 CSRS-AP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Asia Pacific)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문학회지의 영문화는 보류하였다. 하기용 회원의 선친을 기리는 우수논문상(하재구상)을 제정하였으며, *Asian Spine Journal*에 초청 저자를 선정하여 종설 논문을 게재하고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정형외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척추외과학회 회원이 주 연구자인 다기관 연구(RCT of Stand Alone Cage vs Cage & Plate for Single Level HCD)를 승인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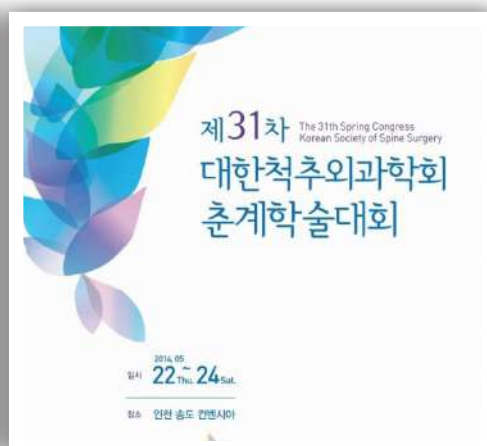
제2장 제5절

2014년 창립 30주년 기념비적인 해

2014년은 창립 30주년이라는 기념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전략적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해였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학회의 역사와 발전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한척추외과학회 30년사를 간행하고, 2014년 이후 사용할 새로운 학회 엠블럼을 만들었으며 또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 10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를 하였다. 창립 30주년 행사는 제31차 춘계 학술대회에 맞추어 시행하였으며, “신뢰받는 선도학회”로서 새로운 비전을 설정했다. 이 비전으로 “학회의 국제화”, “대중과의



건강한 S라인 척추 캠페인 포스터



제31차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소통 강화”, “회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한 학회의 헌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건강한 S라인 척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미디어에 만연한 검증되지 않은 척추질환의 치료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소속된 전국단위 병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강좌를 통해 올바른 척추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이 해에는 척추 통증 연구를 위한 척추통증연구회가 신설되어 학술적인 활동이 다각화되었다.

2015년 학회 체계의 강화

전년도의 모멘텀에 힘입어, 2015년은 학술적 기여와 학회의 미래 진로를 위한 학회 체계 강화된 시기였다. 32차 춘계 학술대회는 처음으로 영문으로만 구성된 세션을 소개하며, 일본의 Abumi, 인도의 Jayaswal, SRS travelling Seneior fellow인 미국의 Akbarnia 등 국제적인 대가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요청하였고, 국제학회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 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 발전 10년 비전을 달성할 목표 및 타임라인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치료 방법들의 학문적 근거 기반이 미흡했던 “신경병증성 통증 및 만성 요통”에 대해서 치료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학회 홈페이지에 질환에 대한 설명 및 질환의 치료 가이드를 업데이트하여 회원 및 일반 홈페이지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질환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Asian Spine Journal*의 국제적 인정

2016년은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척추건강 교육 및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여 국내외에서 확고히 인정받게 되었다. 영문학회지인 *Asian Spine Journal*은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에 인덱싱되어 학회의 국제 학술적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우선 아시아태평양척추학회(Asia Pacific Spine Society, APSS)와 협력하여 *Asian Spine Journal*은 국제적 역량을 갖춘 많은 외국인 석학들을 편집위원으로 초빙하였으며, 국제적 학회지로의 역량을 인정받아 대만 척추학회의 official journal로 인정을 받았다. 또 국문 척추외과학회지는 척추질환에 대한 지속되는 회원들의 학술 활동 성과를 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한척추종양학회 공식 학회지로 승인되었다. 한편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만성 요통 관리”에 초점을 맞춘 “2016 허리 UP, HURRY UP” 전국 캠페인을 주도했는데, 이 캠페인은 학회의 만성 요통 치료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건

강 강좌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2017년 척추외과학회의 홈페이지 개편

2017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회의 교육 및 정보 제공이 확대되었다. 임원 워크숍 강의 동영상 및 척추 운동 동영상이 제작되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산하 연구회의 활동 일정표가 작성되고 공유되는 등 학회 내부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국제적으로도 학회의 활동과 연구를 알리는데 보다 효과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2018년 전임의 인증제 도입으로 표준화된 척추 전문의 양성

2018년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전임의 인증제는 척추 전문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17년 11월 초까지 신청서를 받아 평의원회에서 수련 병원을 선정하였으며, 매년 2월에 전문의 수련 내용을 보고하고 검토하여 평의원회의 승인 후 춘계학회에서 인증서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임의들은 지정된 병원에서 최소 10개월의 교육을 받고, 학회 주최 또는 학회가 인증하는 카테바 워크숍과 심포지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제1차 척추 술기 워크숍(2018.05.20, 오송 메드트로닉센터)이 개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척추수술 술기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제적 교류 확대

2019년 대한척추외과학회는 4월에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PSS-APPOS 2019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했다. 이는 제12회 아시아 태평양 척추외과학회(APSS)와 아시아 태평양 소아정형외과학회(APPOS)의 연합으로 전 세계 척추외과학회와 소아정형외과학회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였다.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주최하여 조직위원장으로 경희대학교 김기택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높아진 본 학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3월 30일에 학회 발전을 위한 중진 회원 연석회의를 개최했으며, 9월에는 대한척추외과학회 산하의 연구회를 연구학회로 전환하고 연구회 위원장을 연구학회 회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대한척추외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척추 전문의 찾기' 기능을 신설했다.

제2장 제6절

국제학회로 비상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우리나라에 척추 기기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인데 그로부터 30여 년간은 우리나라 척추외과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척추변형 수술과 더불어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수술도 발전했으며, 추간판 탈출증의 최소침습 수술도 보편화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척추외과는 유럽과 북미에 뒤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초기 학회를 설립한 선배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학문에 바탕을 둔 풍부한 임상 경험과 고도의 숙련된 술기가 쌓인 결과였다. 물론 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남용되거나 척추수술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법, 추간판 치환술, 배아세포 이식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에도 도입되고 있다.

초기에 20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학회는 이제 1,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단 두 개의 심포지엄으로 시작한 학술대회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많은 연제가 봄, 가을로 발표되고 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지도 처음에는 연 2회만 발간되었으나 늘어나는 회원들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기 위해 이제 연 6회 발간된다.

발족 초기 정형외과학의 세부 전공 분야이던 척추외과학은 이제 산하에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를 가진 규모 있는 학문 분야로 발전하였다. 또 다양한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추연구학회, 요추연구학회,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척추변형연구학회, 척수신경연구학회, 척추기초연구학회,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척추통증연구학회의 8개 연구학회가 발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 학술대회만을 통해 교류되던 학문적 지식과 정보는 지금은 전공의와 개원의를 주 대상으로 하는 연 2회 학회 주관 연수강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연구회 주관 연수강좌를 통해 세

부 전공 분야를 깊이 있게 제공하고 있다.

연수강좌는 전공의는 물론 개원의들에게 척추외과 분야의 최신 지식을 전하고 특히 신입 전공의들이 척추외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수강좌는 척추외과 학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제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난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를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발전기 혹은 학문의 성장기라 한다면 2014년부터 그 후 10년간은 앞선 시기를 발판으로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국제화로 발돋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은 국제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진정한 국제화가 시작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8월 2~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제1차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였다. 개최 당시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2020년 5월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학술대회를 한 차례 연기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된 이 대회는 대한민국 척추외과학의 최신 연구와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춘계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로 개최됨에 따라 추계학술대



대한척추외과학회 40주년의 의미

회는 2일로 늘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2021년 국제학회로서 성장과 사회 공헌 활동

2021년 지속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회째로 개최된 대한척추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는 16개국에서 72명의 해외 발표자가 참여하며 진정한 국제적인 학회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제 20차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척추수술 학술대회(20th Pacific and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를 콘래드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한편 대한정형외과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공동으로 수술비 지원사업을 펼쳤는데, 학회가 학문적 연구와 교류를 넘어 대국민 봉사와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의료취약계층 척추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은 척추질환으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수술 비용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인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하였다.

2022년 국제학술대회의 내실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3회째 개최되는 2022년 국제학술대회는 내실화를 위해 행사 전 국제학술대회 운영 워크숍을 처음으로 진행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국제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운영 워크숍에서는 외부 초청 강사를 모시고 연자와 좌장의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방법과 역할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두 차례의 경험과 운영 워크숍을 통해 KSSS 2022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는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2022년 사업으로는 척추건강을 위한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는데, 그것은 '대한척추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척튜브"를 통해서였다. '척튜브'는 여러 척추질환, 최소침습 수술과 같은 수술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골프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척추건강을 다루며 큰 관심을 받았다.

2023년 지속적인 국제적 교류 확대

2023년에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학회의 국제화가 여러 방면에서 결실을 거둔 한 해였다. 처음으로 시도된 KSSS Spine Issue Webinar는 해외 우수 연자들을 모시고 국제적인 관심 속에 성공적

으로 마무리되었는데, 4회에 걸쳐 최소침습, 척추변형, 경추, 요추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KSSS 2023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척추외과학회 회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President Meeting을 개최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한층 더 높였고, 일본과 대만의 척추외과학회와 Travelling Fellowship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SPINEWEEK 2023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정식 세션을 배정받아 요추연구학회, 경추연구학회,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에서 심포지엄 발표를 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1차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 대한척추외과학회 40주년 기념 골프대회가 열렸다. 또한 학회 내부적으로는 연구학회별로 공식적인 한글과 영문 명칭을 제정하였는데 각 연구학회의 구성과 활동을 대한척추외과학회 홈페이지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척추수술에 대한 과도한 삭감에 대해 대응하고자 보험위원회는 심평원과 간담회를 통해 심사 관련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척추신경외과학회와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재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건실한 재정 상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였다.

제2장 제7절

국제화 시대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 비전

이처럼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지난 40년 동안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학술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척추외과학 분야에서의 학술 연구, 임상 경험, 그리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학계는 의대 학생정원 증원 등 격변하는 주위 환경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여기에 더해 척추외과학계는 세분화된 분야와 다양한 성향으로 과거와는 또 다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의 학회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훌륭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계속되는 노력으로 국제적인 연구와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 척추외과학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뜻에서 다시 한번 김태균 회장의 40주년 기념 미래 비전 선언문을 되새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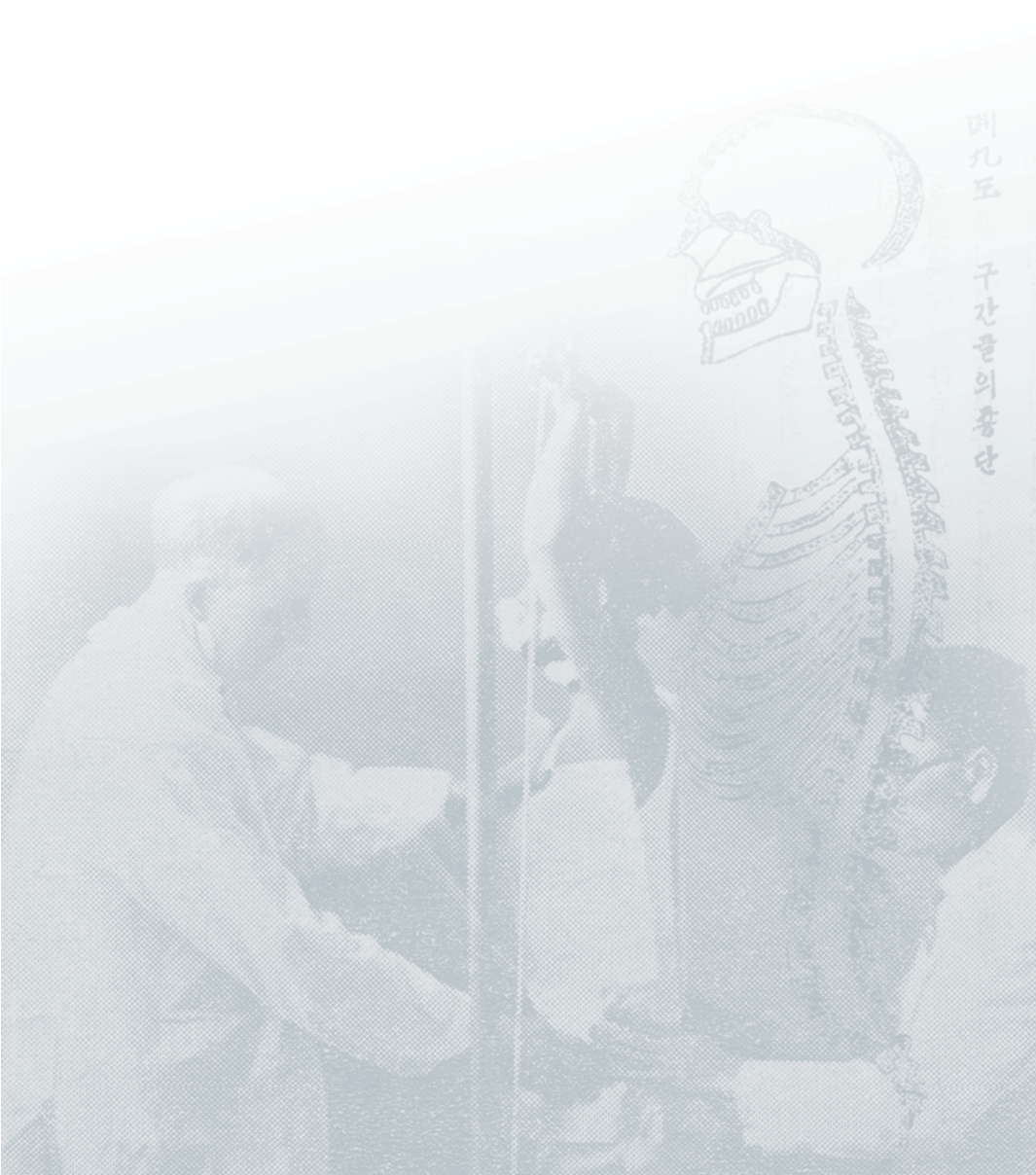
“대한척추외과학회는 1984년 창립 이후 40년간 척추질환의 연구 및 치료를 통한 인류의 보건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세계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한척추외과학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10년 다음의 4대 전략을 목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잘해왔던 것들을 지속 발전시켜 학회 발전의 내실화(Consolidation)를 지향한다. 둘째, 변화하는 빠른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회원들의 교육(Teaching)을 강화한다. 셋째, 지속하여 발전 가능(for Longevity)한 학회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육성한다. 넷째, 다양한 척추질환의 진단 및 치료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선도하고자 한다.”

제3장

대한척추외과학회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메르도 구간골의 흉단

골와목골과잇만골(腰骨)이라이름구발골이편된와(眞椎)가되(假椎)의두가지로흔니라
(一)진되(眞椎)는오트二十四개내서로항호여벗지아나총오각각은동을흔느기
덕목와허라와잇가슴의부위를흔느아물다서구별은예우히느기
정되(頸椎)라흔고아매五개를
요되(腰椎)라흔고아온의十二개를
흉되(胸椎)라흔느니라



1984

대한척추외과학회

1984년도 공문 발간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과 주위에 많은의 관심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척추외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 척추외과 전문인사로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위한 2월 17일
공문 발간하는 것은이로서 많은것으로 척추외과 발전을 위한것
임을 믿고 있습니다.

가정과 같이 장문의회 및 각종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 가 려 -

장 소 : 국립의료원 강당

일 시 : 1984년 3월 5일(목요일) 오후 5시 30분

1. 장문발표회

2. 학술발표회

연세대학교

Segmental spinal instrumentation - - - 가과적의 장문발표회
Chondrolysis의 해악 - - - 인제대학교 장문발표회

● 공적사항

1.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 제1회 공회비 100,000원 2년회비 10,000원

3. 제1회 공회비 10,000원 2년회비 5,000원

장문발표회와 학술발표회 종료후 피선거 있습니다.

(장문발표회 피선거도 있음)

대한척추외과학회 준비위원회

척추외과 학회

1984. 4. 26

대림회-84-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의 심원과 함으로 지난 4월 6일 척추외과 학회를 창립했습니다.

지리 회장단에서는 선생님을 평의원으로 모시고 보다 확고에대한 가운데 학회의
발전을 기하고 싶습니다.

여러시이까지도 평의원으로 추천된 것을 수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공적하여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 가 려 -

모 의는곳 : 강산회관 (연세대학교강산의료관 후속 연덕에 있는 대동음식점)

일 시 : 1984년 5월 3일 (목요일) 약오 7시

대한척추외과학회 학회 회장 이 광 문

대한척추외과학회 준비위원회의 창립총회 안내문(좌)과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후 첫 공문(평의원회 안내)

1984



1984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초대 회장 시절 서광운 회원(앞줄 좌에서 네 번째)

1985



대한척추외과학회 제2, 3회 학술대회 명찰

1986



1986년 추계학술대회 후 저녁 만찬에서 좌로부터 박병문, 김광희, 최기홍 회원

1987



제4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987년 6월 12일 서울 신라호텔

1988



제5차 대한척추외과학회 및 정기총회, 1988년 5월 20일 서울 신라호텔



1987년 학회 엠블렘 공모 및 채택 (정재운 회원 고안) 및 1988년 이후 공식 지정 사용

1989



1989년 5월 15일~19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6차 ISSLS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Lumbar Spine)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남현 회원(앞줄 좌에서 세 번째)과 한국에서 참석한 학회 회원들

1990



제7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990년 6월 8일 서울 신라호텔

1990



1990년 SRS (Scoliosis Research Society) 학술대회 후 SRS 원로 교수들과 함께.
석세일 회원(두 번째 줄, 좌에서 두 번째)

1991



1991년 당시 최신 기법인 척추기형 분야의 수술을 하는 석세일 회원(좌에서 세 번째)

1991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1년 10월 11일 대한정형외과학회 33대 회장으로 취임 후 대한정형외과학회기를 인수받는 윤승호 회원

1993



1993년 서울 SICOT 학술대회 종료 후 각국 의사들과 기념 촬영

1993



1993년 8월 제19차 국제정형외과 및 외상학회 서울대회(SICOT)
주정빈 회원(앞줄 우에서 네 번째)이 대회장으로서 증추적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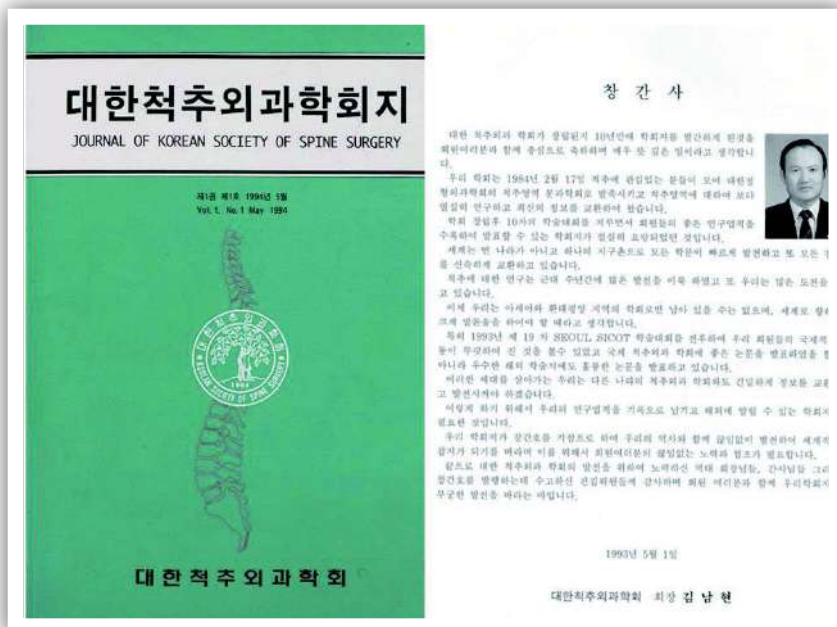
1994



제1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994년 5월 27일 서울 힐튼호텔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1994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10주년인 1994년, 공식 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창간호 표지와 창간사

1995



제12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995년 6월 2일 대구 금호호텔
이 대회는 지방에서 열린 첫 학술대회였다.

1995



1995년 11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AO Spine Course가 개최되었다.
연자로는 영국 노팅엄대학교의 Webb 교수,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Thalgott 선생,
스위스의 Marchesi 교수 등과 김영태 회원(중앙)이 참여하였다.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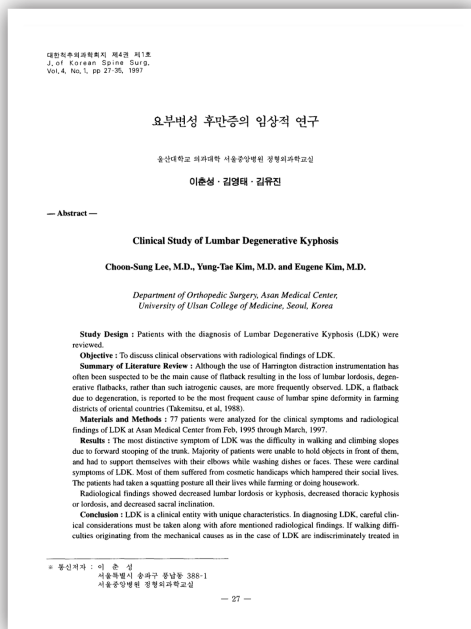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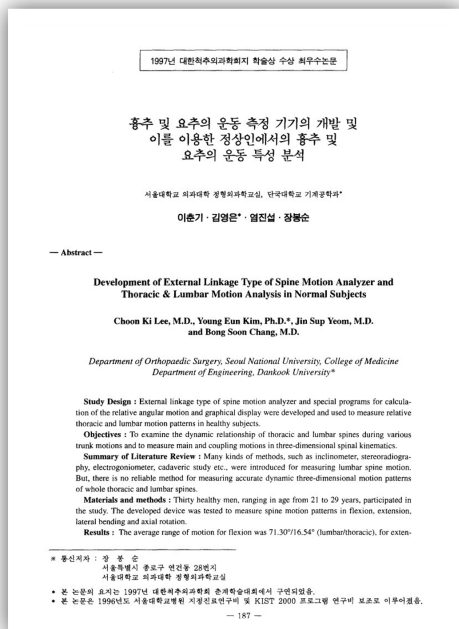
제13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996년 5월 31일 서울 힐튼호텔

1997



제14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997년 6월 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1997



학회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우수논문상 및 향산학술상을 제정함.
1997년 제1회 학술상 논문(좌), 제1회 향산학술상 논문(우)

1998



제15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998년 5월 29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1998



제15차 춘계학술대회 Gala Night에서 학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1998



1998년 5월 28일 제15차 춘계학술대회 초청 연자인 Winter 교수가 'Neurologic Injury after Spinal Deformity Surgery'를 강의하였다. 강의 후 만찬에서 좌로부터 조재림 회원, Winter 교수 부부, 김광희 회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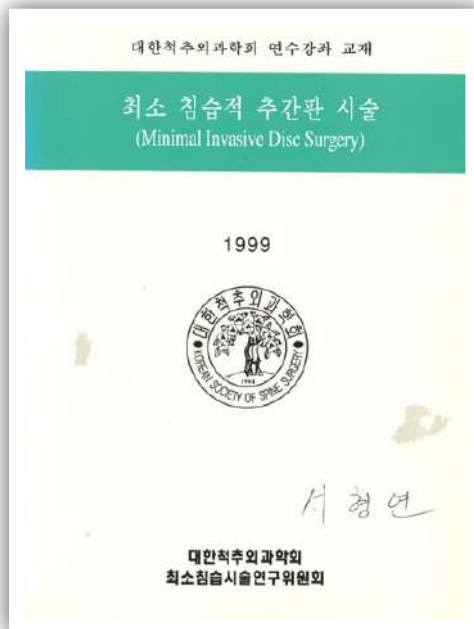
1999년 5월 춘계학술대회 후 만찬에서 담소를 나누는 회원들.
좌로부터 석세일, 정영기, 왕진만, 박병문 회원

1999



제16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999년 5월 28일 대전 리베라호텔

1999



1999년 11월 7일 회원 및 전공의 교육의 일환으로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1차 척추외과학 연수강좌를 하였다.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00



제17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0년 5월 26일 대구 동대구관광호텔

2000



2000년 10월 11일 대한정형외과학회의 태두인 문병기 정형외과 명예회장의 구순연 연회에
참석한 회원들. 앞줄 좌측 두 번째 문명상, 우측 두 번째 박병문 회원

2001



제18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1년 5월 24일 강원 용평리조트

2001



2001년 춘계학술대회의 초청 연자인 John Lonstein 교수가 한양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모습

2001



학술대회 특강 후 공식 만찬에서 박병철, 박승림, 김영태, 조재림 회원, Lonstein 교수(좌로부터)

2001



2001년 8월 아시아태평양 미세최소침습 척추외과학회(PASSISS)가 창립되어 초대 회장으로 이준규 회원이 추대되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창립학회가 개최되었다.

2002



제19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2년 5월 2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002



2002년 7월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제1회 cage symposium
이 심포지엄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척추 의사들이 처음 함께 주최한 symposium이다.
맨 앞줄 나종득, 정재운, 김영태, 이종서, 박병철, 채인정 회원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03



제20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3년 5월 30일 경주 힐튼호텔

2004



제2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4년 5월 28일 대전 리베라호텔

2004



2004년 대한척추외과학회 20년사가 왕진만 편집위원장, 신병준, 김진혁, 김동준 회원 등이 참여하여 발간되었다. 20년사 표지와 편집위원회

2004



2004년 8월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제4차 PASMIS가 정재운 회원이 회장, 김기택 회원이 사무총장으로 주요 역할을 하여 15개국, 343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04



2004년 4월 국내 최초의 신경외과의의 합동학회인 대한척추인공관절연구회의 제1회 창립학술대회 초대 회장은 정형외과 측은 성균관의대 이종서 회원, 신경외과 측은 가톨릭의대 박춘근 교수 이 학회는 이후 대한척추신기술학회로 변경됨.

2005



제22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5년 5월 19-21일 제주 라마다호텔

2005



2005년 8월 SRS Asia-Pacific Meeting을 개최하였다(학술대회장: 석세일 회원, 제주 롯데호텔).
SRS Asia Pacific Meeting에 참석한 이환모 회원, 일본의 Takemitsu 교수, 조재립, 조우진 회원

2006



제23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6년 5월 26일 강원 보광휘닉스파크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06



2006년 5월 안면환 차기회장(우)에게 대한척추외과학회기를 인계하는 제22대 박희전 회장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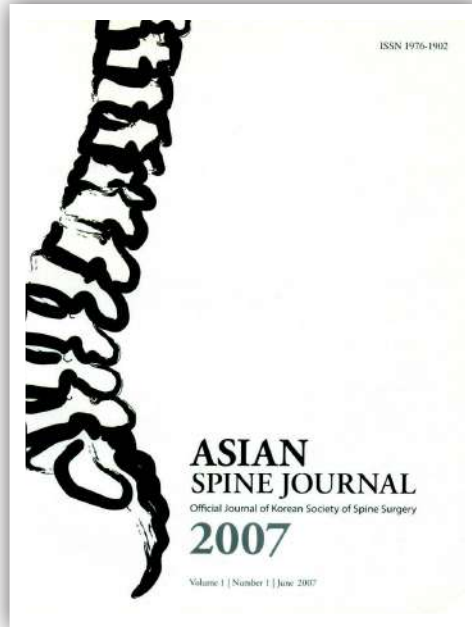
2006년에 이르러서는 연구회별 활동이 더욱 많아지고 발전하였다.
2006년 11월 11일 연세의대에서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와 경추연구회가 공동으로
카데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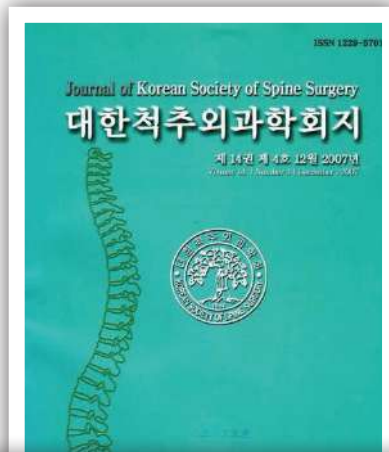
제24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7년 5월 25-2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2007



2007년 6월 영문학회지 *Asian Spine Journal* (총 논문 12편 게재)을 창간하였다. 창간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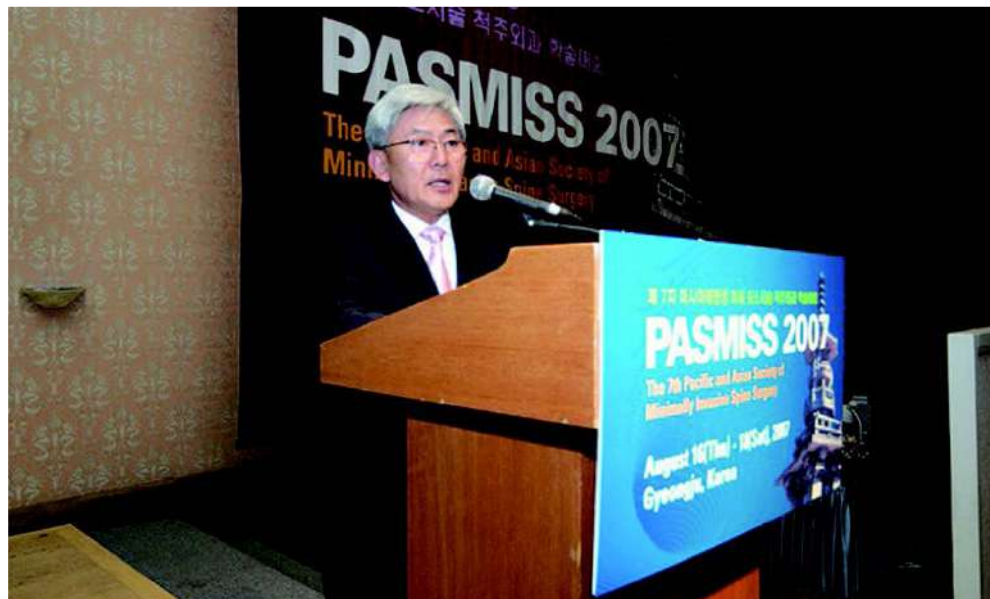
2007



등재후보학술지 목록			
등재후보 신청년도	분야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2008	의학학	중앙간호학회지	대한중앙간호학회
2008	의학학	대한중산의학회잡지	대한중산의학회
2007	의학학	대한척추외과학회지	대한척추외과학회

2007년 대한척추외과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2007년 제14권 4호 표지 및 당시 학진 등록 목록

2007



2007년 8월 경주에서 열린 제7차 PASMIS에서 박희전 회원이 회장, 안재성 회원이 사무총장을 담당하였다. 개막 연설을 하는 박희전 학술대회장

2008



2008년 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 정형외과학회에 초청받은 하기용 회장, 정재운 회원(좌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이 일본 척추외과학회 Shinichi Kikuchi 회장과 '한일 척추외과 교류 협정식'을 체결하고 있다.

2008



2008년 1월 서울 KOEX에서 개최된 Asia-Pacific SAS (Spine Arthroplasty Society)에서 organizing chairperson인 이종서 회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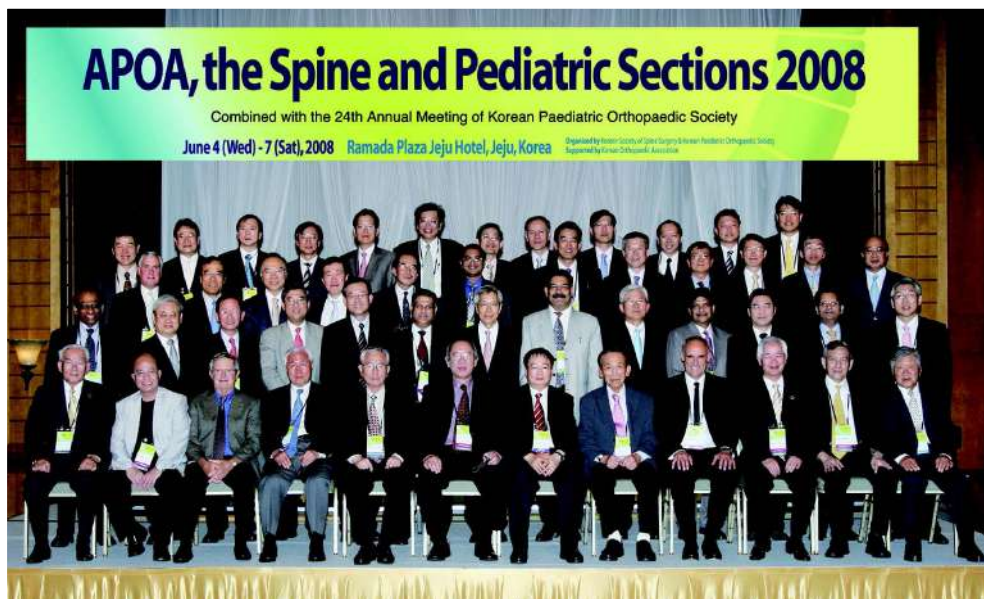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08



제25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8년 4월 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2008



2008년 6월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정형외과학회(Asia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 APOA)의 척추 및 소아 정형외과 분야가 대회장 최인호 교수, 정재운 회원, 사무총장 김기택 회원이 주요 역할을 하며 개최되었다.

2009



제26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9년 5월 29-30일 강원 용평리조트

2009



제2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장과 임원진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09



제26차 추계학술대회 공식 만찬에서 초청 연자와 함께한 전임 회장단
좌로부터 유재원, 왕진만, 김남현, 석세일 회원, 초청 연자 Brian Kwon 교수, 문명상, 조재림 회원

2009



제6차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연수강좌, 2009년 7월 5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2010



제27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0년 5월 28-29일 전북 무주리조트

2011



제28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1년 5월 27-2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11



2011년 8월 부산 롯데호텔, 제11차 PASMIS가 김기택 회원이 회장, 안재성 회원이 사무총장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1



2011년 8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CSRS-AP 2011이 개최되었다.
좌로부터 석경수, 이상훈, Dr. Daniel K Riew, 박종범, 정천기(신경외과), 장한(회장),
Dr. Kuniyoshi Abumi, Dr. Sanford E. Emery, 송경진, 이광복 회원

2012



제29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2년 5월 25-26일 대전 컨벤션센터

2012



2012년 3월 29일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주도하에 영상의학과, 병리과, 치료방사선과와 다학제 형태의 대한척추종양학회를 구성하였다. 전남의대의 정재운 회원이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초대 회장에 순천향의대의 신병준 회원 선임, 초대 총무로 성균관의대의 이종서 회원이 활동하였다.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13



2013년 11월 28일 대한척추외과학회 경인지회가 창립되어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심포지움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13



제30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3년 5월 24-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3



2013년 4월 11일 제4차 CSRS-AP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Asia-Pacific) 학회가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송경진 회원은 학회장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석학들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4



제3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4년 5월 22~24일 송도컨벤시아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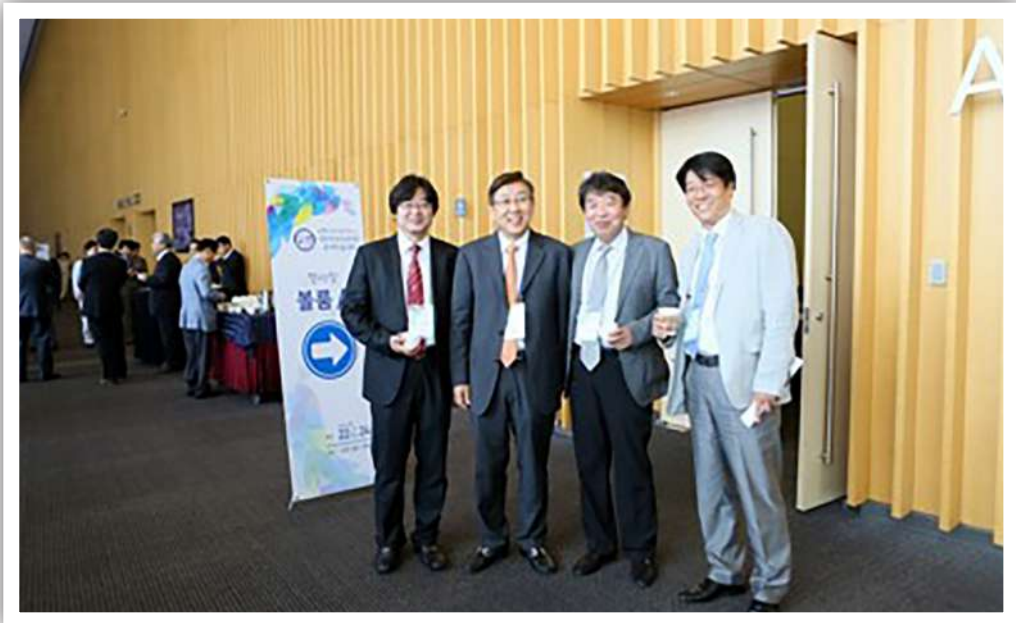
제3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4년 5월 22~24일 송도컨벤시아
좌로부터 두 번째부터 이재철, 염진섭, 김호중, 이상훈 회원

2014



2014년 5월 22~24일 송도에서 열린 제3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김기택, 정재윤, 유재원 회원

2014



2014년 5월 22~24일 송도에서 열린 제3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홍창화, 김기택, 김환정, 전택수 회원

2014



2014년 5월 23일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대한척추외과학회 30년사 출판식을 함께 개최하였다.

2014



2014년 5월 23일 송도에서 열린 대한척추외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30년사 출판식에서
이종서 회원이 진행을 하고 있다.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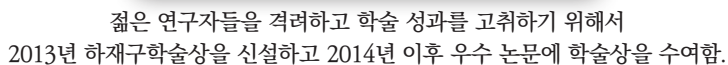
2014



학회 엠블럼 변경

1988년 1차 엠블럼 선정

2014년 2차 엠블럼 선정



163

2014



제3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4년 11월 21일 그랜드힐튼호텔

2014



추계학술대회 - 건강한 S라인 척추 캠페인

2014



제31대 대한척추외과학회장인 김기택 회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S라인 척추”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홍보 사업을 시행하였다.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15



제32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5년 5월 29~30일 평창 알펜시아

2015



2015년 9월 Berlin에서 개최된 Eurospine Meeting에서 *Asian Spine Journal*을 홍보. ASJ 전용 Booth를 통해서 이종서, 박세준 회원이 학술지의 소개 및 홍보 활동을 하였다.

2015



2015년 11월 제15회 PASMIS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PASMIS는 메르스로 인해 11월로 연기하여 개최하였으며, 안재성 회원은 PASMIS의 회장으로 학회의 국내 유치 및 메르스 기간중 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2015



2015년 11월 제15회 PSMISS 중 학술대회 후 대만의 석학들과 친목을 도모함.
좌로부터, 홍재영, 이재철, 대만 Yen-Mou Lu 교수(2018 Kaoshung 대회 회장), Max Meng-huang Wu 교수,
서준영, Keng Chang Liu 교수(2023 Tainan 대회 회장), 김석우, 이재협, 박세준, 박용 회원

2015



제32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5년 11월 20일 그랜드힐튼호텔

2015



2015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후 담소를 나누는 회원들.
좌로부터 유재원, 박근호, 안면환, 이규열, 박희전 회원

2015



2015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김영율, 박종범, 오인수(故) 회원

2016



2016년 4월 21일 제7차 CSRS-AP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Asia-Pacific) 학회가 리츠 칼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염진섭 회원이 학회장으로 만찬 연설을 하고 있다.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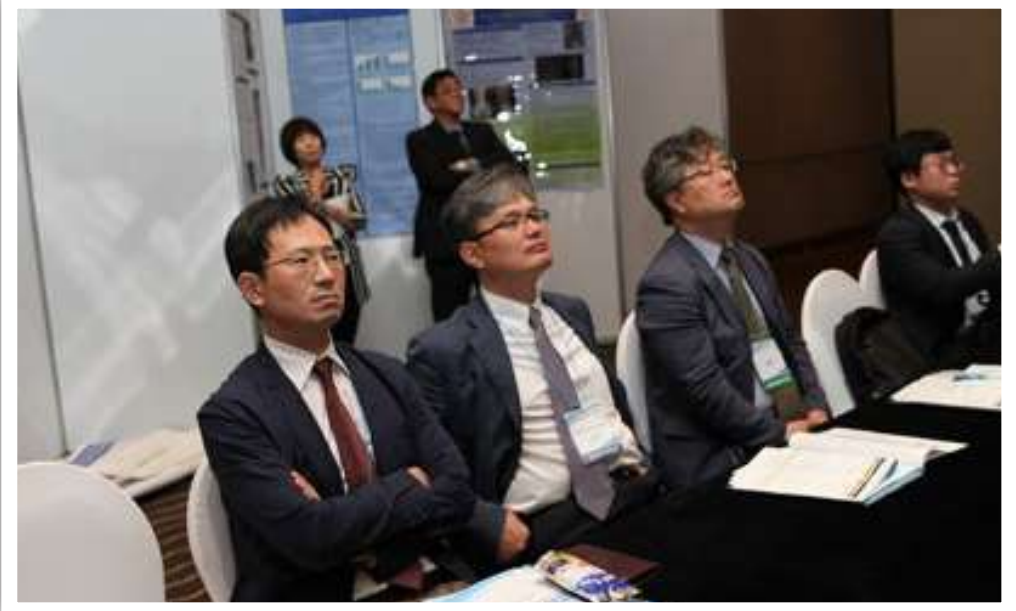
제33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6년 5월 27~28일, 부산 파라다이스

2016



2016년 5월 춘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장한, 조재림, 김환정 회원

2016



2016년 5월 춘계학술대회 학술대회장에서.
좌로부터 김용찬, 이정희, 김영우 회원

2016.9.9 최초의 Web Conference



WEB Conference

AGENDA

일시 | 2016년 9월 9일 금요일 18:30
좌장: 김환정 교수 을지대학교 병원

18:30~19:00 석경수 교수 강남세브란스 병원
Cervical Kyphosis

19:00~19:20 이재협 교수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Satellite lecture:
The importance of diagnosis and treatment on osteoporosis in surgeon's view

19:20~19:40
Q&A Session

대한척추외과학회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2016.9.9. 22 Page 1/18

척추외과학회 회원들을 위한 실시간 online web seminar인 KTX (Korean OA pain Treatment eXchange) conference를 개최함. 그 첫 번째 conference로 2016년 9월 9일에 을지대 김환정 회원 좌장으로, 석경수, 이재협 회원을 연자로 하여 web conference를 시행하였다.

2016

2016년 대국민 건강 캠페인 - 허리 UP, HURRY-UP



2016년 대국민 홍보 사업으로는 “허리 UP, HURRY UP!”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건강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

2016 허리 UP, HURRY UP 캠페인 건강강좌			
일상 생활에서의 바른 자세 및 조기 진단 치료를 통한 척추와 하부 요통의 예방과 관리법을 쉽게 안내드립니다.		대상 : 척추질환 환자 및 일반인(잠재적 환자) 주최 : 대한척추외과학회 일시/장소 : 하단 표에 기재	
병원명	담당자	일시	장소
서울아산병원	조재환 교수	10월 13일(목) 오후 2시	동면 6층 제 5세미나실
서울성모병원	김영훈 교수	11월 10일(목) 오전 11시	지하 1층 강당
평촌성심병원	김태환 교수	12월 9일(금) 오후 2시	본관 4층 한마음홀
대전충지병원	김완성 교수	11월 24일(목) 오후 2시	대청 (추후 병원측에서 수정)
전남대학교병원	김성규 교수	11월 24일(목) 오후 2시	5동 1층 강당
조선대학교병원	손홍단 교수	9월 30일(금) 오후 3시	하중현홀
분당서울대병원	김희중 교수	미정	미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시영 교수	10월 25일(화) 낮 12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시홀
신촌세브란스병원	임재호 교수	미정	미정
순천향대 천안병원	홍청화 교수	11월 11일(금) 오후 2시	송원홀
부산동아대병원	이규열 교수	11월 24일(목) 오후 4시	지하 1층 세미나실

2016년 대국민 건강 캠페인 - 허리 UP, HURRY-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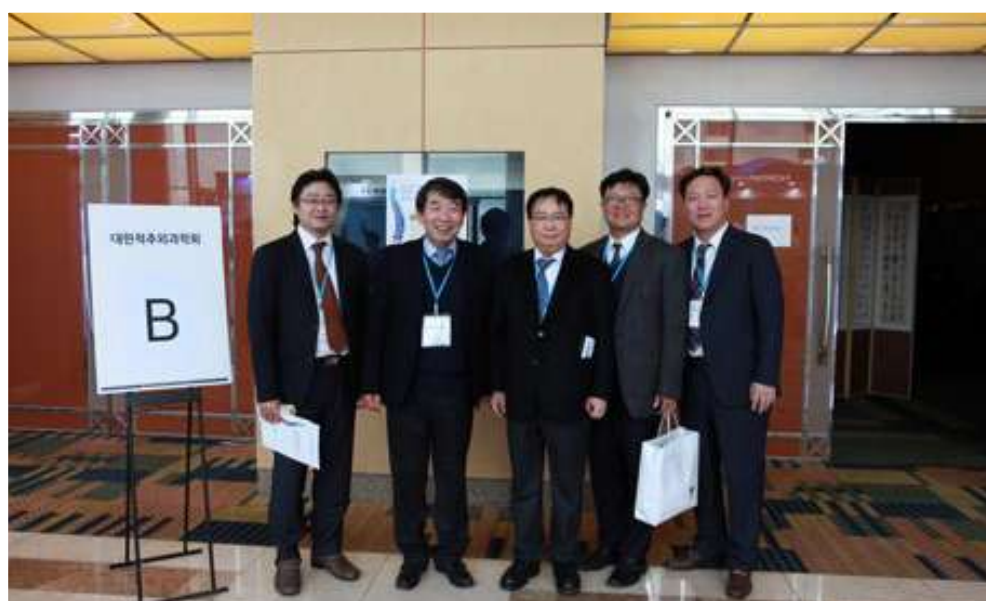
2016



제33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6년 11월 18일 그랜드힐튼호텔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16



2016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홍창화, 김환정, 정재윤, 김상범, 안성준 회원

2016



2016년 11월 춘계학술대회에는 신경외과 교수들도 참석하여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시행하였다.
좌로부터 다섯 번째 조용은 교수(강남세브란스)

2017



2017년 5월 춘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김상범, 석경수, 김환정, 박희진, 박종범, 장한, 조재림, 이동호 회원

2017



2017년 5월 춘계학술대회에서 34대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인 김환정 회원이
학회의 태두인 석세일 회원에게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2017



2017년 5월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34대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인 석경수 회원이
신입회원에게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2017



2017년 India Goa시에서 열린 APSS 학회. 좌측부터 문명상 자문위원, 말레이시아의 KS Sivananthan 교수, 일본의 Kuniyoshi Abumi 교수, 박종범 회원, 이종서 회원, 인도의 Arvind Jayaswal 교수

2017



제34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7년 11월 17일 그랜드힐튼호텔

2018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18년 5월 제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전임의 인증제 시행
오송 메드트로닉 센터에서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척추술기 관련 교육 및 실습을 시행하였다.

2018



제35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8년 6월 1~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2018



2018년 6월 춘계학술대회에서 손에 손잡은 회원들과 해외연자
좌로부터 김영훈, 김석우, 이종서, Dr. Jean-Charles Le Huec, 전창훈, 하기용, 이정희 회원

2018



2018년 6월 춘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김학선, 정영기, 김남현, James Kang, 전창훈 회원

2018



2018년 춘계학술대회 후 저녁 만찬에서.
좌로부터 서승우, 박종범, 신동은, 박예수, 조규정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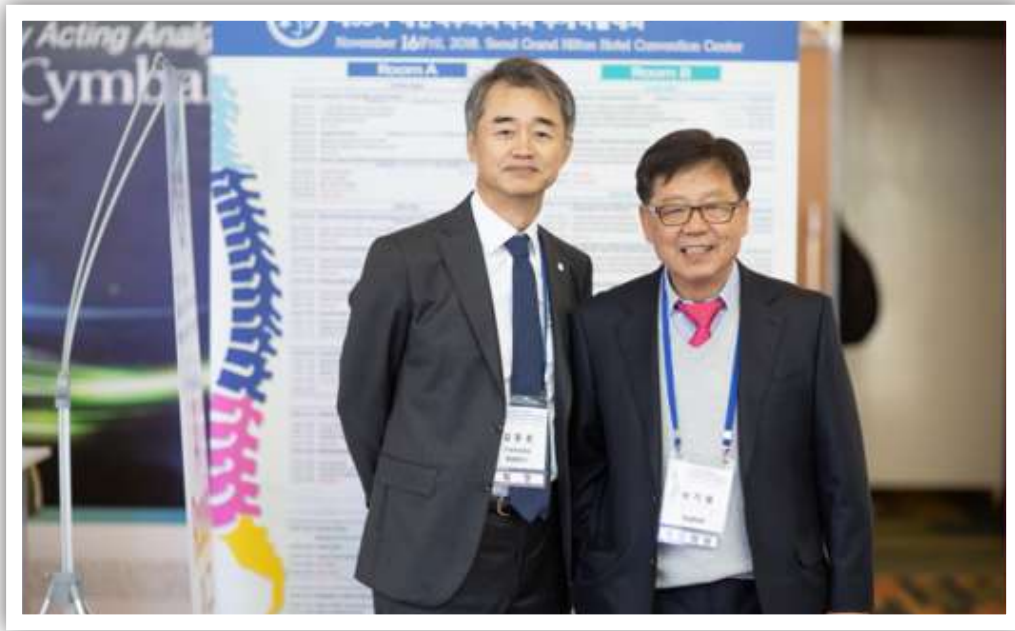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18



제35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8년 11월 16일 그랜드힐튼호텔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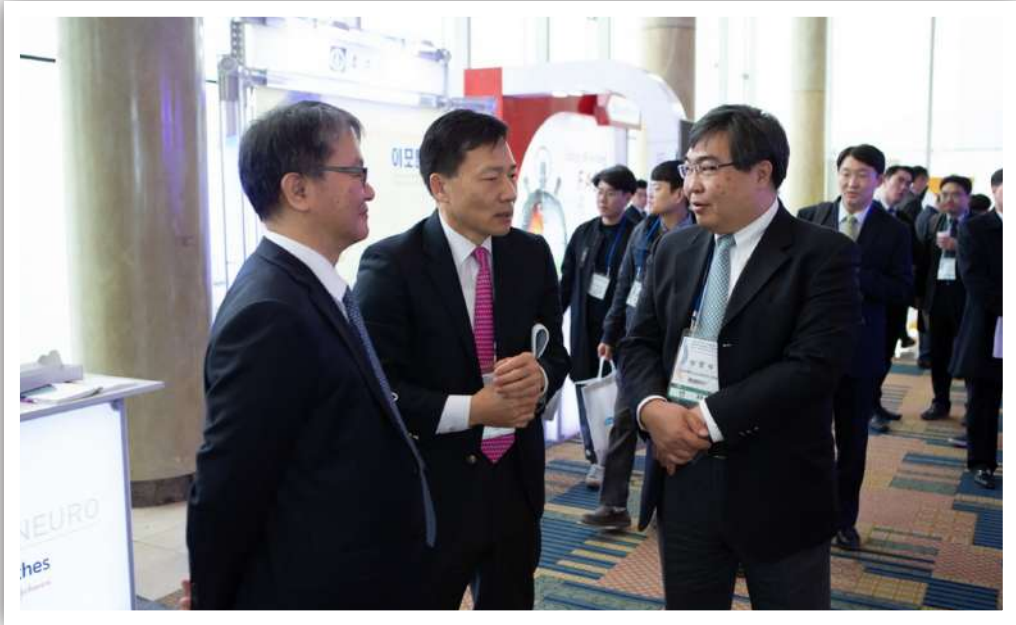
2018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김동준, 하기용 회원

2018



2018년 추계학술대회 후 저녁 만찬에서.
좌로부터 최용수, 김태균, 석경수, 염진섭, 조규정, 이동호 회원

2018



2018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염진섭, 조규정, 석경수 회원

2019



2019년 4월 4~6일 APSS/APPOS 학술대회 후 화목한 분위기의 부부동반 연회장

2019



2019년 4월 4~6일 APSS/APPOS 학술대회 후 연회장에서 해외연자들과 함께.
좌로부터 Dr Masaya Nakamura, 박종범, 김환정, Dr Morio Matsumoto, 이종서 회원

2019



제36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9년 5월 24~25일 강릉 라카이 리조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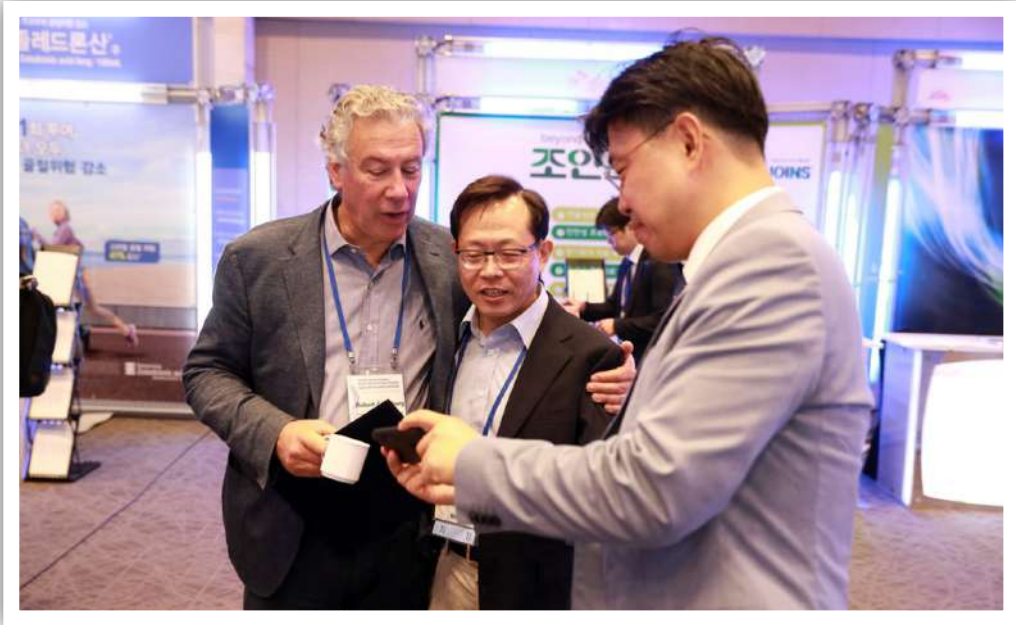
2019년 5월 춘계학술대회에서 젊은연구자상을 수여하는 김동준(좌로부터),
안태근, 문종욱 회원

2019



2019년 추계학술대회 후 저녁 만찬에서.
좌로부터 이환모, 문성환, 신병준, 신동은, 김진혁 회원

2019



2019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Dr. Robert와 전창훈, 이재철 회원

2019



2019년 추계학술대회 후 저녁 만찬에서.
좌로부터 김응하, 전창훈, 박희진, 심대무, 하기용, 김환정, 장한 회원

2019



2019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좌로부터 장봉순, 장삼열 회원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19



제36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9년 11월 15일 그랜드힐튼호텔

2019



2019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이재협, 김영우, 박희전, 정영기, 김기택, 전창훈, 김학선 회원

2019



2019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후 만찬에서 인사말하는 문명상 회원

2019



2019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후 만찬에서 문명상 회원의 축사를 경청하는 회원들.
시계방향으로 석경수, 박예수, 김영우, 박종범, 신현규, 조규정 회원

2019



2019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박세준, 배영렬 회원

2019



2019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김태균, 박시영 회원

2020



제37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 보건 이슈로 인해 8월로 연기하였지만, 최초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하여 학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37대 대한척추외과학회장 김학선 회원이 개회연설을 하고 있다.
2020년 8월 2~3일 스위스그랜드호텔

2020



2020년 8월 춘계국제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이재협, 김학선, 조규정 회원

2020



2020년 8월 제1회 국제학술대회 학회장에서 집행부 회원들과 staff들.
좌로부터 김호중, 이재협, 김학선, 박시영 회원

2020



2020년 8월 제1회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 창궐로 인해 개인 보호막과 마스크를 사용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다. 좌로부터 장동균, 양재준, 송광섭, 민우기 회원

2020



제37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0년 11월 13~14일 on-line 개최

2020



2020년 추계학술대회는 코로나 창궐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학회로 진행하였다.
좌로부터 양재준, 민우기, 이재철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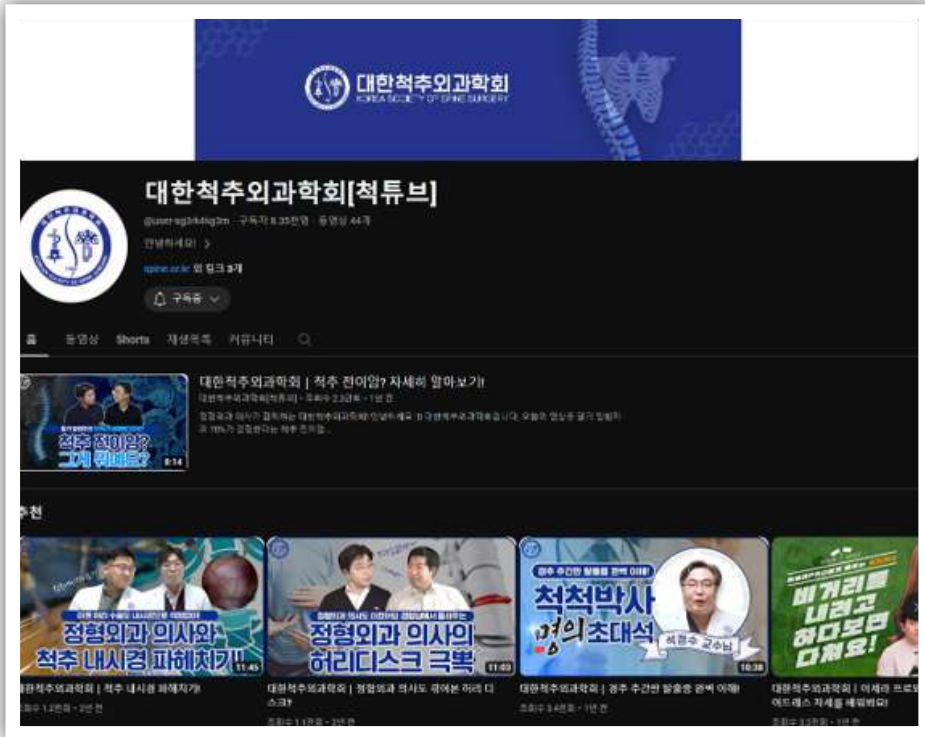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20



2020년 추계학술대회에서 37대 대한척추외과학회장 조규정 회원이
석세일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2021



2021년 3월 9일 척추건강에 관련한 국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 개설
“척튜브”를 통해 정형외과 척추질환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함.

2021



2021년 3월 26일 제11차 CSRS-AP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Asia-Pacific) 학회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석경수 회원은 회장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정형외과와
함께 지키는 척추건강

의료취약계층
“척추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립거주 내국인으로 척추질환 수술에 지원이 필요한 분

지원기준
거주소득소득 8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지원내용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수술비 1천원~2백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대한척추외과학회 02-780-2765 / ortho@koo.or.kr 또는 신청
• 구별지원: 대한척추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o.or.kr) 참조

문의사항
• 신청관련: 대한척추외과학회
02-780-2765 / ortho@koo.or.kr
• 후원관련: 대한척추외과학회 후원팀
02-6262-3085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척추수술학회 사랑의열매

2021년 4월 ‘의료취약계층 척추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시행
대한척추외과학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협력으로 추진
의료취약계층 대상 중 척추질환으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 대해 수술비 지원

2021



PASMISS 2020 개최. PASMISS 2020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어 2021년 4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김석우 회원은 회장으로 이재철 회원은 총무로 학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1



PASMISS 2020 집행부 미팅. 박세준, 박용, 강창남, 김석우, 이재철, 박시영 회원

2021



제38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1년 5월 28~29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21



2021년 춘계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회기를 이양하는 조규정(좌), 장봉순(우) 회원

2021



2021년 5월 춘계국제학술대회 후 만찬 기념 사진

2021



2021년 5월 춘계국제학술대회 후 만찬에서 석세일 회원(중앙) 건배 후 덕담을 나누는 회원들.
좌로부터 김응하, 정재윤, 이재협, 석세일, 조규정, 강철형 회원

2021



제38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1년 11월 19~20일 부산롯데호텔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21



2021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송광섭, 조재환 회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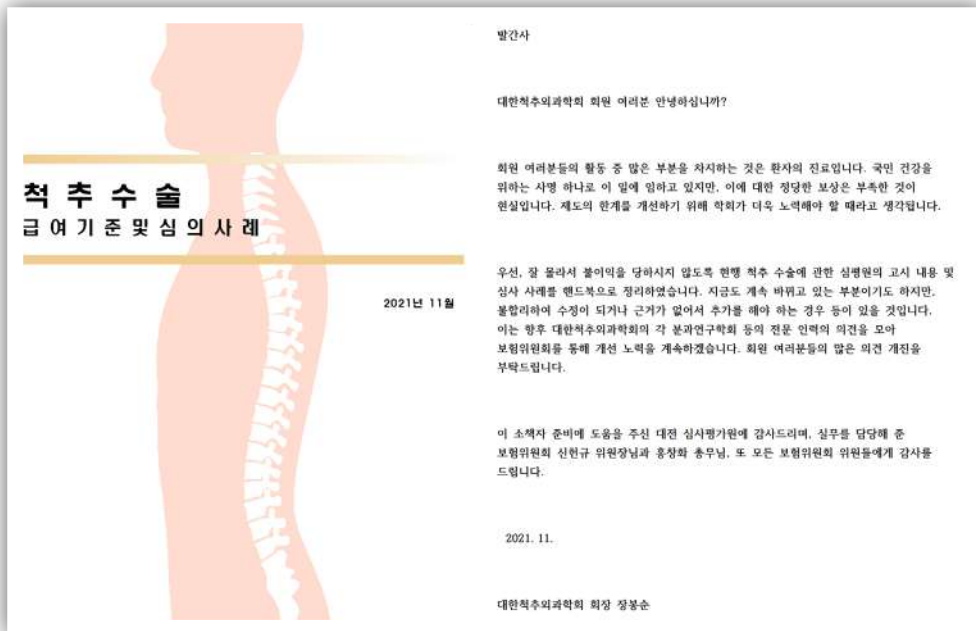


2021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좌로부터 장봉순, 김홍태 회원

2021



2021년 추계학술대회후 저녁 만찬에서.
좌로부터 이동호, 남우동, 하상훈, 남태욱, 김성수, 전득수 회원



2021년 11월 대한 척추외과학회 회원들의 심평원 보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척추수술에 관한 심평원의 고시 내용 및 심사 사례를 핸드북 편찬 및 제공



제39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2년 5월 26~28일 스위스그랜드호텔

2022



2022년 춘계학술대회 후 저녁 만찬에서.
좌로부터 신병준, 하기용, 김학선, 김응하, 안면환, 최용수, 김환정, 유재원, 심대무, 박근호 회원

2022



2022년 춘계학술대회 후 저녁 만찬에서.
좌로부터 손홍문, 김태균, 석경수, 박종범, 서형연, 고영도, 김진환, 신현규, 홍창화 회원

2022



2022년 11월 추계학술대회에서 38대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인 장봉순(좌) 회원이
학회의 태두인 김남현 회원에게 학회창립발전공로상을 수여하였다.

2022



2022년 11월 추계학술대회에서 39대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인 장봉순(좌) 회원이
학회의 태두인 문명상 회원에게 학회창립발전공로상을 수여하였다.
건강상의 사유로 김영훈 회원이 대리 수여

2022



제39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2년 11월 18~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22



2022년 11월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염진섭(중앙) 회원의 전임의 출신 회원들과 함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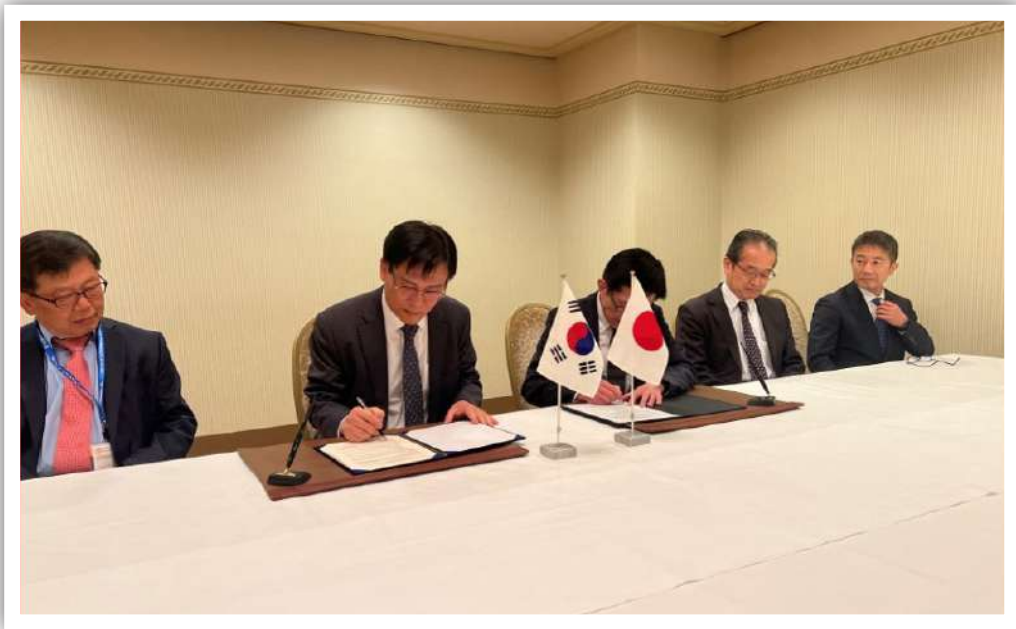
2022년 추계학술대회 후 저녁 만찬에서 전임 학회장과 건배 제의함.
좌로부터 최용수, 박병철, 박승림, 김기수, 정영기, 이준규, 정재윤 회원

2022



2022년 8월 *Asian Spine Journal*을 SCIE로 편입하기 위해 영문편집위 워크숍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하였다. 좌로부터 다섯 번째 김학선 영문편집위원장 회원 외 영문편집위원들

2023



2023년 4월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제52차 일본척추외과학회에서 최용수 회장 초청강연 후
일본척추외과학회와 Travelling Fellowship MOU를 체결하였다.
좌로부터 하기용 회원, 최용수 학회장과 일본척추외과학회장 Dr. Haro, Dr. Takahata, Dr. Matsuyama

2023



제40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3년 5월 24~26일 서울롯데호텔

2023



KSSS 2023, President Round Table Meeting: 아시아태평양 척추 협력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주도적 역할(사회: 박시영 사무총장, 중앙: 최용수 학회장) 확인.
좌로부터 Cuong (Vietnam), Lanang (Indonesia), Chris (Malaysia), Kaito (Japan),
우로부터 Kwan (Hongkong), Gabriel (Singapore), Areesak (Thailand), Haro (Japan), Rhee (USA)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23



2023년 춘계학술대회 Welcome Reception에서 전임 학회장과 건배 제의
좌로부터 유재원, 이준규, 김기수, 정재윤, 최용수, John Rhee, Takashi Kaito

2023



KSSS2023 Gala Dinner에서 일본 참석자 소개. 좌측 최용수 회원, 좌로부터 5번째 Haro 일본 회장, 8번째는 travelling fellowship으로 한국 방문한 고베대학 Takashi 교수

2023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학회는 대만척추외과학회와 travelling fellowship MOU를 체결하였다.
최용수 학회장과 대만척추외과학회장 Dr. Cheng Hung Lee

2023



2023년 8월 말레이시아척추외과학회에서 최용수 회원(중앙)을 초청하여 강연을 마치고 해외연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좌로부터 Dr. Kwan (President of APSS), Dr. Chin (Malaysia), Dr. Wongthawat (Thailand), Dr. Cheung (Hongkong), Dr. Wong (Singapore), Dr. Chris (President of Malaysia), Dr. Sivananthan (Malaysia), Dr. Orso (Australia), Dr. Kokubun (Japan), Dr. Watanabe (Japan)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23



2023년 8월 16일 대한척추신기술 학회 주관으로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pine Surgery, Asia-Pacific (ISASS-AP) 개최. 김석우 회원(회장)과 박용 회원(총무)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척추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적 척추 술기에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2023

KSSS 1st Spine Issue Webinars

"Endoscopic spine surgery: Where are we?"

18th June (Sun.), 2023, 16:30 - 18:00 (KST, GMT+9) **ONLINE**
Pre-registration Deadline: **by 11th June (Sat.), 2023**

Global Time

16:30 to 18:00 (KST) (1st Time)	16:30 to 18:00 (KST) (2nd Time)
16:30 to 18:00 (KST) (3rd Time)	16:30 to 18:00 (KST) (4th Time)
16:30 to 18:00 (KST) (5th Time)	16:30 to 18:00 (KST) (6th Time)
16:30 to 18:00 (KST) (7th Time)	16:30 to 18:00 (KST) (8th Time)
16:30 to 18:00 (KST) (9th Time)	16:30 to 18:00 (KST) (10th Time)

Welcome

As part of its educational activities, KSSS offers a series of webinars, called Spine Issue Webinars. These take place at the **best time in the quarter (May, Aug, Nov, Dec)** and the **issues for 2023 consist of endoscopic spine surgery, spinal deformity, cervical spine, and lumbar spine**. The webinar series focuses on issues in spine care, including what is state of the art. Webinars are open to members and non-members and are welcome to all spine care professionals.

Moderators and Faculty Members

 Prof. Hyung-Yoon Seo President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Gabeon Lee President of KSSS Gyeongju University (Korea)
 Prof. Ho-Jin Lee Chairman of KSS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Dae-Jung Choi President of KSSS Korea University (Korea)
 Prof. Kokiichi Sait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Prof. Cheng-Li Lin President of KSSS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2023 KSSS Webinars

2nd Spine Issue

Pitfalls and Tips of Adult Spinal Deformity Surgery

Moderators

 Prof. Jung-Hye Lee Chairman of KSSS Society of Spinal Deformity (Korea)	 Prof. Ferzan Pellati Chair of Spine Surgery at the VMA Hospital (Italy)
---	--

Presenters

 Prof. Nam-Su Chung Spinal Deformity Specialist (Korea)	 Prof. Mitsuru Yagi International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Japan)	 Prof. Ho-Joo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Jason Pui Yin Cheung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	---	---	---

24 September, 2023 at 16:30 (Korea)
15:00 China Standard Time / 3:00 Eastern Time (US)
This webinar is free to attend

Welcome

Join 2nd KSSS webinars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Research Society of Spinal Deformity of KSSS", which provide an overview of didactic sessions from well-known spine leaders that will focus on "Pitfalls and Tips of Adult Spinal Deformity Surgery". Each topic will be presented with updated new surgical parameters, patient selection and surgical planning, cutting-edge surgical techniques, highlighting current deformity trends of practice, and areas of controversy that may be amenable to future studies. This webinar will feature a practice-focused comprehensive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and lively discussion with international expert panels, making it an excellent educational session for adult spine deformity surgery.

[Registration](#)
[Program](#)

2023 KSSS Webinars

3rd Spine Issue

Current Concepts in Cervical OPLL Surgery

Moderators

 Prof. Jung-Sam Park Chairman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Masaaki Kud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	--

Presenters

 Prof. Dong-Hy Lee Chairman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Takanori Kat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Prof. Kyung-Chang Kang President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Masaaki Kud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	---	--	--

Saturday, December 16, 2023 at 11:00 (KST, GMT+9) **LIVE**
07:30 India standard time / 09:00 Indochina time / 10:00 China standard time
Registration deadline: Friday, December 15, 2023, 15:00 (KST, GMT+9)

Program

Time	Program	Moderators / Presenter
11:00 - 11:05	Welcome Address & Program Overview	Prof. Jung-Sam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1:05 - 11:30	Scientific Program - Current Concepts in Cervical OPLL Surgery	Prof. Jung-Sam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Masaaki Kudo (Tohoku University, Japan)
11:30 - 11:35	Pharmacological and Biomechanical Aspects of Cervical OPLL Surgery	Prof. Dong-Hy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1:35 - 11:40	Pharmacological and Biomechanical Aspects of Cervical OPLL Surgery	Prof. Takanori Kato (Tohoku University, Japan)
11:40 - 11:45	Clinical application of 3D+ combined surgery	Prof. Kyung-Chang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1:45 - 11:50	Pharmacological and Biomechanical Aspects of Cervical OPLL Surgery	Prof. Masaaki Kudo (Tohoku University, Japan)
11:50 - 12:00	Discussion: Q & A	
12:00 - 12:05	Closing Remarks	Prof. Ho-Jin Lee (Chairman of Education Committee, KSSS)

2024 KSSS Webinars

4th Spine Issue

Adjacent Segment Disease in Lumbar Spine

Moderators

 Prof. Kyu-Sik Kim Chairman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Takanori Kat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	---

Presenters

 Prof. Kyu-Sik Kim Chairman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Takanori Kat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Prof. Kyu-Sik Kim Chairman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Takanori Kat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	---	--	---

Saturday, 9 March 2024 at 14:00 (KST, GMT+9) **LIVE**
10:30 India standard time / 12:00 Indochina time / 15:00 Australian eastern standard time
Registration deadline: Friday, 8 March 2024, 15:00 (KST, GMT+9)

Program

Time	Program	Moderators / Presenter
14:00 - 14:05	Welcome Address & Program Overview	Prof. Kyu-Sik Kim (Chairman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4:05 - 14:30	Scientific Program - Adjacent Segment Disease in Lumbar Spine	Prof. Kyu-Sik Kim (Chairman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 Takanori Kat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14:30 - 14:35	Introduction of Adjacent Segment Disease (ASD)	Prof. Kyu-Sik Kim (Chairman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4:35 - 14:40	Conserva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ASD	Prof. Takanori Kat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14:40 - 14:45	Surgical Options for ASD	Prof. Kyu-Sik Kim (Chairman of KS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4:45 - 14:50	Endoscopic Surgery for the Management of ASD	Prof. Takanori Kato (President of KSSS, Tohoku University, Japan)
14:50 - 15:00	Discussion: Q & A	
15:00 - 15:05	Closing Remarks	Prof. Ho-Jin Lee (Chairman of Education Committee, KSSS)

2023년 6월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주도의 제1차 KSSS Spine Issue Webinar를 시작으로
각 연구회마다 주관을 번갈아가며 1년에 4회 시행하였다.
2023년 9월 대한척추변형연구학회(2차), 2023년 12월 대한경추연구학회(3차),
2024년 3월 대한요추연구학회(4차)

2023



제40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3년 11월 17~18일 제주 라마다호텔

제3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2023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학회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태균 회원

2023



2023년 추계학술대회 전 평의원-자문위원 합동회의 후 기념사진

2023



2023년 11월 학회창립4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 아덴힐 골프클럽에서 “40주년 기념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비록 짓곳은 날씨로 18홀 진행을 할 수 없었지만, 회원들의 단합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2023



2023년 11월 제주 아덴힐 골프클럽에서 “40주년 기념 골프대회” 역대 회장들의 시타 모습
좌로부터 정영기, 박승림, 김영태, 나종득 회원

2023



2023년 11월 제주 아덴힐 골프클럽에서 “40주년 기념 골프대회” 박희전 회원의 우중 투혼

2023



2023년 11월 제주 아덴힐 골프클럽에서 "40주년 기념 골프대회".
하기용 회원이 대회 메달리스트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2023



2023년 추계학술대회 후 저녁 만찬에서. 학회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단합을 결기하였다.



2023년 11월 제주 아덴힐 골프클럽에서 “40주년 기념 골프대회” 후 연찬장에서 회원들의 밝은 모습이 엿보인다.

제4장

대한척추외과학회
지난 10년 학회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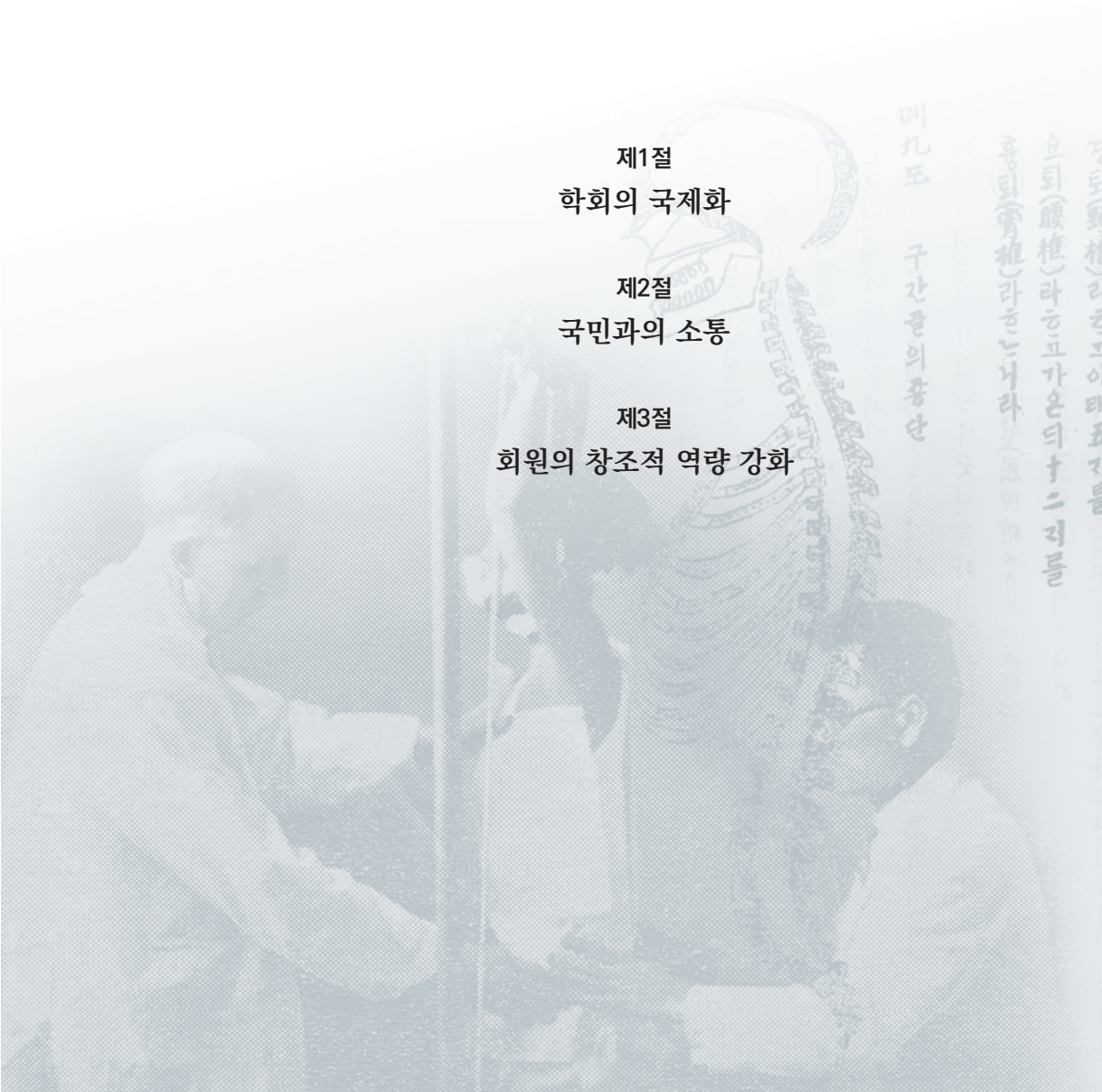
제1절
학회의 국제화

제2절
국민과의 소통

제3절
회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

메르도 구간골의 용단

글과목과잇만(腰骨)이라이름구별을이진된와(眞椎)가회(假椎)의두가지로호너라
(一)진된것은二十四개내서로항호여벗지아나호요각각은동을호는거니
더복와허라와잇가슴의부위를호는아물다서구별은예우히느리돌
정된頸椎(라호고아매五개를
요퇴(腰椎)라호고아온의十二개를
흉퇴(胸椎)라호는너라



제4장 제1절 학회의 국제화

지난 10년간 대한척추외과학회는 학회의 국제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대표적인 학회의 국제화 노력과 결실로는 국제 학회인 KSSS (Internation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의 개최, *Asian Spine Journal*의 비약적인 성장과 도약, 다양한 국제 학회의 국내 유치 등이 있겠다.

KSSS (Internation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의 개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2020년부터 매년 영문 초록, 영문 발표를 기반으로 KSSS라는 이름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첫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 2020년에는 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원활한 오프라인 학회 운영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hybrid conference의 형태로 첫 KSSS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hybrid conference의 형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면 오프라인의 형태로, 전 세계 16개국에서 503명이 참석하는 등, 명실상부 영향력 높은 국제 학술대회로 발돋움하였다.

학회 40주년을 기념하는 KSSS 2024에서는 17명의 해외 초청 연자가 강연을 할 예정이며, Asian Spine Society Presidential Session에서는 아시아 10개국의 척추 학회의 대표자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여 연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KSSS 2020

When	August 2 ~ August 3, 2020 Hybrid Conference
Where	Swiss Grand Hotel Seoul, Grand Ballroom
Congress Report	267 Participants from 15 Countries 149 Presentations(Domestic & International) 27 Companies(Offline Exhibition)
President	Hak-Sun Kim MD., PhD.
Secretary General	Jae Hyup Lee MD., PhD.

KSSS 2020 제1차 국제학술대회



KSSS 2021

When	May 28 ~ May 29, 2021 Hybrid Conference
Where	Swiss Grand Hotel Seoul, Convention Center
Congress Report	349 Participants from 16 Countries 173 Presentations (Domestic & International) 26 Companies
President	Kyu-Jung Cho MD., PhD.
Secretary General	Jae Hyup Lee MD., PhD.

KSSS 2021 제2차 국제학술대회



KSSS 2022

When	May 26 ~ May 27, 2022 Hybrid Conference
Where	Swiss Grand Hotel Seoul, Convention Center 2F / 4F
Congress Report	404 Participants from 19 Countries 175 Presentations (Domestic & International) 38 companies
President	Bong-Soon Chang MD., PhD.
Secretary General	Si-Young Park MD., PhD.

KSSS 2022 제3차 국제학술대회



KSS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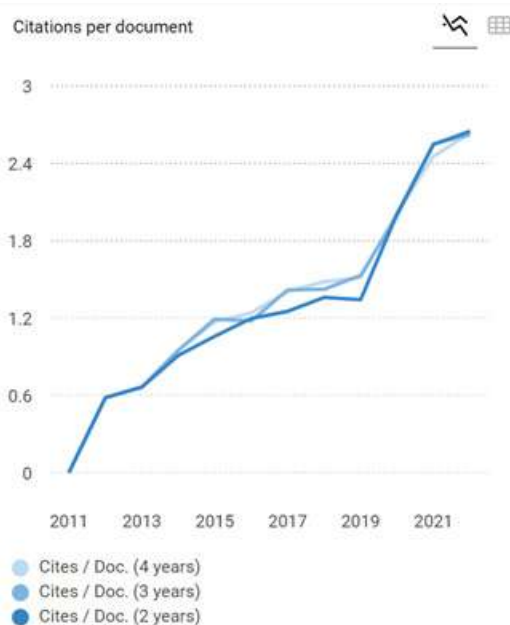
When	May 24 ~ May 26, 2023 Offline Conference
Where	Lotte Hotel Seoul, Crystal Ballroom A, Emerald Room 2F
Congress Report	503 Participants from 16 Countries 176 Presentations (Domestic & International) 36 Companies
President	Yong-Soo Choi MD., PhD.
Secretary General	Si-Young Park MD., PhD.

KSSS 2023 제4차 국제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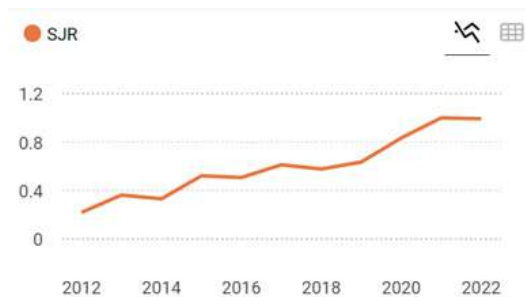
Asian Spine Journal의 비약적인 성장과 도약

2007년 창간된 *Asian Spine Journal*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었다. 정영기, 정재윤 회원의 노력으로 초석을 세운 *Asian Spine Journal*은 이종서 회원이 편집장으로, 박종범 회원이 부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끌었고, 그 결과 Pubmed, Scopus, KCI, KoreaMed, CrossRef, DOAJ 등에 색인이 되었으며, 2017년에는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에 기탁이 되면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였다.

*Asian Spine Journal*은 Asia Pacific Spine Society (APSS), Middle East Spine Society (MESS), Association of Spine Surgeons of India (ASSI), Taiwan Spine Society (TWSS), Chinese Spine Society of Medicine Education (CSSME),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KSSS)의 공식 영문 학술지로 되어 있으며, 특히 APSS 연례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 해당 논문을 투고받는 등 국제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ASJ의 인용률 증가



연도별 아시안스파인저널(ASJ)의 저널·연구 영향력 지표 가이드(SJR)수치 변화

있다.

편집 위원(Editorial board)은 전세계 21개국 100명 이상의 척추 관련 기초, 임상, 재활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척추와 관련된 기초와 임상 전 분야에 걸쳐 수준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논문들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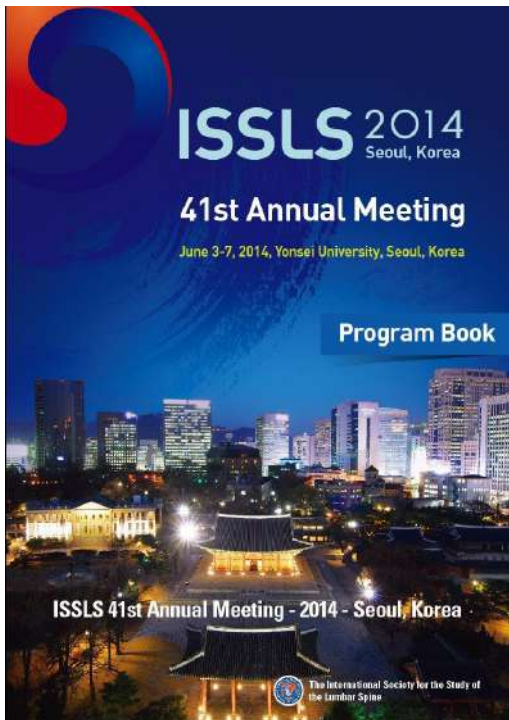
2020년 김학선 회원이 편집장을, 조재환 회원이 부편집장을 맡으면서 영향력 지수의 측면에서 해마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surgery 분야에서 Q1, 2021년에는 orthopedics and sports medicine 분야에서 Q1을 달성하였고, 이후 2022년에는 Clarivate사에서 처음으로 받은 공식 영향력 지수 2.3 (Impact Factor)으로 정형외과 분야 SCIE 저널과 비교했을 때 Q2에 해당하고 있어, 2024년 현재 SCI Expanded (SCIE)의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다.

*Asian spine journal*의 발전에는 2022년부터 시작한 워크숍도 큰 기여를 하였다. 2022년 워크숍에서는 편집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public relation team을 구성하여 SNS 등을 활용한 학술지의 국제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추세에 맞춰 저널 표지를 graphic cover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워크숍에서는 저널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부터 되돌아보고 Clarivate사의 SCIE 평가 기준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개선 및 투고 규정 개선 등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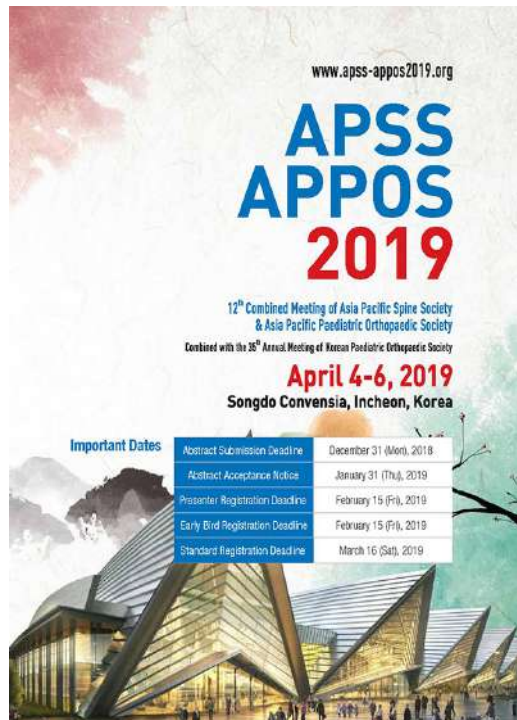
해외 학회와의 다양한 교류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해외 척추학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전세계에서 그 입지를 다져왔다. 그 결과물로 여러 회원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여러 국제 학술대회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

- ISSLS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Lumbar Spine) 2014
- PASMISS (Pacific and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2015, 2020
- CSRS-AP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Asia-Pacific) 2016, 2021
- APSS (Asia Pacific Spine Society) 2019
- ISASS-AP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pine Surgery, Asia-Pacific) 2023



ISSLS 2014 서울(연세대의 세브란스병원)



APSS-APPOS 2019 인천(송도컨벤시아)

아울러 해외 학회와의 보다 원활하고 활발한 교류를 위해 대한척추외과학회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척추학회의 회원들이 본 학회와 KSSS 등의 학술대회, 국문학회지와 *Asian Spine Journal*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Asian Traveling Fellowship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수한 젊은 척추의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본 학회의 젊은연구자상 수상자들이 일본, 대만 등의 척추외과학회



CSRS-AP 2016 서울(리츠칼튼호텔)



PASMISS 2020 서울(콘래드호텔)

에 초청을 받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만큼 대한척추외과학회는 학회 국제화를 위해 Webinar을 시행하고 있으며 APSS Webinar에도 참여하고 있다.



ISASS-AP 2023 서울(콘래드호텔)



학회 국제화를 위한 Webinar 시작과 APSS Webinar 참여

제4장 제2절

국민과의 소통

지난 10년간 대한척추외과학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척추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여러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척추질환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운동

건강한 S라인 척추 캠페인

2014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S라인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은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인 S라인을 잘 유지해야 건강한 척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광고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척추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척추건강의 날을 제정하고 전국 순회 건강 강좌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실질적인 조언과 척추건강 관리 방법을 전달하였다.



건강한 S 라인 척추 캠페인

‘허리UP Hurry UP’ 캠페인

2016년에는 ‘허리UP Hurry UP’ 캠페인을 통해 만성요통 치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국민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대한척추외과학 김환정 회장의 지휘 아래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건강 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척추건강에 대한 인식을 더욱 넓히고 예방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만성하부 요통 관리학교

2016년부터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만성하부 요통 관리학교 사업을 통해 만성하부 요통에 대한



2016년 대국민 건강 캠페인 - 허리 UP, HURRY-UP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사업은 만성하부 요통의 예방, 진단, 치료, 관리,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척추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오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허리UP Hurry UP’ 캠페인과 만성하부 요통 관리학교는 척추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이와 같은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척추건강 관리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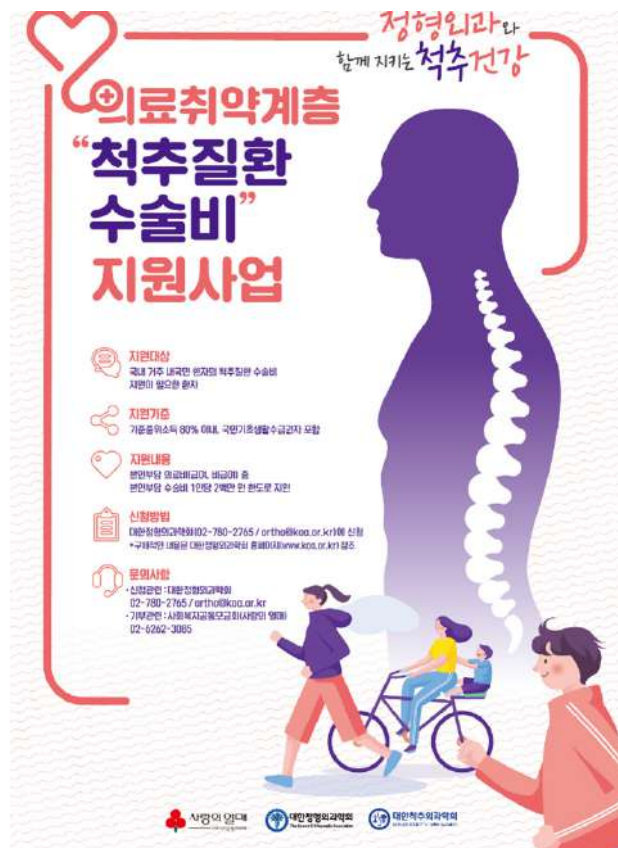
요성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척추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만성하부 요통 관리학교를 통해 제공된 표준 교안은 척추건강 관리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척추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척추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국민들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척추질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척추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협력하여 척추 수술비 지원을 위한 기금을 138,800,000(일억 삼천팔백만 원) 모금하였다. “척추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로 브로슈

어, 동영상 제작 및 지원 서류에 대해 대한척추외과학회 소속 회원들에게 우편 송달을 하였고,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시행하였다. 선정 과정을 통해 약 70명의 의료취약계층에게 수술비로 지원을 시행하였는데, 학회는 이러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봉사와 지원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는 학회가 학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학회로서의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대한척추외과학회[척튜브]

@user-sg3rk4kg3m · 구독자 8.35천명 · 동영상 44개

안녕하세요! >

spine.or.kr 외 링크 3개

구독



대한척추외과학회 | 척추 전이암? 자세히 알아보기!

조회수 23,519회 · 1년 전

정형외과 의사가 함께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안녕하세요 :D 대한척추외과학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말기 암환자의 70%가 경험한다는
척추 전이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암 치료가 발달하면서 기대 여명이 늘어난 암 환자들!...
자세히 알아보기

추천



대한척추외과학회 | 정형외과 vs 신경외과
조회수 2천회 · 1년 전



대한척추외과학회 | 척추 수술 후 골프 저도 되나요?
조회수 415회 · 11개월 전



대한척추외과학회 | MRI 보는 방법 알아보기!
조회수 5,7천회 · 1년 전



대한척추외과학회 | 사극방 요추
조회수 2,2천회 · 1년 전

동영상 ▶ 모두 재생



대한척추외과학회 | 골라테스
를 잘못하면 죽이 된다 까?
조회수 316회 · 1개월 전



대한척추외과학회 | 척추측만
증이 있어도 골라테스 할 수 ...
조회수 7,8천회 · 2개월 전



대한척추외과학회 | 디스크와
협착증에 좋은 골라테스 자...
조회수 1만회 · 4개월 전



대한척추외과학회 | 어떤 운동
을 해야 경추에 무리가 가지 ...
조회수 9,6천회 · 4개월 전



대한척추외과학회 | 척추 수술
후 골프 저도 되나요?
조회수 415회 · 11개월 전



대한척추외과학회 | 티샷치기
전 WARM UP! 필수 스트레칭!
조회수 1,7천회 · 11개월 전

다양한 척추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척튜브"(대한척추외과학회 홈페이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학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척추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홍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도 시행했다. 다양한 척추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03월 11일 “정형외과 의사도 겪어본 허리 디스크?”라는 내용을 필두로 “척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였다. 십여 명의 젊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유튜브 운영 위원들이 “척추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척추와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였다. 그 결과, 2024년 2월 현재 총 구독자 수 8,270명, 총 동영상 수 44개, 총 조회수 158,624회에 이르게 되었다. “척튜브” 채널은 정형외과 분과 학회 중, 가장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질의 콘텐츠 제작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자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대한척추외과학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학회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YouTube 채널을 통한 대중교육, 임상 진료지침의 개발 및 홍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다양한 기부 및 모금 활동을 통해 대한척추외과학회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척추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척추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는 국민들에게 척추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척추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을 널리 알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은 국민들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제4장 제3절

회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

대한척추외과학회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학회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회원들이 수시로 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활발한 학술대회와 국제 교류는 회원들이 쉽게 신기술을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신입 전문의에게는 연수교육과 전임의 인증 제도 같은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학술상과 펠로우십 등 학회의 다양한 교육시스템 또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이와 같은 학술대회와 국제 교류를 수록해 온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학회의 디지털화와 홈페이지 개선

척추외과학회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명은 단어 ‘척추’의 영문명을 이용한 ‘spine.or.kr’이다. 친숙하고 딱 와 닿는 척추와 관련된 가장 신뢰성 있는 사이트이다. 해당 홈페이지가 본격적인 모습을 갖춰나가게 된 것은 학회 자료 관리와 교육 홍보를 위해서 1999년 6월 18일 학회 홈페이지 관리와 개선 및 전산화를 위한 전산위원회(위원장 신병준 회원)가 가동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후 여러 번 업데이트되었고, 2013년부터는 학회 차원의 홍보위원회가 설립되어 학회 활동 홍보 및 대

중과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30주년을 맞이한 2014년에는 건강한 S-라인 척추 만들기 등 캠페인과 대국민 건강 강좌를 개최하면서 대폭 개선되어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2014년 학회 30주년 기념행사 이후로는 척추질환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각종 자료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었다.

2017년에는 척추질환이나 치료에 대해 시각적인 설명을 위해서 척추 운동 동영상 제작하고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동영상은 진료에 바쁜 정형외과 회원들에게 편의성을 그리고 척추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인기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척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현재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은 2020년에 기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크게 업데이트되었는데, 학회의 개괄적 역사부터 시작하여 학회의 비전, 정관과 업무규정, 임원진은 물론 각 위원회와 연구학회 및 각 지역 척추 지회가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 학술행사와 본 학회 공식 학회지인 척추외과학회지 및 *Asian Spine Journal*까지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을 위한 척추질환에 대한 정보와 척추 전문의 찾기 서비스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연구학회를 별도 관리하여, 각 연구학회별 회장 인사말, 임원진, 회원명단, 학술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연구학회명의 통일성을 위하여 한글 연구학회명 앞에 '대한-'을 추가하였고, 영문 연구학회명 앞에 'Korean Research Society-'를 추가하였다. 최근에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에서 편하게 강좌를 듣고 토의할 수 있는 KSSS Spine Issue Webinars를 연 4회에 걸쳐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각종 학술상과 학회 후원 펠로우십 및 국외 연수 프로그램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우수논문상과 향산학술상을 통해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학술상은 1997년 초창기에는 봄과 가을에 두 차례씩 시상되었고, 2003년부터는 기초 부문과 임상 부분으로 나뉘어 다시 2차례씩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는 하재구학술상을 추가하여 매년 2-3편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또 젊은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Korean American Spine Society Travelling Fellowship을 신설하여 해외 척추 의사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좀 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일본과 대만에 travelling fellowship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국제 교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23년에는 일본 2인, 대만 2인의 travelling fellow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로 단기 fellowship

을 시작하였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이러한 지원은 척추외과학에 관심이 있는 젊은 회원들의 국내 및 국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높여 척추외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적 학문적 교류의 장 마련 및 전임의 인증 제도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창립된 1984년 1차 학술대회부터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여러 선진 술기를 습득할 수 있는 특강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1984년 1차 추계학술대회의 첫 초청 연자는 일본 고베국립병원 정형외과의 가타오카 오사무로, 이후 다양한 석학을 초청해 2008년 춘계학술대회에 사토미(Satomi, 교린대학교) 교수, 하워드 안(Howard S. An, 시카고 러시대학교) 박사를 초청했으며, 2009년 추계학술대회에는 브라이언 권(Brian Kwon,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를 연자로 초청하였다. 2011년 춘계학술대회에는 KASS (Korean American Spine Society) 팀 윤(Tim Yoon) 회장, 중국척추외과학회 Wen Yuan 부회장을 초청하여 척추외과학회의 세계적 발돋움을 위한 교류에 힘썼다. 2015년 제32차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영문 세션을 구성하였고, 일본의 Abumi, 인도의 Jayaswal, 미국의 SRS travelling senior fellow인 Akbarnia 등을 초빙하여 특별 강의를 하였다. 이처럼 세계 석학들의 특강은 이를 통해 회원들의 국제 교류를 넓히고 젊은 회원들의 지식과 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학회는 척추질환의 전문가가 되고자 지원한 척추 전임의(fellow)에 대한 특수 교육의 필요성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는 척추질환 치료에 대한 상대적 어려움을 느끼고, 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에 학회에서는 전임의 인증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전임의 인증에의 목표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전임의 교육 등 교육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전임의 등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회가 인증할 수 있는 척추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전임의 인증제의 운영 및 교육은 대한척추외과학회내 교육위원회에서 계획하며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추계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로 발돋움하여 명칭도 KSSS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로 바뀌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여러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였고, 발표도 영문으로 하는 등 질적으로 발전하여 국제 학회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2020년에는 총 15개국 267명의 해외 척추외과 의사가 참여하였다. 이어 2021년에는 참가자가 16개국에서 349명, 2022년에는 19개국 404명, 2023년에는 16개국에서 503명이 참여하는 등 매년 성장하고 있어, 세계적인 석학들과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글로벌 학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제5장

대한척추외과학회
학술활동

제1절
학술행사

제2절
학회지 발간

제3절
연수교육

제4절
학술상 및 학회 후원 펠로우십

제9도 구간골의 용단

골와목골과잇만골(腰骨)이라이름구별을이편된와(眞椎)가회(假椎)의두가지로흔히라
(一)진퇴는오트二十四개내서로항호여벗지아나총요각각은동을흔느기
덕목와허리와잇가슴의부위를흔느아물다서구별은예우히느기
정퇴(頸椎)라호고아매五개를
요퇴(腰椎)라호고아온의十二개를
흉퇴(胸椎)라호느니라

제5장 제1절 학술행사

1984년 척추질환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연구의 결과, 새로운 증례, 질환에 대한 치험례를 발표하고 토의하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설립 초기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모두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나, 1995년부터 모 학회인 대한정형외과학회의 관례에 따라 봄 학술대회는 지방에서 개최하고 가을 학술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춘계학술대회에는 정기총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의 내용이나 구성은 차이가 없으나, 2010년부터 추계학술대회는 학회 내 여러 연구학회의 논문 발표, 특강, 토론 등으로 구성해 개최하고 있다.

1984년 4월 6일 최초의 학술대회가 국립의료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왕진만 회원의 ‘Segmental Spinal Instrumentation’, 김병직 회원의 ‘Chemoneurolysis에 대하여’라는 연제의 특강이었다. 이후 1985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일반 회원들에게 자유 연제를 공모하였다. 초기 학술대회는 5~10편의 학술 논문이 만나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998년 추계학술대회 때부터는 학술대회가 만나절에 걸쳐 진행되었다. 1985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일반 회원들에게 자유 연제를 공모하였는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자유 연제 수가 25~30편으로 증가되어 학술대회가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풍성해졌다. 연 2회 개최되는 춘·추계 학술대회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우수 논문을 받

표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북미 척추외과학회, SICOT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우리 학회의 위상과 권위를 세계적으로 높이게 되었다. 1993년 SICOT 세계대회(SICOT 93 Seoul)의 성공적 개최는 그런 노력의 결실이었다.

학술 논문이 풍성해지면서 우리 학회는 1997년부터 우수 논문 1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는데, 이는 학술대회의 발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매년 2-3편의 우수 논문을 선정해 꾸준히 시상해오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고, 석세일 회원은 1997년 사재를 출연하여 향산학술상을 제정하였다. 향산학술상은 매년 학술대회에서 1-2편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을 대상으로 수여하였다. 향산학술상은 대한척추외과학회 학술대회 학문적 발전 및 발표 연구의 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학술대회는 처음에 초청 특강이나 심포지엄을 주로 했으나 1999년부터 찬반토론을 시작하였고 진행형식도 설립 초기에는 좌장 한 사람이 진행과 토론을 전담하였으나, 1997년 추계학술대회부터 좌장과 토론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좌장은 진행을 맡고 토론자가 발표 논문에 대한 총평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2010년부터는 추계학술대회를 각 연구회 중심의 심포지엄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 학회는 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최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곧 일본과 프랑스 등 저명한 척추외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학회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최신 지식을 전달하는 등 학문 교류에 박차를 가하였다. 1984년 1차 추계학술대회의 첫 초청 연자는 일본 고베국립병원 정형외과의 가타오카 오사무로, 이후 다양한 석학을 초청해 2008년 춘계학술대회에 사토미(Satomi, 교린대학교) 교수, 하워드 안(Howard S. An, 시카고 러시대학교) 박사를 초청했으며, 2009년 추계학술대회에는 브라이언 권(Brian Kwon,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를 연자로 초청하였다. 2011년 춘계학술대회에는 KASS (Korean American Spine Society) 팀 윤(Tim Yoon) 회장, 중국척추외과학회 Wen Yuan 부회장을 초청하여 척추외과학회의 세계적 발돋음을 위한 교류에 힘썼다. 2012년 춘계학술대회에는 일본의 마나부 이토(홋카이도 의학전문대학원), 노리오 가와하라(가나자와대학교 의과대학), Behrooz Akbarnia(캘리포니아대학교)를 초청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 2020년대에는 수많은 세계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제교류를 증대하였다.

이렇게 국제교류가 증대된 우리 학회는 Scoliosis Research Society, North American Spine Society, European Spine Society, ISSLS 등 여러 국제학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특히 1989년부터 시작된 ISSLS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Lumbar Spine)와의 협력은 우리 회원들의 수많은 연구 논문 발표로 이어졌고 또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많은 해외 척추학회와 끊임없이 교류하여 2014년 ISSLS의 국내 유치를 성사시켰으며 그후 여러 국제 학술대회를 국내에서 유치하게 되었다.

또 여러 연구성과와 더불어 2007년에는 영문 학술지(*Asian Spine Journal*)가 창간되었다. 국제적 수준의 잡지를 목표로 창간된 이 학술지에는 많은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결과 2016년 드디어 영문판 학회지 “*Asian Spine Journal*”이 E-SCI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실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Asian Spine Journal*은 Asia Pacific Spine Society (APSS), Middle East Spine Society (MESS), Association of Spine Surgeons of India (ASSI), Taiwan Spine Society (TWSS), Chinese Spine Society of Medicine Education (CSSME),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KSSS)의 공식 영문 학술지이다.

*Asian Spine Journal*은 현재 국내 편집위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각국 대표들로 구성된 10명의 부편집위원장(Deputy Editors)과 21개국 국제 편집위원(Editorial Board) 123명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척추 학술지로 SCI Expanded (SCIE)의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2020년 우리 학회는 KSSS라는 이름으로 첫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은 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후 매년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면 오프라인의 형태로, 전 세계 16개국에서 503명이 참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 발돋움하였다.

현재 우리 학회는 국제적인 학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학회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30년 전 특강 두 개로 시작된 대한척추외과학회 학술대회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수많은 논문과 함께 세계적인 석학들의 특강과 찬반토론 및 심포지엄 등으로 구성된 풍성하고 알찬 국제학술대회로 변모되었으며, 세계적 수준의 척추외과 학술대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많은 회원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척추외과학회가 발전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학술대회가 더욱더 발전을 거듭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명실상부한 학술대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외 학회의 국내 유치 현황

개최 년도	학술명	개최지	Chair- man
2004	The 4th Pacific and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PASMISS)	제주	정재윤
2007	The 7th Pacific and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PASMISS)	경주	박희전
2008	Asia Pacific Spine Arthroplasty Society (APSAS)	코엑스, 서울	이중서
2008	Asia Pacific Spine Society – Asia Pacific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APSS – APPOS)	라마다 플라자, 제주	정재윤
2011	The 11th Pacific and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PASMISS)	롯데호텔, 부산	김기택
2011	2nd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Asia-Pacific (CSRS-AP)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장한
2013	4th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Asia-Pacific (CSRS-AP)	르네상스호텔, 서울	송경진
2014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Lumbar Spine (ISSLS)	연세의료 세브란스병원, 서울	이환모
2015	The 15th Pacific and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PASMISS)	대전	안재성
2016	7th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Asia-Pacific (CSRS-AP)	리츠-칼튼호텔, 서울	염진섭
2019	Asia Pacific Spine Society – Asia Pacific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APSS – APPOS)	송도컨벤시아, 인천	김기택
2021*	The 20th Pacific and 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PASMISS)	콘래드호텔, 서울	김석우
2021	11th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Asia-Pacific (CSRS-AP)	인터콘티넨탈호텔 코엑스, 서울	석경수
2023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pine Surgery, Asia-Pacific (ISASS-AP)	콘래드호텔, 서울	김석우

* 코로나로 연기되어 2021년에 개최하였습니다.

역대 학술대회 개최 현황

학술대회	개최년도	개최지
제1차 춘계학술대회	1984년 4월 6일(금)	서울국립의료원
제1차 추계학술대회	1984년 11월 23일(금)	인제대 서울백병원
제2차 춘계학술대회	1985년 4월 25일(목)	서울 신라호텔
제2차 추계학술대회	1985년 11월 8일(금)	서울 신라호텔
제3차 춘계학술대회	1986년 6월 13일(금)	서울 신라호텔
제3차 추계학술대회	1986년 11월 14일(금)	서울 신라호텔
제4차 춘계학술대회	1987년 6월 12일(금)	서울 신라호텔
제4차 추계학술대회	1987년 11월 10일(화)	서울 신라호텔
제5차 춘계학술대회	1988년 5월 20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5차 추계학술대회	1988년 11월 15일(화)	서울 신라호텔
제6차 춘계학술대회	1989년 5월 19일(금)	서울 신라호텔
제6차 추계학술대회	1989년 11월 24일(금)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제7차 춘계학술대회	1990년 6월 8일(금)	서울 신라호텔
제7차 추계학술대회	1990년 11월 30일(금)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제8차 춘계학술대회	1991년 5월 18일(토)	서울 힐튼호텔
제8차 추계학술대회	1991년 11월 29일(금)	대전 리베라호텔
제9차 춘계학술대회	1992년 5월 29일(금)	서울 신라호텔
제9차 추계학술대회	1992년 12월 4일(금)	KOEX
제10차 춘계학술대회	1993년 5월 25일(화)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제10차 추계학술대회	1993년 11월 26일(금)	서울 신라호텔
제11차 춘계학술대회	1994년 5월 27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11차 추계학술대회	1994년 11월 25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12차 춘계학술대회	1995년 6월 2일(금)	대구 그랜드호텔
제12차 추계학술대회	1995년 11월 24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13차 춘계학술대회	1996년 5월 31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13차 추계학술대회	1996년 11월 22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14차 춘계학술대회	1997년 6월 5일(목)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제14차 추계학술대회	1997년 11월 21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15차 춘계학술대회	1998년 5월 29일(금)	광주 무등파크호텔
제15차 추계학술대회	1998년 11월 27일(금)	서울 힐튼호텔

학술대회	개최년도	개최지
제16차 춘계학술대회	1999년 5월 28일(금)	대전 리베라호텔
제16차 추계학술대회	1999년 11월 26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17차 춘계학술대회	2000년 5월 26일(금)	대구 동대구호텔
제17차 추계학술대회	2000년 11월 24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18차 춘계학술대회	2001년 5월 25일(금)	강원 용평리조트
제18차 추계학술대회	2001년 11월 23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19차 춘계학술대회	2002년 5월 24일(금)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제19차 추계학술대회	2002년 11월 29일(금)	서울 힐튼호텔
제20차 춘계학술대회	2003년 5월 30일(금)	경주 힐튼호텔
제20차 추계학술대회	2003년 11월 28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
제21차 춘계학술대회	2004년 5월 28일(금)	대전 유성리베라호텔
제21차 추계학술대회	2004년 11월 26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
제22차 춘계학술대회	2005년 5월 19-21일(목-토)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제22차 추계학술대회	2005년 12월 2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
제23차 춘계학술대회	2006년 5월 26일(금)	강원 보광휘닉스파크
제23차 추계학술대회	2006년 11월 24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
제24차 춘계학술대회	2007년 5월 25-26일(금-토)	대구 인터볼고호텔
제24차 추계학술대회	2007년 11월 30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25차 춘계학술대회	2008년 4월 4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25차 추계학술대회	2008년 11월 28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26차 춘계학술대회	2009년 5월 29-30일(금-토)	강원 용평리조트
제26차 추계학술대회	2009년 11월 27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27차 춘계학술대회	2010년 5월 28-29일(금-토)	전북 무주리조트
제27차 추계학술대회	2010년 11월 26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28차 춘계학술대회	2011년 5월 27-28일(금-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제28차 추계학술대회	2011년 11월 25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29차 춘계학술대회	2012년 5월 25-26일(금-토)	대전 컨벤션센터
제29차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23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30차 춘계학술대회	2013년 5월 24-25일(금-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0차 추계학술대회	2013년 11월 22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제31차 춘계학술대회	2014년 5월 22일-5월 24일(목-금-토)	인천 송도컨벤시아
제32차 춘계학술대회	2015년 5월 29일-30일(금-토)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학술대회	개최년도	개최지
제32차 추계학술대회	2015년 11월 20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제33차 춘계학술대회	2016년 5월 27일-28일(금·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제33차 추계학술대회	2016년 11월 18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제34차 춘계학술대회	2017년 5월 19일-20일(금·토)	대전 컨벤션센터
제34차 추계학술대회	2017년 11월 17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제35차 춘계학술대회	2018년 6월 1일-2일(금·토)	대구 인터볼고호텔
제35차 추계학술대회	2018년 11월 16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제36차 춘계학술대회	2019년 5월 24일-25일(금·토)	강릉 라카이호텔
제36차 추계학술대회	2019년 11월 15일(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제37차 추계학술대회	2020년 11월 13일-14일(금·토)	온라인
제38차 춘계학술대회	2021년 5월 28일-29일(금·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제38차 추계학술대회	2021년 11월 19일-20일(금·토)	부산 롯데호텔
제39차 춘계학술대회	May 26(Thu)-28일(Sat), 2022	Swiss Grand Hotel Convention Center Seoul
제39차 추계학술대회	Nov 18(Fri)-19(Sat), 2022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Gwangju
제40차 춘계학술대회	May 24(Wed)-26일(Fri) 2023	Lotte Hotel Seoul
제40차 추계학술대회	Nov 17(Fri)-18(Sat), 2023	Ramada Plaza Jeju

* 역대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대한척추외과학회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5장 제2절 학회지 발간

대한척추외과학회지(국문학회지)

대한척추외과학회는 1984년 2월 17일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분과 학회로 창립되었으며, 10년이 경과한 1994년 5월 1일 대한척추외과학회지를 창간하였다.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한국 최초의 척추외과 분야 전문 학술지로서, 척추외과학회 학술대회(연 2회 개최)에서 발표하는 회원들의 우수한 연구 업적을 국내외에 소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창간호는 회장 겸 편집위원장인 김남현 회원과 김영태, 이준규, 이춘기, 정영기, 정재윤, 조재림 위원의 노고로 발간되었다. 척추외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Spine*이 1976년에, *European Spine Journal*은 1992년 6월에, *The Spine Journal*이 2001년 1월에 창간되었다. 다른 척추 전문 학술지의 창간연도와 비교해볼 때 대한척추외과학회지의 창간은 시기 적절하였으며, 이 역시 우리 스승과 선배들의 탁월한 식견 덕이다.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초기에는 연 2회 발간하였으나, 1999년부터 연 4회로 증간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후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터넷이 상용화되었고, 이에 대한척추외과학회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척추외과 분야의 전문 학술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척추외과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척추외과 분야의 전문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회지를 인터넷에 공

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학회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학회지의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며,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과정을 전자화하면서 국제 학술지로서 위상을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07년에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지가 되었으며, 2011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정식 등재지가 되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이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척추외과 분야의 가장 오래된 전문 학술지로서 위치가 확고해졌다.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20년간 발간되어 오면서 3회에 걸쳐 표지와 내부 구성을 개선하였으며, 대한민국 척추외과 발전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한국 척추외과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집이기도 하다. 대한척추외과학회지의 우수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 중에서 연구 결과가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시상하는 제도가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여러 면에서 발전을 거듭한 결과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2011년에는 정형외과와 척추외과 분야의 학술지 중에서 가장 영향력(Factor Score)이 높은 학술지로 선정되었다.

2013년 하기용 회원이 정형외과 의사이며 정형외과내 척추외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부친을 기리기 위해서 하재구학술상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하재구학술상은 젊은 연구자들의 임상 및 기초 연구 장려를 목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대한척추외과학회지에 수록된 원저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2014년부터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하재구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2015년 이후 정관 및 윤리규정을 추가하고 변경함으로써 대한척추외과학회지의 투고 및 심사 절차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연구의 질과 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15년 1차 개정을 통해서 연구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강조하고, 저자와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연구 및 출판 과정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품질 관리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는 학회지가 학술 커뮤니티 내외에서 신뢰받는 출판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 2016년 2차 개정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명 절차, 임기, 그리고 역할에 대한 상세 규정 도입,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절차와 그들의 역할,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또한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 제공 등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척추외과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학회지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학술적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2017년 3차 개정시 주요 변경 사항으로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전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강화, 저자의 연구수행과 논문작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 명시, 표절, 위조, 변조 금지 및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등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조항,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제

재 절차 명확화가 있었다. 2017년 대한척추외과학회지의 윤리규정 개정은 연구 및 출판 과정의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7년 개정을 통해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연구 및 출판 과정의 윤리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자들에게 명확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학회지뿐만 아니라 연구 커뮤니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술적 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4차 및 5차 개정시 중복 게재, 중복 출판 및 이중 게재 금지와 같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금지 조항 강화, 연구의 기획, 수행,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논문 작성 등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 명시, 저자의 의무, 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업데이트를 주로 변경하였다. 2019년 개정을 통해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연구 및 출판 과정에서의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회지의 신뢰도 및 학문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학회지가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받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6차 개정은 주로 투고규정 및 윤리규정에 관한 것으로, 연구 및 출판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연구 및 출판 과정에서의 최신 국제적 윤리 기준을 반영하고, 학술 커뮤니티 내외에서의 신뢰성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독자 및 학술 커뮤니티에게는 품질과 신뢰성이 보장된 연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2023년 7차 개정시 연구윤리 강화(연구의 기획, 수행,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정리 및 작성 등 모든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논문 제출에 동의해야 하는 저자의 의무를 강조),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의 명확한 기술(논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직접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명확히 함), 연구윤리 심의 승인 명시[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 여부를, 동물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는 동물 이용에 관한 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기술]를 논의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연구 및 출판 과정에서의 정확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 커뮤니티 내외에서 학회지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2020년 이후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서 영문 및 국문학회지를 두루 아우르고, 국제적 인지도를 얻기 위해 SCOPUS 등재를 목표로 학회지의 학술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SCOPUS 등재는 대한척추외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전문의 평가 점수

의 변화로 인해 감소된 투고 논문 수의 해결, 논문 투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표이다. 이는 학회지가 직면한 학술지 위상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학술적 교류를 계속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2024년 SCOPUS 등재를 기반으로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앞으로도 학술적 우수성의 지속적인 향상, 국제적 인지도 증대, 그리고 회원 및 독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척추외과 분야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과 다양한 학술 활동의 지원을 통해 학회지의 학술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김영훈 편집위원장, 김태균 발행인, 총무에 양재혁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편집위원으로는 고상봉, 김상범, 김영훈, 김형민, 남우동, 민우기, 양재준, 장봉순, 김태균, 박시영, 박현진, 홍창화, 황창주, 박예수, 서형연, 송광섭, 신동은, 정남수, 최병완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지 역대 편집위원

연도	편집위원장	총무
1994년(11차)	김남현	
1995년(12차)	김남현	이춘기
1996년(13차)	김남현	이춘기
1997년(14차)	김남현	이춘기
1998년(15차)	김남현	이춘기
1999년(16차)	왕진만	이환모
2000년(17차)	왕진만	이환모
2001년(18차)	왕진만	이환모
2002년(19차)	왕진만	이환모
2003년(20차)	왕진만	이환모
2004년(21차)	정영기	이환모
2005년(22차)	정영기	전창훈
2006년(23차)	정재윤	전창훈
2007년(24차)	정재윤	전창훈
2008년(25차)	정재윤	전창훈

연도	편집위원장	총무
2009년(26차)	정재윤	전창훈
2010년(27차)	정재윤	전창훈
2011년(28차)	정재윤	전창훈
2012년(29차)	박희전	전창훈
2013년(30차)	박희전	전창훈
2014년(31차)	박희전	전창훈
2015년(32차)	박희전	김영훈
2016년(33차)	장봉순	김영훈
2017년(34차)	장봉순	김영훈
2018년(35차)	장봉순	김영훈
2019년(36차)	장봉순	김영훈
2020년(37차)	장봉순	김영훈
2021년(38차)	김영훈	양재혁
2022년(39차)	김영훈	양재혁
2023년(40차)	김영훈	양재혁

Asian Spine Journal (영문학회지)

2005년 당시 대한척추외과학회 국문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림의대 정영기 회원은 척추외과학회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높이기 위해 대한척추외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가 SCI에 등재되어야 한다며 영문 학술지를 발간하기로 학회의 중지를 모으고 2006년 1월 4일 서울 역 종식당 티원에서 첫 준비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에는 정영기, 정재윤, 장한, 이종서, 박종범 위원 등 편집위원 11명이 참석하여 정영기 국문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영문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겸임하고 장한 위원을 총무, 박종범 위원을 총무보로 하여 발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영문 학술지 이름은 *Asian Spine Journal*로 하였으며 연 2회(6월, 12월)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창간호 발간 편집위원으로는 정영기(위원장), 장한(총무), 정재윤, 하기용, 신병준, 심대무, 이춘성, 이종서, 김진혁, 김학선, 안재성, 문성환, 장봉순, 김기원, 염진섭, 박종범(총무보)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2006년 8월 31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정영기 편집위원장이 2006년 10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편집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정재윤 위원이 편집위원장에 취임하였다. 2006년 12월 8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술지의 원활한 준비 작업을

위해 장한 총무를 부위원장으로, 박종범 총무보를 총무로 임명하였다.

2007년 6월에 원저 8편(국내 7편, 국외 1편), 증례보고 4편 총 12편으로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12월호에는 원저 5편, 증례보고 3편 총 8편을 게재하였다. 장한 부위원장은 일신상 이유로 부위원장을 사임하고 이종서 위원이 부위원장에 취임하였다.

2008, 2009, 2010년까지 연 2회 학술지를 성공적으로 발간하면서 2010년 4월 20일 Pubmed Central에, 2010년 5월 20일 KoreaMed에, 2010년 5월 23일 PubMed에 등재되면서 *Asian Spine Journal*이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에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2011년부터는 연 4회(3, 6, 9, 12월) 논문을 증편하여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9월 19일 Scopus에 등재되면서 국제 학술지로 인정받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후보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시행하는 국제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각 1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 4회 발간하면서 일 년에 50편 안팎의 논문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2014년부터는 연 6회로 증편하여 연 120편 안팎의 논문을 발간하는 학술지로 발전을 꾀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 국내 편집위원 19명, 국제 편집위원 31명(미국, 일본, 중국, 인도, 홍콩, 대만, 이란, 이라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총 50명으로 구성되면서 명실공히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척추 학술지로 성장하였다. 또한 2013년 8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태평양 척추학회(Asia Pacific Spine Society, APSS)에 정재윤 편집위원장 겸 아시아태평양 척추학회 회장, 김기택 대한척추외과학회 차기회장 및 박종범 편집위원회 총무가 참석하였다. 이 학회에서 정재윤 편집위원장의 노력으로 아시아태평양 척추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5년 이종서 회원이 편집위원장을 이어받아 더욱 박차를 가한 바, 2017년 드디어 숙원사업인 *Asian Spine Journal*의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등재가 성사되어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학문적 영향력 또한 확대되었다.

현재 *Asian Spine Journal*은 Asia Pacific Spine Society (APSS), Middle East Spine Society (MESS), Association of Spine Surgeons of India (ASSI), Taiwan Spine Society (TWSS), Chinese Spine Society of Medicine Education (CSSME),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KSSS)의 공식 영문 학술지이다. 2020년부터 김학선 회원이 편집장을, 조재환 회원이 부편집장을 맡아 SCIE에 진입하기 위해 인용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2년 Clarivate사로 부터 받은 공식 인용지수 2.3으로 정형외과 분야 Q2(상위 25~50% 이내)에 해당하여 지속 발전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0월호부터는 최신의 경향에 맞춰 사진 표지(graphic cover)를 도입하

여 시안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3월 현재 국내 편집위원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편집위원장(Editor-in Chief) 김학선을 비롯하여 김상일, 김성규, 김호중, 박상민, 박형열, 이근우, 이병호, 장동균, 장삼열, 장해동, 최성훈, 권지원, 박세준, 박세한, 박진성, 김성수, 박건보, 이재철, 조재환(총무)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4년 현재 편집위원회는 각국 대표들로 구성된 10명의 부편집위원장(Deputy Editors)과 세계 각국의 국제 편집위원(Editorial Board)들은 21개국(미국, 일본, 중국, 인도,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그리스, 프랑스, 헝가리, 브라질, 태국, 필리핀,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터키) 106명을 포함하여 총 120명의 전 세계 척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척추와 관련된 기초와 임상 전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논문들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4년 현재 *Asian Spine Journal*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척추 학술지로 영향력 지수의 측면에 있어서 해마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SCI Expanded (SCIE)의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Asian Spine Journal 역대 편집위원

연도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2005년(22차)	정영기		
2006년(23차)	정재윤		장 한
2007년(24차)	정재윤		이종서
2008년(25차)	정재윤		이종서
2009년(26차)	정재윤		이종서
2010년(27차)	정재윤		이종서
2011년(28차)	정재윤		이종서
2012년(29차)	정재윤	이종서	박종범
2013년(30차)	정재윤	이종서	박종범
2014년(31차)	정재윤		박종범
2015년(32차)	이종서		박종범
2016년(33차)	이종서		박종범
2017년(34차)	이종서		박종범
2018년(35차)	이종서		박종범
2019년(36차)	이종서		박종범
2020년(37차)	김학선		조재환
2021년(38차)	김학선		조재환
2022년(39차)	김학선		조재환
2023년(40차)	김학선		조재환

제5장 제3절 연수교육

창립 이후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를 통한 학술 교류를 통해 각 교실의 연구 업적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우리 학문의 국제적 수준도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들도 척추외과의 최신 지식을 평생교육과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욕구를 토대로 각 대학 회원들은 1997년 10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주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병원 1층 임상강의실에서 처음으로 척추 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인 척추외과학 연수강좌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주관으로 제1차 척추외과학 연수강좌를 1999년 11월 7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소 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척추외과학회 회원 및 전공의들의 교육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퇴행성 질환의 병리 생태 및 영상진단,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질환, 척추측만증 및 후만증등의 변형, 감염 및 외상 그리고 종양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왔으며, 2004년 제5차에서는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에 추가했을 뿐 아니라 기본 척추질환 외에도 척추손상의 재활 치료에 대해 재활의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연수강좌의 다양성을 모색하였다. 2005년 제6차에서는 인공디스크 재치환술의 과거와 미래, 2006년 제7차는 골대체물, 2009년 10차는 만성 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재활의학과 교수를 초청하였고, 2011년 제12차는 최근 유행하는 치료

법, 2012년 제13차는 주사요법과 초음파, 2013년 제14차는 Injection Therapy를 주제로 하여 변화하는 다양한 의료환경을 수용하였고, 회원들의 학문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연수강좌 강의 내용을 수강 회원들이 평가하여 차기 강사를 선정하는 등 내실을 기하였다.

2014년부터 연수강좌는 기초와 경추, 요추, 외상, 척추변형, 기타(척추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골다공증, 골다공증성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 척추 종양, 척추의 감염) 등으로 세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전공의 및 회원들의 지속적인 교육(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연수강좌는 1999년 시작된 이래로 매년 10~12월에 개최하여 아카데미즘으로의 학회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부터는 정형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개원의들의 교육을 위한 연수강좌를 1회 더 추가하여 진행을 하였다. 개원의들을 위한 연수강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이후 기존의 연수강좌와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는 기초와 경추, 요추, 외상, 척추변형, 척추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골다공증, 골다공증성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 척추 종양, 척추의 감염과 같은 필수적인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개원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거나 임상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는 척추치료 경향 및 임상 효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여 구성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원의 연수 강좌의 경우 척추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진단기법의 소개, 초음파를 이용한 비수술적 척추치료(Prolo 치료, 도수치료 등),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수술, 최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치료방법[Foraminoplastic PELD (Out-in technique), SELD (trans-Sacral epidural laser dedcompression)] 등을 소개하고 강의하고 있다. 2020년을 예로 들면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치료, 최신 약물 동향, 각종 합병증에 대한 치료, 최소침습요추 수술,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등과 같은 최신 술기를 교육하였다.

이처럼 대한척추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는 전공의는 물론 지속 교육이 필요한 전문의, 개원의들에게 척추외과 분야의 기초, 임상 및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최신 의료 술기 및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있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척추수술이 발전하고 그 술기가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술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그 인증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척추 전임의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에 2018년부터 척추 전임의를 대상으로 척추술기 워크숍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이는 척추수술 술기의 배경지식, 술기의 특성 및 적용 방식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교육하고 적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전창훈 학회장, 이동호 학회 총무, 박시영 교육위원회 간사의 주도 하에 가칭 ‘수련교육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전임의 인증에 필요한 술기를 구분하고, 교육할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년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요추, 경추, 최소침습 및 변형 수술 술기 등 다양한 척추수술 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edtronic와 MOU 협약을 통해 전임의 교육에 필요한 실습 장소(Medtronic innovation center, 오송), 교육 장비 및 자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대면 실습에 한계가 있었으나, 온라인 교육(비디오 동영상 술기 교육)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전임의 교육에 매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임의 연수강좌(ICL)를 새로 도입하여 기존 술기 워크숍과 동시에 구성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2022년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회를 통하여 교육위원회 업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전임의 인증제 교육 프로그램은 척추수술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교육생 숫자는 다음과 같다.

2020년: 42명

2021년: 34명

2022년: 42명(1년차 38명, 2년차 4명) → 전임의 인증 조건 만족: 32명 / 38명(84.2%)

2023년: 48명(1년차 48명) → 인증 조건 만족: 취합 중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은 정형외과 척추 전임의들은 병원 및 클리닉에서 척추수술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한척추외과학회가 목표로 밝히고 있는 ‘전임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회가 인증할 수 있는 척추외과 의사를 양성한다’에 부합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척추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척추 전임의 인증 조건

1. 대한척추외과학회에서 인증한 병원 및 지도교수로부터 최소 10개월 이상의 전일제 교육 수료
2. 대한척추외과학회 주최 혹은 인정한 카데바 워크숍 최소 1회 수료
3. 춘, 추계 척추외과학회 참석
4. 교육위원회에서 주체하는 ICL 강좌 및 척추술기워크숍 2회 수료
5. 대한척추외과학회 정회원 가입(2023년도~)
6. 대한척추외과학회 산하 연구학회 심포지엄 2회 이상 참석

전임의 인증 제도 및 전임의 교육 현황

일시	주제	장소	위원장	총무
2018년 5월 20일	2018년 제1차 척추 술기 워크숍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오송)	전창훈	박시영
2018년 10월 28일	2018년 제2차 척추 술기 워크숍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오송)	전창훈	박시영
2019년 7월 14일	2019년 제1차 척추 술기 워크숍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오송)	전창훈	황창주
2019년 10월 27일	2019년 제2차 척추 술기 워크숍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오송)	전창훈	황창주
2020년 9월 12~13일	2020년 제1차 척추 술기 워크숍(온라인)	온라인(코로나로 인해)	전창훈	박시영
2021년 1월 16~17일	2020년 제2차 척추 술기 워크숍(온라인)	온라인(코로나로 인해)	전창훈	박시영
2021년 10월 16~17일	2021년 제1차 전임의 연수강좌(온라인)	온라인	전창훈	박세준
2021년 10월 23~24일	2021년 제1차 척추 술기 워크숍(온라인)	온라인(코로나로 인해)	전창훈	박세준
2022년 1월 8~9일	2021년 제2차 전임의 연수강좌(온라인)	온라인	전창훈	박세준
2022년 1월 16~17일	2021년 제2차 척추 술기 워크숍(온라인)	온라인(코로나로 인해)	전창훈	박세준
2022년 7월 16~17일	2022년 제1차 전임의 연수강좌 (온라인)	온라인	서승우	박세준
2022년 7월 24일	2022년 제1차 척추 술기 워크숍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오송)	서승우	박세준
2022년 10월 29~30일	2022년 제2차 전임의 연수강좌(온라인)	온라인	서승우	박세준
2022년 11월 06일	2022년 제2차 척추 술기 워크숍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오송)	서승우	박세준
2023년 6월 10~11일	2023년 제1차 전임의 연수강좌(온라인)	온라인	서승우	박세준
2023년 6월 18일	2023년 제1차 척추 술기 워크숍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오송)	서승우	박세준
2023년 10월 28~29일	2023년 제2차 전임의 연수강좌(온라인)	온라인	서승우	이호진
2023년 11월 5일	2023년 제2차 척추 술기 워크숍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오송)	서승우	이호진

제1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1999년 11월 7일 강남성모병원

퇴행성 경추질환의 병태생리	이화의대	김동준
경추의 방사선학적 검사법	울산의대	신명진
경추증성 신경근증	충남의대	안재성
경추증성 척수증	가톨릭의대	장 한
퇴행성 요추질환의 병태생리	연세의대	이환모
요추 추간판 질환	조선의대	유재원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고려의대	채인정
척추전방전위증	영남의대	안면환
결핵성 척추염	한림의대	장호근
척추의 화농성 감염	성균관대의대	이종서
상부경추 손상	원주의대	박희전
하부경추 손상	전북의대	송경진
흉추 및 요추부 골절	순천향의대	신병준
선천성 척추측만증	서울의대	이춘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울산의대	이춘성
신경 근육성 척추측만증	인제의대	김진혁
척추후만증	경희의대	김기택
척추 종양	전남의대	정재윤

제2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01년 11월 18일 울산의대 현대중앙병원

퇴행성 경추 질환의 병태생리	이화의대	김동준
척추질환의 영상진단	서울의대	강흥식
퇴행성 경추 신경근증	울산의대	김영태
경추증성 척수증	가톨릭의대	장 한
퇴행성 요추부 질환의 병태생리	연세의대	이환모
요추 추간판 질환	조선의대	유재원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고려의대	채인정
척추전방전위증	영남의대	안면환
결핵성 척추염	한림의대	장호근

척추의 화농성 감염	성균관의대	이종서
상부경추 손상	연세의대	박희전
하 경추부 손상	전북의대	송경진
흉추 및 요추부 골절	순천향의대	신병준
선천성 척추측만증	서울의대	이춘기
특발성 측만증	울산의대	이춘성
신경근육성 측만증	인제의대	이상민
척추후만증	경희의대	김기택
척추 종양	전남의대	정재윤

제3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02년 11월 17일 삼성의료원

퇴행성 경추질환의 병태생리	이화의대	김동준
척추질환의 방사선학적 검사	한림의대	양 익
퇴행성 경추 신경근증	울산의대	김영태
경추증성 척수증	선병원	장 한
퇴행성 추간판 질환의 병태생리	연세의대	이환모
요추 추간판 질환	조선의대	유재원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순천향의대	신병준
척추전방전위증	성균관의대	이종서
척추 종양	전남의대	정재윤
척추의 화농성 감염	고려의대	채인정
결핵성 척추염	한림의대	장호근
상부경추 손상	원주의대	박희전
하 경추부 손상	전북의대	송경진
흉추 및 요추부 골절	영남의대	안면환
선천성 척추측만증	서울의대	이춘기
특발성 측만증	울산의대	이춘성
신경근육성 측만증	인제의대	김진혁
척추후만증	경희의대	김기택

제4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03년 11월 9일 삼성의료원

퇴행성 경추질환의 병태생리	이화의대	김동준
척추질환의 영상 진단	한림의대	양 익
퇴행성 경추증성 신경근증	선병원	장 한
경추증성 척수증	전북의대	송경진
퇴행성 요추부 질환의 병태생리	조선의대	유재원
요추 추간판 질환	연세의대	이환모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한림의대	장호근
척추전방전위증	원주의대	박희전
척추 종양	경희의대	김기택
척추의 화농성 감염	순천향의대	신병준
척추 결핵의 치료	가톨릭의대	하기용
상부경추 손상	성균관의대	이종서
하 경추부 손상	원광의대	심대무
흉요추부 손상	영남의대	안면환
선천성 측만증	울산의대	이춘성
특발성 척추측만증	인제의대	김진혁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서울의대	이춘기
척추후만증	국립의료원	김응하

제5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04년 11월 7일 삼성의료원

척추질환의 MR 영상	순천향의대	김대호
척추질환의 생물학적 치료	연세의대	문성환
퇴행성 척추질환의 병태생리	이화의대	김동준
경추증성 신경근증 및 척수증	선병원	장 한
요추 추간판 질환	원광의대	심대무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연세의대	이환모
척추전방전위증	조선의대	유재원
요추질환의 수술적 치료시의 합병증	을지의대	김환정
최소침습적 수술	전남의대	정재윤

척추 종양	경희의대	김기택
척추의 감염	순천향의대	신병준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경북의대	박일형
경추부 손상	전북의대	송경진
흉요추부 손상	성균관의대	이종서
척수손상의 재활치료	연세의대	신지철
선천성 측만증	울산의대	이춘성
특발성 척추측만증	인제의대	김진혁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서울의대	이춘기
척추후만증	순천향의대	김응하

제6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05년 11월 6일 서울 아산병원

퇴행성 척추질환의 병태 생리	아주의대	전창훈
척추의 임상적 생역학	한양의대	박예수
척추질환의 생물학적 치료	연세의대	문성환
경추 신경근병증과 척수병증	충남의대	안재성
요추 추간판 질환	원광의대	심대무
척추 협착증	가톨릭의대	하기용
척추전방전위증	조선의대	유재원
인공 디스크 재치환술(과거와 미래)	성균관의대	이종서
최소침습적 수술	을지의대	김환정
척추 종양	순천향의대	김응하
척추 감염	동아의대	이규열
골다공증의 치료	경북의대	박일형
경추의 손상	성균관의대	정성수
흉요추의 손상	원주의대	박희전
척수 손상의 재활	연세의대	신지철
특발성 척추측만증	서울의대	이춘기
비특발성 척추측만증	인제의대	김진혁
척추후만증	인하의대	조규정

제7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06년 11월 5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퇴행성 척추질환의 병태생리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골 대체물	서울의대	장봉순
척추의 임상적 생역학	가톨릭의대	박종범
경추 신경근병증과 척수병증	선병원	장 한
요추 추간판 질환	이화의대	김동준
척추협착증	영남의대	안면환
척추전방전위증	한림의대	장호근
만성 하부 요통의 재활	경희의대	김희상
최소침습적 수술	순천향의대	신병준
척추 종양	연세의대	이환모
척추 감염	계명의대	강철형
골다공증의 치료	경북의대	박일형
경추의 손상	전북의대	송경진
흉요추의 손상	경상의대	정순택
척수 손상의 재활	연세의대	신지철
특발성 척추측만증	울산의대	이춘성
비특발성 척추측만증	연세의대	김학선
척추후만증	경희의대	김기택

제8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07년 10월 27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척추 환자에서 신경학적 검사	서울의료원	민학진
골 대체물	한양의대	박예수
퇴행성 척추질환의 병태생리	이화의대	김동준
경추 신경근병증과 척수병증	충남의대	안재성
요추 추간판 질환	가톨릭의대	김기원
척추관 협착증	가톨릭의대	하기용
척추전방전위증	조선의대	유재원, 손홍문
만성 하부 요통의 재활	중문의대	신동은
최소침습적 척추수술	전주고려병원	박근호

척추 종양	연세의대	문성환
척추의 감염	동아의대	이규열
골다공증에서 새로운 변화	경북의대	박일형
경추부 골절	성균관의대	정성수
흉요추부 골절의 진단과 치료	건국의대	이석하
척수손상의 재활치료	연세의대	신지철
특발성 척추측만증	부산센텀병원	박원욱
비특발성 척추측만증	연세의대	김학선
척추후만곡	순천향의대	김응하

제9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08년 11월 1일 삼성의료원

퇴행성 척추질환의 병태생리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척추성 통증의 병인 및 약물 치료	충남의대	양준영
만성 요통의 치료	서울의대	정선근
경추증성 신경근증 및 척수증	가톨릭의대	박종범
상부경추 병변	경희의대	석경수
요추 추간판 질환	충북의대	김용민
요추 척추관 협착증	서울의대	장봉순
척추전방전위증	순천향의대	신병준
최소침습 척추수술	한림의대	김석우
경추부 손상	전북의대	송경진
흉요추부 손상	경상의대	정순택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경북의대	박일형
특발성 척추측만증	서울의대	이춘기
비특발성 측만증	고려의대	서승우
시상면 불균형	경희의대	김기택
척추 종양	연세의대	이환모
척추의 감염	계명의대	강철형
척추수술의 최근 동향	가톨릭의대	김기원

제10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09년 10월 31일 서울성모병원

척추 환자의 이학적 검사법	이화의대	고영도
경추 신경근증	인제의대	안기찬
경추 척수증	울산미래병원	장 한
상부경추 병변	서울의대	염진섭
퇴행성 척추질환의 병태생리	가톨릭의대	유기원
퇴행성 추간판 질환	아주의대	전창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을지의대	김환정
척추전방전위증	순천향의대	신병준
척수 손상	원광의대	심대무
경추부 손상	가천의대	전득수
흉요추부 손상	한림의대	장호근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순천향의대 내과	변동원
특발성 측만증	울산의대	이춘성
비특발성 측만증	인제의대	김진혁
시상면상 척추변형	인하의대	조규정
척추 종양	성균관의대	이종서
척추 감염	연세의대	이환모
만성 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정선근

제11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0년 10월 30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척추 환자의 이학적 검사법	을지의대	강종원
경추 신경근증	충남의대	안재성
경추 척수증	전북의대	송경진
상부경추 병변	가톨릭의대	박종범
추간판의 생물학적 특징과 변화	가톨릭의대	김기원
요추 추간판 질환	전남의대	서형연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서울의료원	민학진
척추전방전위증	순천향의대	김응하
척수 손상	가톨릭의대	나기호

경추부 손상	한림의대	김영우
흉요추부 손상	울산의대	김정환
특발성 척추측만증	연세의대	김학선
비특발성 측만증	고려의대	서승우
시상면상 척추변형	한양의대	박예수
척추영역에서 통증치료	원광의대	심대무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연세의대	문성환
척추 종양	경희의대	김기택
척추 감염	동아의대	이규열

제12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1년 10월 29일 삼성서울병원

척추 환자의 이학적 검사법	순천향의대	이재철
경추 신경근증	가톨릭의대	박종범
경추 척수증	경희의대	석경수
상부경추 병변	서울의대	염진섭
퇴행성 척추질환의 병태생리	원광의대	김태균
요추 추간판 질환	차의대	신동은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이화의대	고영도
척추전방전위증	서울의대	장봉순
척수 손상	조선의대	손홍문
경추부 손상	부산의대	이정섭
흉요추부 손상	인제의대	김진환
특발성 척추측만증	순천향의대	김응하
비특발성 측만증	인제의대	김진혁
성인 척추변형	인하의대	조규정
최근 유행하는 치료법	한림의대	김석우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한양의대	박예수
척추 종양	성균관의대	이종서
척추의 감염	서울성심병원	안동기

제13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2년 10월 27일 서울 아산병원

척추 환자의 진찰	가톨릭의대	김영훈
경추 신경근증	한림의대	박문수
경추 척수증	울산의대	이동호
상부경추 병변	경희의대	이상훈
퇴행성 척추질환의 병태생리	충남의대	양준영
요추 추간판 질환	서울의대	이재협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전남의대	서형연
척추전방전위증	일산병원	박 용
척수 손상	한림의대	김용찬
경추부 손상	전북의대	이광복
흉요추부 손상	한림의대	김영우
특발성 척추측만증	고려의대	서승우
비특발성 측만증	연세의대	김학선
성인 척추변형	경희의대	이정희
주사 요법과 초음파	원광의대	김태균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연세의대	문성환
척추 종양	성균관의대	이종서
척추의 감염	충북의대	김용민

제14차 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3년 10월 26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척추 환자의 이학적 검사법	서울의료원	민학진
경추 신경근증	중앙의대	송광섭
경추 척수증	분당제생병원	이영상
상부경추 병변	울산의대	이동호
요추 추간판 질환	한림의대	신재혁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단국의대	민상혁
척추전방전위증	강북삼성병원	신헌규
척수 손상	경북의대	민우기
경추부 손상	명지병원	유정현

흉요추부 손상	인제의대	안기찬
특발성 척추측만증	울산의대	황창주
비특발성 측만증	인제의대	김성수
성인 척추변형	을지의대	김환정
Injection Therapy	강원의대	남우동
골다공증성 척추질환	충북의대	김동수
척추 종양	서울의대	장봉순
척추의 감염	한양의대	강창남
척추의 감염	충북의대	김용민

2014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척추 환자의 이학적 검사법	순천향대	이재철
경추 신경근증	을지대	강종원
경추 척수증	인제대	최병완
상부경추 병변	서울대	염진섭
요추 추간판 질환	서울대	김호중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한림대	박문수
척추전방전위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 홍
척수 손상	경희대	이상훈
경추부 손상	연세대	석경수
흉요추부 손상	경찰병원	안영춘
특발성 척추측만증	고려대	서승우
비특발성 측만증	연세대	김학선
성인 척추변형	인하대	조규정
척추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고려대	홍재영
골다공증성 척추질환	대구가톨릭대	고삼봉
척추 종양	가톨릭대	김영훈
척추의 감염	서울성심병원	안동기

2014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4년 1월 26일 일요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Epidural block	강원의대	남우동
Root block I	전주 마디병원	이상훈
Neurolysis (Neuroplasty)	고신의대	김재도
Nucleoplasty	고려의대 재활의학과	이상헌
ESWT를 이용한 척추주변의 통증치료	선정형외과	곽봉준
Prolotherapy	서울성심병원	문상호
Root block II	원광의대	김태균
Medial branch block, Facet block	길통증의원	길호영
Radiation hazard	고대의대	홍재영
초음파를 이용한 척추 시술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Disc herniation	한림의대	박문수
Spinal stenosis	충남의대	양준영
Foraminal stenosis	선정형외과	선승덕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한양의대	박예수
Vertebroplasty	시너지 병원	김원중
Kyphoplasty	나은병원	남기세
Cement augmentation의 문제점	인제의대	김진혁

2015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

척추 환자의 이학적 검사법	고려대	박시영
경추 신경근증	가톨릭대	김영율
경추 척수증	건양대	김상범
상부경추 병변	연세대	석경수
요추 추간판 질환	울산대	차재룡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차의대	신동은
척추전방전위증	동국대	구기형
척수 손상	보훈병원	김영배
상부경추 손상	경북대	민우기
하부경추 손상	순천향대	이재철

흉요추부 손상	가천대	전득수
특발성 척추측만증	인제대	김성수
비특발성 측만증	고려대	서승우
성인 척추변형	가톨릭대	오인수
척추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골다공증-진단 및 내과적 치료	전남대	서형연
골다공증성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	연세대	문성환
척추 종양	가톨릭대	김영훈
척추의 감염	울산대	김정환

2015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5년 2월 1일 일요일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강당

Natural history of the major spinal conditions	중앙대	송광섭
Imaging diagnosis in the spine clinic	경희대 영상의학과	진 욱
Choice of medicine for spinal conditions	인하대 류마티스내과	권성렬
Phys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 spine clinic	경희대 재활의학과	김동환
Epidural steroid, mechanism of tretment and practical choice	인제대	박대현
Methods of epidural steroid injection and SNRB	고신대	김창수
Facet block & MBB	한마음정형외과	고광표
Injection treatment of fibromyalgia in spine	뉴본정형외과	임창무
K-point injection' for spinal conditions	가톨릭대	하기용
Radiation hazard of the interventional treatment	고려대	홍재영
US guided injection technique	원광대	김태균
Balloon assisted neuroplasty	서울성심병원	문상호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인제대	최병완
New concept of anterior lumbar fusion: DLIF, OLIF	단국대	민상혁
Pathophysiology and diagnosis	한양대	박예수
Medical treatment	연세대	문성환
Surgical issues in osteoporosis patients	한림대	김영우
Vertebroplasty and kyphoplasty; techniques and recent issues	순천향대	신병준

2016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

이학적 검사법	경희대	강경중
경추 신경근증	한림대	박문수
경추 척수증	가톨릭대	박종범
상부경추 병변	서울대	염진섭
요추 추간판 간판	한림대	신재혁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순천향대	홍창화
척추전방전위증	조선대	손홍문
척수 손상	가톨릭대	나기호
상부경추 손상	울산대	이동호
하부경추 손상	일산병원	박 용
흉요추부 손상	제주대	서준영
특발성 척추측만증	부산대	이정섭
비특발성 측만증	고려대	서승우
성인 척추변형	순천향대	김응하
척추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서울성심병원	문상호
골다공증 - 진단 및 내과적 치료	인천의료원	김민석
골다공증성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	한림대	김영우
척추 종양	서울대	장봉순
척추의 감염	성균관대	신현규

2016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6년 1월 24일 일요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감별 진단	서울성심병원	안동기
경부통 및 신경근/척수병증의 감별진단	건양대	김상범
근골격계 약물치료, NSAID를 제외하고 무엇이 유용한가?	성균관대	신현규
경추 및 목 주변부	원광대	김태균
흉추 및 등 주변부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요추 및 허리 주위 통증	선정형외과	선승덕
골반 및 고관절 주위 통증	한마음정형외과	고광표
소아 및 청소년기 급, 만성 요통	가톨릭대	하기용

Whiplash injury	한림대	박문수
척추질환의 운동요법	서울대 재활의학과	정선근
급성요추염좌의 도수치료	가톨릭대 정형외과	최문구
서론: 정형외과 개원의가 보는 척추측만증 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순천향대	김응하
반대: 척추측만증의 비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하다	고려대	서승우
찬성: 척추측만증의 보존적 치료는 유용하다	연세대	김학선
척추진료 분야의 인정비급여 진료의 현황 및 대책	날개병원	이태연

2017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

이학적 검사법	경희대	강경중
경추 신경근증	중앙대	송광섭
경추 척수증	동국대	양재준
상부경추 병변	서울대	염진섭
요추 추간판 질환	인제대	김정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가톨릭대	박수안
척추전방전위증	아주대	정남수
척수 손상	제주대	서준영
상부경추 손상	연세대	석경수
하부경추 손상	명지병원	유정현
흉요추부 손상	순천향대	소재완
특발성 척추측만증	울산대	황창주
비특발성 측만증	연세대	김학선
성인 척추변형	경희대	이정희
척추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원광대	김태균
골다공증-진단 및 내과적 치료	인제대	김진환
골다공증성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	경희대	김용찬
척추 종양	성균관대	이중서
척추의 감염	건양대	김상범

2017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Cervical epidural block시 risk를 줄이는 technique	선정형외과의원	선승덕
Moderate, severe stenosis 에서 lumba epidural block의 효용성 차이	원광대	김태균
Endoscopic discectomy outside-in technique의 우월성	대전세병원	권육상
SELD (trans-Sacral epidural laser dedcompression)의 소개	고신대	김창수
Posterior cervical mini open foraminoplasty	경희대	강경중
Anterior cervical endoscopy discectomy with laser and burring	전주고려병원	박근호
Biportal arthroscopic technique for spinal stenosis	고려대	박시영
Biportal arthroscopic technique for forminal stenosis with osteotome	진주바른병원	최대정
척추질환과 혼동하기 쉬운 질환의 감별진단	일산병원	박 용
수술부위 결정에 있어서 selective nerve block의 효과	서울대	염진섭
새로운 진단방법 Diffusion tensor imaging MRI	한림대	김석우
Selective decompression on multiple stenosis	성균관대	신현규
Cervical foraminal stenosis의 해결:		
Luschka joint decompression 방법(osteotomy or burr)	연세대	석경수
Sagittal balance의 측정 및 중요성	제주대	서준영
Proximal junctional problem의 해결법	한림대	김영우
OLIF의 응용	건양대	김상범

2018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강남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이학적 검사법	건양대	김상범
경추 신경근증	충남대	이호진
경추 척수증	동국대	양재준
상부경추 병변	한림대	박문수
요추 추간판 질환	한림대	김태환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성균관대	신현규
척추전방전위증	인제대	김진환
척수 손상	조선대	손홍문
상부경추 손상	한림대	김석우
하부경추 손상	전남대	서형연

흉요추부 손상	울산대	김전환
특발성 척추측만증	인제대	임동주
비특발성 측만증	고려대	서승우
성인 척추변형	가톨릭대	오인수
척추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원광대	김태균
골다공증-진단 및 내과적 치료	고려대	박시영
골다공증성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	가천대	전득수
척추 종양	성균관대	박세준
척추의 감염	명지병원	유정현

2018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8년 1월14일 일요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Lumbar ultrasound block	청라국제병원	김영태
Lumbar C-arm guide block	고신대	김창수
단분절 고정술에서 Sagittal balance의 중요성	해운대백병원	김성수
Lumbar DLIF/OLIF/ALIF	성균관대	박세준
Cervical ultrasound를 이용한 root block	원광대	김태균
Cervical ultrasound를 이용한 GON(Greater Occipital nerve) and TON(Third Occipital nerve) block	인제대	박대현
Cervical foraminal epidural block	고려대	홍재영
Cervical interlaminar epidural block	군센정형외과의원	정기웅
Foraminoplasty PELD (Out-in technique)	부민병원	우영하
Biportal arthroscopic technique for central stenosis	고려대	박시영
Biportal arthroscopic technique for foraminal stenosis	진주바른병원	최대정
Biportal arthroscopic technique for interbody fusion	안동병원	김주은
Biomechanics for the lumbar spine (strain of Quadratus Lumborum)	본병원	김필수
Prolo를 이용한 척추치료	참정형외과	백승일
충격파를 이용한 척추치료	군산의료원	이한솔
도수치료를 이용한 척추치료(시연)	파주교하제일의원	정종필

2019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9년 10월26일 토요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

이학적 검사법	은평성모병원	이준석
경추 신경근증	경희대병원	강경중
경추 척수증	해운대백병원	최병완
상부경추 병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염진섭
요추 추간판 질환	부산백병원	박대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서은민
척추전방전위증	충남대병원	김상범
척수 손상	강동경희대병원	김용찬
상부경추 손상	경북대학교병원	민우기
하부경추 손상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양재준
흉요추부 손상	가천의대 길병원	전득수
특발성 척추측만증	해운대백병원	김성수
비특발성 측만증	강남세브란스병원	김학선
성인 척추변형	아주대학교병원	정남수
척추의 감염	한양대학교병원	강창남
최소침습 척추수술	고대안암병원	박시영
골다공증-진단 및 비수술적 치료	인천성모병원	오인수
골다공증성 척추 병변의 수술적치료	일산백병원	김진환
척추 종양	원자력병원	공창배

2019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19년 1월 20일 일요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

Lumbar block	계명대	이석중
Cervical block	한마음병원	고광표
SI joint, piriformis 및 기타 부위 block	고신대	김창수
초음파를 이용한 facet block 및 MBB	SKJ병원	김대희
도수치료	연세신경과의원	한범기
Prolo를 이용한 척추치료	분당차병원	안태근
운동치료	올바른서울병원	최진만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척추치료	군산의료원	이한솔

PELD	대전센텀병원	권육상
Uniportal endoscopic decompression	전주고려병원	박근호
Biportal arthroscopic decompression for contra-lateral stenosis	힘내라병원	최대정
Biportal arthroscopic decompression using transforaminal approach	충남대	이호진
Microscopic decompression	예손병원	구기형
MIS-TLIF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박 용
OLIF/DILF	건양대	김상범
Biportal arthroscopic lumbar interbody fusion	힘내라병원	김주은

2020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온라인(<http://webinarplat.xyz/>)

경추 신경근증	해운대백병원	최병완
경추 척수증	한림대학교병원	박문수
상부경추 병변	경희대학교병원	강경중
척수 손상	대전성모병원	김영울
상부경추 손상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양재준
하부경추 손상	성빈센트병원	신재혁
요추 추간판 질환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연세대학교병원	이병호
인접 분절 조기 퇴행성 변화	분당서울대병원	김호중
흉요추부 손상	순천향천안병원	소재완
전기신경학적 진단	계명대학교병원	이석중
특발성 척추측만증	상계백병원	장동균
비특발성 측만증	강남세브란스병원	김학선
성인 척추변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양재혁
최소침습 척추수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홍재영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외과적 치료 포함)	경희대학교병원	김용찬
척추 종양	삼성서울병원	박세준
척추의 감염	서울성심병원	안동기

2020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20년 1월 19일 일요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

경추성 두통의 진단 및 치료	경희대	강경중
경추 주변 통증의 감별진단	동국대	양재준
요추 주변 통증의 감별진단	고려대	홍재영
말초 혈관 질환과의 감별 및 치료	서울대	박형섭
Percutaneous balloon neuroplasty	순천향대	홍창화
Annuloplasty and Nucleoplasty	영남대	이근우
FIMS	광명성애병원	이승환
SELD	차의대	안태근
Cervical root and facet block	한마음 정형외과	고광표
Thoracic block	인제대	박대현
Lumbar block	리튼 정형외과	김영태
Si joint, piriformis and other site block	고신대	김창수
Update of anti-depressant and anti-convulsant	중앙대	송광섭
Update of osteoporosis medication	고려대	박시영
Update of using steroid-When, Why, and How?	계명대	이석중
추간판 탈출증	인제대	김성수
척추골절	가천대	전득수

2021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온라인(http://www.spine.or.kr/abstract/2021_lecture/)

경추 신경근증	중앙대학교병원	송광섭
경추 척수증	서울아산병원	이동호
상부경추 병변	분당서울대병원	염진섭
척수 손상	조선대학교병원	손홍문
상부경추 손상	경북대학교병원	민우기
하부경추 손상	전남대학교병원	서형연
요추 추간판 질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재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해운대백병원	김성수
척추전방전위증	일산백병원	김진환
인접분절 조기 퇴행성 변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 용

흉요추부 손상	순천향대학교병원	이재철
전기신경학적 진단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이석중
특발성 척추측만증	신촌세브란스병원	박건보
비특발성 측만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승우
성인 척추변형	서울아산병원	황창주
최소침습 척추수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시영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외과적 치료 포함)	경희의료원	강경중
척추 종양	서울성모병원	김영훈
척추의 감염	아주대병원	정남수
척추질환의 주사요법	한마음정형외과	고광표

2021년 제8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온라인

도수치료의 원리	의정부성모병원	주상연
요통환자의 도수치료	혜민의원	김경진
허리 수술 환자의 운동치료	강남성모정형외과의원	정대영
도수치료의 적절한 보형청구 방법	예산명지병원	유승모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중앙대	송광섭
우울증이 동반된 허리통증 환자의 약물치료	동국대	양재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약물치료	성균관대	박진성
지속적인 약물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경상대	이석중
US-guided interventions	원광대	김태균
C-arm guided interventions	고려대	홍재영
Percutaneous balloon neuroplasty	서울대	남상건
Annuloplasty and Nucleoplasty	영남대	이근우
척추 내시경 수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Uniportal vs Biportal)	고려대	박시영
Uniportal endoscopic surgery	바른생각병원	전택수
Biportal endoscopic surgery	충남대	이호진
Biportal endoscopic interbody fusion	한림대	박현진

2022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경추 신경근증	경희의료원	강경중
경추 척수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양재준
상부경추 병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병호
척수 손상	단국대학교병원	이제민
상부경추 손상	해운대백병원	최병완
하부경추 손상	전남대학교병원	김성규
요추 추간판 질환	서울성심병원	안동기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홍창화
척추전방전위증	강동경희대병원	김용찬
인접분절 조기 퇴행성 변화	서울아산병원	조재환
흉요추부 손상	아주대학교병원	정남수
전기신경학적 진단	창원경상대병원	이석중
특발성 척추측만증	상계백병원	장동균
비특발성 측만증	신촌세브란스병원	김학선
성인 척추변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호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고대안산병원	홍재영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외과적 치료 포함)	상계백병원	임동주
척추 종양	원자력병원	공창배
척추의 감염	충남대학교병원	이호진
척추질환의 주사요법	삼육서울병원	소재완

2022년 제9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온라인(http://spine.or.kr/abstract/2022_win_lec/info.html)

골절의 위험도 평가	연세의대	이병호
골다공증 약제 - SERM, Bisphosphonate	가천의대	백종민
골다공증 약제 - Denosumab, Teriparatide and romosozumab	경희의대	강경중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치료방법	경희의대	김용찬
개원의가 알아야 할 건강보험 다빈도 착오 청구 사례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미정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산재보험 제도	산재공단	이영배
사례로 보는 의료분쟁 실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환모

의료분쟁을 막기위해 해야하는 것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초음파를 이용한 Injection	한마음정형외과	고광표
vs C-arm을 이용한 Injection	고신의대	김창수
프롤로를 이용한 척추치료	분당차병원	안태근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척추치료	군산의료원	이한솔
Biportal endoscopic surgery for central stenosis	서울의대	박상민
Biportal endoscopic surgery for foraminal stenosis	힘내라병원	최대정
Biportal endoscopic interbody fusion	한림의대	박현진
Biportal endoscopic surgery for cervical spine	진주본병원	정석봉

2023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경추 신경근증	동탄성심병원	박문수
경추 척수증	성빈센트병원	신재혁
상부경추 병변	서울대학교병원	김형민
척수 손상	조선대학교병원	손홍문
상부경추 손상	대구가톨릭대병원	고상봉
하부경추 손상	대전성모병원	김영울
요추 추간판 질환	서울성심병원	안동기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병호
척추전방전위증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상범
인접분절 조기 퇴행성 변화	동탄성심병원	김영우
흉요추부 손상	삼육서울병원	소재완
전기신경학적 진단	부천성모병원	안중현
특발성 척추측만증	해운대백병원	김성수
비특발성 측만증	부산대학교병원	이정섭
성인 척추변형	아주대학교병원	정남수
최소침습 척추수술	충남대학교병원	이호진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외과적 치료 포함)	은평성모병원	이준석
척추 종양	삼성서울병원	박세준
척추의 감염	춘천성심병원	서은민
척추질환의 주사요법	원광대산본병원	오성균
Introduction of the case	강남세브란스병원	석경수

Conservative treatment	해운대백병원	최병완
Surgical treatment	경희대학교병원	강경중

2023년 제10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수술 전 보존적 치료	가천대 길병원	백종민
ERAS	순천향의대	장해동
수술 전 후 골다공증 치료	연세의대	이병호
수술 후 통증 관리	중앙의대	송광섭
척추수술 후 증후군	서울의대	최은주
신경성형술 및 신경 차단술 후 합병증	분당차병원	안태근
VP and KP 후 합병증	충남의대	김상범
척추수술 후 감염	경상의대	이석중
Uniportal endoscopy	힘내라병원	김문찬
Biportal endoscopy	서울의대	박상민
OLIF / DLIF	고려의대	홍재영
MIS-TLIF	참조은병원	구기형
경추 및 목 주변부	한마음정형외과	고광표
흉추 및 등 주변부	인제의대	박대현
요추 및 허리 주위 통증	원광의대	남대진
SI joint, piriformis 및 기타부위	고신의대	김창수

제5장 제4절

학술상 및 학회 후원 펠로우십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두 가지 주요 학술상인 우수논문상과 향산학술상을 통해 회원들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우수논문상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특히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1997년 초창기에는 봄과 가을에 두 차례씩 시상되었고 2001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시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연구 주제가 학회 회원들에 의해 발표되어 2003년부터는 기초 부문과 임상 부분으로 나뉘 다시 2차례씩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학회는 하재구학술상을 추가하여 매년 2-3편의 논문을 시상하고 있으며 연구의 깊이와 내실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첫 우수논문상 수상자로는 1997년 가을에 서울대학교 장봉순 회원이 발표한 ‘흉추 및 요추의 운동 측정기기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정상인에서의 흉추 및 요추의 특성 분석’이었다.

2007년부터 출간된 영문학회지 *Asian Spine Journal*도 기초와 임상 각 1편의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초대 수상은 기초에서 박종범 회원의 ‘Serum Levels of TGF- β 1, TIMP-1 and TIMP-2 in Patients with Lumbar Spinal Stenosis and Disc Herniation’, 임상에서 이춘기 회원의 ‘Prevalence and Morphologic Features of Ponticulus Posticus in Koreans: Analysis of 312 Radiographs and 225 Three-dimensional CT Scans’이었다. 이를 계기로 척추외과학회 회원의 연구 의욕이 높아져 대한척추외과학회지와 *Asian Spine Journal* 게재 논문은 임상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그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에 2018년부터는 *Asian Spine Journal*의 인용상과

피인용상으로 구분하여 발전 기여상을 추가하여 학회 연구 논문 발표를 장려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2020년부터는 인용상과 피인용상 외에도 기여상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의 우수 편집위원 및 우수 보험위원회 위원을 각각 2명씩 총 6명의 우수 위원을 더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현재 우리 학회지는 우수한 학회지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양 학술지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역시 국제적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향산학술상은 1997년 서울대학교를 정년 퇴임한 석세일 회원이 개설한 척추센터를 통해 후학의 발전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향산학술상은 매년 두 차례씩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 시상을 하였다. 학술대회 기간 중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회원들의 평가를 통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된 연구를 대상으로 향산학술상을 시상하였다. 이 학술상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0년 제27회 춘계학술대회부터는 1년에 한 차례만 시상을 하고 있다. 첫 수상은 울산의 대 이춘성 회원이 발표한 'Clinical Study of Lumbar Degenerative Kyphosis'이었다.

하재구학술상은 정형외과내 척추외과학 연구에 깊은 열정 및 관심이 있었던 초대 정형외과 회원이신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하기용 회원의 기부로 2013년 제정되었다. 하재구학술상은 매년 대한척추외과학회지에 투고된 원저 논문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에 수여되며, 임상 및 기초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4년 31차 춘계학술대회 이후 매년 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제1회 하재구학술상은 박희전 회원이 게재한 “한국인에서 경추 척추경 나사못 고정시 이상적인 삽입점 및 삽입각도” 논문에 수여되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은 우수논문상, 향산학술상 및 하재구학술상 등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연구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었으며, 대한척추외과학회가 발간하는 국내(대한척추외과학회지) 및 국제학회지(*Asian Spine Journal*)는 국내는 물론 국제 선도 학회지로 도약할 수 있었다.

학회는 또한 국외 연수생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국제적인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1999년 Stryker와 Sofamor Danek Korea의 후원으로 3년 이상 척추분야에 근무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수련 병원에 근무하는 40세 이하의 척추외과학회 회원 4명을 선정하여 해외연수생을 선발해 왔다. 1인당 4,000불의 장학금과 함께 해외 우수 기관에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선진 지견과 술기를 습득하게 하여 척추외과 임상 및 기초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후 2001년까지 매년 4명을 선발했으나 후원사의 사정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2명을 선발하였고, 2004년부터 국내 기업 Solco와 미국의 Medtronic의 후원으로 다시 4명을 선발하고 있다. 후

원사의 변화로 인해 2007년부터 Medtronic에서 3명을 선발하였고, 2013년에는 Medtronic 3명, KASS 1명, Young Investigator 5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4명, 2018년과 2019년에는 3명을 끝으로 Medtronic 후원은 중단되었으나, 학회 차원에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매년 3명씩 계속되고 있다. 젊은 척추외과학회 회원의 파견은 선진 기관에서의 연구 경험을 쌓고 국내 척추외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척추외과학회는 학회지를 통한 논문 발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상과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학회로 성장하고 있다.

우수논문상 수상자 및 논문 제목

1997	흉추 및 요추의 운동 측정기기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정상인에서의 흉추 및 요추의 운동 특성 분석	이춘기, 김영은, 염진섭, 장봉순	서울의대
1998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과 당뇨병 - 수술적 치료의 결과 -	박승림, 김형수, 강준순, 이우형, 이주형, 박승준	인하의대
	Denis B 형 방출성 골절의 단 이식골을 사용한 전방 유합술시 단 분절 척추경 나사고정못과 장 분절 척추경 나사못 고정	김석우, 정영기	한림의대
1999	후방 관절 연골의 Estrogen 수용체의 발현이 퇴행성 변화와 전이에 미치는 영향(기초)	하기용, 장정호	가톨릭의대
	하요추부 결핵에서 압박 후궁 갈고리를 이용한 후방 기기술 및 전방추체 유합술(임상)	김동준, 왕진만	이화의대
	추간판 조직에서 연령 및 퇴행성 변화와 신생혈관과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발현에 대한 연구(기초)	전창훈, 김한겸, 강신영	아주의대
	화농성 척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의 비교(임상)	이규열, 손성근, 황경식	동아의대
2000	인간 추간판의 섬유륜부 및 수핵부 세포 배양에서 세포의 형질에 따른 phospholipase A2의 형성 (기초)	김동준, 왕진만	이화의대
2001	요추부 유합 후 인접 분절에 속발한 퇴행성 병변의 치료(임상)	김홍태, 장병두, 현경훈, 남준모	파티마병원
2002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IGF-1, TGF- β 1 유전자 전달에 대한 인간 추간판 세포의 기질 생성(기초)	이환모, 박문수, 김 향, 김학선, 강응식, 김남현, 문성환	연세의대
2003	척추 황색인대 세포에서 BMP-2 c-DNA 전달에 의한 골형성 유도: 조직 공학적 접근의 가능성(기초)	문성환, 김 향, 권연혜, 원정훈, 김학선, 한수봉, 이환모	연세의대
2004	협부형과 퇴행성형 요추 전방 전위증에서 유합 방법에 따른 치료 결과의 비교(임상)	이규열, 손성근, 김성완, 이성원	동아의대
	추체 회전술[DVR]: 청소년기형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분절 척추경 나사 고정술을 이용한 3차원 변형 교정의 새로운 술식(임상)	이상민, 석세일, 정의룡	인제의대

2005	척추 손상 시 TNFR I, TNFR II 및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 발현 양상과 기능에 관한 연구(기초)	양준영, 이준규, 김경태, 이현호 변병남, 안성환	충남의대
	제2경추 외측과 나사와 제2경추 협부-축추경 나사의 적정 궤도(임상)	박성규, 안영희, 박건우, 송광섭 김형민, 김철영, 장봉순, 이춘기	서울의대
2006	가토 요추 후외방 유합술을 이용한 $\text{CaO-SiO}_2\text{-P}_2\text{O}_5\text{-B}_2\text{O}_3$ 계 결정화 유리 다공체의 골유합 연구(기초)	이재협, 박건우, 송광섭, 류현승 서준혁, 김 환, 홍국선, 장봉순 이 춘기	서울의대
2007	추간판 내장증에서 추간판 내로의 신경침습(기초)	신재혁, 서준영, 하기용	가톨릭의대
	퇴행성 요추질환으로 척추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10년 이상 추시결과 (임상)	신병준, 이재철, 남준서, 김용범 윤수진, 조영일, 김연일	순천향의대
2008	실험실내 추간판 연골 세포의 운동성 측정 실험에서 척색 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연골 종판 연골 세포의 화학구성(기초)	김기원, 이준석, 하기용, 유기원 남석우, 우영균	가톨릭의대
	Serum Levels of TGF- β 1, TIMP-1 and TIMP-2 in Patients with Lumbar Spinal Stenosis and Disc Herniation(기초)	Hyung-Jun Kim, Jong-Beom Park, Ho-Yeon Won, and Han Chang	가톨릭의대
	척추전방전위증에서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고정술후 추간공의 용적 변화(임상)	전창훈, 정운섭, 민한터, 박정욱	아주의대
2009	Prevalence and Morphologic Features of Ponticulus Posticus in Koreans: Analysis of 312 Radiographs and 225 Three-dimensional CT Scans(임상)	Kyeong Hwan Kim, Kun Woo Park, Tran Hoang Manh, Jin Sup Yeum, Bong-Soon Chang, and Choon-Ki Lee	서울의대
	흉강경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수술에서 굽은 강봉 - 다중축 나사못과 가느 강봉-단 중축 나사못 비교(임상)	김학선, 김주영, 박진오	연세의대
	Senescence of Nucleus Pulposus Chondrocytes in Human Intervertebral Discs(기초)	Ki-Won Kim, Kee-Yong Ha, Jun-Seok Lee, Ki-Ho-Na, Young-Kyun Woo	가톨릭의대
2010	The Effects of Intersegmental Compression on the 3-D Correction of Idiopathic Scoliosis Using Thoracoscopic Surgery(임상)	Sung Kyun Oh, Sung Soo Chung, Chong Suh Lee	성균관의대
	성인에서 방사선학적 외상 소견이 없는 외상성 경수 손상의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진단 및 예후(임상)	박희전, 이필은, 김완기, 심영준	원주의대
	The Effectiveness of Bone Mineral Density as Supplementary Tool for Evaluation of the Osteogenic Potential in Patients with Spinal Fusion(기초)	Byung-Hak Kim, Heun-Guyn Jung, Kyung-Ho Park, Dae- Hee Kim, Yong-Soo Choi	광주기독병원
	Correlation of Pelvic Parameters with Isthmic Spondylolisthesis(임상)	Sung-Kyun Oh, Sung-Soo Chung, Chong-Suh Lee	성균관의대

2011	아텔로콜라겐 지지체, 유전자 치료, 배양된 수핵 세포를 이용한 수핵세포를 이용한 조직 공학적 추간판의 재생(기초)	김학선, 이광일, 김 향, 권언혜, 남미란, 장웅주, 조인제, 김보람, 이환모, 문성환	연세의대
	경추의 신연 - 굴곡 손상에서 DBM을 충전한 케이지를 이용한 전방 추체간 유합술의 유용성(임상)	박희전, 김완기, 심영준, 강동현	원주의대
	Antibiotic Microbial Prophylaxis for Spinal Surgery: Comparison between 48 and 72- Hour AMP Protocols(임상)	Boram Kim, Seong-Hwan Moon, Eun-Su Moon, Hak-Sun Kim, Jin-Oh Park, In-Je Cho, Hwan-Mo Lee	연세의대
2012	쥐와 개의 척수 손상 모델에서 신경영양인자의 변화 및 의미(기초)	송인수, 양준영, 이준규, 주용범, 차수민	충남의대
	고위험 척추수술에서 운동유발 전위 검사의 이용과 이를 통한 수술중 신경학적 이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임상)	김진혁, 임동주, 김성수, 석세일, 김민규	인제의대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 after Single-Level PLIF: Comparison between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nd Spinal Stenosis(임상)	Chang Hun Yu, Jung Eun Lee, Jae Jun Yang, Bong-Soon Chang, Choon-Ki Lee	서울의대
	Normal Patterns of Sagittal Alignment of the Spine in Young Adults Radiological Analysis in a Korea Population	이종서	성균관의대
2013	Estrogen Receptor 2 유전자 다형성과 척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관계(기초)	김기택, 이상훈, 박경준, 김덕현, 손은석, 곽윤호*	경희의대 부민병원*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흉요추 및 요추 골절에서 후방 압박술 후 추가적인 전방 압박술이 필요한가?(임상)	고영도, 김종오, 김락규, 김대연, 김남기, 김동준	이화의대
	Long-term Follow-up of Percutaneous Vertebroplasty in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Minimum of 5 Years Follow-up(임상)	Jin Hwan Kim, Si Hoon Yoo, Jung Hoon Kim	인제의대
2014	요추부 후측방 유합술시 국소 자가골 및 β -Tricalcium phosphate 혼합 이식술의 골유합율(기초)	박만준, 고영철, 정철용, 은일수, 김창규, 김민우, 황금민	부산의료원
	요추 퇴행성 질환에서 4도 케이지를 사용한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은 요추 전만각을 얼마나 회복시키는가?(임상)	조규정, 김영태, 박승림, 홍승현	인하의대
	한국인에서 경추 척추경 나사못 고정시 이상적인 삽입점 및 삽입각도(하재구학술상)	박희전, 권기연, 윤원식	연세의대 원주의대
	The Degree of Bacterial Contamination While Performing Spine Surgery(기초)	Dong Ki Ahn, Hoon Seok Park, Tae Woo Kim, Jong Hwa Yang, Kyung Hwan Boo, In Ja Kim, Hye Jin Lee	서울성심병원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ck Pain and Disability Scale(임상)	Jung Sub Lee, Kuen Tak Suh, Jeung Il Kim, Hong Seok Lee, Tae Sik Goh	부산의대

2015	Generation of Proinflammatory Mediator of Intervertebral Disc Cells by Nicotine Stimulation(기초)	서형연, 윤주현, 김도연	전남의대
	Clinical Results and Prognostic Factors for Thoracic Myelopathy Caused by Ossification of Yellow Ligament after Surgical Treatment(임상)	김환정, 송대건, 박건영, 구제윤, 권원조, 박경훈, 최원식	을지의대
	Digital Pulse Oximetry for the Screening of Lower Extremity Arterial Disease(하재구학술상)	심대무, 오성균, 권정남	원광의대
	Acute Intravenous Injection Toxicity Study of Escherichia coli-Derived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in Rat	이재협, 이의남*, 장봉순, 이춘기	서울의대 대웅제약*
	Quality of Life Comparison between Vertebroplasty and Kyphoplasty in Patients with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임상)	이수건*, 이승환*, 윤상필*, 이영태*, 장근*, 임상윤*, 이환모, 문성환, 송경섭	광명성애병원* 연세의대
2016	Variations in Matrix Metalloproteinase Expression by Disc Location in Patients with Sequestered Lumbar Disc Herniation(기초)	김영울, 박도준, 유기원	가톨릭의대
	The Relationship of Minor Trauma with the Surgical Outcome in Patients with Cervical Myelopathy(임상)	김민우, 이규열, 김동률, 정영훈, 임철순	동아의대
	Restoration of Segmental Lordosis and Related Factors in Interbody Fusion for Degenerative Lumbar Disease(하재구학술상)	김응하, 서정무, 안중현	순천향의대
	Rat Notochordal Cells Undergo Premature Stress-Induced Senescence by High Glucose(기초)	박종범	가톨릭의대
	A Prospective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Bone Union Rate Following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Using a Polyetheretherketone Cage: Hydroxyapatite/B-Tricalcium Phosphate Mixture versus Hydroxyapatite/Demineralized Bone Matrix Mixture(임상)	이제민, 이건우*	강원의대 국군양주병원*
2017	Effect of Smoking on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in Postmenopausal Women(임상)	윤상필, 이승환, 박병문, 송경섭, 장근, 이범석, 이환모, 문성환	연세의대
	The Association of Low-energy Spine Fractures and Vitamin D Inadequacy: A Case-control Study(하재구학술상)	이재원, 서완식, 강병직, 김준국, 박예수	한양의대
	Effect of RNA Interference-Mediated Suppression of p75 on the Viability of Rat Notochordal Cells(기초)	박종범	가톨릭의대
	New Radiographic Index for Occipito-Cervical Instability(임상)	박문수	한림의대
2018	Natural History of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with Conservative Treatment(임상)	김환정, 장선호, 이규상, 김용호, 박건영, 박경훈, 최원식	을지의대
	Dual Growing Rod Treatment for Progressive Pediatric Spinal Deformity(하재구학술상)	최승진, 김학선, 석경수, 홍승표, 전혁, 이환모, 문성환, 양재호, 하중원	연세의대

2018	Small Interfering RNA-mediated Suppression of Fas Modulate Apoptosis and Proliferation in Rat Intervertebral Disc Cells(기초)	박종범, 박찬주	가톨릭의대
	Prevalence of Neuropathic Pain and Patient-Reported Outcomes in Korean Adul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Resulting from Neuropathic Low Back Pain(임상)	김진환 외 29명	인제의대
	<i>Asian Spine Journal</i> 발전기여상(인용상)	이근우 이동호	영남의대 울산의대
	Treatment of Thoracolumbar fracture(<i>Asian Spine Journal</i> 피인용상)	신동은	분당 차병원
	Lumbar stenosis: A recent update by review of literature(<i>Asian Spine Journal</i> 피인용상)	박문수	한림의대
2019	The Spinal Instability Neoplastic Score (SINS) as a Surgical Decision-Making Tool for the Treatment of Spine Metastasis(임상)	박상민, 김형민, 하재홍, 이석중, 김호중, 염진섭, 이춘기, 장봉순	서울의대
	The Effect of Cervical Lordosis on Cervical Disc Degeneration in Patients with a High T1 Slope(하재구학술상)	홍성화 이승환, 박병문, 송경섭, 임성태	광명성애병원
	Feasibility of Serum Pentosidine Level as a Potential Risk Factor for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기초)	최동혁, 이상민, 임성안, 최용수	광주기독병원
	Effects of Psychiatric Factors on Patient-Reported Outcomes after Surgical Correction of Lumbar Degenerative Kyphosis(임상)	고태식, 신종기, 연명수, 이정섭	부산의대
	Learning Curve Associated with Complications in Biportal Endoscopic Spinal Surgery: Challenges and Strategies (<i>Asian Spine Journal</i> 발전기여상-인용상)	염진섭	서울의대
2020	<i>Asian Spine Journal</i> 발전기여상-피인용상	최대정	힘내라병원
	Microelectric Treatment by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in a Rat Model of Acute Spinal Cord Injury(기초)	손홍문, 임원봉, 김영욱, 고영중, 박민언, 김보라	조선의대
	Clinical Significance of Resection Type and Margin following Surgical Treatment for Primary Sarcoma of the Spine: A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임상)	장삼열, 김형민, 박세준, 장봉순, 이종서, 이춘기	서울의대
	Surgical Extent of Metastatic Spine Tumor Excision and Its Effects on Postoperative Ambulatory Function: Comparison of Extensive Wide versus Palliative Excision Surgery(임상-하재구학술상)	김상일, 하기용, 오인수, 박형열, 김기호, 전용기, 김영훈	가톨릭의대
	Epidural Fat-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First Report of Epidural Fat-Derived Mesenchymal Stem Cell(기초)	이근우, 서민수, 강경구, 오세경	영남의대
	Investigation of Comorbidity, Trauma History, and Osteoporotic Fractures in the Postmenopausal Population: A Nationwide, Observational, and Cross-Sectional Study of Korean Orthopedic Outpatient Clinics(임상)	조민준, 문성환, 이지호, 이재협	서울의대

2020	<i>Asian Spine Journal</i> 논문 3편 기여상 수상	김환정	을지대
	Risk Factors for Posterior Cage Migration after Lumbar Interbody Fusion Surgery <i>Asian Spine J</i> (<i>Asian Spine Journal</i> 피인용상)	이동영, 박영진, 송상연, 정순택, 김동희	경상대
	<i>Asian Spine Journal</i> 인용상(인용횟수: 17회)	염진섭	서울대
2021	Medical Care Utilization Behavior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Spine Disease: A Questionnaire-based Study of Orthopaedic Spine Center Outpatients at a Tertiary Educational Hospital(기초)	박상민(1저자), 염진섭(통신저자)	서울대
	Associations of COL2A1 Gene Polymorphisms and Ankylosing Spondylitis in the Korean Population(하재구학술상)	손은석(1저자), 엄상현(통신저자)	계명대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Extracellular Vesicle from Mesenchymal Stem Cells of the Epidural Fat of the Spine(기초)	성수은(1저자), 이근우(통신저자)	영남대
	Analysis of Fractur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in Sacral Insufficiency Fracture: Do Sacral Fractures Occur in Patients Who Had Previous Lumbosacral Fusion Insufficiency Fractures or Stress Fractures?(임상)	서준영(1저자), 김상일(통신저자)	가톨릭대
	<i>Asian Spine Journal</i> 인용상	박세준 이병호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2022	Morphological Features & Clinical Results of C2 Vertebral Body Fractures(기초)	손은석, 통신저자: 최형욱	계명대
	Impact of the Severity of Endplate Fracture on the Development of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in Patients Treated with Instrumented Fusion for Unstable Traumatic Thoracic and Lumbar Fractures(하재구학술상)	전창훈, 통신저자: 이한동	아주대
	<i>Asian Spine Journal</i> - Surgical Causes of Significant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Signal Changes in Three-Column Spinal Surgery(임상)	위승명(1저자), 김형민(교신저자)	서울대
	<i>Asian Spine Journal</i> 인용상	장동균 양재혁	인제대 고려대
2023	Changes in Regional and Global Sagittal Parameters of the Spine during Growth in the Pediatric Population(기초)	이춘성, 교신저자: 박세한	울산대
	Predictors of Postoperative Loss of Cervical Lordosis after Cervical Laminoplasty for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하재구학술상)	안중현, 김영훈	가톨릭대
	Comparison of Korean Body Image Questionnaires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i>Asian Spine Journal</i> 피인용상)	이정섭	부산대
	<i>Asian Spine Journal</i> 인용상	박상민 박세한	서울대 울산대

향산학술상 수상자 및 논문 제목

1997년 제14차	준계	Clinical Study of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이춘성, 김영태, 이창원	울산의대
	추계	배양된 가토 추간판의 수핵부와 섬유륜부 세포에서 Interleukin-1과 Stromelysin의 생성	김동준, 왕진만	이화의대
1998년 제15차	준계	감압술 및 내고정술로 치료한 척추관협착증환자의 5년 이상 추시결과	신병준, 이재준, 김연일, 나수균	순천향의대
	추계	척추 시상 만곡의 정상 형태	이종서, 정성수, 이상국, 이종윤	성균관의대
1999년 제16차	준계	강직성 척추염에 발생된 후만 변형에 대한 교정 수술의 임상적 평가	김기택, 홍규표, 박병주	경희의대
	추계	요추추간판 탈출증의 수핵내 연골세포에서 Fas 수용체 발현: 면역조직학적 연구	장 한, 박종범	가톨릭의대
2000년 제17차	준계	3차원적으로 배양된 인간의 추간판 세포에서 다중 유전자 치료	문성한, 이환모, 강응식	연세의대
	추계	가상 방사선 사진 및 가상 C-형 영상 증폭기 영상과 3차원 실물 조형모델을 이용한 척추나사삽입 시뮬레이션프로그램	염진섭, 최원식, 김환정, 강종원, 김영호, 김남국, 이제범	을지의대
2001년 제18차	준계	골형성 유전자 치료(Adenoviral Vector)를 이용한 ExVivo-GeneTherapy로 척추유합 시도시 면역학적 모델	김학선	연세의대
	추계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추체회전술(Direct Vertebral Rotation)	석세일, 이상민, 정의룡, 김진혁, 조성태, 진건형	인제의대
2002년 제19차	준계	경추부 측과나사못 고정술을 위한 경추부 측과의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측정	석경수, 김기택	경희의대
	추계	척추경 나사 삽입을 위한 로봇암형 항법장치의 개발	염진섭, 김환정, 최원식, 김영호, 이제범, 김형민, 서동현, 이석, 김철영, 김남국	을지의대
2003년 제20차	준계	삼차원 흉추 측만 유한 요소 모델에서 기기 고정 범위에 따른 술 후 변형 분석	하정현, 이재협, 이재학, 최형연, 김영은, 장봉순, 이춘기	서울의대
	추계	고도의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후방 추체간 유합술	정재윤, 서형연, 이재준, 조상권, 김영진	전남의대
2004년 제21차	준계	최소침습적 척추수술 후 조직 손상에 대한 혈청 생화학 지표 및 Cytokine	이상훈, 김기택, 석경수	한림의대 경희의대
	추계	Autocrine 또는 Paracrine Fas-Mediated Counterattack: 쥐 척색 세포의 잠정적인 세포 사멸 기전	김기원, 하기용, 김윤수, 박종범, 나기호, 유종민	가톨릭의대
2005년 제22차	준계	퇴행성 요추 질환으로 척추경 나사못 고정 후 10년 이상 추시 결과	신병준, 정석봉, 남준서, 이재철, 조영일, 윤수진, 김연일	순천향의대
	추계	협부형 전방전위증에서 수술 후 골반 지표 및 시상정렬의 변화	이종서, 정성수, 김연상, 강창석, 오성균	성균관의대

2006년 제23차	준계	퇴행성 요추 측만증에서 단분절 유합술과 장분절 유합술의 비교	조규정, 석세일, 박승림, 김진혁, 김성수, 이정준, 이강윤, 이종민	인하의대 인제의대
	추계	심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요추간판이 기립위 요추의 분절간 운동에 미치는 영향	이상훈, 김기택, 서은민, 정비오, 석경수, 이정희, J. Wang	경희의대
2007년 제24차	준계	NGF와 TrkA 및 p75 수용체에 의한 척색세포의 세포사멸	박종범, 김형중, 박은영	가톨릭의대
	추계	후방 추체간 유합술에서 티타늄 합금 케이지와 추체간에 삽입한 국소 파쇄 골의 유합률 및 연골종판에 대한 케이지 함입률 - 3차원 CT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이재현, 전도환, 정을오, 이석재, 이지호, 장봉순, 이춘기	서울의대
2008년 제25차	준계	후방 다분절 척추 절골술을 이용한 심한 척추측만증 변형의 교정 수술	서승우, Hitesh Modi, 허창룡, 채인정, 박시영, 양재혁	고려의대
	추계	특발성 흉부 척추측만증의 근위 흉부 만곡에 대한 부분 및 최소 후방유합술에 따른 만곡 교정과 어깨 균형	이춘성, 김영태, 이동호, 박수안, 이성우, 배주열	울산의대
2009년 제26차	준계	요추부 유합술 후 발생한 인접 분절 질환의 생존 분석을 이용한 원인인자분석	신병준, 이재철, 황은천, 장해동, 윤수진, 김연일	순천향의대
	추계	제1-2경추간 분절 나사 고정술 중에 시행한 제2경추 신경근 절단의 임상 결과	염진섭, 유승민, 권윤주, 안영희, 박건우, 장봉순, 이춘기	서울의대
2010년 제27차	준계	요추부 퇴행성 전방전위증의 병인과 불안정성에서 척추주위근의 연관성	채수옥, 심대무, 김태균, 김영진, 양정환, 이지완, 김영진	원광의대
2011년 제28차	준계	흉추부 특발성 측만증에 시행한 척추경 나사 기기 고정술 후의 장기추시결과 - 10년 이상 추시	김진혁, 임동주, 김성수, 김태완, 석세일	인제의대
2012년 제29차	준계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서 생존분석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의 경과 및 예후인자 평가	고영도, 김락규, 김동준	이화의대
2013년 제30차	준계	추체 전방이동술: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의 새로운 전방 압박 술기	이동호, 이희상, 노현민, 황창주, 김영태, 이춘성	울산의대
2014년 제31차	준계	백서의 척추손상후 저체온 치료에서의 세포자연사와 자식작용	서준영, 김영훈, 하기용, 김장운	가톨릭의대
2015년 제32차	준계			
2016년 제33차	준계	Osteoinduction, Activin A, rhBMP-2, in vivo, posterolateral fusion	정광빈, 윤병학, 백혜리, 이재협	서울의대
2017년 제34차	준계	정상인과 경추 척수증환자에서 확산텐서 영상을 이용한 척수관내 신경신호의 객관적 정량적 분석: 진단적 가치	김석우, 유우경, Julien Cohen-Adad, 박창근, 송지선, 장호근, 박문수, 김태환	한림대의대
2018년 제35차	준계	Microscope assisted direct decompression during OLI-ForALIF: A preliminary study	손은석, 강철형, 이석중	계명의대

2019년 제36차	춘계	The impact of resident, season, hospital in surgical operation on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a nationwide cohort study	최성우, 이재철, 정광영, 장해동, 강덕권, 이정석, 신병준	순천향의대
2020년 제37차	춘계	Cervical Epidural Pressure Measurement During Biportal Endoscopic Spinal Surgery	박시영, 강태욱, 정호진	고려의대
2021년 제38차	춘계	The Impact of Lordosis Distribution on Acute Proximal Junctional Fracture in Adult Spinal Deformity	임상규, 이정희, 이기영, 박종준	경희의대
2022년 제39차	춘계	“Sit-to-Stand” Functional Mobility Test Can Predict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after Surgery for Adult Spinal Deformity	권오상, 김호중, 함대웅, 이상훈	서울의대
2023년 제40차	춘계	Can Intraoperative C2 Slope Predict Postoperative Standing Sagittal Alignment Following Cervical Deformity-Correction?	김남후, 석경수, 권지원, 서준오, 박섭리, 이병호, 박시영, 박진오, 문성환, 김학선	연세의대

학회 후원 펠로우십 역대 수혜자 명단

연도	KASS	젊은 연구자상	후원사
1999	김기원(가톨릭대)	김동준(이화의대)	Stryker
		안재성(충남의대), 조규정(인하의대)	Sofamor-Danek
2000	김원중(인제의대)	정성수(성균관의대)	Stryker
		장봉순(서울의대), 정순택(경상의대)	Sofamor-Danek
2001	고영도(이화대의대)	나화엽(제생병원)	Stryker
		박종범(가톨릭의대), 염진섭(울지의대)	Sofamor-Danek
2002	문성환(연세의대)	이상민(인제의대)	Stryker
2003	최용수(광주기독병원)	전득수(가천의대)	Stryker
2004		정의룡(인제의대), 김학선(연세의대)	Solco
	석경수(경희의대)	양준영(충남의대)	Medtronic
2005		손홍문(조선의대), 이재철(순천향의대)	Solco
	이상훈(한림의대)	서형연(전남의대)	Medtronic
2006		박문수(울산의대), 김진환(인제의대)	Solco
	강종원(울지의대)	전택수(건양의대)	Medtronic
2007	박시영(고려의대)	이동호(울산의대), 이재현(서울의대)	Medtronic
2008	이광복(제주의대)	황대우(국립의료원), 박건우(서울의대)	Medtronic
		강창남(한양의대), 김영훈(가톨릭의대)	KASS
2009	김성수(인제의대)	송광섭(중앙의대), 홍창화(순천향의대)	Medtronic
2010	문은수(연세의대)	정국진(한림의대), 오성균(원광의대)	Medtronic
2011	김정훈(인제의대)	이명진(동아대의대), 유정현(관동의대)	Medtronic
2012	구기형(동국의대)	김상범(건양의대), 황창주(울산의대)	Medtronic
2013	임동주(인제의대)	김호중(서울의대), 정남수(아주의대), 오인수(가톨릭의대)	Medtronic
		고상봉(가톨릭의대), 김영울(가톨릭의대), 홍재영(고려의대), 강경중(경희의대), 민상혁(단국의대)	
2014	박건영(대전보훈병원)	서준영(제주대학교병원), 최병완(해운대 백병원), 박세준(삼성서울병원)	Medtronic
2015	강성식(부산의대)	민우기(경북의대), 김형민(서울의대), 김성규(전남의대)	Medtronic
2016	강경중(경희의료원)	공창배(원자력병원), 김정훈(일산백병원), 박시영(고려대학교병원)	Medtronic
2017	박세준(삼성서울병원)	이근우(영남대학교병원), 장동균(상계백병원), 조재환(서울아산병원)	Medtronic
2018		김민우(동아대), 이승환(광명성애병원), 장해동(순천향대)	Medtronic

연도	KASS	젊은 연구자상	후원사
2019		안태근(차의대), 문종욱(경상의대), 박상민(서울의대)	Medtronic
2020		소재완(순천향의대), 백종민(가천의대), 박진성(성균관의대)	
2021		이한동(아주의대), 장삼열(서울의대), 최성훈(울산의대)	
2022		박세한(동국의대), 박재진(경북의대), 박현진(한림의대)	
2023	김남후(한림의대), 김상범(충남의대)	강민석(고려의대), 박형열(가톨릭의대)	

대한척추외과학회
연구학회 활동

대한경추연구학회

대한요추연구학회

대한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대한척추변형연구학회

대한척수신경연구학회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대한척추통증연구학회

글과목을 따 및 판을(福書)이라 이를 구별한 예 전된 와(眞體)가 회(假體)이 두 가
지로 나누라
(一) 진(眞)은 오(五)십(十)四(四)거나 서로 함은 여섯 가지나 그 각각 같은 동을 두는 것이
덕(德)과 허(虛)와 및 가슴의 부위를 논다 이를 다 세 구별한 예 우(右)회(右)회(回)는
경(頸)회(頸)회(回)라 하고 아(亞)태(太)회(回)를
요(腰)회(腰)회(回)라 하고 가(加)온(溫)회(回)는
홍(紅)회(膏)회(推)라 하는가 (二) 회(回)는

제6장 제1절

대한경추연구학회



석경수
(대한경추연구학회 회장)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도 경추에 관심을 가지면서 환자가 많이 증가했고 경추외과를 정형외과와 척추외과 영역에서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1998년 5월 3일 장한 가톨릭 의대 교수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추외과 연수강좌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을 계기로 석세일, 문명상, 왕진만 회원의 권고로 대한척추외과학회 산하 연구회로 장한 회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박희전, 신병준, 이춘성, 이종서, 송경진, 김동준, 안재성, 박종범 위원이 참여하는 경추연구회가 발족하였다.

경추연구회는 2001년 3월 11일 제1차 경추외과 연수강좌를 시작으로 매년 회원들에게 경추 질환 및 외상을 이해시키고 소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6년 11월 12일 카데바 워크숍(Cadaver Workshop)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예를 들어 2008년에 경추연구회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를 3회 실시하는 등 매년 경추 외상 및 질환에 대한 다양한 증례를 토론하며 활발히 운

영되고 있다.

2017년에는 2월 18일, 7월 15일, 10월 14일 경추연구회 심포지엄을 3차에 걸쳐 개최했으며 요추연구회와 같이 제2회 경추-요추 연구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을 4월 7-8일에 실시하였으며 이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심포지엄을 확대하여 2020년 6월 27일 제1회 경추연구회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0일 제1차 회의 및 심포지엄, 6월 12일 제1차 학술대회, 9월 11일 제2차 회의 및 심포지엄을 그리고 2022년 02월 19일, 6월 11일, 10월 29일 3차 심포지엄(경추 관련 trauma에 관한 최신 지견)까지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다.

2023년 6월 11일에는 제3회 경추연구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일본과 태국의 Invited lecture를 초청하였으며, 5분의 초록을 선발하여 구연발표(6분)를 하고 상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10월 28일엔 2023년도 추계 경추연구학회 정기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현재 7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경추연구학회는 연간 4회의 심포지엄, 카데바 워크숍,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술기의 개발 및 보급, 경추 전문 척추외과 의사들의 교육, 훈련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장한, 박희전, 유재원, 송경진, 안재성, 박종범, 염진섭, 이동호, 이영상 전임 회장님의 뒤를 이어 중책을 맡은 석경수 회장은 “척추외과 분야가 다른 외과 분야에 비하여 특히 경추 분야는 빠른 양적,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며, 특히 학술 활동에 있어서 대한경추연구학회는 미국경추연구학회(CSRS), 유럽경추연구학회(CSRS-E), 아시아태평양경추연구학회(CSRS-AP)와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경추외과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고자 젊고 유능한 많은 경추 전문 척추외과 의사들을 양성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고 취임사를 하였다.

대한경추연구학회는 산하 4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학술위원회는 최병완(위원장), 김경환, 강경중(학회 총무), 김민우, 이근우, 이한동, 고종현, 김강언, 김영율, 박상준 위원이, 교육위원회는 최성훈(위원장), 양재준, 신재혁, 김성완, 강성식, 어재형, 김진수, 김상일, 이재원, 홍철기 위원이, 인사위원회는 이제민(위원장) 석경수(학회 회장), 고상봉, 민우기, 서정호, 윤성현, 이석중, 하정기, 진성엽, 한호성 위원이, 국제위원회는 김형민(위원장), 이영상, 남태욱, 강종원, 서보건, 박문수, 전택수,

문종욱, 백종민, 주형석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박희전, 유재원, 장한, 송경진, 김동준, 안기찬, 염진섭, 박종범, 심대무, 안재성, 이동호, 장동균, 이형석, 조민준, 권병택, 김순규, 박세한, 석상윤, 신재원, 이형래, 박지원, 박재진, 이병호, 김남후, 박성철, 김인희, 박진성, 안중현, 최준영, 정희웅, 최승현, 박준영, 조성탄 위원 등이다.

역대 임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03	위원장	장 한	가톨릭대학교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04	위원장	박희전	원주의대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05	위원장	박희전	원주의대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06	위원장	박희전	원주의대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07	위원장	유재원	조선대학교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08	위원장	유재원	조선대학교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09	위원장	유재원	조선대학교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10	위원장	송경진	전북대학교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11	위원장	송경진	전북대학교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12	위원장	김동준	이화여자대학교
	총무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13	위원장	안재성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총무	이동호	서울아산병원
2014	위원장	안재성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총무	이동호	서울아산병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15	위원장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총무	이동호	서울아산병원
2016	위원장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총무	이동호	서울아산병원
2017	위원장	염진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총무	박문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018	위원장	염진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총무	박문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019	위원장	이동호	서울아산병원
	총무	박문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020	위원장	이동호	서울아산병원
	총무	박문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021	회장	이영상	분당제생병원
	총무	박문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022	회장	이영상	분당제생병원
	총무	강경중	경희의료원
2023	회장	석경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총무	강경중	경희의료원

활동 및 연수강좌

1. 2001년 제1차 연수강좌					
일시	2001. 3. 11	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참석 인원	250명
2. 2002년 제2차 연수강좌					
일시	2002. 9. 15	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참석인원	250명
3. 2004년 제3차 연수강좌					
일시	2004. 9. 12	장소	삼성서울병원	참석인원	250명
4. 2006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06. 11. 12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5. 2007년 제4차 연수강좌			
일시	2007. 11. 17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6. 2008년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			
일시	2008. 2. 1	장소	부산 해운대 노보텔
7. 2008년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			
일시	2008. 8. 28	장소	대전 유성 베스트웨스턴호텔
8. 2008년 제5차 연수강좌			
일시	2008. 9. 27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9. 2008년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			
일시	2008. 11. 14	장소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10. 2009년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			
일시	2009. 7. 10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11. 2009년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			
일시	2009. 2. 27	장소	부산 인제대 백병원
12. 2010년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			
일시	2010. 5. 7	장소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13.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			
일시	2011. 3. 18	장소	전북대학교병원
14. 2012년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			
일시	2012. 6. 23	장소	대전 센텀병원
15. 2013년 심포지엄 및 증례토론회			
일시	2013. 2. 23. 16:00	장소	부산 해운대 백병원

16. 2013년 Pros-Cons Debate Minimally Displaced Facet/Lateral Mass Fracture			
일시	2013. 9. 14. 15:00	장소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17. 2017년 제1차 경추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7. 2. 18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18. 2017년 제2회 경추-요추 연구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7. 4. 7 ~ 4. 8	장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해부실습실
19. 2017년 제2차 경추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7. 7. 15	장소	강릉아산병원
20. 2017년 제3차 경추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7. 10. 14	장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5층 대강당
21. 2018년 제1차 경추연구회 회의 및 심포지엄			
일시	2018. 2. 24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2세미나실
22. 2018년 제2회 경추-요추 연구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8. 4. 14	장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해부실습실
23. 2018년 제2차 경추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8. 6. 9	장소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24. 2018년 제3차 경추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8. 10. 6	장소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5. 2019년 제2차 경추연구회 회의 및 심포지엄			
일시	2019. 6. 29	장소	대전 바른생각병원
26. 2019년 제3차 경추연구회 회의 및 심포지엄			
일시	2019. 10. 12	장소	강릉아산병원 별관 지하1층 중강당
27. 2020년 제1회 경추연구회 학술대회			
일시	2020. 6. 27	장소	서울아산병원

28. 2020년 제2차 경추연구회 회의 및 심포지엄			
일시	2020. 10. 24	장소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
29. 2021년 경추연구회 제1차 회의 및 심포지엄			
일시	2021. 2. 20	장소	Zoom 또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 (Zoom 회의 병행)
30. 2021년 제1차 경추연구회 학술대회			
일시	2021. 6. 12	장소	Zoom 또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 (Zoom 회의 병행)
31. 2021년 제2차 경추연구회 회의 및 심포지엄			
일시	2021. 9. 11	장소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Zoom 회의 병행)
내용	주제는 Must-have items for cervical deformity surgery		
32. 2022년 제1차 경추연구학회 회의 및 심포지엄			
일시	2022. 2. 19	장소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 (Zoom 회의 병행)
내용	“Cutting edge issues in cervical spinal surgery”의 주제하에 artificial intelligence 및 robotic surgery		
33. 2022년 제2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일시	2022. 6. 11	장소	더케이호텔 (에비뉴 2층, 금강 AB) 및 (Zoom 병행)
내용	Best Paper Award 및 Invited lecture (일본 연자 초청)		
34. 2022년 제3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일시	2022. 10. 29	장소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APEC하우스
내용	경추 관련 trauma에 관한 최신 지견		
35. 2023년 경추연구학회 하반기 심포지엄			
일시	2023. 2. 1	장소	
36. 2023년 제1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일시	2023. 2. 18	장소	대웅제약 신관 지하 1층 베어홀
내용	“Let’s overcome common complications in cervical spinal surgery”의 주제하에 경추 수술 관련 complication에 관한 토의.		

37. 2023년 경추연구학회 학술대회			
일시	2023. 6. 10	장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덕경홀 (3F)
내용	심포지엄 및 Invited lecture (일본, 태국)		

38. 2023년 추계 경추연구학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23. 10. 28	장소	포항세명기독병원 대강당



2015년 1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경희대



2016년 1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경북대



2016년 2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단국대



2017년 1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서울대
좌장-박희전, 박중범 회원



2017년 요추 및 경추연구학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좌로부터) 박종범, 송경진, 장한, 박희진, 유재원, 석경수 회원

2017 Korean CSRS Symposium Memorial Lecture by Prof. HJ Park



2017년 박희전 회원 정년퇴임 - 강릉아산병원



2017년 경추연구학회 추계 심포지엄 - 동국대
(시계방향으로) 양재준, 박종범, 장한, 염진섭, 박문수, 하정기, 최성훈, 백종민 회원



2018년 1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경희대



2018년 요추 및 경추연구학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9년 1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강남세브란스병원



2019년 3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강릉아산병원



2021년 경추연구학회 학술대회



2022년 2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부산



2022년 2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부산



2023년 제3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고려대



2023년 제3차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고려대
박종범, 이병호, 박희전 회원



2023년 추계 경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세명기독병원

제6장 제2절

대한요추연구학회



신현규

(대한요추연구학회 회장)

요추연구회는 1998년 12월 28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김남현, 김홍태, 박승림, 왕진만, 이환모, 정영기, 조재립 등이 창립을 위한 첫 회의를 가지면서 창설되었다. 초기 임원진으로는 김남현 회원이 위원장을 이환모 회원이 총무를 맡았으며 김영태, 김홍태, 박승림, 왕진만, 이준규, 이춘기, 이환모, 정영기, 조재립 회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00년 4월 22일 첫 연수강좌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고년차 전공의들이 요추유합에 대한 기본 개념과 유합 술기를 습득할 목적으로 오전에는 ‘Lumbar Spinal Stenosis, Lumbar Spinal Fusion, Methods of Fusion’를 오후에는 ‘척추경 나사못의 올바른 사용 및 유합술 방법’에 대한 카데바 워크숍을 성황리에 시행하였다.

이후 요추연구회는 2001년 9월 16일, 2003년 9월 20일 각각 심포지엄 및 연수강좌를 시행하였고 2006년 2월 4일, 5일에는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와 공동으로 카데바 워크숍 및 연수강좌를

시행하였다. 2007년 11월 18일에는 경추연구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 및 연수강좌를 진행하였고 2009년 10월 24일에는 카데바 워크숍을 주로 하는 연수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1년에는 척추외과학회 학술대회 기간에 요추연구회 연수강좌를 진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요추연구회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위원이 속한 지역에서 요추에 관심 있는 의사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요추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3년 3월 9일에는 경기도 동탄 성심병원에서, 5월 4일에는 제 8차 연수강좌를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8월 10일은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성황리에 워크숍을 치렀다. 또한 2년에 1회 개최하던 카데바 워크숍도 매년 1회 개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7년 3월 3일, 6월 10일, 9월 9일, 12월 9일 총 4회 등 정기 심포지엄, 2018년 4월 28일, 6월 16일, 9월 8일, 12월 1일 총 4회 등 정기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경추연구회와 합동 카데바 워크숍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엔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던 시기였지만, 2021년 6월 12일 제2차 요추연구회 정기 심포지엄을 Zoom 회의를 통해 개최하였으며, 2021년 9월 11일 제3차 요추연구회 정기 심포지엄과 2021년 12월 4일 제4차 요추연구회 정기 심포지엄을 온라인 병행으로 마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2022년 9월 3일 제1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행사명은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F KOREAN SOCIETY FOR STUDY OF LUMBAR SPINE이었다. 행사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위증 및 퇴행성 측만증에 대한 가장 최신 지견을 전달하고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dynamic sagittal imbalance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별 강연이 있었는데, 초청된 연사들은 미국의 Lawrence G. Lenke (Columbia University)와 Alexander R. Vaccaro (Thomas Jefferson University), 중국의 Wang Yan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General Hospital, 301 Hospital)과 Erxing He (Guangzhou University) 및 일본의 Yukihiro Matsuyama (Hamamatsu University) 등이었다.

2022년 12월 3일은 골다공증연구학회와의 합동 심포지엄으로 골다공증 약물치료,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수술, 근감소증(sarcopenia) 및 노쇠(frailty)에 대한 가장 최신 지견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난 2023년부터는 오프라인 위주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23년 9월 9일에는 제2차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할 수 있었으며 2023년 12월 16일에는 요추연구학회 송년 심포지엄도 열렸다.

신현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요추연구학회는 대한민국의 척추질환 중 대표적인 요추에 관한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수술적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려고 모인 연구학회로 1년에 4회 지속적인 모임을 통한 발표를 하고 있으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대한요추연구학회는 4개의 분과를 두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는 신현규(학회 회장), 차재룡(학회 총무) 위원이, 자문위원회는 신병준, 이규열, 이환모, 장봉순, 전창훈 위원이, 학술위원회는 고영도, 김상범, 김영배, 김영우, 김용찬, 남우동, 박대현, 신동은, 안성준, 이병호, 조재환, 홍창화, 김태훈 위원이, 교육위원회는 김태균, 김태환, 나화엽, 박건영, 박형열, 성사현, 손인석, 손흥문, 이승환, 장영수, 최성우, 최승현, 하상훈, 하중원, 김동희, 유기한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역대 임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03	위원장	김남현	연세대학교
	총무	이환모	연세대학교
2004	위원장	조재림	한양대학교
	총무	이환모	연세대학교
2005	위원장	조재림	한양대학교
	총무	이환모	연세대학교
2006	위원장	조재림	한양대학교
	총무	이환모	연세대학교
2007	위원장	조재림	한양대학교
	총무	이환모	연세대학교
2008	위원장	이준규	충남대학교
	총무	이환모	연세대학교
2009	위원장	이준규	충남대학교
	총무	이환모	연세대학교
2010	위원장	이준규	충남대학교
	총무	이환모	연세대학교
2011	위원장	이준규	충남대학교
	총무	이환모	연세대학교
2012	위원장	장호근	한림대학교
	총무	양준영	충남대학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13	위원장	장호근	한림대학교
	총무	양준영	충남대학교
2014	위원장	전창훈	아주대학교병원
	총무	신현규	강북삼성병원
2015	위원장	전창훈	아주대학교병원
	총무	신현규	강북삼성병원
2016	위원장	신동은	분당차병원
	총무	신현규	강북삼성병원
2017	위원장	신동은	분당차병원
	총무	신현규	강북삼성병원
2018	위원장	고영도	이화의대 목동병원
	총무	신현규	강북삼성병원
2019	위원장	고영도	이화의대 목동병원
	총무	김용찬	강동경희대병원
2020	위원장	김영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총무	김용찬	강동경희대병원
2021	회장	김영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총무	김용찬	강동경희대병원
2022	회장	김영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총무	김용찬	강동경희대병원
2023	회장	신현규	강북삼성병원
	총무	차재룡	울산대학교병원

활동 및 연수강좌

1. 2000년 제1차 연수강좌 및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00. 4. 22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참가자	200명
목적	정형외과 전문의와 고년차 전공의들이 요추유합에 대한 기본 개념과 유합 술기를 습득하고자 함. 오전 연수강좌의 제목은 'Lumbar Spinal Stenosis, Lumbar Spinal Fusion, Methods of Fusion'이었고, 오후에는 '척추경 나사못의 올바른 사용 및 유합술 방법'에 대한 카데바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2. 2001년 제2차 연수강좌					
일시	2001. 9. 16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참가자	250명

목적	정형외과 전문의와 고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요추 질환의 기본 이해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강좌 제목은 ‘General Consideration, Lumbar Disc Herniation, Spondylolisthesis, Future Innovation 및 T-L Spine Fracture’이었다.				
3. 2003년 제3차 연수강좌					
일시	2003. 9. 20	장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참가자	50명
목적	3차 연수강좌는 척추외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Problem Case를 토론하였다. 중례 토론 제목은 ‘Spinal Stenosis, Lumbar Disc Herniation, Pediatric and Adult Spondylolisthesis 및 Degenerative Scoliosis and Kyphosis’였다.				
4. 2006년 제4차 연수강좌(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와 공동 개최)					
일시	2006. 2. 4~5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5. 2007년 제5차 연수강좌					
일시	2007. 11. 18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6. 2009년 제6차 연수강좌					
일시	2009. 10. 24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주최	대한척추외과학회 요추연구회	후원	충남대학교 해부학교실		
7. 2011년 제7차 연수강좌					
대한척추외과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에서 통합 시행					
8. 2013년 제8차 연수강좌					
일시	2013. 5. 4. 15:00~18:00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9. 2013년 대한척추외과 요추위원회 주최 Cadaver Workshop					
일시	2013. 10. 12	장소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실습실		
10. 2017년 요추연구회 심포지엄(1)					
일시	2017. 3. 4	장소	강북삼성병원		
11. 2017년 요추연구회 요추 및 경추연구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7. 4. 7~8	장소	연세대학교 수술해부교육센터		
12. 2017년 요추연구회 심포지엄(2)					
일시	2017. 6. 10	장소	제주도(SESS 미팅과 같이)		

13. 2017년 요추연구회 심포지엄(3)			
일시	2017. 9. 9	장소	강원대병원
14. 2017년 요추연구회 심포지엄(4)			
일시	2017. 12. 9	장소	강북삼성병원
15. 2018년 제2회 경추-요추 연구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8. 4. 14	장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해부실습실
내용	경추-요추연구회	제2회 합동카데바 워크숍	
16. 2018년 요추연구회 심포지엄(1)			
일시	2018. 4. 28	장소	동탄성심병원
17. 2018년 요추연구회 심포지엄(2)			
일시	2018. 6. 16	장소	제주도
내용	SESS 미팅과 같이 진행		
18. 2018년 요추연구회 심포지엄(3)			
일시	2018. 9. 8	장소	부산성모병원
19. 2018년 요추연구회 심포지엄(4)			
일시	2018. 12. 1	장소	강북삼성병원
20. 2019년 요추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9. 9. 7	장소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21. 2021년 제2차 요추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21. 6. 12	장소	Zoom 회의
22. 2021년 제3차 요추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21. 9. 11	장소	울산 LAHAN HYUNDAI HOTEL(온라인 병행)
23. 2021년 제4차 요추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21. 12. 4	장소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 Zoom 회의 병행
24. 2022년 요추연구학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22. 4. 9	장소	부산성모병원(4층 대강당), 온-오프라인 혼합진행
내용	“Cutting edge of surgical tool for lumbar spinal surgery” 주제로 특강 및 Case discussion		

25. 2022년 제2차 요추연구학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22. 6. 18	장소	제주 메종 글래드호텔
내용	증례 토론 및 김환정 교수님 특강		
26. 2022년 요추연구학회 제1차 국제심포지엄			
일시	2022. 9. 3	장소	대웅제약 신관 베어홀
내용	1) 흉요추에서 가장 주요한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위증 및 퇴행성 측만증에 대한 가장 최신 지견을 전달하고 토의 및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dynamic sagittal imbalance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2개의 특별 강연 연사: 미국의 Lawrence G. Lenke(Columbia University)와 Alexander R. Vaccaro(Thomas Jefferson University), 중국의 Wang Yan(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General Hospital, 301 Hospital)과 Erxing He(Guangzhou University) 및 일본의 Yukihiro Matsuyama(Hamamatsu University)		
27. 2022년 대한요추연구학회-대한골다공증연구학회 합동 심포지엄			
일시	2022. 12. 3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 AI 홀
내용	골다공증 약물치료,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수술, 근감소증(sarcopenia) 및 노쇠(frailty)에 대한 가장 최신 지견		
28. 2023년 제1차 대한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일시	2023. 3. 4	장소	세종충남대병원 본관 4층 도담홀
29. 2023년 제2차 대한요추연구학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23. 6. 17	장소	제주 히든클리프호텔 2층 하모니홀
30. 2023년 요추연구학회 제2차 국제심포지엄			
행사명 (영문)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F KOREAN SOCIETY FOR STUDY OF LUMBAR SPINE		
일시	2023. 9. 9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31. 2023년 대한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일시	2023. 12. 16	장소	울산대학교병원 대강당



2015년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조선대



2016년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충남대



2016년 요추 및 경추 연구학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6년 요추 및 경추 연구학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7년 요추 및 경추연구학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7년 요추 및 경추연구학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8년 1차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부산성모병원



2018년 4차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강북삼성병원



2019년 경추 및 요추 연구학회 합동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9년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제주 해비치호텔



2019년 제 4차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2019년 제4차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시계방향으로) 이규열, 고영도, 손홍문, 김태훈, 신현규 회원



2020년 요추연구학회 학술회의 후 저녁식사
(좌로부터) 김영배, 신현규, 김영우, 김용찬, 고영도, 신동은, 남우동 회원



2021년 제3차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울산대



2021년 요추연구학회 집행부 회의
(시계방향으로) 신현규, 김영우, 김용찬, 김태훈, 신동은 회원



2021년 제4차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조선대



2021년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후 친선 골프
(좌로부터) 2열 나화엽, 김영우, 신병준, 이규열, 김태균
1열 안성준, 김태훈, 차재룡, 김용찬, 하상훈 회원



2022년 1차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부산성모병원



2022년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f Korean Society for Study of Lumbar Spine - 대웅제약 신관



2023년 제1차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세종충남대병원



2023년 SpineWeek 요추연구학회 - Melbourne, Australia
(좌로부터) 2열 조재환, 박대현, 홍창화, 김상범
1열 안성준, 신현규, 차재룡 회원



2023년 제2차 요추연구학회 심포지엄 - 제주 히든클리프호텔



2023년 요추연구학회 송년심포지엄 - 울산대병원

제6장 제3절

대한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서형연
(대한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회장)

척추외과 분야에서 최소침습 기술은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위시한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어 왔다. 특히 일부 신경외과 의사들이 마스크와 결탁하여 최소침습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일이 큰 자극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는 경쟁적 의료환경에서 낙오하면 안 된다는 자각이 척추외과학회 및 정형외과학회 내에서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척추외과학회에서는 최소침습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전문 연구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996년 1월 15일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는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업무규정을 인준하였다. 학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에 전남의대 정재운 회원이 임명되었고 위원으로 김영태(울산의대), 김응하(국립의료원), 김재도(고신의대), 김환정(을지의대), 심대무(원광의대), 안면환(영남의대), 이춘택(수원), 채인정(고려의대) 회원 등 8명과 총무에 이근배 회원(전남의대)을

위촉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되었다.

이후 매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자체의 연수강좌를 개최해 왔으며, 정재운 위원장의 뒤를 이어 김영태(울산의대) 위원장이 이어받아 확대 발전시켰으며 김재도, 김기택 위원장의 지도하에 연수강좌와 함께 카데바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소침습연구회 위원뿐 아니라 척추외과학회 회원들에게 술기 발전 및 최소침습 수술에 관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다.

2013년 그동안 개원가에서 최소침습 수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박근호 회원(전주고려병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3회 연임하며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2001년 PASMISS (Pacific Asia Minimal Invasive Spine Surgery) 학회가 창립되어 2013년 13번째 연례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PASMISS는 이준규 회원(충남의대)이 초대 회장을 맡아 2001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창립총회 및 제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회는 태국 푸켓에서, 제3회는 대만에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도에는 다시 국내에서 정재운 회원(전남의대)이 회장을 맡아 제주에서 4회 연례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05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2006년에는 대만에서, 2007년에는 박희전 회원(연세의대)이 회장을 맡아 경주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김기택 회원(경희의대)이 회장을 맡아 부산에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에는 중국 시안에서, 2013년에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연례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날로 양적·질적으로 아시아 최소침습 학회의 위상이 향상되었다. 이는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위원들의 노력이 큰 힘을 보탰다고 하겠다.

초기부터 대한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는 우리 연구학회 위원들에 국한되지 않고 당대 술기나 척추외과 연자들 뿐만 아니라 타과 혹은 해외 연자들을 많이 초청하였다. 따라서 연수강좌를 많이 개최하여 교육적 성격이 강했으며, 2014년까지는 연수강좌와 카데바 워크숍을 격년으로 번갈아 개최하고 집담회는 춘계와 추계로 1-2회씩 개최하였다. 집담회 일정을 보면 2009년 10월 23일-24일 추계집담회, 2010년 6월 18-19일 춘계집담회, 2011년 11월 18-19일 추계집담회, 2012년 4월 28일 춘계집담회를 가졌는데, 2014년 가을에는 집담회를 추계 심포지엄으로 격상시켰다. 그리하여 2014년 11월 1일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추계 심포지엄(제주대학병원)과 카데바 워크숍이 열렸다. 11월 29일 열린 카데바 워크숍 내용은 “MIS수술의 다양한 감압술 방법, 최근 새로이 부각되는 Cortical screw를 이용한 MIDLIF 수술” 등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7년 카데바 워크숍을 1월 20일과 11월 25일 2회 개최하고 4월 8일과 9월 9일 춘계와 추계

2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7월 27-29일까지 일본 삿포르에서 PASMISS (Pacific Asia Minimal Invasive Spine Surgery) 연례 학술대회를 2박 3일간 개최하였다.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9월 4일 추계학술대회를 예정대로 발표자, 토론자 포함 현장 참석 인원을 49명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2022년 4월 23일 개최된 춘계학술대회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9월 3일 추계학술대회를 11월 26일에는 카데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23년 2월 18일 척추내시경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카데바 워크숍 등 행사가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정상화되었다. 2023년 9월 9일 열린 추계 심포지엄은 “Learning about MIS: Current and Future”라는 제목으로 특히 오전에 ‘Endoscopic interactive live-stream spine surgery’ 등 수술과 연관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우리 학회는 처음에 비정기적이고 동호회와 스터디 모임 같은 성격의 모임에서 정기적인 학술모임과 연구모임으로 변하고 무엇보다도 회원이 많이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상부한 연구학회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변모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젊은 Surgeon들의 관심사를 잘 포착하여 대학과 개원가를 아우를 수 있는 술기를 발전시켜 온 우리 학회의 역량 때문이라 하겠는데, 무엇보다도 열린 학회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향후 우리 학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젊은 척추외과 의사들에게 열려있는 학회, 그리고 타 연구학회와도 잘 연계하여 다양한 공동학술행사를 기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학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화와 국제교류에 앞서는 학회가 중요하다 하겠다.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는 4개 분과를 두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서형연(회장), 강창남, 김진환, 송광섭(총무), 전득수, 김석우, 박용, 이재철, 이재협(감사) 위원, 교육위원회는 정석봉(위원장), 신재홍, 김문찬, 박섭리, 박시영 위원, 학술위원회는 소재완(위원장), 권기연, 최대정, 강민석, 박진성, 박현진, 권지원, 장해동, 손은석, 서은민, 홍재영, 이호진, 윤명수, 안태근, 박상민, 김주는 위원, 편집위원회는 구기형(위원장), 임수택, 유정현, 유기원, 서승표, 권육상, 박재우, 김정환, 강규복, 박재진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김기택, 김환정, 박근호, 최용기, 신경현, 김민석, 민상혁, 양경호, 서준영, 박세준, 신승준, 은상수, 김동윤, 김형복, 최승현, 구자국, 성창호, 이재원, 신승덕, 최성훈, 신원식, 백종민, 허동렬, 유현승, 우영하, 이수빈, 성사현, 조민준, 석상윤, 노원을지대병원, 김대근, 박성철, 장동균, 이정익, 함대웅, 강민석, 이준석, 유지현, 이승관, 신재홍, 박용진, 이형래, 윤자영, 유기한, 장호수, 이우명, 김훈철, 윤영훈, 강태훈, 김원중, 주형석, 신민규, 김인희,

허정 등이다.

서형연 회장은 “현재 1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연구학회 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우리 학회는 앞으로 유능한 젊은 회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원 간의 교류 확대 및 자체 교육, 학술대회의 다양화 등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계속하여 최소침습 척추치료 분야는 우리 연구학회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역대 임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03	위원장	정재윤	전남대학교
	총무	서형연	전남대학교
2004	위원장	김영태	울산대학교
	총무	이종서	성균관대학교
2005	위원장	김영태	울산대학교
	총무	이종서	성균관대학교
2006	위원장	김영태	울산대학교
	총무	이종서	성균관대학교
2007	위원장	김영태	울산대학교
	총무	이종서	성균관대학교
2008	위원장	채인정	고려대학교
	총무	김석우	한림대학교
2009	위원장	채인정	고려대학교
	총무	김석우	한림대학교
2010	위원장	김재도	고신대학교
	총무	김석우	한림대학교
2011	위원장	김재도	고신대학교
	총무	김석우	한림대학교
2012	위원장	김기택	경희대학교
	총무	김석우	한림대학교
2013	위원장	박근호	전주 고려병원
	총무	김석우	한림대학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14	위원장	박근호	전주고려병원
	총무	이재철	순천향대학병원
2015	위원장	박근호	전주고려병원
	총무	이재철	순천향대학병원
2016	위원장	전득수	가천의대 길병원
	총무	이재철	순천향대학병원
2017	위원장	전득수	가천의대 길병원
	총무	이재철	순천향대학병원
2018	위원장	강창남	한양대학교병원
	총무	박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19	위원장	강창남	한양대학교병원
	총무	박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0	위원장	강창남	한양대학교병원
	총무	박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1	회장	강창남	한양대학교병원
	총무	박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2	회장	서형연	전남대학교병원
	총무	송광섭	중앙대학교병원
2023	회장	서형연	전남대학교병원
	총무	송광섭	중앙대학교병원

활동 및 연수강좌

1. 1999년 제1차 연수강좌					
최소침습적 추간판 시술(Minimally Invasive Disc Surgery)					
일시	1999. 5. 30	장소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참가자	180명
2. 2000년 제2차 연수강좌					
최소침습적 척추수술(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일시	2000. 5. 28	장소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참가자	200명
3. 2003년 제3차 연수강좌					
최소침습적 척추수술(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일시	2003. 4. 13	장소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참가자	220명

4. 2004년 Fresh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04. 12. 18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5. 2005년 제4회 연수강좌			
일시	2005. 5. 1	장소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6. 2006년 요추연구회와 공동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06. 2. 4-5	장소	연세대학교(수술해부교육센터)
7. 2007년 제5회 연수강좌			
일시	2007. 6. 17	장소	서울아산병원
8. 2008년 제6회 연수강좌			
일시	2008. 12. 13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9. 2009년 제7회 연수강좌			
일시	2009. 7. 5	장소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10. 2009년 추계집담회			
일시	2009. 10. 23-24	장소	부산 고신대
11. 2010년 춘계집담회			
일시	2010. 6. 18-19	장소	강릉아산병원
12. 2011년 추계집담회			
일시	2011. 11. 18-19	장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3. 2012년 춘계집담회			
일시	2012. 4. 28	장소	강동경희대병원
14. 2012년 추계집담회			
일시	2012. 9. 21	장소	전주고려병원
15. 2012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2. 12. 8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6. 2013년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13. 5. 11	장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7. 2013년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13. 11. 2	장소	대전세명병원
18. 2013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3. 12. 14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 2014년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14. 11. 1	장소	제주대학교병원 2층 국제회의실
20. 2014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4. 11. 29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1F) 수술해부교육센터
내용	MIS수술의 다양한 감압술 방법, Ultrasonic을 이용하여 조직이나 신경 손상없이 감압술을 하는 방법, 경추 각종 Laminoplasty 방법 및 최근 새로이 부각되는 Cortical screw를 이용한 MIDLIF 수술		
2015년 춘계심포지엄			
일시	2015. 4. 25	장소	순천향대 서울병원
21. 2015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5. 12. 5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1F) 수술해부교육센터
내용	MIS수술의 다양한 신경감압 및 유합방법, 최근 새로이 부각되는 Minimally Invasive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방법인 DLIF, OLIF 등의 수술방법과 Cortical screw를 이용한 MIDLIF수술		
2016년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16. 4. 23	장소	전주고려병원
2016년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16. 9. 24	장소	부천예손병원
2016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6. 11. 26	장소	연세대학교(수술해부교육센터)
22. 2017년 카데바 워크숍 결산, 신년학술			
일시	2017. 1. 20	장소	힐튼호텔 엠버룸
23. 2017년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17. 4. 8	장소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2017년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16. 5. 24-25	장소	강릉라카이호텔

24. 최소침습적추치료연구회 PSMISS			
일시	2017. 7. 27~29	장소	일본 삿포로
25. 2017년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17. 9. 9	장소	강릉아산병원
26. 2017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7. 11. 25	장소	연세대학교(수술해부센터)
27. 2018년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18. 3. 31	장소	일산명지병원
2018년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18. 10. 6	장소	안동병원
2018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8. 11. 24	장소	연세대학교(수술해부교육센터)
2019년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19. 4. 13	장소	서울보훈병원
28. 2019년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19. 9. 28	장소	대전세명병원 8층 강당
29. 2019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19. 11. 30	장소	연세대학교(수술해부교육센터)
30. 2021년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21. 9. 4	장소	해운대 한화콘도(온라인 병행)
31. 2022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2022. 4. 23	장소	진주본병원 강당(BYC빌딩 7층)
32. 2022년 추계학술대회			
일시	2022. 9. 3	장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1층)
33. 2022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22. 11. 26	장소	연세대학교(수술해부교육센터)

2023년 신년회			
일시	2023. 1. 26	장소	서울역 만복림
34. 2023년 척추내시경 심포지엄			
일시	2023. 2. 18	장소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남대문 3층 한양홀
35. 2023년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23. 4. 8	장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36. 2023년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23. 9. 9	장소	동탄시티병원(동탄보건소 대강당)
37. 2023년 카데바 워크숍			
일시	2023. 11. 25	장소	연세대학교(수술해부교육센터)
2024년 신년회			
일시	2023. 1. 24	장소	서울역 만복림



2013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추계 심포지움-대전센텀병원



2015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춘계 심포지움 - 순천향대학교



2015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6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춘계 심포지엄 - 전주고려병원



2016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 예송병원



2016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7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심포지엄 - 강릉라카이 호텔



2017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8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춘계 심포지움 - 명지병원



2018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추계 심포지움 - 안동병원



2018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19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춘계 심포지움 - 중앙보훈병원



2019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추계 심포지움 - 대전센터병원



2021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카데바 워크숍 - 연세대



2022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엄 - 진주본병원



2022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추계 심포지엄 - 전남대병원



2022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추계 심포지엄 - 전남대병원



2023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신년회 - 서울역 만복림



2023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엄 - 고대안산병원



2023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추계 심포지엄 - 동탄시티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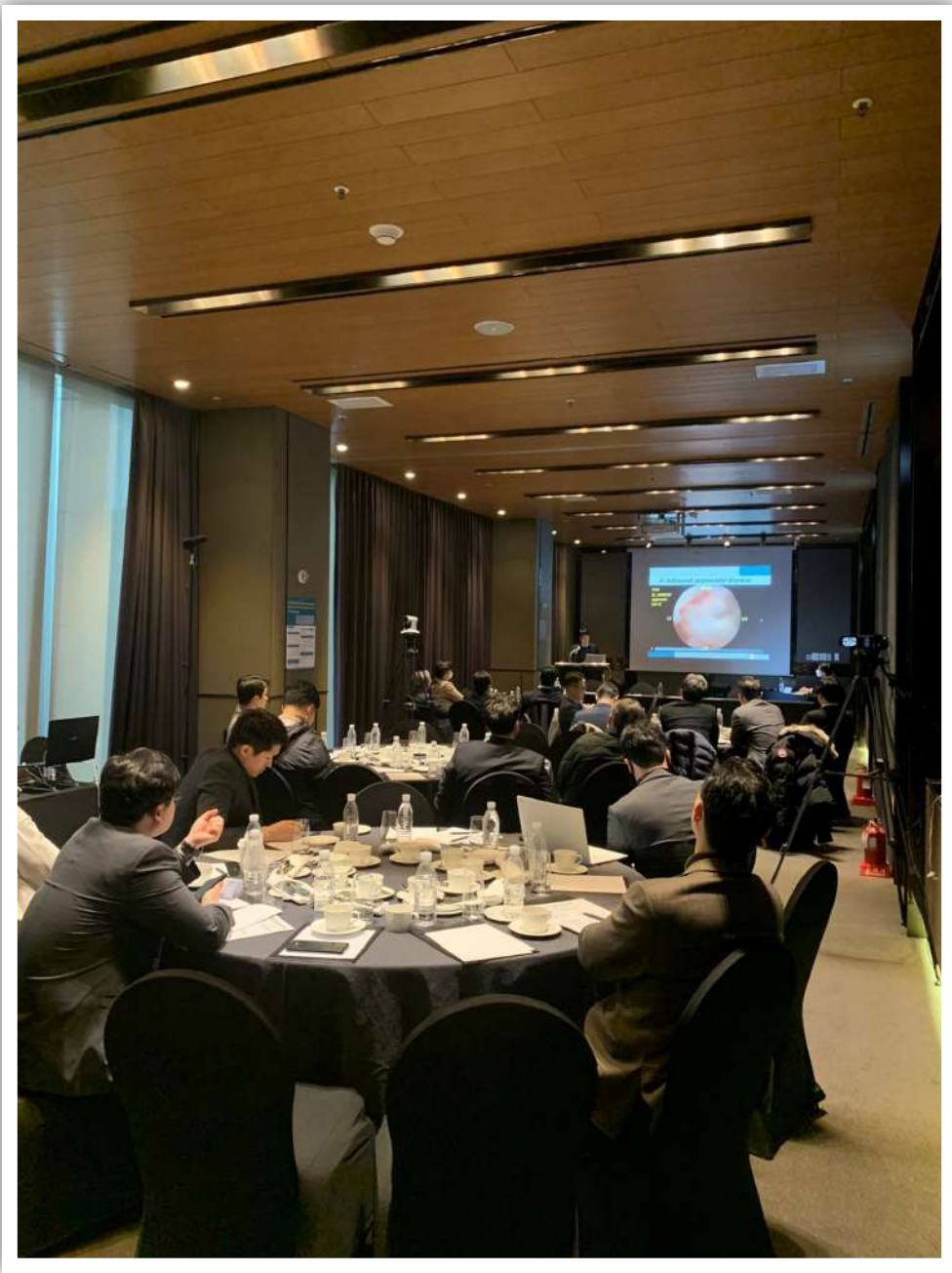
2023년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카테바 워크숍 - 연세대



2023년 11월 12일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친선 골프대회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척추신기술학회 정기 학술대회(ISASS)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회원들 참석. (좌로부터) 홍재영, 권지원, 박섭리, 이병호, 이재철, 선승덕, 박용, 김석우, 김주은, 김상범, 송광섭, 박상민 회원



2023년 K-MISS-ESS Online Symposium
척추내시경 술기 위주의 심포지엄 개최 - 코드야드 바이 메리어트호텔

제6장 제4절

대한척추변형연구학회



이정희
(척추변형연구학회 회장)

척추변형의 교정술은 정형외과의 고유 영역으로 원인과 치료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정형외과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중반에 도입된 Contrel-Dubousset (CD) 기기술 이후 척추변형 치료에는 척추경 나사못이 널리 사용됨으로써 척추변형 교정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의대 정형외과 석세일 회원을 위시하여 몇몇 병원에 국한되어 척추변형 교정술이 시행 되었으나 새로운 기기술 도입, 척추 전입의 배출, 해외 연수 및 워크숍 등의 많은 교류로 점차 여러 병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그간 척추변형 교정술은 전문의 수련과정에서도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잘 접할 수 없었고 또한 마스크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의 대중 호도, 상업적 목적의 선전 등으로 대중은 물론이고 정형외과 의사들도 일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치료에 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척추변형 분야에 종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일선에서 척추분야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교육,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올바른 계도, 학문적 발전을 위한 지식의 상호교류 그

리고 대외적으로 이 분야를 대표하는 중추적 역할을 위해 2001년 척추변형연구회를 발족하였다.

2001년 7월 20일 대한척추외과학회 제59차 평의원회(회장 김영태)에서 척추변형연구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업무 규정을 인준하였다. 같은 해 10월 학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에 인제의대 석세일 회원이 임명되었고 위원으로 김기택(경희의대), 김응하(국립의료원), 김진혁(인제의대), 라종득(한일병원), 민학진(강남병원), 박원욱(부산의대), 신병준(순천향의대), 이종서(성균관의대), 이춘기(서울의대), 이춘성(울산의대), 정순택(경상의대), 정재윤(전남의대), 조재림(한양의대) 위원 13명, 총무에 김응하(국립의료원) 위원을 위촉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되었다.

역대 위원장에 1대 석세일(2001~2007), 2대 조재림(2008~2009), 3대 이춘기(2010), 4대 김응하(2011~2013), 5대 김진혁(2014~2017), 6대 서승우(2018~2019), 7대 이정희(2020~현재) 위원을, 역대 총무에는 김응하(2001~2010), 김진혁(2011~2013), 서승우(2014~2017), 이정희(2018~2019), 장동균(2020~현재) 위원을 선임하였다.

척추변형연구회 발족 후 2003년 6월 22일 최초의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는데 척추변형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연자를 위촉하였고, 연수강좌에서는 특별성 척추측만증의 증례 발표를 통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제1회 연수강좌 이후 2005년 Scoliosis Research Society (SRS) Asia Pacific Spine Congress를 제주에서 성공리에 유치하였고 2006년 6월 24일 제2회 연수강좌에서는 척추변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척추변형에 대한 Live Surgery와 수술 시기 및 전략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 2007년 5월 2일 척추변형 심포지엄에서는 Scoliosis Research Society (SRS) 전 회장인 마이애미대학교의 Shufflebarger 교수와 캘리포니아대학교의 Gupta 교수를 초빙하여 각각 척추측만증, 요천추부 고정, 그리고 퇴행성 척추변형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시행한 바 있다. 2008년 10월 11일 제3회 연수강좌에서는 특별성 측만증에서 논쟁이 되는 분야와 시상면상 불균형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보조기 치료의 효용성에 관한 찬반 토론과 증례에 관하여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9년 11월 21일 척추변형 심포지엄에서는 척추변형 중 관심이 높은 퇴행성 척추변형과 특별성 척추측만증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각각의 증례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그 외 기타 변형 증례에 관해 열린 토론을 나누었다. 2010년 제27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조기 발현 측만증(Early Onset Scoliosis)과 측만증의 수술 전 평가에 관한 심포지엄, borderline scoliosis(성장이 끝난 50도)의 치료 및 pelvic incidence의 유용성에 대한 찬반 토론, 척추변형 증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2011년 제28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심한 척추후만증의 치료와 증례 토론을, 2012년 제29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특별성 척추측만증의 치료와 그에 따른 합병증, 성인에서의 척추변형, 그리고 자유 연제에 관해 연구를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3년 척추변형연구회 회의석상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척추외과학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변형에 관한 상식을 소책자로 만들어 홍보하자는 김응하 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소책자 제작 위원을 선정하여 제작 작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2016년 척추골다공증연구회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2016년 7월 2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8년은 1월 18일과 9월 8일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을 가졌고, 3월 19일과 6월 18일 및 12월 3일은 증례토론 심포지엄을 가져 무려 총 5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2019년 8월 23-24일 1박 2일로 '2019 Korea Spinal Deformity Symposium (2019 KSDS)'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해외 연자로서 일본의 Morio Matsumoto, 중국의 Yong Hai, 말레이시아의 Mun Keong Kwan, 대만의 Shu-Hua Yang 및 홍콩의 Jason Cheung 교수를 초빙하여 척추변형의 최신 지견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시행 하였다. 2020년부터는 척추변형연구학회로 승격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23일 '2021 Korea Spinal Deformity Symposium (2021 KSDS)'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22년도에는 제1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을 2022년 4월 23일에 시행하였고, 제2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을 2022년 7월 9일 부산에서 시행 하였고, '2022 Korea Spinal Deformity Symposium (2022 KSDS)'를 2022년 11월 5일 하였으며, 2022년 11월 26일에는 척추변형연구학회 4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23년에는 2023년 제1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은 소아 척추변형과 성인 척추변형에서 임상 경험과 증례 토론으로 구성을 하여 2023년 3월 11일에 개최하였다. 2023년 6월 24일에는 제2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을 골다공증 연구학회와 함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골다공증 질환 및 이와 연관된 척추변형 질환들에 대한 임상 경험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여 여러 회원들의 학문적 교류와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2023년 9월 16일에는 2023년 척추변형연구학회 국제학술 행사인 '2023 Korea Spinal Deformity Symposium (2023 KSDS)'을 개최하였는데, 캐나다 Université de Montréal에서 소아 척추변형 분야에서 저명한 Stefan Parent 교수와 Keio University에서 성인 척추변형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Kota Watanabe 교수를 초청하여 다양한 연구 및 임상 경험 등을 공유하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023년 12월 2일에는 2023년 제4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을 카데바 워크숍 형식으로 개최하였는데 이는 척추변형연구학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카데바 워크숍이었는데, 기초적인 척추교정 술기부터 전문적인 변형교정 술기인 절골술과 전방수술, 횡경막 접근, 측만증 교정술까지 다루었으며, 우수한 강사진과 1 Cadaver당 3명의 소수 정예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척추변형학회 운영위원회는 이정희(학회 회장), 장동균(학회 총무), 하기용, 이춘기, 이춘성, 김응하, 이종서, 김진혁, 민학진, 박예수, 정순택, 조규정, 최용수 위원이, 학술 및 카데바 워크숍 위

원회는 서승우(위원장), 양재혁(총무), 김호중, 박진보, 이기영, 권지원, 정남수(카데바 워크숍 위원장), 박진성(카데바 워크숍 총무), 김성규, 안중현, 이정익, 함대웅 위원이, 성인변형위원회는 김영훈(위원장), 박세준(총무), 김동수, 나기호, 이정섭, 김성수, 임동주, 양재호 위원이, 소아변형위원회는 황창주(위원장), 장삼열(총무), 김학선, 손승민, 임상규, 남윤진, 신원주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정희 회장은 “대한척추변형연구학회는 훌륭한 역대 임원진들의 리더십과 열정적인 회원분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분과 학회로 성장을 하였고, 척추변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공헌을 하였으며, 더 나은 학회 발전과 세계 수준의 척추변형연구학회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위원과 회원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역대 임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03	위원장	석세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04	위원장	석세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05	위원장	석세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06	위원장	석세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07	위원장	석세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08	위원장	조재림	한양대학교 병원
	총무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09	위원장	조재림	한양대학교 병원
	총무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10	위원장	이춘기	서울대학교
	총무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11	위원장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총무	김진혁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12	위원장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총무	김진혁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2013	위원장	김진혁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서승우	고대구로병원
2014	위원장	김진혁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서승우	고대구로병원
2015	위원장	김진혁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서승우	고대구로병원
2016	위원장	김진혁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서승우	고대구로병원
2017	위원장	김진혁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	서승우	고대구로병원
2018	위원장	서승우	고대구로병원
	총무	이정희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2019	위원장	서승우	고대구로병원
	총무	이정희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2020	위원장	이정희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총무	장동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2021	회장	이정희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총무	장동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2022	회장	이정희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총무	장동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2023	회장	이정희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총무	장동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활동 및 연수강좌

1. 2003년 제1회 연수강좌			
일시	2003. 6. 22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2. 2005년 Scoliosis Research Society Asia Pacific Spine Congress			
일시	2005. 8. 25~27	장소	제주 롯데호텔
3. 2006년 제2회 연수강좌			
일시	2006. 6. 24	장소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4. 2007년 척추변형 심포지엄			
일시	2007. 5. 2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5. 2008년 제3회 연수강좌			
일시	2008. 10. 11	장소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6. 2009년 척추변형 심포지엄			
일시	2009. 11. 21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7. 2016년 척추골다공증연구회와 척추변형연구회 합동 심포지엄			
일시	2016. 7. 2	장소	충남대학교 병원
8. 2018년 척추변형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8. 1. 18	장소	롯데호텔
9. 2018년 척추변형연구회 증례 토론회			
일시	2018. 3. 19	장소	삼성서울병원
10. 2018년 척추변형연구회 증례 토론회			
일시	2018. 6. 18	장소	서울성모병원
11. 2018년 척추변형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8. 9. 8	장소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2. 2018년 척추변형연구회 증례 토론회			
일시	2018. 12. 3	장소	CM 병원
13. 2019년 척추변형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9. 8. 23~24	장소	삼성서울병원

14. 2021년 척추변형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21. 8. 21	장소	경희대병원	
15. 2021년 척추변형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21. 10. 23	장소	더케이호텔 거문고홀	
16. 2022년 척추변형연구학회 제1차 심포지엄				
일시	2022. 4. 23.	장소	대웅제약 베어홀	
17. 2022년 척추변형연구학회 제2차 심포지엄				
일시	2022. 7. 9	장소	해운대 센트럴호텔	
18. 2022년 척추변형연구학회 제3차 심포지엄(2022 KSDS)				
일시	2022. 11. 5	장소	더케이호텔 거문고홀	
19. 2022년 척추변형연구학회 제4차 심포지엄				
일시	2022. 11. 26	장소	대웅제약 베어홀	
20. 2023년 제1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				
일시	2023. 3. 11	장소	더케이호텔 거문고홀	
21. 2023년 제2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공동 심포지엄)				
일시	2023. 6. 24~25	장소	해운대 센트럴호텔	
22. 2023년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2023 KSDS)				
일시	2023. 9. 16	장소	더케이호텔 거문고홀	
23. 2023년 제4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카데바 워크숍)				
일시	2023. 12. 2	장소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2019년 척추변형연구회 국제학술대회(KSDS) - 삼성생명 일원역사



2021년 척추변형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KSDS) - The K호텔



2022년 제1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 - 대웅제약 신관



2022년 제2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 - 해운대 센트럴호텔



2022년 제3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 - The K호텔



2023년 제1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 - The K호텔



2023년 제2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 - 해운대 센트럴호텔



2023년 제3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심포지엄 - The K호텔



2023년 제 1차 척추변형연구학회 카데바 워크숍 - 서울성모병원

제6장 제5절

대한척수신경연구학회



김영배
(대한척수신경연구학회 회장)

척수와 신경의 병변에 대한 임상적·기초적 연구가 아직 체계적인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척추외과학회의 영역이 아닌 듯한 오해가 있던 시기가 있었다. 2007년 척수신경연구회는 장한 초대 위원장과 양준영, 김기원, 김용찬, 김진혁, 문성환, 박예수, 심대무, 장봉순, 서승우, 서형연, 신동은, 이광복, 이재협 위원으로 시작하였다. 연구회의 목표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회로서 척수 및 신경근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2007년 2월 10일 제1회 연수강좌를 심포지엄과 워크숍으로 개최하였고, 당시 Shoichi Kokubun 교수와 Donald D. Hales 교수를 초청하였다. 2008년부터 2대 심대무 위원장이 연구를 이끌었으며, 2009년 2월 21일 제2회 연수강좌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부터 3대 장봉순 위원장과 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격월로 학술모임을 개최하여 척수신경 관련 강좌와 정기 증례 토론회는 매 짝수 달 마지막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척추신경연구회는 2017년 5월 26일, 2017년 7월 28일, 2017년 9월 29일, 2017년 11월 24일 총 4번의 정기모임을 가졌다. 또한 2018년 정기모임은 2018년 3월 30일, 2018년 5월 25일, 2018년 7월 27일, 2018년 9월 28일, 2018년 11월 30일 총 5회 학술모임을 가졌다. 2019년 8월 31일-9월 1일까지 1박 2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22년 4월 29일 춘계모임과 6월 24일 정기모임을 가졌는데, 6월 24일 주제는 상완신경총 및 말초 신경 손상 재건술의 선구자인 김상수 마이크로병원 원장님을 모시고 상완신경총 병증과 치료법 강의를 듣고 질의 시간과 이후 증례 토론시간을 가졌으며 Zoom 회의도 동시에 진행했다.

2023년 8월 26일은 제12차 범호 척추신경 연합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한척추신경학회 학술위원회는 김영배(학회 회장), 장봉순, 안동기, 홍재영, 강민석, 이석중, 이정섭, 강경중, 구기형, 김성수, 함대웅, 김용호, 홍철기, 오성균(학회 총무), 황창주 위원이, 추계학술발표위원회는 장봉순(위원장), 오성균(학회 총무), 이석중, 김성수, 김용호 위원이, 자문위원회는 안동기(위원장), 장봉순, 선승덕, 심대무, 김영배, 남우동, 나기호, 이정섭, 전득수, 손홍문 위원이, 증례위원회는 선승덕(위원장), 김대근, 박상민, 이재욱, 최병완, 강경중, 김상범, 김호중, 신성기, 서은민, 권기연, 김동희, 공창배, 최성훈, 최대정, 김주는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영배 회장은 “척추신경연구학회는 중추 신경 및 말초 신경과 관련된 모든 해부학적 부문의 생리, 질환, 그리고 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자 매 짝수 달의 마지막 금요일에는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다양한 주제와 어려운 증례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지식과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역대 임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07	위원장	장 한	가톨릭대학교
	총무	양준영	충남대학교
2008	위원장	장 한	가톨릭대학교
	총무	양준영	충남대학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09	위원장	심대무	원광대학교
	총무	양준영	충남대학교
2010	위원장	심대무	원광대학교
	총무	양준영	충남대학교
2011	위원장	심대무	원광대학교
	총무	양준영	충남대학교
2012	위원장	장봉순	서울대학교
	총무	안동기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2013	위원장	장봉순	서울대학교
	총무	안동기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2014	위원장	안동기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총무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015	위원장	안동기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총무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016	위원장	나기호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정형외과
	총무	김영배	중앙보훈병원
2017	위원장	나기호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정형외과
	총무	김영배	중앙보훈병원
2018	위원장	나기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총무	오성균	원광의대 산본병원
2019	위원장	나기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총무	황창주	서울아산병원
2020	위원장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
	총무	구기형	참조은병원
2021	회장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
	총무	구기형	참조은병원
2022	회장	김영배	중앙보훈병원
	총무	오성균	원광의대 산본병원
2023	회장	김영배	중앙보훈병원
	총무	오성균	원광의대 산본병원

활동 및 연수강좌

매해 거르지 않고 1년에 6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딱수달 마지막 금요일 기준).

1. 2007년 제1차 연수강좌				
일시	2007. 2. 10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2. 2009년 제2차 연수강좌: 척추 손상의 현재와 미래				
일시	2009. 2. 21	장소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3. 2013년 척수신경연구회·기초연구회 합동 심포지엄				
일시	2013. 5. 17~18	장소	대구 인터볼고호텔	
4. 정기 증례 토론회				
매 짝수달 마지막 금요일에 학술모임을 개최함.				
5	2015	척수신경연구학회 정기모임	6회	
6	2015	척수신경연구학회 학술 대회	2015. 5. 1.~2.	부산 롯데호텔
7	2016	척수신경연구학회 정기모임	6회	
8	2016	척수신경연구학회 학술 대회	2016. 5. 21.~22.	전주 르윈호텔
9	2017	척수신경연구학회 정기모임	6회	대한 정형외과 학회 회의실
10	2018	기초연구회 - 척수 신경 연구회 연합 학술 집담회	2018. 1. 26.	광주 기독병원 제중홀
11	2018	척수신경연구학회 정기모임	6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12	2019	척수신경연구학회 정기모임	6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13	2019	척수신경연구회 심포지엄	2019. 8. 31~9. 1	해운대 백병원
14	2020	척수신경연구학회 정기모임	6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15	2021	척수신경연구학회 정기모임	6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16	2022	척수신경연구학회 정기모임	6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17	2022	척수신경연구학회 학술 대회	2022. 4. 29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18	2023	척수신경연구학회 정기모임	6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2015년 척수신경연구학회 심포지엄-부산 롯데호텔



2015년 척수신경연구학회 심포지엄. (좌로부터) 김창수, 남우동, 장봉순, 김성수 회원



2015년 척수신경 연구학회 가족 야유회 - 부산
(시계방향으로) 안동기, 오성균, 장봉순, 김영배,
남우동, 서봉수, 구기형 회원 및 가족



2016년 척추신경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움 -
전주 호텔르윈



2016년 척수신경연구학회 가족 야유회 - 전주한옥마을
(좌로부터) 신원식, 김성수, 김대근, 안동기, 나기호, 김영배, 오성균, 강경중 회원 및 가족



2016년 척수신경연구학회 초청강의
(뒷줄) 신성기, 안동기, 신원식 회원
(앞줄) 양재혁, 강기서, 나기호 회원



2016년 척수신경연구학회 수술 중 척수 신경 손상 및 모니터링 강의. (좌로부터) 강경중, 장봉순, 양재혁 회원



2017년 척수신경연구학회 심포지엄 후 2차 모임
(시계방향으로) 강민석, 김영배, 이재욱, 강경중, 김영율, 나기호, 안동기, 황창주, 심대무, 오성균 회원



2018년 척수신경연구학회 심포지엄 후 2차 모임
(시계방향으로) 강경중, 나기호, 오성균, 황창주, 이재욱, 강민석, 박상민, 이석중, 신원식, 김영배, 안동기, 심대무 회원



2022년 척수신경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엄 - 강원대학교



2022년 척수신경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엄 후 2차 모임
(좌로부터) 강경중, 선승덕, 안동기, 남우동, 김영배, 오성균, 김대근, 홍철기, 심대무 회원



2022년 척수신경연구학회 4차 정규학술모임 - 정형외과학회 사무실
(좌로부터 2열) 한별, 오성균, 김백규, 김용호, 함대웅, 이주영 (1열) 구기형, 선승덕, 안동기, 김영배, 황창주 회원



2022년 척수신경연구학회 5차 정규학술모임 - 상완신경총병증
(시계방향으로) 김성수 원장(강의), 선승덕, 최용수, 안동기, 김영배 회원



2023년 척수신경연구학회 1차 정규학술모임 - 흉곽출구 증후군
(좌로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최윤락 교수(강의), 김영배 회원

제6장 제6절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



민우기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 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역사가 출범한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척추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고 훌륭한 업적도 쌓이면서 학회가 국제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척추관련 기초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더 대두됨에 따라 2008년도에 기초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같은해 2008년 3월 제1회 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가톨릭의대 김기원 교수가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3년도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구회를 활발하게 이끌었다. 기초연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마다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회원들이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여 척추 기초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나아가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가 임상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0년에는 처음으로 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때 심포지엄을 구성

하여 추계학술대회 기초연구회 세션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7년부터는 독자적인 별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2017년 2월 3일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 및 심포지엄이 열렸고, 2017년 6월 16일에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척추기초연구회 2차 회의 및 심포지엄이 열렸다. 2018년과 2019년은 추계학술대회 기초연구회 세션 심포지엄을 진행하였고 코로나상황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0년 12월 16일 척추기초연구회 심포지엄, 2021년 6월 25일 척추기초연구회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후 2022년부터는 기초연구회에서 척추기초연구학회로 승격되었으며 심포지엄을 연 2회로 늘려, 2022년 2월 18일과 2022년 9월 17일 개최하였고, 2023년 5월 25일, 2023년 9월 23일 추계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9월 추계 심포지엄의 주제는 “동작 분석 기술 및 인공신경망 기법의 척추 분야 활용, BMP2의 검증된 성능 및 확장 가능성,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서 성장인자 치료” 등 흥미로운 주제로 폭넓고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였으며 열띤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는 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자문위원회에 강창남, 김기원, 김진환, 민우기(학회 회장), 이재협, 최용수 위원이, 운영위원회는 김영율, 송광섭, 신재혁, 양재준, 이준석(학회 총무) 위원이, 학술위원회는 고상봉, 박문수, 문성환, 이동호, 김호중, 김형민, 어재형, 이호진, 원유건, 이강식 위원이, 편집위원회는 고종현, 김상일, 김성규, 김태환, 박세한, 박현진, 박형열, 이병호, 유창훈, 장동균, 장민구, 조민준, 하정기, 조성탄 위원이, 특별회원으로는 김윤혁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민우기 회장은 “척추기초연구학회의 목적은 척추에 관련된 다양한 기초 연구를 촉진시키고 연구자 간의 정보교류를 장려하며,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성과와 지식을 나눔으로써 척추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척추 기초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다.

역대 임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07	위원장	하기용	가톨릭대학교
	총무	김기원	가톨릭대학교
2008	위원장	김기원	가톨릭대학교
	총무	이상훈	경희대학교
2009	위원장	하기용	가톨릭대학교
	총무	이상훈	경희대학교
2010	위원장	하기용	가톨릭대학교
	총무	이상훈	경희대학교
2011	위원장	김기원	가톨릭대학교
	총무	이상훈	경희대학교
2012	위원장	김기원	가톨릭대학교
	총무	이재협	서울대 보라매병원
2013	위원장	김기원	가톨릭대학교
	총무	이재협	서울대 보라매병원
2014	위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
	총무	이재협	서울대 보라매병원
2015	위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
	총무	이재협	서울대 보라매병원
2016	위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
	총무	박문수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2017	위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
	총무	신재혁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2018	위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
	총무	신재혁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2019	위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
	총무	신재혁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2020	위원장	김진환	인제대 일산백병원
	총무	김영울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2021	회장	이재협	서울대 보라매병원
	총무	김영울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22	회장	이재협	서울대 보라매병원
	총무	김영울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2023	회장	민우기	경북대학교병원
	총무	이준석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2024	회장	민우기	경북대학교병원
	총무	이준석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활동 및 연수강좌

1. 2008년 제1차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일시	2008. 3. 15	장소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2. 2009년 제2차 학술대회			
일시	2009. 8. 29	장소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3. 2010~2016 대한척추외과추계학술대회 중 기초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4. 2017년 척추기초연구회 1차 회의 및 심포지엄			
일시	2017. 2. 3	장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5. 2017년 척추기초연구회 2차 회의 및 심포지엄			
일시	2017. 6. 16	장소	여의도 성모병원 건진센터라운지
6. 2017년 척추기초연구회 제4차 심포지엄			
일시	2017. 10. 27	장소	서울한양대병원 신관 6층 세미나실
7. 2018년 기초-척추연구회 연합학술집담회			
일시	2018. 1. 26	장소	광주기독병원 제중홀
8. 2020년 척추기초연구회-척추신경연구회 합동 심포지엄			
일시	2020. 2. 8	장소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G층 대강당
9. 2021년 척추기초연구회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21. 6. 25	장소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20층 세미나룸

10. 2022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일시	2022. 2. 18	장소	중구 센트럴타워 방사선 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
내용	요통 및 연골종판에 대한 연구 경향, 글로벌 임상데이터 공유망, 모바일 웨어러블 동작분석 기술 및 mRNA 백신치료제		
11. 2022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일시	2022. 9. 17	장소	경북대학교 응급병동 10층 제1세미나실
12. 2023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대한척추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중)			
일시	2023. 5. 25	장소	롯데호텔
13. 2023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23. 9. 23	장소	대전성모병원 9층 상지관
내용	동작분석 기술 및 인공지능경망 기법의 척추분야 활용, BMP2의 검증된 성능 및 확장 가능성,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서 성장인자 치료		
14. 2024년 제3회 척추기초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24. 1. 19	장소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G층 대강당



2013년 척추기초연구학회 회의
(좌로부터) 김태환, 양재준, 송광섭, 이병호, 김영울, 김진환, 김기원, 이재협, 박문수, 김호중, 유창훈 회원



2014년 41회 ISSLS - Seoul
(좌로부터) 최용수, 김진환 회원



2015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 광주기독병원



2018년 기초-척수연구학회 연합학술집담회 - 광주기독병원
모두 발언 중인 정재운 회원



2018년 기초-척수연구학회 연합학술 집담회 - 광주기독병원



2021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후 2차 모임
(시계방향으로) 장동균, 양재준, 박형열, 이근우, 박종범, 신재혁, 김진환, 김영울, 이재협, 이준석 회원



2022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 대구



2022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후 2차 모임
(시계방향으로) 양재준, 민우기, 김진환, 최용수, 안면환, 신원신, 박형울, 박종범, 이재협, 이준석, 송광섭 회원



2023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2023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척추기초연구학회 회장 이재협 회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좌로부터) 최용수 회원과 Dr. Areesak, Chris(말레이시아 척추외과학회 회장), 그리고 Wongthawat



2023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 척추기초연구학회 심포지엄
(좌로부터) 민우기, 이준석, 신병준 회원



2023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추계 심포지엄 - 대전성모병원



2023년 척추기초연구학회 추계 심포지엄 후 운동 모임
(좌로부터) 장민구, 김성규, 양재준, 이준석, 민우기, 김영울, 박형열, 정호영 회원

제6장 제7절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김진환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회장)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정의에 의하면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미세 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골질량과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을 나이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 전문가들은 어린이, 청소년기부터 뼈를 튼튼하게 관리하면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골다공증에 대한 다양한 국내 연구조사가 있었다. 2010년 국내 지역 코호트 기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요추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 24%, 남성 12.9%였다.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하며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상당히 심각해진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흔하게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의 경우 골절 발생 후 10명 중 1명이 1년 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회복되더라도

골절 발생 1년 이후 활동 정도를 확인해 보면 10명 중 4명은 혼자 걷지 못하고, 6명은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8명은 보조 보행기를 사용해야 한다.

척추 골절의 경우 100명 중 3명이 1년 내 사망하며, 2개 이상의 골절이 발생하면 허리 통증, 소화불량, 옆구리 통증으로 고통받으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꼬부랑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되는 등 사회활동 제약, 자존심 상실 등 많은 일이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골다공증은 척추수술을 시행하는 척추 전문의들에게는 환자의 수술 예후나 감압, 고정술 후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골다공증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척추골다공증연구회는 2009년 3월 12일 첫 회의를 가졌으며, 울산의대 이춘성 회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인하의대 조규정 회원을 총무로 임명하였다. 또한 강철형(계명의대), 김동준(이화의대), 김응하(순천향의대), 김진혁(인제의대), 김영훈(가톨릭의대), 문성환(연세의대), 박예수(한양대의대), 서형연(전남의대), 이재협(보라매병원), 최용수(광주기독병원), 박시영(고려의대), 이규열(동아의대) 위원 등 회장, 총무 이하 12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였다.

연구회 발족 후 2009년 11월 28일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2010년 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골다공증 검사와 약물치료 시 유의사항과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문제점과 결과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벌였으며, 자유 연제의 발표도 병행하였다. 2011년 9월 제2대 강철형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박예수 총무를 임명하였다. 2011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골의 생리, 골 밀도와 골질 등을 기초로 한 골다공증의 기본 이론과, 다양한 약제를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Kummell 질환의 정의, 병인, 진단, 치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에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최초로 연구회 자체 전문가 심포지엄을 시행하였다. 또한 척추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골다공증의 실질적인 가이드 라인과 함께 골다공증 분야의 최신 이슈 논의, 추체 성형술, 후만 성형술에 대한 찬반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후 많은 성원에 힘입어 위원장, 총무 이하 21명의 위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3년에는 4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부산지역에서 연구회 자체의 2차 전문가 심포지엄을 마련하여 골다공증의 맞춤 치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척추변형연구회와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뜻깊은 해인데, 7월 2일 성황리에 열렸다. 그리고 매년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집담회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7년 7월 1-2일 집담회, 2018년 3월 17일 제1차 골다공증연구회 집담회, 2019년 7월 20일 2019년 제2차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집담회, 2019년 11월 22일 2019년 제3차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집담회를 가진 바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며 2021년 12월 3일 우리 연구회는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마지막 심포지엄은 대한요추연구학회와 대한골다공증연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022년 12월 3일 열린 합동 심포지엄은 골다공증 약물치료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수술에 있어 최신 전략, 다양한 증례 토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관심있는 주제인 근감소증(sarcopenia) 및 노쇠(frailty)에 대한 가장 최신 지견을 전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근감소증 및 노쇠 세션에서는 두 학회가 나누어 각각 심도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토론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요추 및 골다공증에 대한 최신 지견 및 정보의 교류는 물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다지고 두 연구학회가 서로 상생하여 한 단계 더 학문적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2023년도에 들어와 3월 24일 춘계 심포지엄은 anabolic agents(골형성제제)의 치료 순서 등을 알아보는 세션과, 골다공증의 기본이 되는 Wnt signaling을 포함한 병태생리에 대한 외부 초청 연자 강의,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에서 빠질수 없는 MRONJ에 대한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님의 초청 강연으로 춘계 심포지엄을 치렀다. 그리고 2023년 6월 24-25일 2차 척추골다공증-변형연구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2022년에 이어 개최하였으며,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는 2023년 9월 15일에 열렸다.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운영위원회는 김진환(학회 회장), 이병호(학회 총무), 안재성, 신동은, 김영우, 전득수, 이재철, 박시영, 김영훈, 홍재영 위원이, 학술위원회는 박형열, 고태식, 장해동, 소재완, 홍창화, 양재혁, 민우기, 이준석, 임동주, 박진성 위원이, 자문위원회는 김진혁, 김학선, 김환정, 박예수, 문성환, 신병준, 김용하, 고영도, 조규정, 이규열 위원이, 교육위원회는 류기원, 신현규, 이재협, 서형연, 백종민, 김태훈, 유정현, 이정희, 김민석, 정희웅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은 신상익, 김정훈, 구기형, 강철형, 김동준, 안기찬, 김동수, 이수빈, 박지원, 장삼열 위원 등이다.

김진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의 최근의 중점적 지향점은 골다공증 치료제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anabolic agents(골형성제제)”을 통한 치료, “surgical techniques for osteoporotic spine(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에서의 척추수술 술기)”, 그리고 “frailty(쇠약)”와 관련된 연구와 개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railty 와 관련해서는 유관된 모임인 척추변형 연구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연구학회가 지향하는 여러 분야에서 골다공증 연구의 경계를

넓히고, 골다공증이 동반된 척추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연구학회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역대 임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09	위원장	이춘성	울산대학교
	총무	조규정	인하대학교
2010	위원장	이춘성	울산대학교
	총무	조규정	인하대학교
2011	위원장	이춘성	울산대학교
	총무	조규정	인하대학교
2012	위원장	강철형	계명대학교
	총무	박예수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교실
2013	위원장	강철형	계명대학교
	총무	박예수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교실
2014	위원장	강철형	계명대학교
	총무	박예수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교실
2015	위원장	박예수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교실
	총무	박시영	고대안암병원
2016	위원장	박예수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교실
	총무	박시영	고대안암병원
2017	위원장	박예수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교실
	총무	박시영	고대안암병원
2018	위원장	문성환	신촌세브란스병원
	총무	박시영	고대안암병원
2019	위원장	문성환	신촌세브란스병원
	총무	박시영	고대안암병원
2020	위원장	문성환	신촌세브란스병원
	총무	박시영	고대안암병원
2021	회장	김진환	일산백병원
	총무	임동주	상계백병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22	회장	김진환	일산백병원
	총무	임동주	상계백병원
2023	회장	김진환	일산백병원
	총무	이병호	강남세브란스병원

활동 및 연수강좌

1. 2009년 창립기념 연수강좌									
일시	2009. 11. 28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원장	이춘성	총무	조규정	참가자	120명
2. 2016년 척추골다공증연구회와 척추변형연구회 합동 심포지엄									
일시	2016. 7. 2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3. 2017년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집담회									
일시	2017. 7. 1~2	장소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4. 2018년 1차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집담회									
일시	2018. 3. 17	장소	한양대 구리병원						
5. 2018년 2차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집담회									
일시	2018. 8. 11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6. 2019년 제2차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집담회									
일시	2019. 7. 20	장소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강당						
7. 2019년 제3차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집담회									
일시	2019. 11. 22	장소	신촌세브란스병원						
8. 2021년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21. 12. 3	장소	세종대 AI센터 12층						
내용	골다공증 약물치료,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수술에 있어 최신 전략 및 근감소증(sarcopenia) 및 노쇠(frailty)에 대한 가장 최신 지견 토의								
9. 2022년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심포지엄									
일시	2022. 6. 24	장소	고려대학교 본교-100주년 기념관						

10. 2022년 대한요추연구학회-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합동 심포지엄			
일시	2022. 12. 3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 AI 홀
11. 2023년 제1차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23. 3. 24	장소	대웅제약 신관 베어홀
내용	anabolic agents의 치료 순서, Wnt signaling을 포함한 병태 생리에 대한 초청 연자 강의, 골다공증 치료에서 MRONJ에 대한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의 초청 강연		
12. 2023년 제2차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척추변형연구학회 공동 심포지엄			
일시	2023.6.24~25	장소	해운대 센트럴호텔
13. 2023년 제3차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23. 9. 15	장소	유일한 홀(신촌세브란스병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 1층)



2015년 골다공증연구학회 동계 심포지엄



2015년 12월 16일 골다공증연구학회 비평집 작성 예비 모임



2016년 골다공증연구학회 동계 심포지엄 - 강북삼성병원



2017년 7월 1일 척추변형연구회 및 척추골다공증연구회 합동 심포지엄 - 부산 동아대병원



2017년 척추골다공증연구회 저녁 모임



2019년 제2차 골다공증연구회 심포지엄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019년 제2차 골다공증연구회 심포지엄 후 친목모임



2023년 3월 24일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1차 심포지엄(회장 김진환, 총무 이병호)



2023년 9월 15일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3차 심포지엄



2023년 12월 22일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송년 모임

제6장 제8절

대한척추통증연구학회



선승덕
(대한척추통증연구학회 회장)

대한척추통증연구학회는 척추 통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2013년에 출범하였다. 심대무 초대 회장이 창립과 연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후 안동기, 최용기 회장이 역임했다.

그동안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것을 위주로 연구, 발표가 이루어졌으나 많은 척추외과 학회 회원들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한 통증의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정형외과 척추 의사보다 다른 과에서 척추 통증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유행을 시키곤 했었다. 하지만 학술적인 근거가 없는 척추 통증치료가 무분별하게 만연하였고 과학적 자료는 부족하였으며 이는 환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이에 비수술적 척추 통증치료를 학술적 근거를 연구하고 또 향후 척추 통증치료와 그에 따른 분석과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자 척추 통증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척추통증연구회는 척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및 기전 그리고 기전의 이해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그 중점적인 연구 분야로 한다. 아직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하고 행해지는 여러가지 척추 통증에 대한 치료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능한 합당한 의학적 증거를 찾고자 한다.

관심 주제로는 대표적으로 TPI, 프롤로 치료, 충격파, 도수 치료, 운동 치료, 초음파 유도하 주사 치료, C-arm 유도하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수핵 성형술 등이 있으며, 여러 시술뿐만 아니라 척추 통증 기전에 따른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발표와 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척추통증연구회는 2015년 첫 사업으로 6월 7일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연기되어 첫 사업은 2015년 8월 15일 2015년 강원도 초음파 증재술 워크숍이 차지하게 되었고,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초음파 유도하 증재술(Ultrasound-guided intervention)과 흉추 통증에 대한 TPVS block, MBB 등 새로운 치료들” 내용으로 11월 15일 개최하였다. 2016년에는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는데, 2016년 1월 31일 열린 2016 부산 초음파 증재술 워크숍과, 2016년 5월 1일 개최된 광주 척추 초음파 증재술 워크숍이었다.

2017년의 경우 6월 9월 12월 3번의 정기 심포지엄을 가졌고, 2018년에는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 정기 심포지엄을 가졌으며, 2019년에는 9월과 12월 2회 정기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에는 모임을 가지고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온라인을 병행하여 방역지침을 지키며 총 4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23년부터 완전 정상화되었다. 이처럼 척추통증연구학회는 매년 정기모임을 가지며 통증 관련 여러 주제에 대한 연구 및 발표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임상에서 마주하는 실질적인 각자의 경험을 진솔하게 공유하는 케이스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척추통증연구학회 운영위원회는 선승덕(학회 회장), 박대현(학회 총무) 위원, 자문위원회는 심대무, 안동기, 최용기, 김용찬, 이승환 위원이, 학술위원회는 권지원, 김영태, 김창수, 김태훈, 김영배, 서승표, 이근우, 이창욱, 이한솔, 최진만 위원이, 편집위원회는 김창수, 김남후, 안태근, 남대진, 권병택, 김정환, 고광표, 차재룡, 김대희, 정기웅, 임창무, 이석중, 이재욱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은 김환정, 박수안, 박종범, 백승일, 송광섭, 이호진, 전창훈, 정승기, 조재환 위원 등이다.

선승덕 회장은 “현재 의료 현실에서 환자들은 더욱더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한 척추 통증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구학회는 이러한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대한척추통증연구학회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이 분야

에 대한 연구와 토론, 발표를 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수술적 척추 통증 해결에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고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역대 임원

연도	직책	성함	소속
2014	위원장	심대무	광주보훈병원
	총무	문상호	서울성심병원
2015	위원장	심대무	광주보훈병원
	총무	문상호	서울성심병원
2016	위원장	심대무	광주보훈병원
	총무	김용찬	강동경희대병원
2017	위원장	안동기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총무	김용찬	강동경희대병원
2018	위원장	안동기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총무	김용찬	강동경희대병원
2019	위원장	최용기	서울초이스병원
	총무	김용찬	강동경희대병원
2020	위원장	최용기	서울초이스병원
	총무	이승환	마스터연세정형외과의원
2021	회장	최용기	서울초이스병원
	총무	이승환	마스터연세정형외과의원
2022	회장	최용기	서울초이스병원
	총무	이승환	마스터연세정형외과의원
2023	회장	선승덕	선정형외과
	총무	박대현	부산백병원

활동 및 연수강좌

1. 2014년 제1회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4. 6. 28	장소	
2. 2014년 제2회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4. 7. 26	장소	
3. 2014년 제3회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4. 9. 27	장소	
4. 2014년 제4회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4. 10. 18	장소	
5. 2014년 제5회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송년회			
일시	2014. 12. 6	장소	
6. 2015년 척추통증연구회 강원도 초음파 중재술 워크숍			
일시	2015. 8. 15	장소	강릉아산병원 세미나실 (연구동 지하 1층)
7. 2015년 척추통증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 척추 초음파 중재술 워크숍			
일시	2015. 11. 15(일)	장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내용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Ultrasound-guided intervention)과 흉추 통증에 대한 TPVS block, MBB 등 새로운 치료		
8. 2016년 척추통증연구회 부산 초음파 중재술 워크숍			
시간	2016. 1. 31	장소	해운대백병원 세미나실
9. 2016년 척추통증연구회 광주 척추 초음파 중재술 워크숍			
시간	2016. 5. 1	장소	전남대병원 6동 7층 강당
10. 2017년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7. 6. 10	장소	부산
11. 2017년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7. 9. 9	장소	군산
12. 2017년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7. 12. 9	장소	서울

13. 2018년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8. 3. 10	장소	서울
14. 2018년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8. 6. 30	장소	대전유성호텔
15. 2018년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8. 9. 1	장소	강릉
16. 2018년 척추통증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18. 12. 8	장소	서울
17. 2019년 척추통증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9. 9. 21	장소	광명성애병원 6층 대강당
18. 2019년 척추통증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9. 12. 14	장소	밀레니엄 힐튼호텔(3층) 토파즈홀
19. 2021년 1차 척추통증연구학회 춘계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21. 3. 20	장소	zoom 온라인
20. 2021년 2차 척추통증연구회 하계 정기 심포지엄			
일시	2021. 6. 19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내용	경추통 및 요통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		
21. 2021년 4차 척추통증연구회 동계 심포지엄			
일시	2021. 12. 18	장소	밀레니엄 힐튼호텔 3층 코랄룸(서울역 8번 출구)
내용	척추와 관련된 주제 및 Stem cell therapy에 대해 외부 연자 특별강연		
22. 2022년 1차 척추통증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22. 3. 19	장소	온라인
내용	Update in modality of spinal pain 과 Bipotal endoscopic surgery의 최신지견		
23. 2022년 2차 척추통증연구학회 하계 심포지엄			
일시	2022. 6. 18	장소	온라인
내용	어깨 및 둔부 통증의 감별진단 및 치료와 요통의 비수술적 치료		
24. 2022년 3차 척추통증연구학회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22. 9. 17	장소	고신대 복음병원 6동 5층 대강당

25. 2022년 4차 척추통증연구학회 동계 심포지엄			
일시	2022. 12. 17	장소	광명성애병원 6층 대강당
내용	척추외과 관련된 여러 주제와 경희대 김용찬 교수님의 강연		
26. 2023년 1차 척추통증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엄			
일시	2023. 3. 18	장소	중앙보훈병원 지하2층 강당
내용	비특이적 요통의 원인과 치료 및 척추 통증치료 약물의 기전과 부작용		
27. 2023년 2차 척추통증연구학회 하계 심포지엄			
일시	2023. 6. 10	장소	부산 아스티호텔
내용	Treatment of non-radicular pain from spinal origin이라는 주제와 최용기 회장의 퇴임 강연		
28. 2023년 3차 척추통증연구학회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23. 9. 16	장소	광명성애병원 6층 대강당
29. 2023년 4차 척추통증연구학회 동계 심포지엄			
일시	2023. 12. 16	장소	



2014년 제1회 척추통증연구학회 심포지엄 - 삼성생명 사옥



2014년 제3회 척추통증연구회 심포지엄 - 삼성생명 사옥



2014년 제4회 척추통증연구회 심포지엄 - 삼성생명 사옥



2014년 제5회 척추통증연구회 심포지엄 - 삼성생명 사옥



2015년 제6회 척추통증연구회 심포지엄 - 삼성생명 사옥



2015년 제7회 척추통증연구회 심포지엄 - 삼성생명 사옥



2015년 척추통증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 삼성생명 사옥



2015년 척추통증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 삼성생명 사옥



2016년 척추통증연구회 부산 워크숍 - 고신대학교병원
(좌에서 첫번째) 문상호 회원이 Instructor로 활동하였다.



2016년 척추통증연구회 부산 워크숍 - 고신대학교병원
(좌에서 다섯 번째) 고광표 회원이 Instructor로 활동하였다.



2016년 척추통증연구회 부산 워크숍 - 고신대학교병원



2016년 척추통증연구회 부산 워크숍 - 고신대학교병원



2017년 척추통증연구회 pre-meeting
(좌로부터 2열) 이승환, 최진만, 조재환, 이한술, 김영태 (1열) 김용찬, 안동기, 박대현, 김영배 회원



2017년 척추통증연구회 부산 하계 심포지엄 후 친교 모임
(좌로부터) 박종범, 박대현, 안동기, 최진만 회원



2018년 척추통증연구회 심포지엄 - 강릉아산병원



2019년 척추통증연구회 춘계 심포지엄



2019년 척추통증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 광명성애병원



2019년 척추통증연구회 동계 심포지엄 - 밀레니엄 힐튼호텔



2021년 척추통증연구회 동계 심포지엄 - 밀레니엄 힐튼호텔
(좌로부터) 이창욱, 이승환, 최용기, 외부강사, 김태훈, 안태근, 정기웅, 김영배 회원



2022년 9월 척추통증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 부산 고신대병원



2023년 척추통증연구회 춘계 심포지엄 - 중앙보훈병원



2023년 척추통증연구회 하계 심포지엄 - 부산 아스티호텔



2023년 척추통증연구회 하계 심포지엄 후 친교 모임
(좌로부터) 이창욱, 이승환, 김대희, 윤상필, 선승덕, 박대현, 안동기, 김창수 회원



2023년 척추통증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 광명성애병원



2023년 척추통증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후 2차 모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Xiongjie Li, Dr. Billy Francis Yu Hung,
박대현, 차재룡, 이한솔, 김용찬, 김대희, 이재욱, 이창욱, 김지현 회원



2023년 척추통증연구회 송년회 - 광명 중앙대병원
(시계방향으로) 안태근, 이창욱, 서승표, 심대무, 김창수, 이한솔, 안동기, 최용기, 박대현, 선승덕 회원

대한척추외과학회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

대한척추외과학회 40주년: 과거를 기리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미래 비전 및 발전 방향 선언

미래 비전 선언 4대 전략

전략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신념

골과목을 파 잇 관을 (髓管)이라 하는 구멍을 파진 뒤와 (眞髓)가 뒤(假髓)의 두가
지로 나누라
(二)진퇴는 오트二十四寸內에서 팔을 여섯지아 나중 요각각은 통을 두는 거
디목과 허리와 잇 가슴의 부위를 두는 아를 다 세 구별한 예우히 나
경퇴(頸椎)라 하고 아태五지를
요퇴(腰椎)라 하고 가온의十二지를
흉퇴(胸椎)라 하는 나

제7장 제1절

대한척추외과학회 40주년: 과거를 기리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1984년, 겨우 20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척추질환의 연구 및 치료를 통해 인류의 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 아래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창립되었다. 이 순간부터, 학회는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2024년 현재,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학문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글은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학회가 이루어낸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를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그동안 척추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있어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2007년에는 *Asian Spine Journal*을 창간하여 아시아 지역의 척추질환 연구에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하였으며, 2014년에는 회원 수가 650명을 돌파하는 등 규모 면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더욱이, 2020년에는 학회 창립 이래 첫 국제학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학술 커뮤니티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고, 이러한 성취는 학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 및 학문적 열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학회는 현재,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제화

된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 그리고 척추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 상승은 학회가 직면한 주요 쟁점들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회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보다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본 글은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학회가 지난 40년간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는 동시에, 앞으로 10년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학회의 미래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회의 내실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교육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척추 진료의 표준화를 선도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할 예정이다.

본문은 학회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보고, 현재의 성취를 평가하며, 미래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어떻게 세계적인 학문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회원들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 받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기념하고 현재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학회의 다음 장을 함께 써 나갈 것이다.

제7장 제2절

미래 비전 및 발전 방향 선언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창립 이래로 40년간 척추질환의 연구 및 치료를 통해 인류의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 긴 여정을 거치며 학회는 국내외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으며,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지난해 대한척추외과학회는 향후 10년간 학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다. 이 조사는 다음 10년간 학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의 순위를 정하고 학회의 방향성을 구하는 설문조사였는데, ‘합리적인 심평원 기준 마련’을 1순위(58명)로 뽑았다. 이는 학회 회원들 대부분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평가 기준 및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향후 대한척추외과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기준에 관련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빠르게 변하는 수술 술기 및 개념을 도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접근을 모색해야 하며, 심평원 기준에 관련한 심사위원 교육과 회원 교육 등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대국민 홍보 강화’(34명)로, 회원들이 척추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정보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학술적 근거에 기반한 척추질환의 이해와 치료법을 소개하고, 건강한 척추 유지를 위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활동을 알리고,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원들은 판단하였다.

3차 의견 수렴 결과 (2023 추계 학술대회 중)

향후 10년간 학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1순위: 합리적인 심평원 기준 마련 (58명)

2순위: 대국민 홍보 강화 (34명)

3순위: 척추 치료의 표준화 확립 (31명)

4순위: 정책 수립 참여 통로 확보 (18명)

5순위: 뛰어난 후임 양성 (16명)

6순위: 개원의 학회 참여 활성화 (12명)

7순위: 국제화의 내실화 (8명)

세 번째는 ‘척추치료의 표준화 확립’(31명)으로, 척추치료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항목이었다. 이것은 척추치료 프로토콜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학계와 임상에 적용해야 함을 뜻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각각 ‘정책 수립 참여 통로 확보’(18명)와 ‘뛰어난 후임 양성’(16명)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학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 세대의 척추외과 전문의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는 ‘개원의 학회 참여 활성화’(12명), 7번째는 ‘국제화의 내실화’(8명)로 이는 학회 활동에 더 많은 개원의들을 끌어들이고, 학회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다음 10년간의 미래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미래 비전 선언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지난 40년간의 성취를 기반으로, 학회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네 가지 핵

심 전략, 즉 Consolidation(내실화), Teaching(교육 강화), Longevity(지속 발전 가능성), Standardization(표준화)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다음의 세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1. 국제학회의 내실화
2. *Asian Spine Journal*의 SCIE 등재 과업 성취
3.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4. 심평원 기준의 합리적 기준 마련
5. 표준화된 척추 진료 지침서 제작
6. 회원의 실질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 도입
7.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위원회 구성
8. 개원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9. 전임의 교육 강화
10.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여기서 네 가지 핵심 전략[Consolidation(내실화), Teaching(교육 강화), Longevity(지속 발전 가능성), Standardization(표준화)]은 학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기틀이라 할 수 있다.

제7장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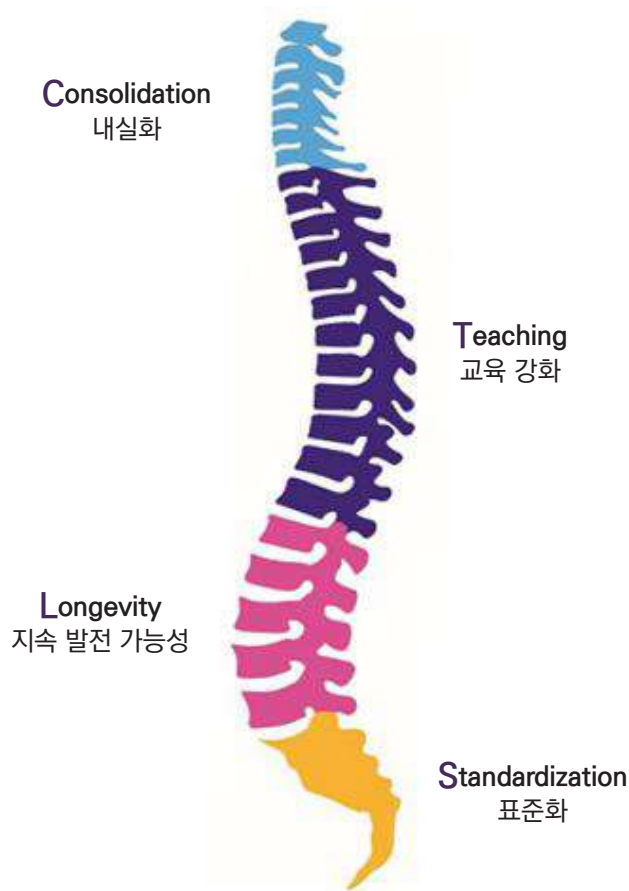
미래 비전 선언 4대 전략

1) Consolidation(내실화)

학회의 내실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내실화 과정을 통해, 학회는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제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또한, 내실 있는 학회 운영은 회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고, 척추외과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적 성과를 촉진한다. 이에 학회의 내실화는 향후 10년간 학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필수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하는 부분이며, 내실화 방향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및 학술 활동의 질적 향상

- 영문학회지 *Asian Spine Journal*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편집 정책을 강화하고, 높은 품질의 연구 논문을 유치한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회원들에게 소개한다.
-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제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국제 학술회의와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해외 유명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학회 회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다양한 국제 학술 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한다.

회원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품질 강화

- 전임의, 젊은 의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최신 척추외과 기술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온라인 교육 자료와 웹 세미나를 활용하여, 회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경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회원 참여 및 소통 채널 확대

- 학회 운영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회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 SNS, 학회 웹사이트, 뉴스레터 등을 통해 학회 활동과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외적인 소통을 강화한다.
- 회원들간의 교류와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Teaching(교육 강화)

척추외과학의 미래는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학회는 전임의 및 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척추외과학에 관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충할 것이다. 또한,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척추외과학의 학술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향후 척추외과학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강화의 방향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의 교육

- 척추외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 기술 개발, 임상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제공
- 세계적 수준의 척추외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 워크숍, 웨비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이 최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학습 편의성 증진

- 온라인 코스, 강의, 실시간 스트리밍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자신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첨단 척추외과 기술 및 수술 방법에 대한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실제 임상 상황을 모의하는 시뮬레이션과 가상 현실(VR)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실제 수술에 대비한 실질적인 경험 축적 지원

연구 지원 및 교육

-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 교육 및 연구 기금 지원
-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 게재하고,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연구 활동을 장려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의사로서의 경력 개발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의 평생 학습을 지원
- 경력 초기 의사부터 베테랑 의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Longevity(지속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학회가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젊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학회에 도입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학술 활동의 장려

- 학술행사의 친환경 운영: 모든 학술행사 및 회의에서는 전자문서 사용을 권장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회의와 웨비나를 적극 활용한다.

- 지속 가능한 연구 장려: 연구비 지원 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학회가 지속 가능한 의학 연구를 선도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 강화

- 공공 건강 캠페인 실시: 척추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건강 검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회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
- 다양성 및 포용성 촉진: 학회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기회를 얻고,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회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 자원 효율적 사용: 학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출을 최적화하여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 회원 참여 및 가치 제공 강화: 학회 활동과 연구에 대한 회원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이는 회원들의 만족도와 학회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킨다.

4) Standardization(표준화)

척추 진료의 표준화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목표이다. 학회는 척추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심평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척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학회는 척추 진료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여, 회원들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표준화의 목표

- 진료 지침서의 개발 및 보급: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척추질환의 진단 및 치료 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의료진에게 널리 보급한다. 이는 진료의 표준화를 통해 환자에게 일관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외 표준에의 부합: 국제적인 척추 진료 표준과의 일치를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니터 내에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전임의 및 실무 의료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척추 진료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는 더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로 이어지며,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제7장 제4절

전략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

각 전략별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학회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한다. 실행 계획에는 국제 학술 대회 활성화, 영문 학술지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대국민 홍보 활동의 다양화, 전임의 및 젊은 의료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활동 지원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 척추 진료의 표준화 작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부 실행 계획을 통해, 대한척추외과학회는 학문적 발전, 회원들의 건설적 교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학회, 국민들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학회, 세계 척추 학회를 학술적으로 선도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이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창립 40주년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이다. 우리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국내외적으로 더욱 인정받는 학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1) 내실화(Consolidation)

전략적 목표

- 학회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 학술지의 질적 향상 및 SCIE 등재

실행 계획

- 국제 학술회의 개최 강화: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의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척추외과 전문가들과의 지식 공유 및 협력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학술회의의 주제 선정, 초청 연사 선정, 프로그램 기획 등을 다변화하고, 체계화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식을 채택하여 더 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 *Asian Spine Journal*의 국제 인지도 제고: *Asian Spine Journal*의 품질 향상과 국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들을 편집위원으로 초빙하고, 투고 규칙의 국제적 표준화, 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SCIE 등재를 목표로 특별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연구 및 출판 윤리 강화 프로그램: 회원들에게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제공하여, 학문적 진실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국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대국민 홍보의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튜브,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의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반인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친화적인 홈페이지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2) 교육 강화(Teaching)

전략적 목표

- 전임의 및 실무 의료진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실행 계획

- 전임의 및 젊은 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척추외과 전문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

로그그램을 개발하여, 임상 실습, 최신 연구 동향, 첨단 치료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와 실제 임상 실습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성화: 웹 기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와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웹 세미나, 녹화된 강의, 대화형 Q&A 세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습 방식을 지원한다.
- 연구 지원 및 자원 확대: 젊은 연구자들이 척추외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 기금, 장학금, 연구 재료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연구 결과의 국제적 발표를 장려하기 위해, 학회는 발표 비용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인공 지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생교육 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해졌다. 이는, 척추 신기술 도입이나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워크숍 확대, 멘토-멘터링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행될 수 있다.

3) 지속 발전 가능성(Longevity)

전략적 목표

- 학회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
-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 유도

실행 계획

- 젊은 회원 참여 증진 프로그램: 학회 내에서 젊은 회원들이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리더십 트레이닝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젊은 회원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학회의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
-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위원회 설립: 학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며,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학회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 등을 담당한다.
- 다학제 간 협력 및 국제적 교류 확대: 척추외과학의 발전을 위해 다른 의학 분야, 기초 과학, 공학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의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한다.

- 개원의 위원회 발족 및 학회 참여 활성화: 개원의는 학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학회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원의 위원회를 발족하고, 학회 스케줄 조절 등을 통한 개원의의 학회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회를 지향한다.

4)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략적 목표

- 척추 진료의 표준화 및 일관성 확보
- 합리적인 심평원 기준 마련

실행 계획

- 척추 진료 지침서 개발: 척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진료 지침서를 개발한다. 이 지침서는 전국의 척추외과 의사들에게 배포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심사평가원 기준 마련 협력: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척추 진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학회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고, 기준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 지속적인 교육 및 인증 제도 마련: 전임의 및 임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에게는 인증을 부여한다. 이는 의료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에게 더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 비전을 위한 기반 마련과 각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학회는 모든 회원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제7장 제5절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신념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선포한 미래 비전이 향후 10년 후에는 현실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내실화, 교육 강화,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표준화를 핵심축으로 하는 우리의 전략과 실행 계획은, 학회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이 학회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이 전략들은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국내에서 최고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발전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학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학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열정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과정에서 학회는 투명성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회원들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척추외과학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적 업적을 달성하고, 회원들의 교류와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학회로서의 모습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우리는 학회의 미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국내 최고이자 국제적으로도 역량을 갖춘 학회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8장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칙 및 규정

제1절 회칙 및 규정

제2절 역대 임원 명단

글과목을 따와서 판을(版書)이라 하는 구별을 하였되 와(實權)가 회(假權)의 두가
지로 나누라
(一) 진회는 옥(二十)四 권이니 서로 함하여 보지 아니하고 각각 같은 통을 두는 것이니
덕목과 허다와 및 가슴의 부위를 본따서 아를 다 시 구별한 것이니 회(七) 권을
경회(頸權)라 하고 아 태(五) 권을
요회(腰權)라 하고 가슴의(十二) 권을
흉회(膺權)라 하는이니라



제8장 제1절

회칙 및 규정

1984년 창립 회칙

2001년 제2차 개정 회칙

2016년 11월 8일 개정

2022년 5월 27일 개정

1999년 제1차 개정 회칙

2013년 5월 24일 개정

2020년 8월 2일 개정

2023년 11월 17일 개정

* 역대 회칙 및 규정은 대한척추외과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2023년 11월 17일 개정)

명예회장 신설

명예회장 관련 조항: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 다) 명예회장, 제11조 (임원선출)

2002년 05월 24일 개정

2007년 05월 25일 개정

2011년 04월 07일 개정

2013년 05월 24일 개정

2016년 11월 08일 개정

2020년 08월 02일 개정

2022년 05월 27일 개정

2023년 11월 1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척추외과의 진보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기획, 연구홍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평의원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로 한다.

나)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에 있는 자

- 다)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 의사가 아닌 자
- 라) 명예회원 :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제적으로 의학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
- 마) 통신회원 : 외국 의사로서 척추외과 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본 학회에 공헌이 지대한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통신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제6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통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7조 (징계)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 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처분 또는 징계처분(경고, 정권, 제명 등) 할 수 있다. 정권 회원은 정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의원회에서 복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명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3년 경과 후 평의원회에서 복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제8조 (정규사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가) 척추외과학의 기획, 연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 척추외과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
- 나) 척추외과학 분야의 국민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척추외과학 보급을 위한 전시회 등의 개최 사업
- 다) 척추외과학의 교육, 홍보를 위한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제9조 (수시사업) 본회의 전조에 의한 사업 외에 평의원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 장: 1명
- 나) 차기회장: 1명
- 다) 명예회장: 0명

라) 평의원: 15명 이내 (직능 평의원: 별도 정원으로 3명 이내)

마) 총무: 1명, 부총무: 1명

바) 감사: 2명(서울 1, 지방 1)

제11조 (임원선출) 차기 회장, 감사의 선출은 자문위원과 평의원합동회의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명예회장의 선출은 본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전임 회장 중에서 자문위원과 평의원 합동회의에서 그 후보를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는 차기 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평의원) 평의원은 학회 정회원 중 평의원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 직능 평의원은 개원의 대표, 지회 대표 등을 포함하며 평의원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자문의원) 자문위원은 본회의 역대 회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평의원과 합동회의에서 차기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총무 및 부총무) 총무와 부총무는 평의원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시행한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의 유고 시 회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17조 (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나) 평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차기 회장은 평의원에 포함되며, 임기도 평의원 임기에 포함한다.

직능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총무와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마) 임원의 사업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기구 및 회의

제18조 (기구) 본회의 기구는 총회, 평의원회,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연구학회 및 지회로 구분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 회장이,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연구학회는 해당 회장이, 지회는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9조 (총회소집)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 척추외과학회 학술 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회원 3분의 1의 재청에 의해 소집된다.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임시총회는 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의결 정족) 총회의 제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 (총회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가) 정관의 개정 또는 변경
- 나) 사업 계획
- 다) 예산, 결산의 승인
- 라)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
- 마) 임원(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 바)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평의원)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면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결의하되 총회 부의 전에 그 회칙 개정안은 평의원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와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가)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 3)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 5) 예산 및 결산
- 6) 학술상 후보 논문의 선정, 구연 연제 학술상의 선정
- 7) 연구회의 활동 및 예산과 결산 심사 및 승인
- 8) 기타 평의원회에 부의된 사항

나) 평의원회는 전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나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및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로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경비의 충당)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에 이월한다.

가)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나) 찬조 및 기부금

다) 기타 수입금

제27조 (결산보고) 본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 30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는 평의원회 보고 후에 총회에서 감사가 보고한다.

제7장 정관효력

제28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칙에 의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위원회 및 연구회 업무규정(2022년 5월 27일 개정)

대한척추외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지의 발간을 주관하여, 이 학회지가 세계의 우수한 학회지가 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

- ① 편집위원은 20인 이하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이 중 1/3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편집위원장을 보조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3. 운영

(1) 심사위원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배정한 논문을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③ 심사위원은 척추외과학회지의 발전을 위하여 신속, 정확 및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논문을 A(무수정 통과),

B(지적사항 교정후 통과), C(지적 사항 교정 후 재심사), D(논문을 거의 새로이 작성하지 않는 한 게재 불가), E(거절)로 판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대한척추외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 매년 기초 2편과 임상 2편의 우수 학술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 규정

1. 목표

학회와 회원들의 학술 활동 및 의료 관련 행위에 대한 자문과 조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 및 위상 확립에 이바지한다.

2. 구성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는 학술 및 의료 평가위원장과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장

- ①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의 학술 및 의료평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

- ①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 위원 수의 수는 2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이 중 1/2을 교체할 수 있다.
- ③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3. 운영

- (1) 1년에 2회의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며, 임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학술대회에 응모한 논문을 심사 및 채택하며, 학술대회의 구성과 진행에 대한 안을 작성한다. 또한 학술대회 구연상의 대상자 선정에 참여한다.
- (3) 위원회는 학회 산하의 각 연구회 등이 주최하는 학술 및 교육 활동의 일정을 심사하고 조정한다.

- (4) 위원회는 의료 및 학술 활동에 대한 학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첩된 안전을 심의한다. 또한 의료 분쟁의 심의와 자문을 통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기강을 확립시키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전산위원회 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전산 업무와 동 학회지의 색인 발간 업무를 주관하며, 본 학회가 세계의 우수한 학회 수준의 전산 시스템과 색인을 가지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구성

전산위원회는 전산위원장과 전산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전산위원장

- ① 전산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전산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전산위원장은 전산위원회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전산 업무와 학회지 색인집 발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전산위원

- ① 전산위원은 12인 이하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전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이중 1/2을 교체할 수 있다.
- ③ 전산위원장은 전산위원 중에서 전산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전산위원장을 보조하여 전산업무 및 색인 편집에 대한 실무를 맡는다.

3. 운영

- ① 전산위원장은 전산위원회위원의 도움을 받아 학회 홈페이지 관리와 개선, 척추외과 회원 전산화 관리 등의 전산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전산위원은 전산위원장이 배정한 전산 및 색인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건의 사항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전산위원회의 개최는 학회장과 전산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특별한 소집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산위원회는 차기 개최 시기와 장소를 위원장과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후 폐회한다.
- ④ 색인집은 매년 마지막 호 척추외과 학회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제도위원회 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각종 제도의 제정 및 개선을 통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 구성

제도위원회는 제도위원장과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차기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1) 제도위원장

- ① 제도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제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③ 제도위원장은 제도위원회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의 각종 제도의 제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제도위원회의 운영

- (1) 제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및 제도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2) 제도위원회는 학회의 회칙 및 각종 위원회와 연구회의 규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필요 시 회칙 및 규정의 개선과 새로운 제정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평의원회의 검토와 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본회의 새로운 회칙 및 규정으로 효력을 가진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영문판학회지위원회 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 영문판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여, 본 학회지가 세계의 우수한 학회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구성

대한척추외과학회 영문판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편집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 된다.

(1) 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 영문판 학회지(*Asian Spine Journal*) 발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

- ① 국내 편집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국외 편집위원은 2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3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편집위원장을 보조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운영위원

- ① 편집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학회 회장, 차기 회장, 직전편집위원장, 자문위원 1인, 아시아태평양 척추학회 대표 2인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자문위원 1인 및 아시아태평양 척추학회 대표 2인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과 아시아태평양척추학회 대표 2인은 매년 새로 지명하되 재지명할 수 있다.

3. 운영**(1) 심사 위원**

- 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의 국내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배정한 논문을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중 1/2는 교체할 수 있다.

(2) 편집 위원

- 가)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하여 결정 한다.
- 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대한척추외과학회 영문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매년 기초 1편과 임상 1편의 우수 학술 논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운영위원

- 가)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나) 운영위원회는 영문판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학회지배포에 관한 사항, 광고에 대한 사항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보험위원회 규정

1. 목표

본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위원회로서 의료보험 전반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와 관련된 의료보험 분야의 홍보와 개선을 도모한다.

2. 구성

보험위원회는 보험위원장과 보험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보험위원장

- ① 보험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보험위원

- ① 보험위원은 30인 이하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보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보험위원장은 보험위원 중에서 보험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보험위원장을 보조하여 보험위원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3. 사업

보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의료보험 전반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 (2) 의료보험과 관련된 분야의 개선
- (3) 보험에 관한 연구, 검토 및 건의
- (4) 의료보험에 관련된 자문 및 질의 회신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업무규정

1. 목표

본회는 본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위원회로서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홍보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다.

2. 구성

홍보위원회는 홍보위원장과 홍보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한다.

(1) 홍보위원장

- ①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홍보위원

- ① 홍보위원회 위원은 10인 이하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을 교체할 수 있다.
- ③ 홍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홍보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총무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사업 홍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국내외 홍보
- (2) 언론 관련 홍보
- (3) 학회사 발간 사업
- (4) 학회 소식지 발간
- (5) 대외협력, 섭외에 관한 업무
- (6) 학회의 주요한 사료 수집 및 관리
- (7) 기타 홍보와 관련된 주요 사항

대한척추외과학회 교육위원회 업무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전임의 교육을 주 업무로 하며, 전임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학회에서 인증된 척추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구성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총무, 교육 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교육위원회 위원장

- 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주관하며, 전임의 교육 및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2) 교육위원

- ① 교육위원은 12인 이하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이중 1/2을 교체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교육위원장을 보조하여 교육위원회 활동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3. 운영

- ①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혹은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임의 교육을 신청한 수련 병원의 인증을 주관한다.
- ③ 위원회는 전임의를 대상으로 하는 실기 실습을 위임을 받아 주관한다.
- ④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실기 실습 등의 세부 운영 및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한다.
- ⑤ 위원회는 학회의 인증 조건을 충족한 전임의에 대해 평의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재정위원회 업무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소유한 자산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며, 학회 수익 증진을 추구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 구성

재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현회장, 차기회장, 전임회장, 현총무, 전임총무, 부총무이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3명(자문위원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1) 재정위원회 위원장

- ①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겸임한다.

(2) 재정위원

- ① 임명직 재정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학회 총무가 간사를 맡는다.
- ③ 감사는 제외한다.
- ④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수 있다.

3. 운영

- ① 재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재정위원회는 본 학회가 소유한 자산유지 및 관리, 수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학회 자산 목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수익활성화를 위해 연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요추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요추부 질환 및 외상의 연구와 국민 보건의 향상을 위한 기획, 연구, 홍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 향상과 업무의 개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요추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요추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요추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위원 중에서 요추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요추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연구학회 회원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

요추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요추 연구의 기획, 연구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요추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요추 연구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 사업
- (3) 요추질환에 대한 의료자문
- (4) 요추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경추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경추외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연구, 홍보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경추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경추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경추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위원 중에서 경추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경추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 경추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경추외과 연수강좌
- (2) 경추질환의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3) 경추질환에 대한 의료자문
- (4) 경추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척추변형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추의 변형 및 이에 동반된 질환의 연구와 국민 보건의 향상을 위한 기획, 연구, 홍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척추변형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척추변형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척추변형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위원 중에서 척추변형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추변형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연구학회 회원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 척추변형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척추의 변형 연구의 기획, 연구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변형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척추변형 연구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 사업

(3) 척추변형에 대한 의료자문

(4) 척추변형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추질환 및 외상의 최소침습적 치료에 대한 연구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기획, 연구, 홍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 향상과 업무의 개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①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위원 중에서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추변형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연구학회 회원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척추의 최소침습적 치료 연구의 기획, 연구 지원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척추의 최소침습적 치료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 사업

(3) 척추의 최소침습적 치료에 관련된 의료자문

(4) 본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척수신경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수 및 신경근에 관한 임상 및 기초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2. 구성

척수신경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① 척수신경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척수신경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위원 중에서 척수신경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수신경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연구학회 회원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 척수신경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척수 및 신경근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의 기획, 연구 지원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수 신경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척수 손상 치료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 사업
- (3) 척수 신경 손상의 치료 및 예후에 관련된 의료자문
- (4) 척수신경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기초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추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활성화, 발전, 향상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기초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기초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기초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위원 중에서 기초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기초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연구학회 회원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 기초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척추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기획, 연구 지원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기초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척추와 관련된 기초연구의 교육 사업

(3) 기초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골다공증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척추 병변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발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①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위원 중에서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연구학회 회원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 골다공증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척추외과 회원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사업
- (3) 골다공증 약제에 대한 조사 및 비교 사업
- (4)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척추통증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추 통증 분야에 대한 연구와 치료 방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혹시라도 난립할 수 있는 여러 통증치료들의 학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함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척추통증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척추통증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척추통증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 척추통증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척추 통증치료 연구의 기획, 연구 지원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 통증 분야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척추의 통증치료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사업
- (3) 척추의 통증 원인 및 치료에 관련된 의료자문
- (4) 척추통증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장 제2절

역대 임원 명단

연도	회장	평의원	감사	간사
1984	서광윤	김광희, 김기용, 김남현, 김형순, 문명상, 박병문, 석세일, 안병훈, 윤승호, 이영구, 주정빈	왕진만, 하권익	김남현
1985	안병훈	김광희, 김기용, 김남현, 김형순, 문명상, 박병문, 서광윤, 석세일, 윤승호, 이영구, 주정빈	왕진만, 하권익	김남현
1986	주정빈	김광희, 김기용, 김남현, 김형순, 문명상, 박병문, 서광윤, 석세일, 안병훈, 윤승호, 이영구	왕진만, 하권익	김남현
1987	김광희	김기용, 김남현, 김형순, 문명상, 박병문, 서광윤, 석세일, 안병훈, 윤승호, 이영구, 주정빈	조덕연, 조재림	왕진만
1988	석세일	김광희, 김기용, 김기수, 김남현, 문명상, 박병문, 서광윤, 안병훈, 윤승호, 이영구, 주정빈	조덕연, 조재림	왕진만
1989	박병문	김광희, 김기용, 김남현, 김기수, 문명상, 서광윤, 석세일, 안병훈, 윤승호, 이영구, 주정빈	김홍태, 정영기	왕진만
1990	문명상	김기용, 김기수, 김남현, 김영태, 박병문, 석세일, 윤승호, 이규성, 이영구, 조재림, 조재림	김홍태, 정영기	왕진만
1991	윤승호	김기용, 김기수, 김남현, 김영태, 김홍태, 문명상, 박병문, 석세일, 이규성, 이영구, 조재림	김 인, 정재윤	왕진만
1992	김기용	김기수, 김남현, 김영태, 김홍태, 문명상, 박병문, 석세일, 윤승호, 이규성, 이영구, 조재림	김 인, 정재윤	왕진만

연도	회장	평의원	감사	간사
1993	김남현	김기수, 김기용, 김영태, 김홍태, 문명상, 박병문, 석세일, 이영구, 윤승호, 정영기, 조재림	김 인, 정재윤	왕진만
1994	김홍태	김기수, 김기용, 김남현, 김영태, 문명상, 박병문, 석세일, 왕진만, 윤승호, 이영구, 정영기	김 인, 안면환	조재림
1995	왕진만	김기수, 김기용, 김남현, 김영태, 김홍태, 문명상, 박병문, 석세일, 이영구, 윤승호, 정영기	안면환, 이상언	조재림
1996	이영구	김기수, 김기용, 김남현, 김영태, 김홍태, 박병문, 석세일, 왕진만, 윤승호, 정영기, 조재림	안면환, 이상언	조재림
1997	김기수	김기용, 김남현, 김영태, 김홍태, 박병문, 석세일, 왕진만, 윤승호, 이영구, 정영기, 조재림	안면환, 채인정	박승림
1998	정영기	김기수, 김기용, 김남현, 김영태, 김홍태, 박병문, 석세일, 왕진만, 이준규, 정재윤, 조재림	채인정, 박희전	박승림
1999	조재림	김기수, 김기용, 김남현, 김영태, 김홍태, 박병문, 박승림, 석세일, 왕진만, 이준규, 정영기, 정재윤	박희전, 송경원	이춘기
2000	박승림	김기수, 김기용, 김남현, 김영태, 김홍태, 박병문, 석세일, 왕진만, 이준규, 정재윤, 정영기, 조재림	박병철, 송경원	이춘기
2001	김영태	김기수, 김영태, 김홍태,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왕진만, 이준규, 정영기, 정재윤, 조재림, 조재림	신병준, 유재원	이춘기
2002	박병철	김기수, 김영태, 김홍태,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왕진만, 이준규, 이춘기, 정영기, 정재윤, 조재림	유재원, 하기용	신병준
2003	이준규	김기수, 김영태, 김홍태,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왕진만, 이준규, 이춘기, 정영기, 정재윤, 조재림	유재원, 하기용	신병준
2004	정재윤	김기수, 김영태,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안면환, 이준규, 이춘기, 정영기, 정재윤, 조재림, 하기용	유재원, 하기용	신병준
2005	박희전	김기수, 김영태, 박병철, 박승림, 신병준, 안면환, 이준규, 이춘기, 정영기, 정재윤, 조재림, 하기용	이춘성, 심대무	이환모
2006	안면환	김기수, 김영태,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신병준, 유재원, 이준규, 이춘기, 정재윤, 조재림, 하기용	이춘성, 심대무	이환모
2007	하기용	김영태,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신병준, 안면환, 유재원, 이준규, 이춘기, 이춘성, 정재윤, 조재림	강철형, 이춘성	이환모
2008	이춘기	김영태,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신병준, 안면환, 유재원, 이준규, 이춘성, 이환모, 정재윤, 조재림, 하기용	강철형, 장호근	김동준

연도	회장	평의원	감사	간사
2009	유재원	김영태,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신병준, 안면환, 이준규, 이춘기, 이춘성, 정재윤, 이환모, 하기용	장호근, 김환정	김동준
2010	신병준	김기택,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안면환, 유재원, 이종서, 이준규, 이춘기, 이춘성, 이환모, 정재윤, 하기용	김환정, 김응하	김동준
2011	이춘성	김기택, 박병철, 박승림, 박희전, 신병준, 안면환, 김동준, 유재원, 이종서, 이준규, 이춘기, 이환모, 정재윤, 하기용	김응하, 이규열	조규정
2012	이환모	김기택, 김동준, 박병철, 박희전, 신병준, 안면환, 유재원, 이종서, 이준규, 이춘기, 이춘성, 정재윤, 하기용	이규열, 민학진	조규정
2013	이종서	김기택, 김동준, 김환정, 박희전, 신병준, 안면환, 유재원, 이규열, 이춘기, 이춘성, 이환모, 전창훈, 정재윤, 하기용	김용민, 민학진	총무: 조규정 부총무: 이동호
2014	김기택	김동준, 김환정, 박희전, 신경현, 신병준, 안면환, 유재원, 이규열, 이종서, 이춘기, 이춘성, 이환모, 전창훈, 최용기, 하기용, 황일웅	김용민, 이석하	총무: 조규정 부총무: 이동호
2015	이규열	김기택, 김동준, 김환정, 박희전, 신경현, 신병준, 안면환, 유재원, 이종서, 이춘기, 이춘성, 이환모, 전창훈, 최용기, 하기용, 황일웅	이석하, 정순택	총무: 석경수 부총무: 이동호
2016	김환정	김기택, 김동준, 김학선, 박희전, 박근호, 신병준, 안면환, 유재원, 이규열, 이종서, 이춘성, 장봉순, 전창훈, 조규정, 최용기, 하기용, 황일웅	박예수, 정순택	총무: 석경수 부총무: 이동호
2017	전창훈	강철형, 김기택, 김동준, 김학선, 김환정, 박근호, 신병준, 유재원, 이규열, 이종서, 이춘성, 장봉순, 조규정, 최용수, 하기용	박예수, 정순택	총무: 이동호 부총무: 박시영
2018	김동준	강철형, 김기택, 김학선, 김환정, 박근호, 신병준, 유재원, 이규열, 이종서, 이춘성, 장봉순, 전창훈, 조규정, 최용수, 하기용	김태균, 고영도	총무: 이동호, 부총무: 박시영
2019	김학선	강철형, 김기택, 김동준, 김태균, 김환정, 박근호, 박종범, 신병준, 유재원, 이규열, 이종서, 이춘성, 장봉순, 전창훈, 조규정, 최병섭, 최용수	고영도, 김동수	총무: 이재협 부총무: 박시영
2020	조규정	강철형, 김석우, 김태균, 남우동, 박원욱, 박종범, 석경수, 장봉순, 최병섭, 최용수	김동수, 전득수	총무: 이재협 부총무: 박시영
2021	장봉순	강창남, 김석우, 김진환, 김태균, 남우동, 박원욱, 박 용, 박종범, 서보건, 석경수, 염진섭, 이동호, 이재철, 안동기, 조규정, 최용수	전득수, 손홍문	총무: 박시영 부총무: 양재준
2022	최용수	강창남, 김석우, 김진환, 김태균, 남우동, 박원욱, 박 용, 박종범, 서보건, 석경수, 안동기, 염진섭, 이동호, 이재철, 조규정	나화엽, 손홍문	총무: 박시영 부총무: 양재준
2023	김태균	강창남, 김석우, 김용찬, 김진환, 남우동, 박원욱, 박 용, 박종범, 서보건, 석경수, 안동기, 염진섭, 이동호, 이정섭, 이재철, 조규정, 최용수	나화엽, 김정환	총무: 양재준 부총무: 박세준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사를 발간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 4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 이재철, 총무: 김호중

출판위원회 팀장: 양재혁, 미래발전위원회 팀장: 조재환

위원: 강경중, 고종현, 권지원, 김성규, 박대현, 박시영, 박재진, 박현진, 박형열, 조대환, 안중현, 이석중,
이호진, 장삼열, 장해동, 최성훈

지난 1년 동안 척추외과학회 4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념집을 작성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최용수, 김태균 회장님과 함께한 위원회의 첫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미팅을 거듭하면서, 40주년 행사의 집필 방향과 목적, 캐치프레이즈를 확정하고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40주년사는 과거의 여정과 결과를 담은 기록집이자, 회원들의 기억을 되짚어 보는 회고록이며, 앞으로 10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념집으로 작성하고자 하였고, 특히 20년사와 30년사 기록을 바탕으로 학회의 발전 과정과 성과를 충실히 담고자 했습니다.

40년사를 집필하면서 쓰자면 한이 없이 늘어나는 출판 비용, 학회 자료 수집의 한계와

집필 진행사항 확인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태균 회장님, 양재준 총무님의 리더십과 지원이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집된 방대한 자료 확인의 어려움, 40년사 내용 구성 및 향후 학회 미래 비전에 대해 어떻게 구성할 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김호중 총무의 총괄적인 지도력과 양재혁 출판위원회 팀장, 조재환 미래발전위원회 팀장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집필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해 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신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0주년사 발간은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발전과 성과를 기리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40주년사를 공유하면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과거 노력 및 열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현재의 성취에 자신감을 가지며 미래에 있을 발전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40년사

40th Anniversary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발행처 | 대한척추외과학회

주 소 | (1032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10층 정형외과 의국

전 화 | 031-966-3413

E-mail | korspine@hanmail.net, office@spine.or.kr

홈페이지 | www.spine.or.kr

발행인 | 김태균

인 쇄 | 도서출판 간디서원 (02-3477-7008)

인쇄일 | 2024년 5월 2일

발행일 | 2024년 5월 22일

© 대한척추외과학회, 2024

* 이 책의 저작권은 대한척추외과학회에 있으며 대한척추외과학회의 허가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2024 by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All Rights Reserved.